

igital

세상을 바꾸는 힘- 디지털 LG

오늘은 물론 다음 세대의 행복까지-
디지털 리더, LG가 혁신적인 디지털제품과
서비스로 더욱 흥미롭고 편리한
디지털 세상을 만듭니다.



LG 전자CU

LG전자

LG정보통신

LG LCD

LG정밀

LG마이크론

LG하디씨

이웃과 놀자!

feminist journal

if

페미니스트저널 이프

남녀의 경계선이 무너진다

조성현, 이경섭, 이종조가 말하는
'한정애'

여성학과 협시을가이드
김우중 회장님께 보내는 '편지'
가민난 여권남자 김중서

이소, 박 전영성, 이소 (미술관 옆 동물원)의 여성학
스트 온경로 교수와
'(적어스트)에는 어휘망이 없다'

영 "너는 얼마 여비도 없나?"
영기 내경도 스케줄은 있다
영전 올림과 투쟁년



99 카운
8,500원

이 세상 가장 향기로운 커피는
당신과 함께 마시는 커피입니다



향·아·종·은·커피 **맥심**

'지구가 둥글다'는 맨 처음 생각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건강을 전하는 행복의 메신저
빙그레의 '맨 처음생각'이
'최초 제품'을 만듭니다



요구르트를 바꾼 요구르트! 최초로 유산균을 캡슐에 싸 정(精)까지 실어서 가게 만듭니다

아이스크림을 바꾼 아이스크림! 최초로 생우유를 사용해 아이스크림의 맛과 영양을 높입니다



라면을 바꾼 라면! 최초로 콩유 대신 콩기름으로 라면을 만듭니다



국시장국 속에 맛있는 국물요리가 보인다!



부글부글 전골국물에!

가다랭이가 들어있는 국시장국을 넣으면 국물맛이 제대로 나지요

개운한 라면국물에!

국시장국을 넣으면, 느끼한 맛이 사라지고 개운한 국물이 됩니다

달백한 짜장국물에!

달백한 맛을 원한다면 국수보다는 국시장국을 넣으세요

시원~한 냉국에!

여름철 냉국안들가에도 국시장국이 필수, 국물맛이 더 시원해집니다



라면에두!



느끼하지 않은 장국라면

스프라이드 국시장국을! 자극적인 스프를 조금씩 빼고 라면만 끓인 후 간에 맞게 국시장국을 3~4큰술 넣으면 텁텁하고 짜지 않은 담백한 장국라면이 됩니다



깔끔한 맛의 시원라면

스프라이드 국시장국 반! 스프는 약 절반만 넣고 라면이 다 끓은 후 국시장국을 1.5~2큰술 넣어주면 느끼한 맛 대신 시원한 맛이 남니다



여자니까 들어야 하는 보험이 있어요.



남편이나 아이가 아플 땐

이 병원 저 병원 쫓아다녀도,

정작 내 몸은 제대로 한번 돌본적

없지 않으십니까? 가족을 위해서라도

먼저 주부가 건강해야 합니다.

월 2~3만원의 저렴한 보험료로 여성들의 각종 질환을 중점 보장해 드립니다.

- 여성특정암(자궁, 유방, 난소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발생시 2,000만원까지 보장
- 부인과 질환, 골다공증(골절), 관절염 등 각종 질환에 대한 수술비, 입원비 고액보장
- 장기입원시 장기간병자금 및 건강회복자금 지급
- 재해로 인한 골절발생시와 교통재해 입원시 응급치료비 지급

삼성생명

여성시대 건강보험

*종양, 폐경 등 11개 일간지 '98년 1월 상품 선정

•MBSAM '98년 2월 10일 1차
간행자 회의

가족사랑 이웃사랑

SAMSUNG

삼성생명

삼성생명 여성시대 건강보험에 대한 자세한 문의
 *전화문의처: (080-0118) ● 서울지역본부: 02-3706-3731 ~ 8 ● 강남지역본부: 02-3451-1361 ~ 9 ● 경기지역본부: 02-791-6090 ~ 4 ● 부산지역본부: 051-630-6305, 6302
 *대구지역본부: 053-250-5825 ~ 8 ● 호남지역본부: 062-230-5231 ~ 5 ● 충청지역본부: 042-229-0121 ~ 7 ● 인터넷 홈페이지: www.samsunglife.com

'이태리소스와 면의 맛있는 결혼'



토마토가 그대로 씹히는 이태리 본고장의 맛!

토마토, 피망, 양파, 셀러리 등의
신선한 알갱이가 그대로 살아있는 이태리의 진한 풍미 -
이제, 가정에서 간편하게 즐기세요.



**프레스코
스파게티소스**



우리나라
빙빙공공에
고고마콜드가
열렸습니다!



길을 가다 콜드가
마시고 싶으면
드다세요~!

밖에서 마시는 냉장주스
고고마콜드



“너를 가지면 자유가 된다”

내가 꿈꾸는 자유는 네 안에서
지금 나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을지
언제나 내 가슴을 두드리는
너의 강한 신호음이 있기 때문이다.

어디서나 통하는 강한전파 -
너를 가지면 자유가 된다.

전파의 힘은 강력하다!
파워디지털 아7



시집은 안가고 결혼만 할 수 있을까?

무슨 뜻인지 같은 소리나고 하겠지만 시집가는 것과 결혼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결혼은 사랑하는 남녀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 동등하게 두 사람의 공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고, 시집가는 것은 여자가 남자쪽 집안으로 '흡수 통합'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도 남자집안 서열상 맨 아래로, 이때 여자의 인격은 철저히 무시된다. '키머거리 3년, 병어리 3년, 장님 3년'이라는 이른바 '시집살이 수칙'은, 여

자에게 있어 '시집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웅변해 준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워야 할 황금기 9년을 이렇게 참담하게 보내야 한다면 전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유교가 신봉하는 교리(?) 중 하나가 장유유서인데도 시집간 여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 나라 말은 말씨가 인간간의 서열을 구별해 주는 바로미터인데, 성인여자가 코흘리개 시동생, 시누이에게도 존댓말을 해야 하는 것이 법도라고 한다. 이것만 봐도 시집에서 며느리의 서열은 나이와 상관없이 맨 아래, 노비의 바로 위가 아니었던가.

노비가 없어진 후부터는 며느리가 노비의 일까지 떠맡는 종의 신세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성의 대상으로 복종해야 하고 남자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줘야 하는 의무까지 따른다.

시집을 가면 문서상으로 어떻게 관리되는지 한 번 짚어보자. 친정집 호적을 파서 시집 호적에 심는데 과간 자리는 죽은 사람처럼 X표가 쳐진다. 붉은줄이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지만 인격이 죽었다는 면에선 반은 죽은 거나 진배없다. 이프 모니터모임에서 만난 한 여성은 친정호적에 X가 쳐진 자신의 이름을 보고 가슴이 섬뜩했었다고 털어놓았다.

시집 호적에 올랐어도 그 집안식구는 아니다. 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서양은 결혼하면 남편성을 따라 온 가족의 성이 같아지지만 우리 나라는 영원한 이방인으로 남겨둔다. 여성의 고유한 성을 존중한 조치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천만의 말씀. 의무는 지되 권리에서는 제외시키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을까? 가장 중요한 척도인 재산과 자녀에 대한 권한이 여자에게 있었는가? 물론 최근에 와서 그 맵다던 시집살이도 조금 나아지고 재산과 자녀에 대한 권한도 조금씩 개선되어가고 있지만 워낙 오랜 세월 동안 불평등구조가 지속되었다보니 여성들조차 새로 생긴 권리를 알지도 못하고 남자들은 그 동안의 인습을 들먹이며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것이 '시집가는 것'에 따른 권력구조의 실상인데 여성들은 왜 시집가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까? 심지어 시집을 못 가 안달하고, 시집을 못 보내 안달하는 것이 여자들이다.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선택이든 대세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 불행해도 다 함께 불행해지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까?

여성들이여, 시집가지 않고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잘못된 인습과 제도에 침몰되어 아까운 인생을 망치지 말고 대안적인 삶의 방법을 창조해 보라. 21세기는 다양성의 시대다. 라이프스타일도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미국여성의 결혼율은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한다. 여성에게 있어 결혼은 이제 필수가 아니라 선택인 시대가 됐다. 하물며 결혼도 아닌 시집이라니? **11**

발행인 김민숙

고개 든 남자



김영삼
"나는 독재에 대한 투쟁으로 장기집권 음모를 저지하겠다. 이것이야말로 내게 밝혀진 역사의 소명이라고 믿는다."
—7월 26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성명 중에서
사진 문화일보



김영훈
"대우의 구조조정은 이제부터 마무리 단계이며 자신있게 마무리하겠다. 우리가 약속하고 안지킨 것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7월 25일 김우중 회장의 기자회견' 중에서
사진 문화일보



전관
"유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니 든든하다."
—6월 30일 서부전선 최전방 부대 방문 때 방영록에 '자신 있게 씀'
사진 조선일보



김율환
"내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 나라 모든 선거는 불법으로 치러진 것일 겁니다."
—7월 15일 서울지법 형사 30부(재판장 이근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사진 문화일보



신창완
"나는 경찰에게 전쟁을 선포한다. 나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7월 19일 공개된 신창완의 일기에서
사진 문화일보

고개 숙인 여자



한경
"아저씨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한다."
—5월 9일 스포츠투데이 지문소통부대리



주연
"억울하다..."
—7월 15일 중앙일보 사진 문화일보



배정숙
"성경에 손을 얹고..."
—8월 23일 국회청문회에서
사진 한겨레



손숙
"사회정서가 여성이 장관을 하기가 참 어렵고 비협조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6월 25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사진 문화일보



백지연
"중요한 것은 내 아들의 미래다. 나는 내 아들에 떼어놓지 못한 일을 결코 한 적이 없다."
—8월9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사진 문화일보





박영숙, 《미친년들》, C프린트, 1999. (왼쪽)



'99여성미술제
팔쥬들의 행진

(한양대서 "집중방해" 102~106쪽)



1. 안기덕, 《어디서 무엇이 되어》, 혼합재료, 1990.
2. 정소연, 《부드럽고 따스한 육조와 그 허물》, 털실·에폭시·알루미늄, 1998.
3. 박소영, 《타는 무덤》, 파라핀·무명실.
4. 이불, 《히드라Ⅱ》, 혼합재료, 1999.



메주는 묵히면 장이 되지만
변비는 묵히면 병이 됩니다

“아락실 장마사지로
하루 한번 화장실!”



이젠, 묵히지 말고 비우세요!

하루 이를 사흘... 변비를 계속 묵히면
나중엔 더 큰 병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배변습관은 하루 한번!
이젠 묵히지 말고 매일매일 비우세요.

하루 한번, 깔끔하게 비우세요!

아락실은 식이섬유소가 대장 속에서 굉장
마사지하듯 장의 운동리듬을 되살려주니까
장 속은 깔끔해지고, 기분은 상쾌해집니다.
아락실 장마사지로 하루 한번 비우세요!



식이섬유성분의 상쾌한 변비
아락실

스타비평1

계속해서 위해서라도 스타 아케팅이 필요하다?

살다보니 별 희한한 소리가 다 있네요.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 스타의 가치,
그들을 보는 시각이 확 달라집니다.

서론, 시작도 끝도 없는 육체의 잔치/김혜수
조작된 색지한 이미지/엄정화
한여름 밤의 헛소동/이승희
귀여운 막가파의 매력/고소영
재판없는 범죄자/진도희
ZOT같은 세상 제대로 육하기/조PD
한국형 케미니스트?/구성애
아름다운 죄/백지연

우·리·시·대·스·타·이·야·기



번외제 외 지음
296쪽 / 정가 7,500원

인물과
사상시

「인물과사상」은 실명 비판문화의 정착과 사회 구성원들이 가진
다양한 생각들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출발하였습니다.



content 99 autumn

11 if를 열며

시집은 안 가고 결혼만 할 수 있을까?

257 전국 10개대 여성학과 입시 가이드(황금희)

44 남자에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더니... 셀러리맨의 우상 김우중 회장님에게(장영희)

50 이쁜 남자

복커 김종서, "일에 푹 빠진 여자가 매력있다" (권혁람)

138 이여자

(미술관 옆 동물원) 감독 이정형(전혜성)

180 과학칼럼

진짜 <카이스트>에는 이휘향이 없다(윤정로)

247 if연재소설

태사랑 투명반창고 — 니네브의 사랑(이숙인)

64 특집 남녀의 경계선이 무너진다

66 홍석천, 추자현, 이정섭, 이광조가 말하는 '나만의 인기비결' (박선민)

74 음양이론 다시 읽기(이숙인)

78 서양사 속의 남장여성들(백영경)

82 남자이름 쓰기와 남자옷 입기—조르주 상드 사례를 중심으로(류숙렬)

86 새로운 '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권혁람)

94 제3의 성, 동성애자 & 트랜스젠더(한채운)

98 트랜스젠더 집중인터뷰 "토요일 밤에 드렉쇼를 보러 오세요"

104 사례 7명의 남녀가 말하는 '너무 피로운 성별 고정관념'

73, 93, 97 성역할 테스트 당신은 어떤 유형일까요?

12 FEMALEGAZE

고개 든 남자, 고개 숙인 여자
'99여성미술제 팔취들의 행진



페미니스트저널

if



남자의 성경험 56

나는 아직도 그네들이 그림다(전병문)

고온부인 도끼들었네 60

여자가 호주되면 공가루집안?(고온광순)

긴급보도 64

백지연씨 보도에 대한 의견서

122 뉴스우연

일간지 최초 여사장인 한국일보 장영수 사장/『...나는 돈이 좋다』책 낸 오숙희/성, 피임을 주제로 해외최대 다중미디어 제작한 전여옥/『사위에게 주는 요리책』과낸 박형욱·박이은경/유아에서 성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한 이트신재현/부관장 김성정/〈용가리〉제작의 주역 양구이트루비 유희정/새로운 개념의 시용반 발표한 시인 위승희/〈여성인권문화를지향하는모임〉상임이사 임정희

38 우연스프링

여성민주회(---21C 여성축제)/교회내 성폭력 방지 토론회/

여성신문 아줌마페스티벌 등(김보미)

온라인뉴스 42

여성관련 사이트 소개/여성네트즌 여론형성 한 뒤/

여성창업 정부지원 등(최혜숙)

유채지나의 영화산책 46

올 여름 한국영화, 여성을 지우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유령〉,〈용가리〉 등

집중탐색 152

'99여성미술제 '팔취들의 행진' / (99여성미술제 기획위원회)

IF SPIRIT

웃자!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려왔다. 그러나 이번 웃고 있다. 웃음은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든다. 특별한 정서적인, 자존감으로의 완수적인 그렇게 웃고 있다. 자, 웃자!

놀자!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려왔다. 그러나 이번 놀고 있다. 놀이는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든다. 특별한 정서적인, 자존감으로의 완수적인 그렇게 놀고 있다. 자, 놀자!

웃자!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려왔다. 그러나 이번 웃고 있다. 웃음은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든다. 특별한 정서적인, 자존감으로의 완수적인 그렇게 웃고 있다. 자, 웃자!



content 99 autumn

157

REVIEW ADVERTISING

광고의 영원한 '봉', 아줌마(이남경)

REVIEW CARTOON

『캔디캔디』를 다시 보다(남선경)

REVIEW CINEMA

프리티우먼, 신데렐라우스를 만나다(이순주)

REVIEW MUSIC

'돌아와'의 김태원 인터뷰(김보미)

REVIEW BOOK

이프가 뽑은 가을의 책(김정복, 우안녕, 윤숙경)



수다방 184

"너는 예미 예비도 없나?"

if웃이하기 196

한국의 혼례복(이재진)

어머니들이 만든 세상 201

오늘도 엄마는 비자금을 공갈까?

이탈면 이렇게 212

'꽃뚱 독신'의 조건(최창희)

상대적이고 적대적인 페미니스트 백과사전(난영) 213



표지 : 이번에는 누드를 삼가이지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또 누드사진의 누앙스를 풍긴다. 그것도 여자와 남자가 함께 있는. 평소 뜨개질 등 여성스러운 일을 좋아하는 부드러운 남자 이정우씨는 수월 때문에 남성적으로 보이고, 큰 키에 활명한 험한 스타일을 즐겨 입어 남자 같았던 전현경씨는 막상 얼굴만을 클로즈업하니 너무 곱다. 여자 같은 남자, 남자 같은 여자를 얼굴만으로 표현하기가 힘들다는 판단을 내리고 그들의 표정에 담긴, 성별정체성의 혼재로 인한 복잡묘한 내면세계를 표현해 보려 했다. 이정우씨와 전현경씨는 본지 특집 『와아!』 상권에서, 그냥 내려려워,의 취재대상이기도 하다.

제호 : 집자의 장르를 설명하는 '페미니스트자집'과 고유이름 'F'를 합해서 만들었다. F는 페미니스트들이 '반역'에-'라고 가장해 본 세상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페미니즘이 완결된 어떤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발전하는, 그리고 틀에 얽매이지 않는 페미니즘(infinite feminism)이라는 의미에서 아날로그임을 수도 있다. 그 외에도 f m Feminist 또는 f m Female로도 해석할 수 있다.



CROSSOVER 223

세계의 여성들 224

스포츠 '여성전성시대' /

여자로 성전환한 유명 경제학자 /

'동일한 즐거움에 동일한 상급' 주장한 뽀빠리 여자선수들 /

미국인 딸 선호경향 강하다 외 /

(김신명숙, 우혜전 외)

사이버원도우 232

아시아여성들의 정보화 진입(장여경)

발굴 236

매매춘으로 내몰린 조선시대 여성들(정성희)



허스토리 216

임정숙 — 독기품은 여자가 천사보다 아름답다(박미숙)

백수일기 220

내게도 스케줄은 있다(변진석)

누워서 침뱉기 240

페미니스트의 '인간에 대한 예의' (정고미라)

여성과 수면 244

새로운 걸 만들려면 먼저 덜어낼 줄 알아야(김정희)

if는 사랑을 싣고 267



만화

116 색녀열전

음란과 투기란 뉘(장차현실)

137, 195 난나의 if세상

똥가 문제야? / 어떤 맞선

우리 나라 여성언론사에 새로운 기록이 만들어졌다. 지난해 1월 여성주필 1호를 기록하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한국일보 장명수(58)씨. 그가 이번에는 일간지 여사장 1호의 기록을 세운 것이다. 기자 출신 일간지 사장도 드문 일인 데다 세계적인 여가자가 사장이 된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장명수씨의 사장 취임은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사장에 임명된 지 꼭 일주일만인 8월 23일 사장실에서 만난 장명수씨의 모습은 예상과는 조금 달랐다. 63년 한국일보에 입사, 82년부터 쓴 칼럼은 쉽고 거침없고 날카로운 글로 유명하다. 이 때문에 한국일보에선 새로 들어온 견습기자부터 회장까지 그를 '장칼'이라고 부른다. 최근 강준만 교수는 '전수를 쓰지 않고 정곡을 찌른다'는 점에서 그를 남녀를 불문하고 우리나라 최상급 칼럼니스트로 꼽기까지 했다. 그에 대한 주위 평판을 종합해 보면 그는 아주 대범하고 당찬 여장부로 그려진다.

하지만 실제 모습은 생각보다 온화하고 따스했다. 야심찬 여성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자신만만한 표정이기보다 주저하면서도 조심스러워하는, 그러나 마음 속에 강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라고 할까. 그는 누구나 한번쯤 욕심내 볼 만한 자리를 앞에 두고 상당히 오랫동안 고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에 속했다.

"솔직히 저는 주필이 되고 싶다는 편집국장이 되고 싶다는 하는 꿈을 못 꾸었어요. 주필이 됐을 때도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 뒤에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사장도 일주일을 주저하고, 걱정했어요. 그런 자리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는 왜 자신이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애초에 접었던 걸까. 장명수씨는 "자신이 오래된 남성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정리했다. 사실 그 역시 언론사의 관행화된 성차별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그의 동기들이 한창 부장으로 승진하던 80년 중반 무렵 부장인 자신의 동기 밑에서 차장 노릇을 해야 했고, 후배들이 편집국장으로 승진할 때 부국장의 직함을 달고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그런 과거를 그는 "참는 힘을 길렀던 시기"로 기억한다. "승진할 연배가 되면서 내가 완전히 뒷줄에 서 있다는 걸 그 때 처음 알았죠. 그러나 사람은 뒷줄에 서보기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 그 때 소외집단에 대해 이해하는 걸 배웠습니다. 못 견디게 힘든 상황들을 끝까지 버티면 그만큼 교훈이 생깁니다."

37년 기자생활을 마감하고 자신이 몸담고 있던 회사의 최고경영자가 되면서 그가 계획하고 있는 경영전략은 과연 무엇일까.

"만일 여기가 과자공장이라면 어떻게 과자를 가장 맛있게 만드는가가 핵심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문사는 어떻게 하면 신문을 잘 만드는가가 핵심이겠죠. 저는 우리 한국일보 가족들에게 한국일보의 창간정신, 즉 시시비비를 가려낼 줄 아는 젊은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호소하고 싶어요. 과거 한국일보가 정상에 섰던 것은 바로 그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때의 열정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젊은 여성들에게 들려줄 삶의 조언을 부탁하자 장명수 사장은 "자신의 꿈에 커트라인을 두지 마라"고 당부한다. 비록 자신은 꿈의 한계를 두고 살아온 사람이지만 후배들은 다르게 살았으면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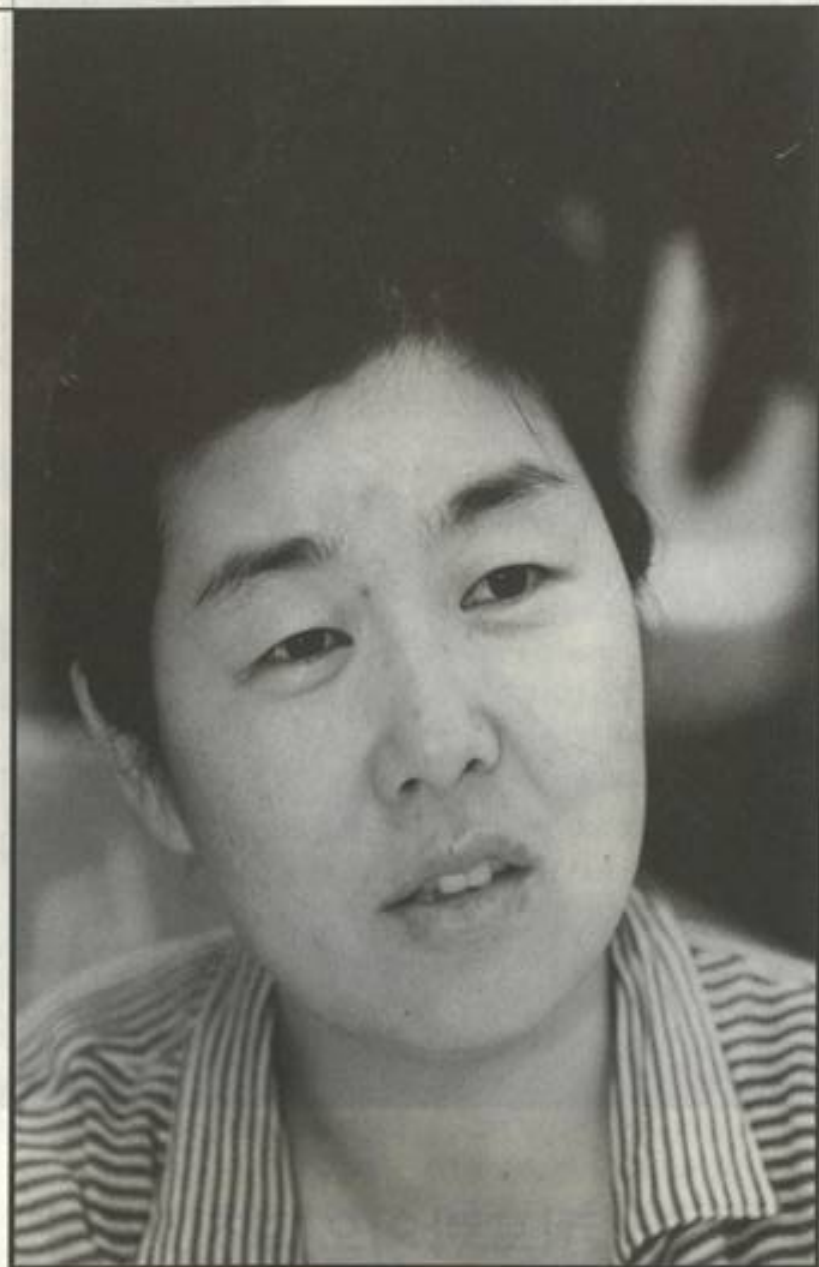
"만약 자신이 원하는 바로 그 자리에 못 오르더라도 난 여기까지만 준비하지는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말고 아주 높고 넓게. 언제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는 거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꿈을 설계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리 그 자체에 대한 야심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싶다는 야심을 품으라고 말이에요." ■

글 최진숙 / 사진 여성신문



“자신의 꿈에 커트라인을 두지 마라”

일간지 최초로 여사장 취임, 장명수 한국일보 사장



“솔직히 말해 나는 돈이 좋다”

‘직격선언’ 책으로 낸 오한숙희

한 올 한 해 제멋대로 이마 위를 점령하고 있는 반 고흐의 머리카락, 화장기가 없어서 그 나이 또래 여자들에게 으레 있는 기미며 주근깨가 마구 드러나 있는 얼굴. 시간 맞춰 오기 위해 반은 걷고, 반은 뛰었다는 듯 숨가쁘게 인터뷰 장소에 도착한 그여자의 얼굴에서 함박웃음 소금기가 느껴진다. 탑소사, 사진 찍어야 되는데... 황망해하는 내 표정을 읽었는지 그 여자가 먼저 선수를 친다. “이프라서 편하게 하고 있는데...”라고.

하긴 조금 촌스럽고, 조금 호들갑스럽고, 조금 평범해보이고, 조금 수다스럽고, 조금 털털해 보이는 이 여자 오한숙희가, 뽀득득 소리가 날 정도로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왔다면 오히려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배낭 하나 훌렁 둘러메고 앞뒤로 꼭 찍인 스캐줄을 헤치면서 딸에 짙은 얼굴에 바람맞은 머리로 나타난 그의 모습이 바로 이프 독자가 기대하는 오한숙희 그대로이지 않은가.

최근 그가 책을 한 권 냈다. 제목도 오한숙희답게 「솔직히 말해서 나는 돈이 좋다」(여성신문사)다. 우리 사회에서는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알뜰살뜰 짬짬이나 만들어놓아야 살림꾼이라는 소리를 듣지, 여자가 직접 돈을 만져보겠다고 나서면 너나없이 끝끝히를 찬다. 뭘 여자가 돈을 그렇게 밝히냐며. 그런데 오한숙희가 난데없이 돈 이야기를 하자고 나섰다.

“나는 고등학교 일학년 때부터 등록금을 내 손으로 벌었어요. 그리고 평생 직업인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여성으로 살아오면서 돈을 어떻게 다루면서 살아야 되는지, 돈에 상처받지 않고 사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그것을 글로 옮겨봤지요.”

돈 이야기를 할 정도면 그 역시 제법 많은 돈을 벌지 않았을까. 한 번 책을 냈다하면 7~8만 부는 거뜬히 팔릴 정도로 베스트셀러 작가인 데다 잘 나가는 방송인이고, 현재 교육방송에서 매주 일요일 저녁 6시에 <터놓고 말해요>를 진행하며 온갖 여성, 사회단체 행사의

사회를 도맡다시피 하고 있고 대학강의는 물론이고 온갖 연수교육 프로그램에서 빠지지 않는 명 여성학강사니 말이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란다. “강의가 10번 있으면 그중 너댓 번은 무료강의”인 데다 “김포에 마당 넓은 집을 살 때 대출 받는 바람에 빚쟁이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다.

“농담삼아 절대 정치 못한다. 집이 세 채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7평짜리하고 13평짜리 연립주택이 한 채씩 있고, 지금 우리가 사는 김포집이 있으니 사실 이 그렇죠. 7평짜리는 이혼하고 내가 딸들과 살던 곳인데 언니네 식구하고 합치면서 너무 좁아서 내놔야 안 팔려서 전세놓고, 그 다음에 13평짜리 연립 이층을 샀는데 조카가 장애인이라 살기 불편해서 팔려고 내놔는데 안 팔려서 또 전세놓고, 김포집은 그래서 빚을 내서 샀어요. 연립주택만 팔리면 빚은 다 갚는데...”

그러면 그렇지. 그의 김포집은 비록 지은 지 30년이 넘은 구옥이지만 마당에 15평 정도 규모의 너와지봉 황토집을 하나 더 얹힐 수 있을 정도로 널찍한 집이다. 그는 아주 오래 전부터 구질했지만 포근한 느낌을 주는 야트막한 토담과 흙집에서 살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소원을 이룬 것이다. 그 황토집에서 매달 한 번씩 그가 대표로 있는 김포여성민우회의 월례모임 행사가 열린다.

마흔을 갓 넘긴 그가, 부양가족을 줄줄이 거느리고 있는 여성가장의 몸으로 이룩해 놓은 재산은 결코 녹록치 않다. 그는 열심히 일해 왔고, 일한 만큼 벌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돈 얘기는 더욱 들을 만하다. 인터뷰가 대충 끝났다 싶자 커피숍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끗 쳐다보던 그가 용수철처럼 일어선다. 다음 약속시간에서 5분 남짓 지났기 때문이다. 그는 내려놓았던 배낭을 후다닥 둘러메고 인사도 하는 등 마는 등 곱슬머리 몇 가닥을 날리며 예의 그 빠른 걸음으로 커피숍을 빠져나간다. 그의 하루 24시간을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 [E] 글 황금희 / 사진 조여권

“피임기술 발전은 여성인권의 척도”

선진국 피임문화
취재한 전여옥

우리나라 여자들은 산부인과를 잘 안 간다. 초경을 경험한 여성들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산부인과라는 독일의 실정과는 천양지차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산부인과는 박철수감독의 영화 <산부인과>에서처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온전히 훑쳐보고 싶은 베일 뒤에 감춰진 공간으로 여겨진다. 여자들이 산부인과와 친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 특유의 성문화 탓만은 아니다.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온 여자들 중 열에 일곱은 그것을 불쾌한 경험으로 떠올린다. 산부인과 기술이 여성을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발달해 왔기 때문이다.

「일본은 없다」, 「여성이어 테러리스트가 돼라」, 「여성이어 느껴라 탐험하라」 등을 패내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방송인이자 페미니스트 집필가인 전여옥씨가 바로 그 문제에 천착해 들어가기 시작했다. 현재 방송제작프로덕션인 리마주프로덕션 대표로 있는 그는 최근 독일, 영국, 미국 등 선진국 여성들의 성, 피임 그리고 결혼에 대해 집중취재해 '21세기 성, 피임, 그리고 결혼'이라는 주제의 3부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93년도에 처음 피임문제를 취재했는데 당시 우리나라의 임신중절 수가 150만 건에 이르렀거든요. 근데 97년도에 제가 「여성이어, 느껴라 탐험하라」를 집필하면서 임신중절수를 점검해 봤는데 150만 건 그대로더라고요. 낙태 건수로 세계 2위예요. 이론적으로는 남녀평등을 수용하지만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는 가부장적인 잔재들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실정을 잘 보여 주는 수치라 할 수 있지요.”

영국의 임신중절 수치는 1년에 20만 건 정도. 우리의 6분의 1수준이다. 그 수치도 너무 높다고 영국사회는 난리라고 한다. 피임률을 높여 여성들이 불필요하게 위험천만한 임신중절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성단체는 물론이고 영국정부와 관련기관들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에는 마가렛파이크센터라는

피임만 전문으로 다루는 병원이 있을 정도다. 그곳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을 충분히 상의하고 피임법에 대해서도 상담을 하게 된다.

70년대 인구통제를 위해 국가가 직접 여성들에게 불임시술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것은 국가가 여성의 몸을 통제하면서 정작 여성이 스스로 가져야 할 몸에 대한 권리를 박탈한 거예요. 여자들이 자기 몸의 특성을 이해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독립할 수 있으려면 여성의 몸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이것을 여성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해요.”

영국의 한 학자는 “20세기에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은 피임약”이라고 꼽는다. 그만큼 피임법의 개발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혁명적으로 전환시키고, 여성을 성과 출산의 노예에서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전여옥씨는 피임문화는 성, 결혼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말한다. 여성이 자신의 출산권을 통제할 수 있으면 성이나 결혼생활에 있어서도 훨씬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미혼모만 있고 미혼부는 없는 게 우리 나라잖아요. 미혼모가 생기면 반드시 그 파트너도 찾아내서 함께 책임을 물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여성들 각자가 성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대안적인 실천이라면 바로 적절한 피임법을 익히는 것이겠지요.”

전여옥씨는 그 동안 사랑, 결혼, 성, 직업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며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이슈를 제기해 젊은 여성들이 독립적인 삶을 쟁취할 것을 주장해 왔다. 피임문화에 대한 이번 취재프로그램 역시 그가 해 온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씨의 이번 취재프로그램은 지난 7월 SBS방송을 통해 3부작으로 방영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오는 11월에는 책으로 묶어 출간할 예정이다. □

글 황금희 / 사진 조여권

사위에게 이 책을 보낸다

『사위에게 주는
요리책』
떠낸 페미니스트 모녀
박형옥 박이은경



사람들은 '옛말 그른 거 하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른 옛말이 사실은 참 많다. 그 중에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물건이 떨어진다'거나, 딸은 '출가외인'이고 사위는 '백년손님'이라는 말들...

가장 귀 막고 싶은 말은 '딸 가진 죄인'이란 말이다. 어떻게 '딸 가진' 것이 '죄'가 된단 말인가. 이런 말 때문에 온 정성을 다해 자신의 욕망에 솔직해지도록 키워놓고도 그 딸이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만 들어가면 많은 엄마들은 딸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무작정 '한수 집고' 들어간다. 요리를 잘 하지 못해도, 살림을 잘 하지 못해도, 아들을 안 낳아줘도, 울며불며 이런 게 결혼인 줄 몰랐다고 통곡해도 친정엄마들은 그저 미봉책으로 이혼하지 말고 참고 살라고 싸매기에 바쁘다.

그런데 전통적인 친정엄마의 정서를 뒤집고 나선 엄마가 있다. 박형옥씨. 그는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게다가 성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신의 '먹는' 문제 정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게 기본이라고, 왜 부엌을 여자만의 활동공간으로 강요하느냐고 목청을 드높인다.

"사람들이 나를 극렬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뭐가 극렬인가요? 명절이면 몇 날 며칠을 남편 집에 가서 일만 하고도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는 어리석은 일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말이 극렬인가요? 얼굴도 모르는 남편 조상의 제사를 위해 뼈빠지게 일하는 것을 그만두라는 말이 그런가요? 소중하게 키워서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키운 딸이 부엌에서 혼자 동둥거리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지요. 우리나라 친정엄마들은 더욱더 옛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 며느리만 잡습니까? 사위도 함께 일해야지요."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내며 부조리한 여성들의 삶을 주위에서 지켜보다가 <여성의전화> 첫 상담부장을 맡고 '사회주부'로 거듭난 박형옥씨의 일갈이다.

또 다른 사람, 친정엄마의 전통적인 지지를 발판으로 전통적인 의미의 아들보다도 더 큰 기대와 사랑을

받으며 자란 딸 박이은경이 있다. 그는 현재 <여성신문> 사회부 차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한 남자와 결혼해서 2주년을 맞이했다. 마감이 시달리며 일도 잘 하고 싶고 맛있는 요리도 잘 만들어서 남편과 시댁의 사랑을 한몸에 받겠다는 '야망'에 불타던 '착한 여자' 박이은경은 2년만에 새롭게 태어났다.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일을 단지 '며느리'란 이유로 '아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할당받았던 부담에서 그녀가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착한 며느리'의 야망을 버리라는 친정엄마의 '가혹한' 가르침과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라는 전통적인 지지 덕분이었다.

"저녁 늦게 와서도 꼭 집의 밥을 찾는 남편과는 얼굴 마주칠 시간도 빼듯했지만 잘해주고 싶었어요. 맛있는 걸 해주고 싶었지요. 하지만 명절마다 설 틈 없이 움직여야 하는 사람이 그 집 사람들이 아니라 '며느리'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부엌 이태울로 기에서 벗어났어요."

이 책에는 페미니스트 엄마와 딸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결혼 2주년을 넘긴 현재까지 부엌을 두고 어떻게 갈등하고 화해에 이르렀는지, 그래서 왜 사위에게 이 책을 읽어보라고 손을 내미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내 부엌은 물론 남의 부엌에서조차 여자들끼리만 끊임없이 반목해야 하는 이 시대의 부엌과 요리에 대한 생각들을 펼쳐보이며 두 모녀는 이 세상의 딸들에게 스스로의 존중감을 회복하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친다.

"부엌은 그 집에서 같이 지내는 사람이라면 모두 주인이 되어야 할 공간입니다. 남녀의 구별이 있을 수 없어요. 여자는 뭐 처음부터 요리를 배웠나요? 며느리에 게만 일하라고 강요할 게 아니라 백년손님이라고 늘 어려워하는 사위도 딸과 함께 일해야 하는 겁니다. 며느리에게 요리책을 주며 내 아들 맛있는 것 해주라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왜 사위에게 요리책을 못 주겠습니까?"

글 권혁만 / 사진 엄윤순

“아 니, 그 옛날의 광고를 아직도 기억하세요?”
자신은 기억조차 흐릿한 예전 모 기업 티슈
광고를 사람들이 종종 기억해 내 놀라곤 한다는 김선
정씨(아트선재센터 부관장). 외모는 별반 달라지지 않
았지만 예전 광고 속 큐레이터는 이젠 한 발 더 나아가
새로운 문화를 제시하는 문화기획자로 변모했다.

아직까지도 미술관의 주된 관람객은 40대 이후로 경
제적으로 안정돼 그림을 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전
시작품들도 유명한 작가들 위주이다. 김선정씨는 이런
현실에서 아트선재센터를 어떤 문화공간으로 꾸려나갈
지 많이 고민했다. 그 고민들이 결실을 맺은 결과, 그는
크로스오버적인 개념을 갖고 아트선재센터를 미술과
음악이, 현대와 고대가, 동양과 서양이 서로 만날 수 있
는 장소로 기획하고 있다. 또한 상업적 가치를 떠나서라
도 문화적 가치가 있다싶으면 과감하게 추진한다.

예를 들면 한국미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시도인 <산
수풍경>(7. 14~8. 29), 한국독립영화협회와 공동주최
하는 <제6회 독립영화 관객을 만나다>(8. 27~29), 주차
장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주차장프로젝
트>(지하 2층 주차장/6. 25~8. 29), 내년에 열릴 <퀴어
영화제> 등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

그 중 돋보이는 것이 새로운 문화수요층을 찾아 그
에 맞춰 기획한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그 첫번째는
5~8살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리텔링(story
telling) '99>. 올해 10월까지 매월 넷째주 주말마다 전
행되며 전문배우들이 공연하는 재미있는 동화를 '보
고' 역할극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그 이야기의 주인공
이 되어본다. 공연 후에는 전시장을 돌면서 미술관과
극장에서의 에티켓을 배운다. 극장 안의 빛과 소리를
체험하게 해 공연에서 조명과 음향의 중요성을 알려주
고, 공연 사이사이에는 아이들을 따라다니던 뽀빠로
아저씨가 풍선도 만들어주면서 지루하지 않게 하는 세
심한 배려도 잊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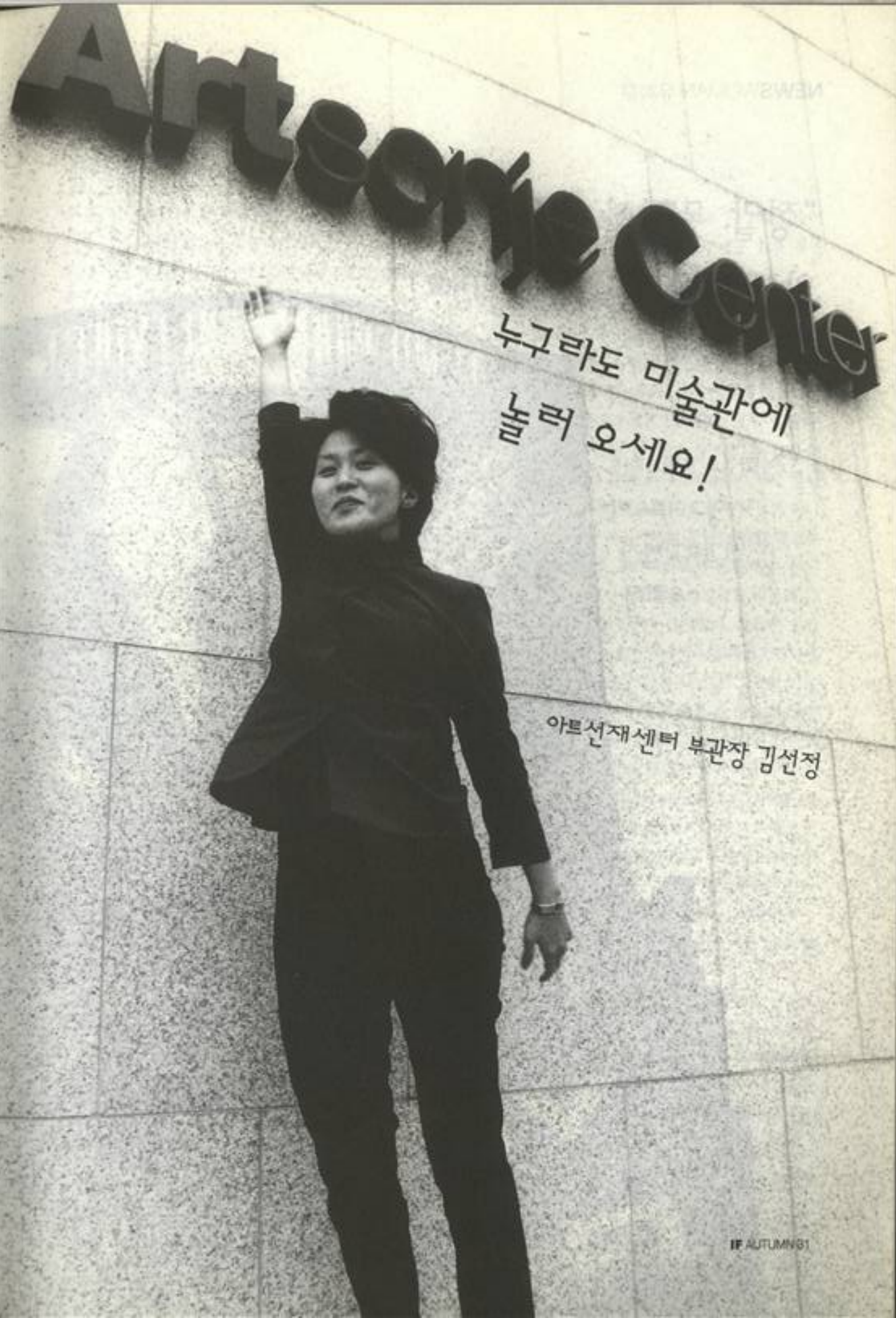
두번째는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 20, 30대의 젊은 사람과 가
족들이 함께 편안하게 음악도 듣고 전시도 관람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중해의 풍경, 지중해의 노래>(8월),
<쇼팽 서거 150주년 기념 콘서트>(11월), <설원 속의
러시아 로망스와 민요>(12월), <베토벤과 조각가들>
(2000년 5월) 등 다양한 주제로 미술과 음악, 문학 등
이 같이 어우러져 내년 6월까지 계속된다.

이 프로그램은 머리로는 예술을 이해하지만 몸은 굳
어 있는, 마치 숙제하듯 예술을 접하는 성인들을 위해
기획됐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작품
을 보고 음악도 들으면서 설명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

처음이라서 아직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김선정씨는
말한다.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 프로그램의 질을 위해
서 2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 수도 어떻게 보면 많
은데 인원이 벌써 찼나면서 항의전화가 오기도 해요.”
매월 새로운 이야기를 연습하고 만들기 때문에 공연
하나가 사실 한 편의 연극을 올리는 것과 다름없다. 적
은 인원으로 진행하기에 손이 달리기도 하지만 공연은
6개월 정도, 전시는 2년 전부터 오래 기획하고, 비싸지
않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프로그램들은 벌써 결실
을 맺어가고 있다. 스토리텔링은 이미 다 예약된 상태
고 음악회는 사람이 많아 보조석도 모자라 돌아갈 지
경이다.

“아직 개발단계라서 완벽한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하지만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저렴한 가격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겁니다.” 쉽고 편안하며 재미
있는 프로그램을 즐기는 동안 바로 당신 옆에서 기획
자가 아니라 함께 웃고 즐기고 있는 관객으로 그녀를
발견할지도 모른다. 가능하면 모든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서 참가자의 반응과 프로그램의 진행상태를 점
검하기 때문이다. [11]

글 김보미 / 사진 엄윤순



“정말 못해서 안하는 게 아니라
안해서 못하는 거라니까요!”

영화 <용가리> 만든
영구아트무비
시각효과팀장
유희정



“처음에 대본을 받아볼 땐 압도했어요. 영화의 절반인 45분을 컴퓨터그래픽으로 만드는 건데 이거 언제 다하나 싶어서요. 지난해 8월에 시작해서 11개월 동안 전직원이 거의 날밤새며 작업에 매달린 끝에 일을 끝내고 시사회장에서 우리가 만든 용가리가 뛰어다니고, 부수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막 떨렸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영구아트무비 유희정(30) 시각효과팀장에게 영화 <용가리>의 주인공인 용가리는 자식 같은 존재다. 용가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동물이다. 유희정씨를 비롯해 영구아트무비의 시각효과팀, 디자인팀, 3차원(3D)팀, 합성팀 등에 속해 있는 30여 명의 직원들이 상상력을 총동원해 만든 가상의 캐릭터인 것. 용가리 몸통부터 얼굴표정, 움직임 하나하나가 그들의 머리에서 나왔다. 만들면서도 ‘저게 제대로 움직일까’ 내내 불안하다 막상 스크린 위에서 펄펄 살아 움직이는 용가리를 보니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회사 사람들이 이번에 용가리를 만들고 난 다음에 더욱 뿌듯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니깐 뭔가 되더라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유희정씨는 대학에서 무역학을 공부했다. 그러나 영화일을 하고 싶어 충무로에 무작정 뛰어들었다. 우연히 심형래사장이 주연한 영화 <버려지와 도둑놈>에서 스크립터로 일한 게 계기가 돼 <할매캅>, <심비홍>, <영구와 불괴리> 등에서 심사장의 조감독으로 일했다. 심형래사장과의 인연으로 그는 SF영화의 매력에 깊이 빠져들었다. 벌써 5년 전의 일이다. 그 때부터 영화와 시각효과에 대해 닥치는 대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광고프로덕션에 들어가 컴퓨터그래픽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실력을 쌓아갔다. 그러다 2년 전 심사장이 SF영화제작사인 영구아트무비를 만들 때 다니던 광고프로덕션을 미련없이 그만두었다. 유희정씨는 영구아트무비의 창사멤버로 참여하면서 직원을 뽑고, 첨단장

비를 들여오고, 회사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 깊숙히 참여했다. 그렇게 시작된 영구아트무비는 현재 직원수가 100여 명에 이른다.

“못 하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니까 못 한다”는 말을 유행시킨 ‘신지식인 1호’ 심형래사장을 따라서인지 유희정씨에게도 ‘뭐든 하면 된다’는 투지가 넘쳐흐른다. 영구아트무비 사무실 곳곳을 둘러보고 나면 이들이 뭔가 해내겠구나 싶은 느낌을 정말 받게 된다. 아시아에 한 대밖에 없는 수억대의 장비를 <용가리> 만들 때 썼다가, 영화 <타이타닉> 제작진이 썼던 장비와 똑같은 것이 그곳에 있다는 설명을 들어서가 아니다(물론 한 영화사가 수십억대의 첨단 장비를 끌고오 갖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나라에서 흔한 일은 아니다). 영구아트무비의 장래성은 유희정씨를 비롯해 그곳에 모인 SF애니아들로부터 감지된다. 그들은 일하고 싶은 시간에 일하고 옷차림에서부터 머리스타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제멋대로 하고 다닌다. 그들의 자유방임이 보장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손끝에 한국 SF영화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 그만큼 일을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용가리>의 작품성에 대해 비난의 소리가 많은 것 잘 알아요. 우리 영화가 <고질라>보다 낫다고 몰으면 낫다고 말 못해요. 어떤 면에서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 못한 부분이 훨씬 많으니까. 그런데 할리우드는 이미 60년대 <스타워즈> 때부터 SF영화를 시작했지만 우리는 <용가리>가 처음이잖아요. 첫 걸음마를 하고 있는데 뛰지 못한다고 비난하면 안되지요.”

유희정씨와 영구아트무비의 시각효과팀이 다음에 만들어낼 가상동물은 이무기다. 그가 <용가리> 다음 작품이 <이무기>라고 말할 때 단어에서 느껴지는 야릇한 유치함과 코믹성 때문에 나도 모르게 ‘괴식’하고 헛웃음이 나왔다. 그 헛웃음이 민망해질 수 있을 만한 SF영화 제2탄 <이무기>를 기대해 본다. [1]

글 황금희 / 사진 조여권

시가 어렵고 멀게만 느껴진다면 시를 들어보자. 읽는 시가 아니라 듣는 시. 이젠 시집을 펼치는 대신 CD를 틀면 된다. 음악을 듣는 느낌으로 가사처럼 흥얼흥얼대다가 노래를 외우고 나면 어느새 한 편의 시를 외우게 된다.

시인 위승희씨(36)가 김정란씨와 함께 시에 음악을 입혀 〈사이렌 사이키(Siren Psyche)〉(신나라뮤직)를 발표했다. 그 중 '사이렌'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선원들을 매혹시켰던 그리스신화 속에 나오는 물의 요정, 영혼을 깨우는 목소리로 바로 위승희씨다.

"본래 언어는 소리와 문자가 하나인데 분리가 됐어요. 문자를 꿀방이라고 생각하세요. 꿀방에다 소리도 갖다놓고 그림도 갖다놓고, 시냇물도 흘려놓고, 별 거 다하죠. 아무리 그래도 눈으로 한 번 쳐다보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문자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지요. 그래서 음악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문자시에 음악을 입혀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것이 바로 위승희씨의 문학행위이다.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주위의 우려가 없지는 않았지만 위승희씨에게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위승희씨는 고3 때까지 성악을 하다가 시에 대한 열정을 버릴 수 없어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다. 뛰어난 가창력 덕에 노래할 기회는 많았지만 시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기다려 왔다. 그래서 문단 데뷔도 98년으로 늦은 편이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어요. 당연히 이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없었던 장르니까 새 신발을 신으면 뒤통치가 까지는 것처럼 아픔이 있겠죠. 아픔이 있고 나면 익숙해질 거예요."

시에 입힌 음악은 재즈뮤지션 말로씨와 작곡가 김만중씨 두 사람이 맡았다. 말로씨의 경우 위승희씨가 직접 수소문해 찾아가 부탁했다고.

시를 가사처럼 주고 음악을 적당히 붙인 것이 아니라 시를 해석한 후 시의 이미지를 찾아 만들었다. 그래서 총 8곡을 위해 9개월이 소요됐지만 모두 시매니아

여서 작업은 즐거웠다고 한다.

이 앨범은 한 곡 한 곡 모두 소중하게 만들어졌고 시인, 작곡가 외에 뒤에서 소리없이 도와준 시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이번 작업을 통해 김정란 시인을 비롯해 시를 사랑하는 많은 동지를 얻은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음반에는 상처에 대한 〈통점(痛點) I〉, 〈바람 따돌리기〉, 자신의 인생관을 보여주는 〈문〉 등의 시들이 수록돼 있다.

사실 음악이라는 매체의 도입은 위승희씨가 원하는 문학행위였지만 대중에게 가까이 가기 위함이 큰 이유이다. "어떻게 보면 시는 대중에게 고자세로 서 있고 대중이 다가오기를 바라는데, 이는 오만한 자세일 수도 있어요." 이전 자세를 낮춰서 다가가야 할 때라고, 시인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면 시는 돈이 안 된다는 통념도 깨지고 시가 하나의 문화상품이 될 수 있다고 위승희씨는 생각한다.

위승희씨는 빠르면 올해 말에 시집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자로 시를 노래하는 기존 방식도 병행할 터. 궁극적으로 바라는 한 가지는 문혀진 좋은 시들을 발굴해 노래를 입혀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이다. 자신의 시가 아니라도 좋은 시를 널리 알리는 매신지가 되는 것. 그리고 나아가 시에 영상을 입히는 작업을 구상하고 있다. 시와 음악이 어우러진 상태에 영상을 입히고 여기에 공연을 곁들여 종합적인 예술로 만들 생각이다. 이처럼 위승희씨의 시도는 무궁무진하다.

"내 시들은 존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존재들은 외부의 물리적 압박에 마모되거나 썩지만 나락은 자기를 썩혀서 짙을 피우죠. 내 어깨에도 언젠간 초록색 이파리가 나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시도 쓰고 작곡도 공부하고 한국적 정서를 위해 국악도 배우고 또 후배들도 키우고 싶어하는 욕심 많은 위승희씨는 음유시인이다. 그의 시를 향한 사랑의 전율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란다. ■

글 김보미 / 사진 엄윤순

‘시를 그대 품안에’

새로운 개념의
시음반 발표한 시인

위승희





“여성인권운동의 절줄 되겠다”

〈여성인권운동을 지원하는 모임〉

상임이사 임정희

편 트레이저(fund raiser), 펀드매니저도 아니고 낯선 이름인데, 어떤 일을 하는 걸까. 펀드레이저 임정희씨에 의하면 바로 이렇다.

“글쎄, 정확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펀드매니저가 있는 돈을 갖고 관리한다면 펀드레이저는 돈을 만드는 거죠. 바로 기금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어 그대로 돈을 키운다고 할까요?” 즉, 펀드레이저는 어떤 목적을 위해 돈을 모아 기금을 조성하는 일을 맡은 사람을 일컫는다.

사실 펀드레이저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다. 임정희씨가 이 세계에 과감히 뛰어들게 된 계기는 바로 ‘여성인권운동을 지원하는 모임’ 때문이다.

지난 7월 9일에 여성인권운동의 기반과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발족한 모임이다. 이사장으로는 강원룡 크리스천아카데미 이사장, 이사로는 김경애 동덕여대 여성학과 교수, 여성학자 구훈모씨, 최은순 변호사 등과 이미경, 신낙균, 김덕룡 국회의원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자문위원과 후원위원을 두고 있다.

“이 모임은 처음부터 돈을 갖고 시작한 재단도 아니고, 다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성인권운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모인 거죠.”

이 모임에서 임정희씨의 직함은 상임이사, 하는 일은 실제적인 집행이다. 이사회에서 사업 사항에 대해 토의를 한 후 구체적인 집행은 임정희씨가 맡는다. 하는 일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기업체들이 여성인권운동을 위한 일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을 만드는 일, 둘째로는 여성인권운동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벌여서 기금을 모으는 일이다. 기금을 조성하는 일 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펀드레이저가 낯선 개념일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기부문화가 성숙되지 않아서 힘든 점이 많다. 좋은 일에 돈을 쓰는 것이지만 협조를 구하러 가

는 사람은 자칫 구걸하는 입장으로 잘못 보여질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는 일반 개인이나 기업들이 사회에서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해 환원하고 봉사하는 차원으로 액수에 상관없이 기부를 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돼 있다. “기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직 조성되지 않아서 기부하는 사람도 기부받는 사람도 결끄러운 상태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기부를 위해 그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 바로 사업들을 하게 되는 실질적인 이유.

현재는 삼성생명이 만화가 강철수씨에게 의뢰해 제작한 성희롱 예방지침서 『위험한 접촉』의 판권을 갖고 기업에게 판매해 그 수익을 기금으로 예치하는 중이다. 그밖에 10월 초에는 후원의 밤을, 10월 말에는 바자회와 미술전시회를 열어 여기서 유명인사의 소장품과 유명화가, 도예가의 작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11월에도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아직 그 내용은 극비라고. 올해는 처음이라 아직 잘 정비돼 있는 상태가 아니지만 앞으로 매년 후원의 밤과 바자회, 미술전시회를 기본으로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직 모두들 익숙하지 않고 낯설어 하는데, 자연스러운 기부문화를 먼저 만드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아요.”

임정희씨는 동아대, 신라대 등에서 5년 정도 강의했고 〈여성인력활용을 위한 여성취업박람회〉 등 여성신문사에서 2년 동안 일했던 경험과 인맥을 활용할 계획이다. 좋은 일이니만큼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총동원할 거라고.

“단지 의욕만 갖고 약간의 경험만으로 시작했어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실전에서 겪은 귀중하고 알찬 경험들과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한국 여성인권운동의 든든한 밑받침이 될 날이 머지 않은 듯싶다. □

글 김보미 / 사진 엄윤순

교회 내 성폭력 방지 대책 있나?

지난 6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서 마련

성폭력의 안전지대는 과연 존재할까? 직장, 학교 내 성폭력은 들어봤지만 그 장소가 교회라면?

지난 6월 21일 기독교연합회관에서 '교회 내 성폭력,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서울여성의전화, 기독교여성상담소에 접수된 사건을 토대로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실상과 그 문제점들을 짚어 봤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회 내 성폭력



의 현실을 파악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지 대책은 있는지를 논의했다. 교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피해정도의 파악이 쉽지 않고 적용할 수 있는 법률도

찾기가 수월치 않다는 허점들이 드러났다.

이날은 지난 5월 MBC 문화방송국 난입을 주도했던 M교회의 한 피해자가 증언을 했는데 그는 토론회 당일도 '칼침 맛을 줄 알라'는 협박전화를 받고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들은 건물 주위를 둘러싼 채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토론회가 끝난 후 건물 후문으로 사람들을 대피시켰다. 휴, 토론회를 빠져나오면서 얼마나 가슴이 콩닥거렸는지... "오! 하나님!"

"불평등, 너 물러가라!"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20C 차별 버리기·21C 평등 새우기 여성축제>

"미스김! 나 커피 한 잔", "여자가 공부하는 데서 뭐해, 시집만 잘 가면 되지." 이게 무슨 김밥 열구리 터지는 소리? 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들리는 소리이다. 이런 불평등의 소리를 부수고 깨는 시원한 행사가 열렸다. 다음 아산 7월 3일 오후 1시에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20C 차별 버리기·21C 평등 새우기 여성축제>.

한국여성민우회는 5월 한 달간 429명에게 <나의 여성차별 드러내기(나여기)> 수첩에 자신이 겪은 여성차별을 적도록 했



고 접수된 차별 사례들을 장소별, 영역별과 빈도수에 따라 정리했다. 이 중 '명절, 여자애들 중노동 남자애들 쉬는 날'로 명절 제사상의 성차별이 단연 1순위. 이번 분석에서, 여성들은 법이나 제도상의 차별보다는 생활 속에 뿌리 깊게 박힌 관습, 문화, 의식상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체험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날 손바닥에 페인트를 묻혀 '여남평등'의 글자를 찍어 걸개를 만들고, 차별 문구가 적혀 있는 차별탑을 망치로 부수고, 자신에게 성차별적으로 대한 사람에게 평등업서를 보내는 등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매년 3만 명씩 성감별 낙태로 죽는 여태아의 영혼을 위로하는 진혼송 공연이 있었고, "여성파워! 가슴을 열어라!"라는 코너에서는 3명의 여성이 마이크를 들고 자신의 차별체험



한 여고생이 망치로 차별탑을 부수고 있다.

을 시원하게 말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손목에 보라색 리본을 묶고 열심히 진행한 민우회 식구뿐만 아니라 휴일에 대학로를 찾은 시민들이 함께 노래하며 성차별이 없 어지기를 염원하는 뜨거운 자리가 됐다.

또한 마로니에공원에 평등을 기원하는 평등나무를 심었는데 앞으로 마로니에공원을 찾을 때는 문예예술진흥공단 앞 나무들 사이에서 평등나무를 한 번 찾아보길. 민우회는 오는 10월에 21C 평등을 목표로 다음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성비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여성계, 정부의 적극적 개입 촉구

초등학교 시절 짝궁이라면 당연히 여자, 남자 짝궁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요즘 남학생들은 운이 좋아야 여자짝궁을 만날 수 있다. 통계청 1996년 인구추계결과에 따르면 2005년에는 평균적으로 114명의 남학생 중 14명은 여자짝궁과 앉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한다. 바로 우리가 현재 안고 있는 성비불균형의 단적인 예인 셈.

지난 7월 7일 오후 2시 이화여대 교수관에서 '성비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이화여대 한국어성연구원 주관 한국어성단체협의회, 대한간호협회 양호교사회, 이화여대 한국어성연구원 주최)이 열렸다.

이날 조남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

원장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은광순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운영위원,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진건단국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 이재경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를 비롯 30여 명의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회를 했다.

1962년에 착수한 가족계획이 표면적으로는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지만 여기서 파생된 부정적인 면이 바로 성비불균형이다.

현재 자녀출생수는 감소되는 반면에 남아선호사상은 여전히 견착한 추세. 특히 일반사진처럼 아기의 모습을 뚜렷이 볼 수 있는 3차원 초음파검사가 국내에 조만간 보급될 전망이어서 여아 낙태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이번 워크숍의 토론자들은 가부장적 한국 사회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성비문제 해결 역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재경 교수는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기관과 여성단체가 이렇게 함께 합일점을 찾기 위해 모인 것 자체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말하면서 정부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의 워크숍이라 전문적이고 학문적 접근이 많아 성비의 문제에 무관심했던 기자에게는 커다란 자각의 기회가 됐다. 3차원 초음파검사 사진은 태아의 모습을 영화처럼 그대로 볼 수 있어 경외 그 자체였다. 이 한국땅에 태어난 딸들이여, 한 번 태어난 이상 금지와 의무감으로 무장하며 살기를!

"암탉이 울어야 새벽이 온다!"

성황리에 치러진 여성신문의 아줌마 페스티벌

7월 14일 오후 3시 정동 세실극장 신(新)주부 캠페인 1탄으로 열린 <아줌마가 아줌마가 살리기>.

이날 여성신문사와 3,000명의 주부들이 선정한 '99년 신(新)주부 최고 인기상품 대상 시상식'이 있었다. 곧이어 '아줌마가 살리기' 이렇게 할 겁니다'라는 주제 슬라이드쇼, 재즈연주, 노이즈밴드의 난타공연, 퍼포먼스 아티스트 김현주씨의 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연이 벌어졌다. 현재 아줌마(?)인 아줌마들과 미래 아줌마(?)가 될 아줌마준비생들이 함께해 줄

거운 자리가 펼쳐진 것. 변화하려 하지만 차마 용기를 내지 못하는 아줌마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기회가 된 뜻깊은 자리였다. 공연 중간 잠깐 생긴 미미한 전기 사고를 틈타 옆에 앉아 있던 아줌마 몇 분과 잠깐 인터뷰를 했다.

기자: 오늘 행사 어떻게 오셨어요?

아줌마1: 여성신문에서 왔어요.

기자: 즐거우신가요? 내용이 마음에 드세요?

아줌마1: 계속 탈출이라는 면만 부각하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네



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은 좀...

기자: 가장 인상에 남은 공연은요?

아줌마2: 여성 혼자서 한 연극이요(문주희씨가 고정희의 시 '우리동네구자형씨'를 한 편의 모노드라마로 멋지게 만들어냈다).

참, 이날 공연 사회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아줌마 전원주씨와 이숙경(서림대 여성학강사, 본 행사 기획자)씨가 맡았다.

한국여성인권운동사, 책으로 발간

바른 여성계의 인사들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연합회관으로 모였다. 바로 지난 7월 23일 열린 『한국여성인권운동사』(한국여성전화연합(이하 여전) 펴냄)의 출판기념회.

『한국여성인권운동사』는 여전이 창립 15주년이었던 작년에 기획해 1년 8개월이라는 시간과 굉장한 노력으로 얻은 결실이다. 성폭력, 아내구타, 일본군 위안부, 매춘, 기지촌 여성, 레즈비언, 장애여성 등

7분야를 각각의 필자가 나누어 저술했고 마지막 장은 신혜수(여전 회장)씨가 여성관련 국제인



권협약과 여성운동에 대해 정리했다. 특히 장애여성과 레즈비언 부분은 여성 중에서도 소외된 여성을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번역서 이외에는 여성인권운동에 관한 우리 나라 책이 아직까지 없는 상황인데 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운동을 직접 해온 이들의 생생한 기록이어서 그 의미가 자못 깊다. 서평을 했던 김은실(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는 책의 내용이 소설이나 영화 관련 종사자에게 좋은 소재가 되는 것은 물론 여성학의 좋은 텍스트이면서 여성문제에 둔감한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말했다. 사실 책이 두껍고 비싸지만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책이다.

여성 유죄, 남성 무죄?

여성언론인들이 마련한 여성인사 관련 보도 비판 토론회

손숙, 김영자, 로라희, 주혜란, 그리고 심지어 신창원의 동거녀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여성이다. 또 하나 든다면 바로 최근들어 주요 언론을 뜨겁게 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을 떠올릴 때 혹시 어떤 일에 연루됐는지보다 미모의 여인이거나 설친 다거나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않거나 하는 기사가 먼저 떠오르는 않는지.

지난 7월 28일 한국미디어여성연합과 한국기자협회 여성특위가 주최하는 <여성인사 관련 보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았던 이정옥 효성가톨릭대 교수에 의하면 우리 나라 언론은 여성에 관한 기사를 쓸 때 긍정적

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결정을 잡기가 일쑤이며 지나치게 사생활에 집중해서 보도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성에게 비해 여성은 언제나 '미모'라는 수식어를 붙여 여성은 '능력보다는 미모'라는 인상을 준다고 했다.

이날은 한 일간지의 편파적 보도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백지연(전 MBC 앵커)씨가 참석하기로 했지만 아직 소송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

다음부터는 방송이나 신문 등이 여성인사들에게 어떤 수식어를 붙여 이야기하는지 매서운 눈으로 쳐다봐야겠다. 음...

와, 선상에서 열리는 후원의 밤 행사라...

우리 사회에 깔려 있는 가부장적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전문직 여성들의 네트워크 <21세기 여성포럼>은 오는 9월 17일 오후 6시 30분에 <초가을 밤의 뱃놀이>를 연다. 여의나루에서 승선해 한강 유람선을 타고 해수경색과 병창일씨의 사회로 댄스파티, 선상 사진관, 페미

니스트 필자리점집 등 다양한 행사를 벌인다. 임희숙, 김창원, 페미니스트밴드 <마고>의 공연도 있을 예정이다. 특히 21세기여성포럼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만나고 싶은 남자 99인>이 눈길을 끈다.

이날 모임에서 결한 후원금은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소중하게 사용될 계획이다.

포럼회원 외에 일반인들도 입장이 가능하지만 단, 입장료가 10만 원이다. 좀 비싸지만 여성운동에 쓰여질 기금이므로...

한강 유람선 위에서 싱그러운 가을바람을 맞으면서 여성운동에 대해 얘기해 보는 것은 어떨지.

자세한 문의는 21세기 여성포럼(02) 2268-2221, 박진창(가사)으로 하면 된다.

폭행과 외도에 시달린 할머니, 황혼이혼 성공하다

55년간 남편의 끊임없는 외도와 구타, 게다가 자신이 낳지 않은 아이가 호적에 올려지고 피담으로 모은 재산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면?

70대 한 할머니가 평생 이어진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마감하려고 이혼소송을 냈다. 그 결과 7월 1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재환)는 이를 인정, 할머니

는 24억여 원 상당의 재산분할권과 2억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할머니의 남편은 심한 바람둥이인 데다가 할머니가 어렵게 모은 재산을 탕진해 왔다.

결정적으로 다른 아이를 몰래 호적에 올리고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사업을 대신한 장남을,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심한 구타에 할머니는 "귀가 부서 발장을 설친다. 나의 인생이 험하다는 것을 속명으로 알고 긴긴 세월 부정한 생활과 난폭한 매질에 나는 사지가 망들었다"라고 법정에서 제출한 노트에 적었다.

그의 용기있는 투쟁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다른 여성노인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기를...

여성단체 연대로 미혼모 진현숙씨 딸 찾아

3년의 동거 끝에 예쁜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 잠시 친부인 남자에게 맡겼다. 얼마 후 전 화해 보니 친부가 아이를 맡은 지 10시간도 채 안 돼 입양시킨 사실을 알았다. 이에 여자는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고 아이를 다시 찾는 긴 싸움을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영화가 아닌 실화다. 주인공은 진현숙씨, 그리고 그녀의 딸 오름이.

진현숙씨를 지원하는 공동보호인단(최일숙, 최은순, 김진, 배금자, 안귀옥)은 유

아인도심판청구를 했다. 재판 기일은 8월 17일이었지만 생모가 아이를 애통하게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입양부모는 정든 오름이를 포기하겠다고 밝혀 10개월만인 지난 7월 15일 오름이는 다시 진현숙씨의 품에 안기게 됐다.

이 사건은 미혼모의 인권문제를 뿐 아니라 여성인권투쟁에 큰 획을 그은 일이며, 여성신문과 한국여성전화연합을 비롯한 많은 여성들의 단결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미혼모편견 딛고 자매애로 딸 되찾



지난 7월30일 자 여성신문에 실린 진씨 관련 기사.

성폭력 상담 전문가가 돼보세요!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여성중심 상담 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한국여성상담센터가 <제1기 성폭력 상담 전문가 과정>을 연다. 이번 과정은 성폭력 상담의 심

리치료적인 접근을 통해서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내용은 현장 경험과 이론적 체계를 접목해서 우울, 대인기피, 분노, 후유증 다루기 등 상처공감을 위한 다양한 심리교육의 방법으로 구성돼

있다. 강사는 재규만 성신여대 심리학과 교수로 1차는 99년 9월 17~18일, 2차는 99년 10월 1~2일로 예정. 장소는 종로 5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층이며 신청은 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가능하다.

문의: 한국여성상담센터(02-443-3997)

김보미 기자

사이버 주류에 합류하기, 아직은 늦지 않았다

인터넷에 여성 관련 사이트 속속 등장



인터넷이라는 단어가 오가는 대화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저는 인터넷을 하나도 모르는데요", "한번 해보긴 했는데...", "채팅으로 그대를 만났는데...", "인터넷 찾아봐도 자료가 별로 없더라...", "인터넷에서 싸게 산 그 화장품 알아야..." 등등.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인터넷'이라는 단어의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 인터넷은 피할 수 없는 생활필수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인터넷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요즘 눈독을 들이고 있는 대상이 있다. 바로 여성! 바야흐로 여성을 제외시

키고 인터넷을 말하는 사람들. 인터넷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갑작스럽게 달라진 대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인터넷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자세는 적극적

인 자세와 소극적인 자세가 있다. 쏟아지는 정보, 폭증하는 상품들, 손짓하는 회원 가입 권유에 정신없이 응하고 이를 흡수하는 것, 이것은 적극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소극적인 자세이다.

인터넷은 TV와는 다르다. 수억 개에 달하는 채널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고, 맘에 드는 정보가 없으면 내 손으로 채널을 안들 수도 있다. 바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인터넷의 장점이다.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것, 스스로 원하는 정보를 창출하는 것,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표현하는 것, 인터넷이 제공하는 편의를 빠짐없이 누리는 것 등은 적극적인 자세이다.

여성네트즌의 부상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여성들을 적극적인 네트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전 물주로 혹은 보다 많은 회원 유치에 자사의 사이트 가치를 높여주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주체로 여기고 있다면?



21세기 황금공간이라고 알려진 사이버 세계마저 남성이 지배하고 여성은 따라가거나 흡수만 하는 사태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 인터넷에서의 여성부상 불에 더 늦기 전에 적극적인 자세로 합류해 보자. 아직은 늦지 않았다.

여성에게 유용한 사이트

■ 여성을 위한 포털 사이트
SBS 여성전문정보 네트워크 우먼21
<http://www.women21.co.kr>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미즈넷
<http://miznet.daum.net>
검색엔진 라이코스 여성코너
<http://woman.lycos.co.kr>
우먼플러스
<http://www.womenplus.com>
아이지아
<http://www.izia.com>

■ 여성전문 웹진
물루 : <http://www.lulu.co.kr>
이미진 : <http://imagine.or.kr>
■ 해외 여성전문사이트
아이빌리지 : <http://ivillage.com>
우먼 : <http://women.com>
우먼와이어
<http://womenwire.com>
사이버걸
<http://www.cybergirl.com>

■ 여성전문 쇼핑몰
패션종합쇼핑몰
<http://www.fashionplus.co.kr>
패션포탈사이트
<http://www.coordi.co.kr>
여성전문용품
<http://www.c-marketing.co.kr>
화장품전문쇼핑몰
<http://www.cosmetic.co.kr>
다이어트종합정보
<http://www.dietland.co.kr>

성차별, 여성네트즌 눈속일 수 없다

신문을 보고 있노라면 여성들에게, 속터지는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도 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회 곳곳에서 성희롱, 성폭행, 직장에서의 부대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오죽하랴.

혼자서 아무리 성토해 봐야 소용없다. 그러나 이런 여성들에게 빛을 주는 사례들이 있다. 네트즌들이 입을 모아 여론을 형성하고 항의해서 이런 행사, 제도, 법안들을 폐지시킨 것.

문제제기의 선두에는 오피니언리더들이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많은 네트즌들의 열렬한 호응이다.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온라인상에서 빚발치는 항의행진에 결국 개선의 여지를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하나의 예는 강원도에서 일어난 시

대학오적인 '아들바위' 설립논란과 '남근공원' 조성논란(이프8, 9호 '고은부인 도끼 들었네' 제재) 등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기 위해, 또 남근송배 전통을 기리기 위해 거역을 들어 조성하려던 공원이 네트즌들의 항의 서한과 전화로 무산되거나 수정되었다.

두번째 예는 호주제폐지운동이다. 손발이 달도록 평생 고생하고도 여자라는 이유로 호주가 되지 못하는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PC통신과 인터넷으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서명이 성황리에 진행중이다.

또 지난 5월 페미니스트저널 이프가 주최한 인터미스코리아 페스티벌을 기점으로 반미스코리아 운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엔 여성집대부는 그대로 두고 남성집대부만을 처벌하기로 한 보건복지부의 남녀차별 조치에 네트즌들이 반기를 들고 나서서 결국 삭제결정을 얻어낸 것.



호주제 폐지(위)와 반미스코리아운동(아래) 관련 사이트.



이런 예들은 직접적인 성과를 얻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성들에게 불리한 의견이 구령이 담담어갓 비판없이 통과되는 사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여론형성의 핵으로 부상한 네트즌들이 여성이 지위향상에 더욱 힘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창업 불, 정부지원 놓치지 말자

"재능도 살리고 돈도 벌 겸 부업이나 해볼까?"

인터넷과 PC통신을 통한 젊은 여성 혹은 주부들의 창업이 늘어나고 있다.

시장정보 제공자, 뉴스클리퍼, 컴퓨터 에디터, DB가공편집 디자이너, 컴퓨터게임 디자이너, 컴퓨터애니메이터, 인터넷 도우미, 정보검색원, 전자상거래전문인 등이 그 예.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한 일들은 특특 뛰는 아이템, 섬세한 관리, 정교함, 사이트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미적 감각 등이 요구된다. 특히 아이디어가 좋으면

소자본을 가지고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에게 유리하다. 늘어나는 인터넷 여성인구의 욕구와 감각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이런 추세를 정부도 지원하고 나섰다. 주로 창업사무실 무상임대나 저렴한 임대료 제공, 장비지원, 여성전문교육기관 혹은 여자대학 부설기관 기금지원 형태로 나타난다. 여자대학교나 해당 각 시도 여성창업지원센터 등에 수시로 문의해서 지원여부를 체크해 볼 수 있다. PC통신

이나 인터넷 IP(정보 제공) 혹은 CP(컨텐츠 제공) 관련 동호회에서 꾸준히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늘어나는 여성 사이버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문웹진 '사비즈' (<http://sabiz.co.kr/>)도 등장했다. 앞으로는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나도 창업 한 번 해볼까?"라는 말이 유행이 될지도 모르겠다. 치밀한 준비를 한 후에 용기있게 도전해 보자.

최혜숙(일요시사신문사 뉴미디어부 기자)

조영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더니...

샐러맨의 우상,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님에게

“저는 지금까지 한평생을 기업 경영을 통해 조금이라도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그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무욕(無慾)의 자세로 혼신의 힘을 다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님. 당신은 지난 7월 25일 대우센터 회의실에서 이같은 절박한 성명을 발표하셨죠? 불과 일주일 전(7월 19일)엔 지난 4월보다 훨씬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고 당신의 사재와 회사 재산 10조 원을 담보로 내놓기까지 했지만 '시장'은 마치 당신을 거짓말 잘하는 양치기 소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철저한 구조조정의 이행을 다짐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은 만감이 서린 듯 비장해 보였고 낯빛도 창백했습니다. 트레이드마크인 미소녀 같은 볼그레한 얼굴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사람이 사지에 내몰리면 그렇게 침착해지는 걸까요?

도대체 뭘 잘못하셨나요?

한국에서 '김우중'이란 이름 석 자의 사나이는 누구니까? 황제처럼 군림한다는 한국의 재벌 총수가 아니던가요? 그것도 세번째로 크고 힘이 센 대우라는 재벌의 지배자란 말입니다. 거의 다 재벌 2세인 10대 재벌그룹 회장님들과는 격이 다르죠. 당신은 거의 무일푼으로 오늘의 거탑을 쌓은 창업자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샐러맨의 우상'이라고 부르죠. 특히 70~80년대 학번에게는 희망의 상징이자 도전의 이미지로 각인된 기업가였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국내에서만 호령하는 기업인이 아닙니다. 세계에 가장 많이 알려진 인지도가 높은 기업인이며 지난해에는 재계 총본산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으로 뽑혀 명실상부하게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으로 자리매김되었죠.

그런데 당신이 어쩌다 명예로운 은퇴와 불명예퇴진이라는 갈림길에 서 있게 됐습니까. 당신이 32년 동안 공물여 길러온 대우그룹은 또 어떤 운명에 놓였습니까. 잘해야 자동차 계열 기업만 남게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 자동차회사인 제너럴모터스(GM)가 대우자동차 경영권을 쥐게 된다면 대우그룹은 그야말로 공중분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으로서는 청천벽력의 일이 아닐 수 없겠지요. 지난해까지도 '재계의 떠오르는 해'였던 당신과 대우그룹이 왜 갑자기 '지는 해' 신세가 되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집안 내력 탓인지는 몰라도 김희장님은 30대 중반에 반백이 되고 40대 중반에 백발이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대충 접고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세계를 누비며 해외 사업장의 경영상황을 생기고 끝없이 새로운 사업을 탐색하러 다녔습니다. 당신의 엄청난 비행기록은 이를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일 년의 60~70%를 해외사업장에서 보냈습니다. 절정에 달했던 96년에는 20회의 해외출장을 통해 무려 35개국을 다니며 257일을 해외에서 보냈습니다. 매일 세 시간이 넘게 비행기를 타고 하루 평균 2,160km를 날아다녔습니다. 당신은 정말 유격훈련을 방불케 하는 팍팍한 일정으로 탱크처럼 밀어붙이며 죽어라 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침 7시에 힐튼호텔 23층이나 대우센터 25층 집무실에 출근해 자정 가까이까지 계열사 사장을 불러들이고 외부사람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세상에 이런 재벌그룹 회장이 또 있을까요?

이카루스의 날개를 가진 사나이(?)

당신의 말마따나 평생 죽어라 일만 한 재벌총수에게 오늘의 위기는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여기에 위기의 근본요인이 있었습니다. 설 줄 모르는 확장경영, 그것도 남의 돈을 꾸어 사업을 벌인 차입경영이 당신을 추락시켰던 것입니다. 미국의 유력일간지 '뉴욕타임스'는 당신을,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달고 태양에 닿으려다 날개가 녹아 추락한 그리스 신화의 이카루스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신흥시장의 잠재력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지나친 차입경영과 무분별한 확장전략을 도모한 것이 침몰의 원인'이라고 분석한 적이 있죠.

대우그룹은 총자산이 78조 원(650억 달러)이나 되지만 빚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우그룹이 스스로 밝힌 차입금 규모만도 60조 원입니다. 95년만 해도 차입금이 23조 원(190억 달러) 정도였는데 어떻게 3년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일까요? '세계경영'을 기치로 엄청나게 사업확장을 했기 때문이죠.

사실 확장전략은 김희장님의 트레이드마크였습니다. 67년 7년간의 월급쟁이 생활을 견어치우고 31세의 나이로 대우그룹의 모태가 된 대우실업을 창업한 후 김희장님은 줄곧 부실기업을 헐값에 사들이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한 작가가 쓴 김희장님의 일대기를 보면 매쪽마다 기업을 인수한다는 구절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당신이 직접 만든 기업이 아니라 거의 다 남이 만든 기업을 인수한 터여서 '손에 기름 한 방울 묻히지 않은(기업가가 아닌) 장사꾼'이라고 폄하되기도 했지만, 이런 승승장구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실 김희장님의 세계경영은 97년까지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치로 내건 '세계를 우리의 시장으로, 지구촌을 우리의 산업기지로'라는 말은 당시로서는 경제불황에 찌든 국민들에게 희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뿐입니까? 당신은 대우가 진출한 베트남 같은 동남아, 동유럽, 아

프리카 등지에서 국가원수 대접을 받는 자랑스러운 한국기업인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당신을 거꾸러뜨린 결정적 계기는 국제통화기금 사태였습니다. IMF 사태는 해외 사업장이 많고 빚이 많은 대우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설사 대우의 급성장을 시키는 국내외 기업의 옴모가 있었다고 해도 다른 그룹과 비교했을 때 유달리 벌여놓은 일이 많았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연히 그룹 신뢰도는 낮아졌고 더 이상 돈을 빌리기 어려워 현금 흐름, 이른바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 것입니다. 해외사업은 그 성격상 투자비를 회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세계경영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에 한국이 경제위기에 빠졌으니 정말 당신은 요즘 불운하달 수밖에 없군요.

물론 과거에도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때마다 오뎅이처럼 일어섰죠. 당신은 늘 위기상황에서 막판 뒤집기를 성공시키는,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난 경영자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선친의 제자였던 인연 덕에 박정희 대통령의 비호 아래 쓴 이자의 수출금융을 받아 대우를 급성장시켰지만 80년 신군부가 집권하자 재동이 걸린 적이 있죠. 이고사 위기를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200억 원 사재출연이라는 폭탄선언으로 벗어났습니다. 대우자동차와 대우조선의 경영위기 때도 부평공장과 옥포조선소에서 먹고 자며 경영을 정상화시킨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물론 당신의 성공에는 정권과의 미끌미끌한 유착관계를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뭐, 한국사회에선 그것도 능력 아니겠어요?

일 중독자, 우리 아버지들의 자화상

당신이 옥포만의 노을을 바라보며 썼다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을 보죠. '참된 인생은 개척의 길이다. 세계는 지구촌이라 불릴 정도로 좁아졌지만,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 있고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이 많다. 우주를 생각하고 큰 일을 꾸며보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미래는 스스로 개척해 가야 한다. 그것이 인생이다.' 이 말

과거에도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때마다 오뎅이처럼 일어섰죠.

당신은 늘 위기상황에서

막판 뒤집기를 성공시키는,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난 경영자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이 많은 젊은이들을 흥분시켰습니다. 당신의 살아온 나날 그 자체가 도전과 실험의 연속이었으니 피가 끓는 젊은이들, 특히 젊은 남성들에게는 더욱 잘 먹혀들어갔을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신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여러 갈래입니다. 우선 당신의 침몰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패했다고 하지만, 근면성과 도전적 이미지, 기업가로서의 성취를 높이 사는 거죠. 또 누군가는 당신이 한국재벌의 특징인 '가부장적인 족벌경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합니다. 족벌 네트워크가 없다는 것이 당신의 장점이며, 한계라는 거죠. 물론 농담섞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족벌경영을 비판했던 지식인들에게는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전문가일수록 무분별한 확대지방의 차입경영을 비판합니다. 일찍이 재동이 걸렸어야 하는데 당신의 인맥을 통한 고단수 정치감각이 그것을 지연시켰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잣대를 들이대지 않은 전북대 강준만교수의 인물평도 흥미롭습니다. 강교수는 당신에 대해 한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싶을 만큼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었죠. 천진불 같이 순진무구한 어린아이 같지만 명예에 집착하고 정교한 자본의 논리를 가진 탁월한 노무관리자이며 노련한 언론플레이를 펼치는 정략가의 면모를 가지고 있지만, 김회장님의 가장 강한 얼굴은 무엇보다 '일 중독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일에 미쳐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순진할 수 있고 그런 만큼 명예로 보상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을 자신의 뜻대로 하기 위해 독선과 정략을 마다하지 않는 비정한 면모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 중독자라... 익숙한 단어죠? 60~80년대를 살아온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지요. 어쩌면 당신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직장일로 뱅뱅이를 쳤던 한국사회 화이트칼라들의 상징이며, 꿈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절 우리 사회 셀러리맨들은 정말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위 커홀릭이란 말을 들어가면서 미친 듯이 일했고 직장을 위해서라면, 어떤 술자리와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기에 사회적으로 승승가도를 달릴 수 있었죠.

고개든 화이트칼라의 미래는?

그들이 집에 들어오면 어땠을까요? 당신이 남편과 아버지로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면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당신의 부인인 정희자 힐튼호텔 회장은 대부분의 재벌총수 사모님과과는 달리 정력적인 사회활동과 기업경영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런 활동에 대해 "일 년이면 250일 이상을 외국에서 보내고 국내에 있어도 일에 파묻혀 사는 김회장 덕분에 가능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질 탓도 있겠지만, 정희장은 남편인 당신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또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를 쏟을 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정희장은 이른바 자애로운 어머니와 엄격한 아버지 역할을 도맡아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3남1녀(장남인 선재씨는 90년 교통사고로 작고)를 반듯하게 키워 자식농사를 잘 지었다는 소리를 듣지만, 순전히 그 공로는 정희장에게 돌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도 아내를 경영자로 인정한 재벌회장이 얼마나 되겠냐고 주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정말 아내를 프로 경영인으로 생각한 것일까요? 정희장이 『여성동아』에 털어놓은 말을 인용해 보죠. "바깥일 하게 하는 것 보면 김회장이 개방적인 것 같죠. 안 그래요, 얼마나 보수적인데... 김회장이 집에 있는 동안은 제가 먼저 출근하거나 남편보다 늦게 들어오는 일이 결코 없어요. 아침 일찍 회의를 있다고 해도 사장단에게 알아서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저는 김회장이 출근할 때까지 집에 있죠."

『우먼센스』에서 방송인 백지연씨와 한 대담에서도 '남편 김우중'의 모습은 잘 드러납니다. 정희장은 백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35년 사는 동안 나도 이혼위기 여러 번 있었어요. 김회장이 죽으면 죽었지 이혼 못한다고 해서 참고 살았죠. 하루종일 대화할 사람도, 경제권도 없고, 아이가 아파도 같이 갈 수 없었죠. 그런 인간적 고통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 김회장은 다 팔자소관이라고 그러지요." 아내의 이혼 제의를 극구 반대한 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도덕적인 존재가 되고 싶었던 것일까요?

어쨌든 징기스칸에 빗대 '징기스칸'이라는 별명을 가진, 세계를 호령하며 누비던 당신, 늘 외세의 침입에 시달려왔던 우리 민족에게 세계경영의 꿈과 야심을 심어줬던 김우중 회장님. 당신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 사회의 고개 든 화이트칼라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지금 구조조정으로 회사에서 방출됐죠. 오로지 직장일에 자신의 24시간을 바쳤던 남자들이었기에 가정에서는 너무나 무능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고개 숙인 모습을 자신이 더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32년의 드라마, 김우중 신화는 도대체 어떻게 막을 내릴까요?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최고경영인이자 한 남자로서 당신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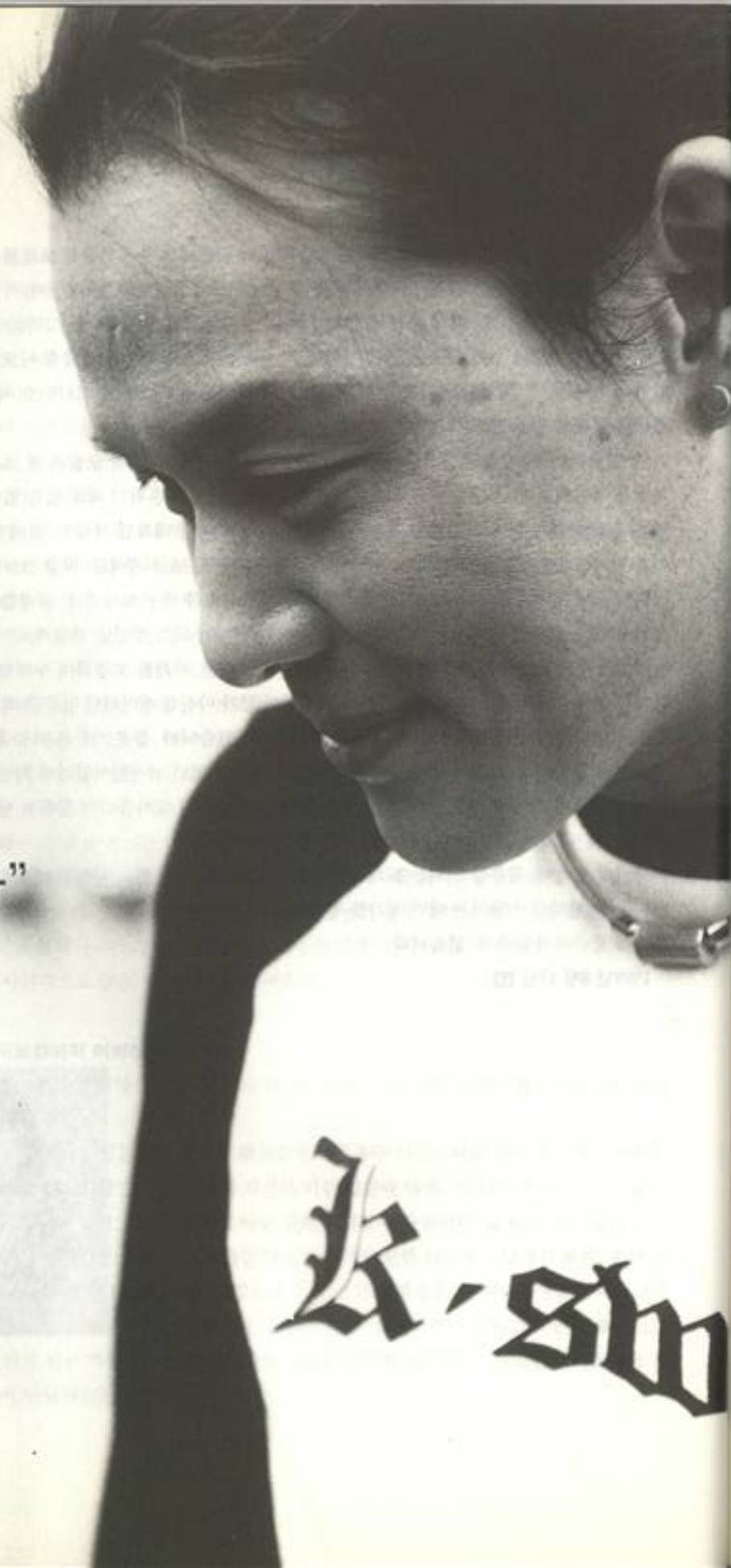
1999년 8월 15일 □



장영희
시시저널 경제팀장

“일에
폭 빠진
여자가
매력있다”
그서

‘에로틱’ 록커 김종서



항상 두렵게만 다가오는 이 세상에서 정해진 그 길만을 따라가도록 난 길들여졌지... 나 이제
는 세상을 향해 한 송이 꽃을 피울 수 있어. 아침에 눈을 떠도 난 두렵지 않아. 새로운 희망들이
내 마음 속에 숨쉬고 있으니까.
(살을 향해) 중에서

술 을 한 잔씩 하고 마지막 뒷풀이로 노래방엔 가면 놀라운 정경을 볼 수 있다. 노래를 부르
는 등 마는 등 정신없이 웃고 떠들며 놀던 여자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슬픈 목소리와 비장
한 표정이 되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때 부르는 건 심중팔구 '김종서' 노래다.

막 사랑을 시작한 여자들은 <아름다운 구속>을 부르며 "처음이야, 니가, 드디어 내가 사랑에 빠
져버렸어"라고 귀여운 내숭을 떨고, 실연이라도 해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해서 사랑의 다른 면을
보아버린 서른 넘긴 여자들은 "이제 깨달아야 해, 이것이 운명인 것을, 진정 사랑하기에 체념도
필요했음을" 하며 인생의 쓴맛을 맛본 표정이 된다. 자신이 떠나는 이유를 "지금은 알 수 없을"
거라고 진저리치면서 말이다. 그래서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을 약간이
라도 이해하는 사람은 그저 노래를 조용히 음미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한 인간의 복잡하게
얽힌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코드로 김종서의 노래가 존재하는 순간이다.

김종서의 노래는 과장해서 부를 수는 있지만 장난처럼 부를 수는 없다. 그의 노래
색깔은 뱃속에 가라앉은 감정까지 꺼내야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고음과, 말로 하기
엔 치졸하지만 가슴을 두드리는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 리듬과 가사
는 오래 전에 제 기능을 잊은 듯한, 눈물샘을 건드린다. 그래서 마치 영화 같고 그림
같은 그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저럭 고개만 까딱거릴 수는 없다. 마이크를 힘주어
꼭 잡고 허리를 펴 쭉거나, 짧은 머리카락일망정 뒤통을면서, 요샛말로 좀 오버해서
불러야 그의 노래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선은 굵은 사람 마음이지, 선 안팎에 갇힌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다

긴 머리카락, 그것을 한 갈래로 묶거나 모자를 쓰거나, 제멋대로 확 풀어놓아도 잘
어울리는 조그만 얼굴, 마른 몸매, 아이처럼 쫄려풀하고 귀여운 모양의 옷차림, 낮가
림이 심한 소년처럼 웃는 수줍은 미소... 조선시대 이름을 드높인 장군과 동명이인.

여고생, 여대생에게 물었다. 김종서가 어머냐고, 노래를 잘해서 좋단다. 립싱크에
능하고 춤 잘 추는 10대의 프로젝트그룹이 판을 치는 가요계에 진정 노래 잘하는 가
수라서 그가 좋단다. 삼십대의 여자들에게 물었다. 좋단다. 왜? "터프가이가 아니라서"이다. 근
육이 울퉁불퉁하고 눈가에 힘을 주고 어깨가 딱 벌어지고 말투가 우렁우렁하지 않아서, 잘난 척
하지 않아서, 귀여워서, 그래서 좋단다. 여자들은 '남자'라는 냄새를 풍기지 않아서 그를 좋아한
다. 물론 근육질의 퐁퐁한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도 있을 것이다.

시나위에서 독립해 솔로로 데뷔하며 처음 공중파방송에 나올 때부터, 그는 남자스럽지 않게 머
리카락이 길었다. 확인한 사실은 아니지만 언더뮤지션이 아닌 메이저 가수(?)로선 처음 긴 머리





를 한 남자가수였을 것이다. 걸 고운 그의 긴 머리카락이 노래에 따라 흔들릴 때마다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난 해방감을 느꼈다. 제발, 성과 연령에 대한 그 딱딱한 고정관념을 깨줄 수 있는 아주 작은 돌이라도 되어다오... 하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저 원하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 머리카락 내가 기르는데도 말들이 많았어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거지요. 내 긴 머리카락이 무슨 힘이 있어 그럴 수 있다는 건지. 확실하게 나 때문에 청소년들이 나빠진다면, 그렇다면 잘라야겠지만, 그건 누구의 판단이죠? 방송국의 높은 분이 저녁식사 하다가 결정했더군요. '저 남자가 머리가 기니까 보기 안 좋구먼, 뭘든지 못 나오게 하든지 하라' 구요. 내가 귀고리를 하고 머리 염색을 하고 파마를 하는 것이 남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들 맘대로 선을 긋고

그 안에, 밖에 사람의 자유로운 감정을 가두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랬다. 그가 좋았던 이유는 세상의 질서에 조그만 균열이라도 낼 수 있는 반항기가 느껴져서였다. 거기다가 노래를 부르면서 췌췌 소리지고, 킁킁 킁킁 뛰는 모습이 속시원했다.

압구정동, 그 여름, 언덕에 자리잡은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며칠 안 남은 콘서트 준비로 바쁜 모양이었다. 분초를 쪼개 써야 하는 몸이라는 게 내게로 느껴져왔다.

콘서트에서 보여주던 그 폭발하던 에너지의 한 자락도 만져지지 않을 만큼 한 구석에 앉아 입을 손으로 가리고 작게, 또박또박 그러나 나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어린 소년 같았다. 그러나 소심하고 나약하기만 한 소년이 아니라 내면에 큰 바위를 들어앉힌 고집스런 소년의 모습이어서 마음이 좀 놓였다.

목과 뿔 그 사이

어둠으로 숨어야 하는, 나를 찾지 못하게, 사랑은 너무 힘이 강해, 난 또 끌려갈 테니...

제발 날 그만 내버려 둬. 지칠 만큼 지쳤어. 세상에 나 하나쯤은 편찮아. 사랑을 잘 몰라도...

(악마의 미소) 중에서

김중서의 콘서트장에 가면 수많은 여고생(예매를 아주 일찍 한 열혈 팬)들이 앞줄에서 공연 내내 거의 선 채로 열광하고 중간쯤엔 대학생쯤의 여자들이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서 소리를 지른다. 중간 뒤편에 앉은, 뒤늦게 표를 사서 들어온(예매를 안 한) 나 같은 늙스런 여자들은 마음 속에 소리치고 싶은 열망을 꼭 누른 채 단지 습관이 잘 안 된 탓에 간혹 목 막힌 피성을 지른다.

김중서 노래를 하나하나 들어들다보면 노래를 하는 가수는 남자지만, 가사의 화자는 여자인 경우가 많다. 그 여자는 떠난 남자를 하염없이 그리워하거나 잊지 못해 안달복달하지 않는다. 그렇

다고 눈물콧물 다 감추고 사랑을 떠나보내는 '옥이 엄마'도 아니다.

사랑했으되 기대지 않고 떠나는 마음이야 아프지만, 그게 인생의 다는 아니라고 결연히 일어서는 여자의 모습이 많다. '내버려 둬', '너나 잘 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등의 말을 툭툭 던지는 그의 노래를 부르면서 여자들은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건 아닐지.

"나는 대중가수니까 여자고 남자고 막론하고 날 좋아해주는 사람이 고마워요. 내 노래에 접근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달라요. 가사가 좋아서, 리듬이 좋아서, 정말 내가 좋아서일 수도 있겠지요. 모든 노래가 개인에게 아주 다른 의미로 읽히기 때문에 나의 어느 부분을 좋게 보는 건지 잘 몰라요. 그리고 사실 가사보다는 음악적인 새로움에 더 신경을 쓰니까 노래 속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여자라거나 남자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의 노래 속에서 뭔가 체제를 비웃고 전복시키려는 의지가 보여서 좋아했던 것에 대한 흡족한 대답은 아니었지만 그가 시인이 아니라 가수라는 걸 확인시켜 준 말이다. 그래도 어쨌든 그의 노래에서는 짙어던 지고 싶은 대상에 탁 침을 뱉는 듯한 걸기가 느껴진다.

누가 그의 창법과 가사와 리듬을 뽕뽕 뽕뽕 '에로틱록'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쓴 사람은 약간의 비아냥거리고 싶은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맘에 드는 평이었다. 에로틱록이라니. 절묘하다. 예술과 외설의 경계를 구분짓는 바람에 가운데는 텅 비어 있고, 록과 뽕뽕의 가운데 지점도 땡땡 그레 비어 공허한 그 지점에 확실하게 그의 자리가 있는 것이다. 분명 록이되, 남자의 언어가 아닌, 걸모습이 우악스럽지 않은, 부드러운, 그리고 자발적인 연출에 의해 에로틱한, 위악도 위선도 아닌 자연스러움이 아름답지 않은가.

그래서일 것이다. 무식한 질문이지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여성형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일하는 곳과 사람 만나는 곳이 보통 직장하곤 다르잖아요. 만나는 여자들 거의 모두 아주 활동적이고 개성이 강해요. 무아지경에 이를 만큼 자기 일에 푹 빠진 여자에게서 매력을 느껴요. 이상형이라기보다 그런 여자들에게서 아주 강한 인상을 받아요."

얼마전 일곱번째 음반이 나왔을 때, 그의 인터뷰 기사에는 '나이'에 대한 글이 빠지지 않았다. 우리 나이로 서른다섯, 유난히 조로현상이 심한 우리 가요계에서 그 나이에도 새로운 변신을 거듭하는 그에 대한 칭찬의 의미였겠지만 보기엔 민망했다. 좀더 깊어



지고 넘어질 수 있는 '세월'을 기다려주지 않고 싹을 자르려
는 것 같아서였다.

"음악은 어느 순간 딱 접는 게 아니니까"

"나 자신은 나이를 그다지 의식하고 살지 않지만 보는 사
람들은 나이를 꼭 확인하려 해요. 어떤 의미로는 젊은이의
음악인 록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더욱 서툰이 넘은 내 나
이를 말하는 거겠지만, 개의치 않아요. 음악을 한다는 것이
어느 순간에 딱 접는 것이 아니니까요. 가수라는 것은 내 일
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음반을 프로듀스하고 작사하
고 작곡하고 노래부르는 일련의 과정 중에 노래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지요. 조용필 선배를 봐도, 세월이 따라 부를 수
있는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음악이 있잖아요. 상상은 안 가
지만 나이 오십이 넘어도 난 이 일을 행복하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ALL SONGS WRITTEN AND COMPOSED AND ARRANGED by KIMJONGSEO."

그는 음반 맨뒷장마다 이 글귀를 새겨넣는다. 어느 팬은 그 구절 때문에 전폭적으로 그를 신뢰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누군가는 그의 음악이 '크로스오버'가 지나쳐 낯간지러울 만큼 대중의 구미에 맞게 타협을 잘
해서 밋다고 한다. 그러나 그 '빨간 글씨'는 모든 평가에 대해 책임지려는 그의 자존심으로 보인
다. 애절한 사랑노래만 불러 감상에 빠지게 할지라도, 서슬퍼런 '록스피릿'의 색깔은 조금 덜더
라도, 그 자존심과 모습은 이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나이를 넘어서서, 성별을 넘어서서, 틀에 박
힌 정신을 넘어서서, 자신의 삶을 자연스럽게, 뻗뻗하지 않게 살아나가는 그 모습은 말이다. **III**

사진 엄윤순



권혁반

최승자의 슬픈 자의식의 서정파
정태준의 가리웠은 분노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느라
온 어름을 다 보내고 소름 돋는 가을을 맞았다.



친정엄마와 딸이 함께 쓴 별난 부엌이야기

사위에게 주는 요리책

딸아, 네 부엌이 아닌데선 일하지 마라.

엄마, 착한 며느리 야망 다 버렸어요.

'행복한 요리'를 하기 위해 박형욱·박이은경
모녀가 제시하는 몇가지 조건

1. 딸을 비롯한 이 땅의 며느리들에 대한 격려와
연대감이 박혀있는 필치에 실려 펴먹펴먹 된다.

월간 딸 김소희 기자

2. 아주 특별한 요리책—
때에 풍후추를 박는 일은 힘센 남편이 할 것,
같은 똑똑 튀는 설명이 재미있다.

시사저널 김운남 기자

3. 이 책에는 요리법은 조금 들어있고 대신 부엌과
음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친정과 시댁, 남편과의
관계가 오묘조묘하고 색다른 시각으로 그려져 있다.
여성에게는 억압의 공간이자 해방과 자유의 터일 수
있는 부엌과 요리라는 작업을 통해 가족사회학을
그려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국민일보 최현수 기자

4. 딸을 결혼시키면서 느닷없이 "딸가진 죄인"이
돼야했던 친정엄마와 결혼하면서 갖가지 일을 겪어야
했던 딸이 결혼 2년동안 깨달은 '부엌'과 '요리'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담은 수필집.

대한매일 강선일 기자



박형욱·박이은경 지음 / 이프제임 / 값 7,500원

신국문판 265

“나는 아직도 그네들이 그림다



전병문

1975년생, 현재 문학비평을 공부하고 있으며, 『비평과 전망』, 『반갑다! 논장』,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그곳에 가 닿을 수 있을까? 내 생의 곳곳에 이정표를 세우는 이 질문에 '머뭇든 나는 지금 '가고 있고', 그것이 '가 닿을 수 있음'을 보증해주지 않겠는가. 그러나 뒤돌아보며 나 자신을 파도한 반성 속에 밀어넣지도, 불확실한 미래를 점쳐보는 일도 그만두자'라고 매년 내리던 결론으로 세 이정표를 삼아 본다.

어디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 나의 성경험에 대해 이야기 하라는 주문에, 두 여자의 모습이 떠오른다. 내 인생의 가장 지독한 사랑으로 기록될 H와 두번째 여자 S. 그 가슴 시린 첫키스와 불안했던 첫 섹스의 추억이.

H를 만난 건 고1 겨울의 일이었다. 유난히 수줍음이 많았던 내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를 일이다. 그녀를 만난 지 2년쯤 된 겨울, 우리는 저물어가는 태양을 등지고 어느 이름 모를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주위는 온통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오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한참의 어색한 시간이 흐른 뒤 나는 당돌하게도 그녀에게 물었다.

"불에 키스해도 돼?"

"아니."

"..."

"입술에다 해."

나는 소중한 의식이라도 치르듯 그녀의 불에 가볍게 키스를 하고, 이내 조심스럽게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녀의 혀가 내 입술을 열고 이 틈으로 미—끌어져 들어왔다. 뽀뽀하니 키가 컸던 그녀에게 어떤 자세로 입을 맞추었는지는 기억이 없다. 다만 나보다 좀 키가 컸던 그녀와 키스를 하는 동안 까치발이 저려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순간 이후 내내 나의 몸은 감전의 여진과도 같은 미묘한 떨림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내 성기가 부풀었던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 당장이라도 그녀를 쓰러뜨리고 풀밭 위에서 첫 의식을 치를 마음이 있었는지도 지금으로선 의심스럽다. 다만 내 몸에 여지껏 생생하게 남아 있는 그 때의 감각을 나는 '첫키스와 날카로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우습게도 그 후 그녀는 나를 떠나버렸다. 그녀는 나의 시원치 않은 키스 실력에 화

나의 미래로, 삶으로 생각했던 그녀에게서 한 마디 변명도 듣지 못한 채 버림받은 내가 그 시절 내내 생각했던 것은, 그녀와 키스를 했던 날 밤이었다.

가났던 것일까?

이후 대학입학까지 6개월여의 기간은, 짧은 내 삶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해당한다. 금욕적(?) 이기까지 했던 나의 삶은 거침없이 무너져내렸다. 처음으로 밤새 마신 술에 의식을 잃어버렸고, 처음 권 증담배로 목에선 검은색의 가래가 토해져 나왔다. 연소자판람불가 비디오를 몰래 보기 시작했고 눈물을 철철 흘리며 손장난을 시작했다.

미야자와 리에의 누드집에 사정을 하고 한 장 한 장 뜯어버리기 시작한 것도 이때의 일이다. 나의 미래로, 삶으로 생각했던 그녀에게서 한 마디 변명도 듣지 못한 채 버림받은 내가 그 시절 내내 생각했던 것은, 그녀와 키스를 했던 날 밤이었다.

멀리 공주에서 수원까지 그녀를 만나러 갔던 나는, 아무런 연고 없는 수원땅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막차 끊긴 수원역 부근의 허름한 여관까지 나를 따라온 그녀를 애써 집으로 돌려보냈던 일을, 그 시절 나는 몹시 후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그녀를 여관으로 데리고 들어가 어떤 식으로든 섹스를 하고 그로 인해 그녀에게 임신을 시키지 못한 게 나로서는 못내 아쉬웠다. 당시의 내 어수룩한 생각으로 그것이, 그녀를 내게 묶어둘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런 경험 때문이었는지 두번째 여자, S와의 관계는 아주 성급하게 진행되었다. 그녀를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키스를 했고 그날 밤 그녀의 가슴을 더듬었다.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었고 한밤의 대학 여학생휴게실에서 그녀는 알몸이 되었다. 언제 누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는 대담하게 그녀의 몸 여기저기를 어루만지고 입맞추었다. 그리고는 성기의 삼입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녀의 그곳은 건조했으며, 무엇보다도 그녀는 극도의 고통을 호소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삼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급기야 우리는 그만 제풀에 지쳐 멀어지고 말았다. 이것이 한밤의 대학 여학생휴게실, 일렬로 늘어선 소파 위에서의 나의 불안했던 첫섹스의 전모이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내가 첫섹스에 대해 느꼈던 감정들이 오죽했을까. 10년 넘게 환상 속에서 꿈꾸어 왔던 알몸의 여체 앞에서 나는 발끈 달아올랐을 뿐이었다. 상대의 몸이 자지러지도록, 능숙하고 재빠르게 리드하리라던 나의 계획은 미방에 불과했다. 새벽녘의 꿈목을 우연히 지날 이들

그녀도 결국은 나를 떠나고 말았다.
아무런 연락 없이 군으로 면회를 왔던 날, 강력하게 여관행을 주장하던 그녀는,
그 날로 영영 나를 떠나버렸다.

에게, 의지와 무관하게 새어나오는 은밀한 교성으로, 사랑하는 여자와의 첫관계를 온근히 자랑하고 싶어했었을지도 모르는 나의 의도는, 그야말로 철저히 무산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토록 당혹스러웠던 첫섹스의 경험이 내게는 왜 이토록 아름답고 간절해지는 것일까? 왜 그녀와의 추억 중에서 하필이면 이 일을 들추어내어 다시금 곱씹고 있는 것일까?

그 이후 그녀와의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녀도 결국은 나를 떠나고 말았다. 아무런 연락 없이 군으로 면회를 왔던 날, 강력하게 여관행을 주장하던 그녀는, 그 날로 영영 나를 떠나버렸다. 그 시절 내 일기의 한 구석에는 그 때의 상황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벗꽃지는 시절 떨어지는 꽃잎으로 만나/ 끝 모르게 가슴 저미며 사랑한 세월/ 지나온 세월은 추억으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는 가져보지 못할 그 시절들의 꿈/ 이제 와 기억으로만 알게 되는 소중한// 남들이 다 사랑하는 계절에 우리는/ 서로를 가슴에 묻고 오랫동안 동면한다."

다른 어떤 이들에게는 흥동가 뒷골목의 허름한 여관방에서 서둘러 치러져 불편한 기억일 수도 있는 첫경험이, 내게는 '현재의 나'를 규정짓고 있는 요체이다. 현재의 나를 돌아보건대 내게 첫 키스와 첫섹스, 이 둘을 빼면 무엇이 남을까싶다. 내게 '날카로운 첫키스와 불안했던 첫섹스'로 기억되는 그네들, 그네들은 지금 아무도 내 곁에 남아 있지 않지만, 그네들이 내 삶에 새겨놓은 자취는 그 무엇보다 선명하고 견고하다. 현재의 나를 만든 그네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로 나를 접어들게 한 그네들을 생각하면, 나는 아직도 그네들이 사무치게 그림다.

글을 끝낼 때가 되어서야 느끼는 것이지만 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것들까지 다 말해 버린다는 것은 안될 말이다. 그네들이 내게 현재의 삶을 주었는데, 그래도 첫출례의 비밀만은 혼자 속에 간직해 두는 게 도리가 아니겠는가. 아울러 현재의 내 삶이 그네들의 것인 만큼 내게 섹스는 도저히 단순한 유희일 수는 없을 것 같다. 현재의 삶이 과거의 추억에 의해 어느 정도 조건지어졌다면 나로서는 과거의 아둔한(?) 습관을 고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말이다. [7]



김지룡,
그에게는 뭔가
특별한 매력이 있다!

좀 야하지만, 너무 속 시원한 책!

나는 솔직하게 살고 싶다

이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을 넘나드는
지적이고 재미있는 성(性) 탐험서를 만난다

나를 움직이는 힘은 호기심이다.
이렇듯 남자로 태어나 경험할 것은 모두 경험했다. 여성들이 말하는 '저질'이 된 것이다.
어느 날 나는 왜 내가 저질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호기심이 발동했다.
내가 살아온 과정을 더듬어보니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 유희를 만들어낸
근본적인 원인이 보였다. 그것은 아무도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것.
우리는 모두 쾌락을 쫓으면서 가꾸어두려고만 한다.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성을 끌어안을 줄 아는 사람이 아름답다.



올 여름 독서시장을 강타한
화제의 베스트셀러!

김지룡 지음
신국판/ 288면/ 값 8,000원



일본 문화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책!

김지룡 지음/ 신국판/ 288면/ 값 8,000원



세대를 뛰어넘어 인정받는
우리 시대
가장 매력있는 인생론

김지룡 지음/ 신국판/ 256면/ 값 7,500원

나는 일본 문화가 재미있다

재미있게 사는 사람이 성공한다

엄마가 호주 되면 콩가루집안?

고은광순(호주제폐지물위헌시민의모임 운영위원)



무명씨(asadar@hotmail.com): 여권 운동권의 반 이상은 liberal 쓰레기다. 빨갱이, 동성연애주의, 마약중독자, 전통가족 파괴주의자 이것들이 liberal이다.

한미화(고대 대학원생):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오늘의 세태에 처하여 목놓아 운다!! 남자와 여자는 하늘이 부여한 분수가 있다. 보라! 신체적, 생리적으로 다르지 아니한가. 여자는 발이니 아기 낳아 후대를 이어주고 남자는 이를 가능케 하는 '씨'라고 할 수 있으리! 이는 천지가 개벽하여 사람이 생긴 이래 한 치도 어긋남 없는 진리인 것을! ...我 이천만노예동포여, 생호아, 사호아! 단기이래사천년국민정신이 일야시간에 졸연멸망이지호아, 통재통재라, 동포아, 동포아.

정치평론가(자칭) 홍종명: 결론적으로 말해서, 호주제 폐지론을 주장하는 쓰레기들은 호주제 폐지를 통해서 이른바 사회정의나 인권을 바로세우려 하는 게 아니다. 여권 운동 자체를 문제삼을 필요는 없다. 문제는 이 여권운동이 남녀평등을 넘어서서 사회의 기본적 메커니즘조차 무시하는, 즉, 사회를 파괴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

열등감과 소외감을 합해넣어 온갖 허위명분을 생산하고 있을 뿐이다. 이 더러운 호주제 폐지론자들, 너희들은 반드시 자기 함정에 빠져 파멸의 길을 걸으리라. 이 잡년들아, 내가 너희를 머리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다. 까불지 마라. 쑥대발 만들어버리기 전에.

맹강현(유교신보 기자): 사람이면 누구나 갖는 '뿌리를 향한 본성'이 있기에 효가 있는 것이고 효의 연장이 숭조(崇祖)다. 가족법은 민족의 법이자 문화와 전통의 법이다. 동성동본금혼법은 물론이고 호주제 역시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민족의 씨족질서를 지켜나가야 한다.

고마해(knight89@nownuri.net): 씨비열... 여자드론 지배 가서 애니 봐라... 저네들이 자유다 평등이다 지랄 할 때... 너네 집 애새끼들은 정에 굶주려 울구 있다...

페미니스트(hellokorea@hotmail.com): 성(姓)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가족과 가문의 동질성입니다. 남녀평등과 하등의 상관관계가 없죠. 조상을 섬기고 가족간

의 동질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은 숭고한 것이며 마땅히 지키고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엄마의 성씨를 쓴다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은 이제 그만!—여성을 사랑하는 페미니스트

맹강현 글, 『자유공론』 '99년 7월호, 나머지는 인터넷 호주제폐지물위헌시민의모임(<http://myhome.netsgo.com/tcolor>)에서 퍼왔음.

저렇게 무식해서야, 오호 통재통재라

내가 부모성 함께쓰거나 호주제폐지 운동을 하면서 뒤로 넘어갈 정도로 깜짝 놀란 것은 아직도 '남자는 씨! 여자는 발!'이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는 녀들이 너무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자칭 고대 대학원생이라고 쓴 한미화는 '여자는 발이니 아기 낳아 후대를 이어주는 것이 천지가 개벽하여 사람이 생긴 이래 한 치도 어긋남 없는 진리'라고 주절대고 있다(저 실력으로 고대 대학원 갈 수 있겠음? 물론 인터넷의 글은 실명이 아니라도 쓸 수 있다—인터넷의 단점이라고 생각됨). 정말 단기이래사천년국민정신이 저렇게 무식해서야, 오호 통재통재라, 동포아, 동포아.

이념들아, 내가 다시 말해 준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요기까지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래서 씨를 생산하는 남자가 중요하다고 말한다면 내 이제부터 용서하지 않으리라! 암술머리에 수술가루가 묻어 난핵과 정핵이 수정되어야 씨가 생긴다고 몇 번이나 말해 주어야 알겠느냐! 비가 오면 꽃가루받이가 안된다고 농부들이 붓을 들고 다니지 않던 말이다! 네들이 갖고 있는 정자라는 것이 '반쪽의 씨'일 뿐이

라고 얼마나 더 외쳐야 알아먹느냐 말이다!

하여 일부 한국인들이 월남땅에 가서 현지처 얻어 아이 낳고 도망오는 것을 '씨 뿌리고 도망왔다'고 말하면 절대로 안된다. 그럼? '씨치르고 도망왔다'고 해야 한다. 그 뿐이라? '씨 다른 형제', '씨는 못 속여', '제 씨 찾아가게 마련'... 어찌구 하는 말들도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입이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겠는데 우리는 예쁜 입을 갖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므로 우리는 대화중에 이런 말이 나올 경우 절대로 그냥 지나쳐서는 안된다. 절대로.

홍종명과 맹강현, 비슷한 시기에 다른 매체를 통해 똑같은 소리('호주제폐지로 얻을 것이 하나라면 잃을 게 10가지다')를 한 것으로 보아 동일인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만 접어두기로 하자. 정치평론가와 홍종명의 두 이름으로 쓰다가 같은 인물임을 밝힌 바 있는 너! 호주제 폐지운동이 사회를 파괴한다고? 잡년들 머리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으니 까불지 말라고? 타악!

이거 무신 소릴까나? 지금 내 머리 위에서 놀고 있는 쉼파리 한 마리를 파리채로 잡는 소리였다. 내가 지난호에서도 그랬잖아. 가부장제는 '똥'이고 거기에선 '쉼파리'들이 알을 낳다고. 함부로 차별주의적 언사를 내뱉기다간 그렇게 파리채 밑에 깔릴 줄 알아라(일러스트 그리느 난나씨, 도끼 옆에 파리채도 하나 그려주려). 세계에서 호주제가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호주제가 없어서 외국사회는 다 파괴되었다던?

글구 맹강현씨, 당신 말대로 "사람이면 누구나 갖는 '뿌리를 향한 본성'이 있기에 효가 있는 것이고 효의 연장이 숭조(崇祖)"라고 하자. 당신들이 받들어 모시

오! 따뜻한 태양에너지.

물, 흙, 맑은 공기...

그래, 우리 남녀노소 모두는

우주의 아름다운 생명의 꽃이야.

우리 모두 우주의

'대잇기' 작품이야.

는 족보, 가문, 혈통...에서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어디인가? 없지? 그래, 당신들은 족보, 가문, 혈통, 종종 어쩌구 하면서 황궁무쌍하게 받들고 있지만 정작 절반의 인구인 여자는 그 속에서 '도구', '수단'으로만 정의될 뿐이야. 제사지낼 떡식루에 김이 안 오른다고 자기 목을 매다는 '양심적인(?) 도구' 말이지. 당신이 말하는 '사람' 속에 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걸 우리는 눈치챘다구. 더 이상 '전통'이니 '미풍양속'이니 하면서 사기치지 말란 말이야. 동성동본금혼법은 물론이고 호주제 역시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민족의 씨족질서를 지켜나가야 한다구? 자, 그럼 이렇게 고쳐보시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모든 남자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모든 남자만 법 앞에 평등하다..." 여자는 차별 없는 대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여자인족의 발족질서를 지켜나가야 하나보다

헌법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

가는 이를 보장한다." → "혼인과 가족생활은 남성의 존엄과, 여성이 도구적 존재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성립되고..."

그래라, 그렇게 여자들 다 깃발구 '민족의 씨족질서'를 지켜나아가거라. 우리는 이제 따로이 '여자인족의 발족질서'를 세워야 할 모양이다.

knight89! 당신은 night89로 바꾸는 게 낫겠어. knight(기사)에겐 '쉬파리주둥이'가 없거당. bellokorea@hotmail.com. 성(姓)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가족과 가문의 동질성이며 남녀평등과 하등의 상관관계가 없다고라... 호호 그렇담 여자의 성을 자식에게 물려주어도 되겠네. 아내 집안으로 남자가 입적해도 되겠네. 엄마성을 물려주면 가족의 동질성은 깨지남? 여보셔요, 헬로! 호주제 때문에 부가입적(夫家入籍)이 생기고 여자는 남자(집안)에 종속되지요. 물론 법적으로는 입부혼(대월사위-전국을 통틀어 30여 명)도 있습니다만 왜 입부혼일 경우에 여성에겐 '싸가지 없는 년(감히 남자에게 들어오길 요구하다니)', 남성에게 '조다 같은 놈'이라는 비난을 퍼부을까요? 것 봐요, 당신들은 엉터리 잣대를 갖고 있잖소. 중심점이 남자 쪽으로 훨씬 치우친 잣대 말이오.

호주제를 폐지하자니까 눈을 부라리며 '중심 잡는 서열'이 필요하단다. 없으면 콩가루집안이 된다고.

그럼 왜 외도해 낳은 핏덩이(호주가 열 명의 딸을 낳고 '서열' 1순위가 되지? 외도동이가 호주가 되면 차돌맹이집안이 되남? 글구 각 집안의 '서열'을 왜 고추 달린 순서로 국가가 정한다남? 고추 달린 아들도, 손자도 없을 경우 '가족인' 딸(결혼한 딸은 가족이 아니다)이 엄마를 낳고 대표가 된단지. 엄마가 호주가 되면 콩가루집안이 된단미? 왜? 엄마는 타성(他姓)이니까. 핏줄이 안 섞였으니까(동덕여대 조준하 교수, 정주학 회장, 이재필 씨족연합 부회장, TV 토론중예). 것 봐, 결혼한 여자를 철저히 '도구'로 정의하고 있잖아.

그러니 딸은 출가외인이 되고 '씨'도 못 퍼뜨리고 '대잇기'도 못하는 쓸모없는 존재니까 일 년에 3만 명씩 골라서 찍어왔던 거 아냐. 그러니 여자는 언제나 이 동안간, 종속된 존재로 인식되는 거 아니냐구.

우리의 조상은...

대잇기는 본능이라구? 고렘 고렘. 우주는 '성욕' 유전자를 남자에게 넣어 '대잇기'가 이루어지도록 기획했지. 그래서 모계사회에서도, 미혼모를 통해서도 '대잇기'는 이루어진단구. 부계성씨만 따르고 돌림자를 구겨넣어 포장한 남자중심 족보를 통해서만 '대잇기'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니까.

조상숭배는 아름답단구? 고렘. 난자+정자. 우리의 조상은 위로 올라갈수록 많아진다는 걸 꿈에라도 잊지 마(10대조상: 2의 10제곱=1,024명). 그 동안 한 줄기만 붙잡고, 한 개의 성씨만 붙잡고 치성 드린 녀들은 나쁜 녀들이지?

글구 조상 맨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볼까? 오! 따뜻한 태양에너지. 물, 흙, 맑은 공기... 그래, 우리 남녀노소 모두는 우주의 아름다운 생명의 꽃이야. 우리 모두 우주의 '대잇기' 작품이야.

후기: 지난 여름 호주제 인터넷 사이트에 날아들어왔던 '네 예비 좇이나 빨아라'의 나진석(turbine@sbsmail.com)과 '빨갱이년들아 아가리 닥쳐라', '예수 좇이나 빨아라'의 무명씨(asadar@hotmail.com)는 모두 정보통신윤리위원회(goiccc Tel: 02)3415-0126)로부터 '경고'를 받았으며 그들이 터지려는 오줌보를 쥐어잡고 쓴 4,500여 건의 도배는 넷마스터(netmaster)에 의해 모두 일야시간에 줄연멸망이지호아. 오호 통쾌통쾌라! 동포아, 동포아! [1]

문화과학 이론신서 15

페미니즘의 이론과 정치

최근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페미니즘 논쟁을 소개하고 있는 바로 그 책

장미경 지음 · 문화과학사 펴냄



최근 서구에서 이루어진 이론과 논쟁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우리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쉽게 읽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1부 근대, 탈근대, 페미니즘

1. 근대성과 페미니즘
2. 푸코이론에 대한 종합적 고찰: 페미니즘과의 만남
3.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의 올바른 접촉을 위하여
4. 정체성의 정치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5. 차이의 정치와 페미니즘

2부 섹슈얼리티와 주제

1. 정신분석학과 페미니즘
2. 섹슈얼리티와 페미니즘
3. 육체이론과 페미니즘

3부 국가와 페미니즘 정치

1. 국가이론과 페미니즘
2. '가부장적 자본주의 국가' 개념의 이론화를 위한 일 연구
3. 시민사회론과 페미니즘
4. 신사회운동과 여성운동
5. 여성운동의 실태 분석과 이념적 과제
6. 차세대 여성운동의 새로운 과제와 전망

방 송인 백지연씨의 이혼을 둘러싼 각 언론의 사생활 보도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여론이 여성계에서 시작됐다. 이혜경 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 지은희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영화평론가 유지나씨 등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언론중재위원회와 언론사에 보냈다. 여성계가 지난 9월 1일자로 작성한 의견서를 이프에 전제한다.

백지연씨 보도에 대한 의견서

백지연씨 대한 보도가 비르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



최근 우리 사회는 개인의 인권에 대한 불감증에 걸려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은 상당히 낮다. 지난 7월초부터 PC통신의 황색 저널리즘, 『스포츠투데이』에서 시작되어 급기야 지난 8월 1일 KBS 뉴스에서까지 백지연씨의 이혼을 둘러싼 보도를 지켜본 우리는 소문에 의해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하는 현실에 참담한 느낌과 우려를 갖게 되었다.

유독 성차별적 문화가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성은 그간 되풀이 되어온 '여성 죽이기' 식 여론몰이 속에서 백지연씨에 관한 소문이 증폭되어 뉴스로서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뉴스거리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남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여성의 사생활 검증과 해명, 여성을 희생양으로 사냥하는 한심스러운 작태가 언론에 의해 자행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장기 어린 폭력이다. 현재 친자확인 DNA검사 탄원서까지 낼 백지연씨의 반론권이 전혀 보도되지 않은 것, 어린 아들의 무시당한 인권은 심각한 이중의 인권유린이며 저널리즘의 도의성 실현이 전혀 보도되지 않은 것, 어린 아들의 무시당한 인권은 심각한 이중의 인권유린이며 저널리즘의 도의성 실현이 전혀 보도되지 않은 것, 모든 상황은 한국사회가 아직도 여성을 인간으로 온당하게 대하지 않는 것을 고백하는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이런 사태가 백지연씨 개인의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와 여성 일반에 대한 인권침해와 성차별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 일부 언론을 통한 이런 사태의 확산은 남성과 함께 동등하고 조화롭게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는 여성들 모두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후 언론은 백지연씨에게 반론권을 주는 동시에 공영방송을 비롯해 여타 언론매체는 소문에 근거하여 백지연씨 개인의 사생활을 기사화하는 추한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여성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고 유린하는 작금의 한국의 마녀사냥식 언론보도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경우, 우리는 여성과 양식 있는 시민의 이름으로, 그리고 국제사회 인권단체와 연대하여 이런 반인권적이고 성차별적인 특정언론 매체를 고발하고 이에 대항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것임을 천명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백지연씨 소송을 담당한 사법기관과 언론중재위는 지금의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에 호도되지 말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2. 그간 백지연씨 사생활 관련 소문을 유포한 언론매체는 이런 행위에 대해 공개사과하며 추후 보도태도를 바꿀 것을 요구한다.
3. 이후 언론매체는 여성의 사생활과 인권침해를 중단하고 여성에 대한 공정한 보도를 할 것을 요구한다.

1999년 9월 1일

고갑희(여성문화이론연구소 소장) 김경애(동덕여대 여성학과 교수) 김민숙(페미니스트저널 『이프』 발행인) 김주연(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박원순(청어연대 사무총장) 원용진(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유지나(동국대 연극영상학부 교수) 윤창숙(여성민주회 사무총장) 이경숙(여성민주회 공동대표) 이계경(여성신문사 사장) 이미경(국회의원) 이현승(영화감독) 이혜경(여성문화예술 기획 대표) 정강자(여성민주회 상임대표)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최문순(한국언론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특집 남녀의 경계선이 무너지다

당신은 자신을 남자 또는 여자로 쉽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혹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의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자신 안에서 이성(異性)을 만난 적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나는 남자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는 여성성이 더 많다면지,

혹은 나는 더프린 여자라든지 하는—

또 '남성', '여성' 이 두 단어만으로는

자신을 설명하기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은?

이프에서 만난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남성다움을 추구하는 여성과 여성다움을 추구하는 남성,

남성다움도 여성다움도 아닌 제3의 '다움' 을 모색하는 사람들,

실지어 생물학적인 성별마저 뛰어넘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제3, 제4, 제5의 성구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천적으로 어떤 성기를 가지고

태어났는가(섹스)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됐는가(젠더) 하는 것입니다.

홍석천, 추자현, 이장섭, 이광조가 말하는

'나만의 인기비결' | 박선민

을양이론 다시 읽기 | 이숙민

서양사 속의 남장여성들 | 백영경

남자이름 쓰기와 남자옷 입기

— 조르주 상드를 중심으로 | 류숙영

새로운 '다움' 을 추구하는 사람들 | 조현진

제3의 성, 동성애자 & 트랜스젠더 | 한세원

트랜스젠더 집중인터뷰 "토요일 밤엔 드랙쇼를 보러 오세요"

사제 7명의 남녀가 말하는 '너무 괴로운 성별 고정관념'

성별할 테스트 당신은 어떤 유형일까요?





“나의 무기는 양성성”

홍석천, 이정섭, 추자현, 이광조가
말하는 '나만의 인기비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가장 화려한 공간 TV가 요즘 변화하고 있다. 남자다운 남자와 여자다운 여자를 부각시키던 대중매체가 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에게 ‘젠갈론’ 느낌의 시선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차인표와 신애라가 주연을 맡았던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에서 극의 재미를 한층 더해 주었던 조연 중에 ‘미스터 마담’ 이정섭이 그 첫번째 사례였던가? 어쨌든 내 생각엔 그랬다. 여성스럽지만 지혜롭고, 밝고 쿨함이 분명하고, 그러면서 인간미 넘치게 적당히 푼수끼가 있는 역할이었다. 여자 같은 남자를 남들의 웃음거리로나 만들려고 하던 예전의 이미지와는 사뭇 달라졌던 것이다. 그리고 요즘은 홍석천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남성과 여성, 그 경계선을 넘나드는 연예인들. 이분화된 성논리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필자는 이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들의 실제 모습은 어떤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이들을 만나보자.

“당신들 마음속의 여성을 찾으세요”

〈남자셋, 여자셋〉의 홍석천

딱딱 뚱은 머리, 여자들도 시샘할 날씬한(?) 몸매, 예뻐서인 목소리 때문인지 끼 많은 모델들 사이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석천씨. 인터뷰를 위해 찾은 촬영현장에서 출연자들에게 둘러싸여 특유의 익살끼로 어색함을 풀어주는 그를 만날 수 있었다.

잠시 후 일어 있던 모델들 때문에 고민하던 스태프진도 한숨 놓았다는 듯 촬영은 다시 진행되었다. 요즘 들어 그의 인기가 높아진 탓일까? 중성적인 이미지의 모델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 지금의 캐릭터를 어떻게 살리게 되었나?

장고 때문에 머리를 짧게 되었어요. 그 때문인지 촬영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우연히 여성스럽게 연기하는 걸 보고 PD분이 아 그거 재밌다면서 브와종이란 캐릭터를 〈남자셋 여자셋〉에 넣으신 거죠.

— 왜 그 이미지가 인기있다고 생각하나?

각자 내면에 억제했던 또 하나의 성을 제가 표현하니까 속 시원한가 봐요. 무척 친근해 하세요. 막 앞에서 수다 멀어도 될 것 같고 말해도 다 받아줄 것 같은 사람인가 봐요.

— 비난받는 점이 있다면?

남자가 남자다워야지 그게 뭐냐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전 그런 분들께 묻고 싶어요. 당신들 마음 속에는 여성성이 없느냐구요. 아주 어릴 땐 남자아이, 여자아이 별 구분이 없잖아요. 크면서 키워지는 거지.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자신의 양성적인 모습을 딱 반으로 잘라 그 속에 반만 키워가는 거 같아요. 사회의 요구대로. 그래서 전 누구든 자신의 감춰진 성을 드러낼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자들도 자기 내



재된 심세함이 있거든요. 특히 예술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래야 하죠. 다른 성에 대한 호기심도, 느낌도 없는데 어떻게 다양한 삶을 표현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원래 성격은?

누나가 많아서 실제로 여성적인 면도 있어요. 정도 많고 다른 사람에 비해 섬세하고... 하지만 책임감이나 추진력, 당찬 모습은 어느 대장부 못지 않죠.

—남자답다거나 터프하다는 소리 듣고 싶은 않은지.

왜요? 듣고 싶죠. 좀더 다양한 역할을 통해 변화할 생각도 있구요. 하지만 지금은 제 역할을 사랑해요. 눌러왔던 제 반쪽을 남김없이 보여도 된다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숨겨왔던 여성성을 표현했을 때의 그 해방감이라는 건... 아마 느껴보지 못한 분들은 모를 걸요? 그 편안함과 짜릿함을 전 사랑해요.

—좋아하는 여성상은?

무조건 착해야 돼요. 거기다 질리지 않는 여성이었을 좋겠어요. 아무리 이뻐도 질리는 여잔 딱 질색이거든요. 파티에선 누구보다 화려하게, 또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아무도 못 알아볼 정도로 수수하게, 때에 따라 변신할 수 있는 여자가 좋아요.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연기할 땐 연기자로, 평소엔 평범한 사람으로. 자신의 잣대로 획일화시켜서 일탈했을 때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다양성을 받아들여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은근히 그가 부러워졌다. 자신의 색깔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자신의 반쪽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그는 더 이상 터프한 척도 강한 척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 때문일까? 그의 결에선 남녀노소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누구나 그를 친구인 양 대하는 품이 어찌나 친근해 보이던지. 어느새 그 짜릿한 해방감이 내게 전이되는 것 같았다.

사진 엄윤순

“터프걸 연기, 너무 신나요”

〈카이스트〉말괄량이 주자현

책상에 벌러덩 누워 코를 골며 잔다. 같은 과 남자와 주먹질하며 대판 싸운다. 두 다리를 썩어 벌리고 앉는다... 요즘 잘 나간다는 〈카이스트〉에 나오는 ‘자현’의 모습이다.

얼마전 병영된 〈카이스트〉에선 대학원 면접시험에서 교수들에게 자신을, “여자가 아닌 사람으로 봐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보이시해서 귀여운 여자”라고 하기에는 좀 지나치게 ‘생판 남자’ 같은 극중 성격 때문일까? 그녀는 나의 호



말괄량이 공학도로 출연하는 〈카이스트〉 주자현

기심 대상 1호였다. 그러나 막상 만나보니 털털하면서도 캄캄한 여대생의 모습.

—극중 성격은?

억척스런 엄마와 세 명의 오빠 틈에서 자라난 막내딸이에요. 남자와 부대끼면서 크다보니 모든 게 자연스러운 거죠. 농구하는 것도, 누워서 자는 것도... 왜 여자라고 해서 못하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선 여성의 입장에서 자신을 남성화하려고 노력하는 재림씨의 역과는 다르죠.

—본인의 성격은?

무척 털털하고 솔직한 편이에요. 어쩌면 극중 인물과 닮아 애착이 더 가는지도 모르죠.

—이 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다면?

남성화된 여자아이라 연기하다보면 통쾌할 때가 많아요. 터프하다고 소문난 남자애랑 치고받고 싸울 때나 잠시 후 언제 싸웠다는 듯 뒤끝 없을 때, 폭하고 풀어버리는 모든 것들이 동경하기도 했던 그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느낌이랄까?

—좋아하는 남성상은?

전 똑똑한 남자가 좋아요. 나이는 저보다 좀 많아서 생각도 깊고 때론 물리설 줄도 아는 자상한 남자. 이별 아버지 같은 사람을 바라보는지도, 또래 아이들과는 좀 다른 편이에요.

—팬들의 반응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직 방송이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대체로 신신하다. 된다. 그런 반응들은 많아요. 남자에 비해 여자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는 편이고, 남자들은 많이 어색한가봐요. 제가 그런 연기 하는 게...

—연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닐 텐데...

고3 때 〈성장노랑 18세〉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을 했어요. 단대 연영과에 입학한 후엔 잠시 활동을 접었다가 얼마 전 〈말이〉라는 드라마의 막내 딸로 출연했죠.

—마지막 질문이다. 어떤 여성이 되고 싶은가?

전 남자한테 사랑받는 여자가 되고 싶어요. 이뻐지고 싶은 게 모든 여자들의 본능이듯 한 남자에게 사랑받는 여자, 그러면서도 자기 일을 진지하게 할 수 있는 여자가 되고 싶죠.

일탈을 바라시었을까? 남자에게 사랑받는 여자이고 싶다는 그녀를 보며 조금은 씁쓸한 감정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런 필자의 욕심일 뿐. 자현과 같은 이미지의 여자는 ‘어머머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도 어쩌면 고정관념일지 모른다.

남자배우에 비해 여자배우들의 경계선 뛰어넘기는 그리 과감하지는 않다. 보이시 하되 너무 남자 같지 않을 것. 그것이 여자연예인들에 대한 주문이다. 그래서일까, 대부분의 여배우들은 섹시함을 강조하는 수준 이상을 넘지 못한다. 이런 풍토에 또 하나의 카드를 제시한 〈카이스트〉의 ‘자현’. 이제 막 비상을 꿈꾸는 그녀가 보다 성숙



한 연기로 다양한 속내를 표현하는 연기자, 진정한 '힘'을 가진 여성이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 조여진

“요리에 관심있는 남자 왜 그렇게 많니?”

〈사랑을 그대 품 안에〉의 이정섭

고소한 산나물, 각종 김치, 소담스레 담긴 전과 고슬고슬한 밥, 부담스러우리만큼 깔끔한 밥상을 대하며 괜시리 침식시간을 택했나 하는 생각에 미안함이 앞섰다. 그러나 먹음직한 밥상 앞에선 미안함도 잠시, 허겁지겁 음식을 집하면서 내 관심은 어느새 손수 음식을 만든다는 그의 솜씨에 가 있었다. 그의 가게에 들어섰을 때 받았던 첫 느낌만큼이나 깔끔하게 담겨진 음식은 그의 성격을 가히 짐작하고도 남게 했다.

삶의 방황화라고 해야 할까? 방송인(?)답지 않은 겸손한 태도와 인터뷰 중간중간 손님들 밥상에 놓인 반찬 하나에도 설명을 곁들이는 모습에서 소탈하면서도 자상한 그의 면모를 읽을 수 있었다.

“어릴 때부터 별명이 기집애였어.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하고 공거나 고무줄 하는 게 더 재밌었으니까. 중3 때 학교 예술제에서 우연히 여자역으로 연극했는데 그때 얼마나 인기가 좋았던지. 예-어뵘 그게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모태 일지도 몰라.

처음엔 내 여성성 때문에 배우 못하는 줄 알았어.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대학 땀 연출로 전공을 바꿨어. 그러다가 우연히 연극무대에서 호모역을 맡은 게 계기가 됐지. 그게 끝장 〈사랑을 그대 품 안에〉 ‘미스터 마담’으로 이어졌거든.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각양각색이었어. 그 때만 해도 익숙하지 않았잖나. 특히 남자들은 이상하다. 느끼하다 난리였지. 근데 나중엔 어땠는지 알아? 자상하다. 부드럽다. 가려운 배를 긁어준다. 거기다 요리에 관심있다는 남자는 왜 그렇게 많니? 다들 자기도 몰랐대. 남잔 하면 안되는 걸로만 알았대나? 역시 관습이 무섭긴 무서운가봐.”

〈사랑을 그대 품 안에〉, 〈LA아리랑〉, 〈남자 년센스〉에서 보여지듯 여성화된 남자 역의 전수를 보여준 그의 연기에는

사회가 정해 놓은 고정관념 속에서 고민했을 한 남자의 삶이 녹아 있다.

그래서일까? 셀들에 반바지 차림인 요즘 남자아이들을 보며 세월 참 좋아졌다고 말한다.

“맞어! 우리 땀 여자친구 집에 전화하기도 힘들었거든. 전화해도 안 바꿔주구. 참 다르지. 요즘이랑? 그래서 친구들을 부탁 많이 받았지. 대신 걸어주곤 했거든. 이런 걸 목소리 덕 톡톡히 봤다고 해야 하나?

확실히 내가 편하게 느껴지나봐. 밖에 다니면 와서 꼭 말 시키더라구. 특히 아줌마들.



가수 이광조

가끔씩 진지하게 “혹시 호모 아니세요?” 하고 묻는 남자들도 있어. 진짜로 진지하게. 그럴 땐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니? “그럼 나 한 번 써보실라우-?” 훗! 그럼 어떤지 알아? 다들 놀래서 다신 그런 말 안 꺼내. 호모는 무슨 호모야. 다 오해지...

그런 걸 보면 참 웃겨. 왜 그렇게 틀에 맞추려고 난리지? 그 잣대에 맞지 않으면 비난하면서 어느새 정형화시키고 있는 거잖아. 그런 의미에서 난 페미니즘도 선을 긋는 행위라고 봐. ‘어머어머야 한다’는 것 자체가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아닌가?

주장할 것만 주장하면서 보호는 받기 원한다며 페미니스트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이정섭씨. 페미니스트 잡지라는 사실에도 당당히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자신감에 되레 내가 위축된 순간. 그의 남성관을 들어봤다.

“신체구조상 남녀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봐. 그런 의미에서 남자가 아무래도 잘 하는 게 많지. 동양자수나 산부인과 의사를 빼놓고는.

집안일? 남자들이 게을러서 그렇지. 그건 누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냐. 솔직히 그건 마음 씀씀이의 차이. 열에서 일하는데 어떻게 혼자 신문을 봐? 걸에서 마늘이라도 까주는 건 당연한 거야. 서로 위하는 마음이지.”

아내에 대해 묻는 질문에 “주위에서 남성적이라고 많이들 해. 무뎌하면서도 툭툭한. 참 좋은 사람이야. 늘 와이프에겐 고맙지 뭐. 나 같은 사람 데리고 살아줘서. 아버지로서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것 같아. 무서울 땐 무섭고 또 자상할 땐 자상하게 말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별 다르게 키우지 않았어. 이제 다 컸지만.”

예전엔 여성적인 자신의 모습이 장래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걸 극복함으로써 오히려 성장할 수 있었다는 이정섭씨. 그와 만난 건 그날의 반가운 빗소리 만큼이나 상쾌한 경험이었다.

사진 엄윤순

“감성은 예술의 모티브”

가수 이광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오늘 같은 밤〉, 〈즐거운 인생〉 등 섬세한 감성으로 80년대를 수놓았던 가수 이광조. 그런 그가 여타의 가수들과는 달리 대중매체를 기피한다는 소리에 솔직히 만나지 못하리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운이 좋은 탓일까? 인터뷰가 좀처럼 어렵다는 소문과는 달리 선뜻 응해온 터라 그 자체로 기대되는 만남이었다.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운 기준이 뭐죠? 하고 되레 내게 질문을 던지는 남자 이광조. 조용한 차림에서 만난 그의 모습은 으레 화려한 가수러니 했던 나의 생각을 여지없이 깨놓았다. 무대에서의 과격적인 의상과 긴 파마머리 대신 편안한 의상과 단정한 커트 머리의 남자. 무척 소탈한 느낌에 자연을 담은 사람이었다.

—당신의 인기비결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다른 가수한테 없는 섬세한 부분들이 음악적 매력으로 비쳐진 것 같다. 그들의 숨겨져 있던 감성을 내가 표현해 주는 데 대한 고마움? 뭐 그런 게 아닐까? 또 요즘의 많은 가수들이 만능 엔터테이너를 자칭하는 것과는 달리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노래하는 가수로 인정해 주는 팬들이 많다.



당신은 어떤 유형일까? 1

당신은 얼마나 충실하게 성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만들어준 여성 혹은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사회의 고정관념으로부터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당신은 여성적인 사람일까요, 아니면 남성적인 사람일까요?

산드라 벼의 성역할 테스트(The Bem Sex-Role Inventory, BSRI)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한 번 체크해 보세요. 전부 60개의 문항입니다.

각 질문마다 다음의 (1)~(7)의 항목들 중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 하나를 선택하세요. (1)은 질문에 대해 가장 강한 부정을 할 때이고, (7)번으로 갈수록 강한 긍정의 대답이 됩니다.

[보기]

- (1)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2) 대개는 그렇지 않다. (2점) (3) 아주 드물게 그렇다. (3점)
(4) 가끔 그렇다. (4점) (5) 자주 그렇다. (5점) (6) 대개는 그렇다. (6점) (7) 항상 그렇다. (7점)

자, 아래의 질문을 읽고 위의 보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 | | | |
|------------------------------------|--|--------------------------|
| 1. 나는 내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독자적인 사람이다. () | 22. 내사에 분석적인 편이다. () | 42. 근엄한 편이다. () |
| 2. 남의 말에 잘 따른다. () | 23. 동정심이 많다. () | 43. 자기 주장을 뚜렷이 내세운다. () |
| 3. 남을 잘 돕는다. () | 24. 질투심이 많다. () | 44. 다정다감하다. () |
| 4. 내 소신을 지키려고 한다. () | 25. 지도력이 있다. () | 45. 친절하다. () |
| 5. 나는 명랑한 사람이다. () | 26.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할까 하고 신경을 많이 쓴다. () | 46. 공격적이다. () |
| 6. 기분 변화가 심하다. () | 27. 정직하다. () | 47. 남에게 잘 속는 편이다. () |
| 7. 나는 독립적인 사람이다. () | 28. 위험한 일도 기꺼이 하는 편이다. () | 48.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 |
| 8. 수줍음을 잘 뱉는다. () | 29. 이해심이 많다. () | 49. 리더 역할을 한다. () |
| 9. 양심적이다. () | 30. 비밀로 숨기는 경향이 많다. () | 50. 순진한 편이다. () |
| 10. 운동을 좋아한다. () | 31. 쉽게 결정을 내린다. () | 51. 적응을 잘한다. () |
| 11. 애정이 많은 편이다. () | 32. 민첩이 많은 편이다. () | 52. 개인주의적이다. () |
| 12. 말과 행동을 과장하는 편이다. () | 33. 진실하다. () | 53. 남에게 나쁜 말을 못한다. () |
| 13. 주장이 강하다. () | 34. 자부심이 강하다. () | 54. 체계적이 될 한다. () |
| 14. 아첨하는 경향이 있다. () | 35.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위로해 주려고 애쓴다. () | 55. 경쟁심이 많다. () |
| 15. 행복하다. () | 36. 잘난 척한다. () | 56. 아이들을 좋아한다. () |
| 16. 딱히 있는 성격이다. () | 37. 남보다 부위에 서려고 한다. () | 57. 재치 있는 편이다. () |
| 17. 성실한 편이다. () | 38. 말씨가 부드럽다. () | 58. 야심이 많다. () |
| 18. 예측하기 어려운 편이 있다. () | 39. 남들에게 호감을 주는 편이다. () | 59. 예외파이다. () |
| 19. 강압적이다. () | 40. 남성적이다. () | 60. 고지식한 편이다. () |
| 20. 여성스럽다. () | 41. 성격이 온화하다. () | |

▶ 점수를 산정하시려면 93쪽으로 가세요.

— 요즘의 방송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80년대와 비교해서 이야기해 달라.

예전에 비해 고정관념들이 많이 무너지고 다양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대사회도 겉으로 인정하는 척하는 거지 그 다양성을 진짜 이해하는 사람은 몇 안 되는 것 같다.

— 본인을 여성적 색채를 지닌 가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보여지는 어떻게 생각하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예술을 하는 데는 반드시 양성적인 요소들이 필요하다. 그 중 감성은 최고의 예술로 승화시키는 좋은 모티브다. 솔직히 그런 말을 들었을 당시엔 무척 곤혹스럽고 기본도 좋지 않았다.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이미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여서 사람들 입에서 논란이 됐을 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뭐라 하든 상관없다. 나는 내 음악의 길을 갈 뿐이다.

— 팬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길 바라는지.

노래하는 사람으로서만 봐줬으면 좋겠다. 난 소시민이 되고 싶은 사람이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방송은 그래서 나가지 않는 편이고 내 노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는 콘서트장이 내겐 맞다.

—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의 감성을 아껴주고 사랑해 주는 팬 한 사람만 있어도 난 노래할 수 있다.

솔직하면서도 너무나 담담하게 내뱉는 말투에서 한때 상처받았을 그의 모습이 느껴졌다. 그 때문인지 자신의 여성성에 대한 질문에도 가능한 한 언급을 피하려는 듯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어떤 평가가 오갔더라도 그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감성을 사랑하는 팬층이 두텁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홍석천, 이정섭, 추자현, 이광조. 이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팬들의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으며, 받을 연예인들이다. 물론 그들의 캐릭터가 독특해서만은 아니다. 그들은 연가나 노래에서 탁월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바로 그 점이 팬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 "나의 장점은 바로 남성성과 여성성을 겸비했다는 것이다. 예술가나 연예인에게 여성적인 감성은 배놓을 수 없는 자질이다."

그건 두 말 할 여지도 없이 맞는 말이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의 그런 양성성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용기와 자유마저 지녔으니, 미래사회를 향해 두뼘두뼘 앞서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면 혹 지나친 아무일까? [1]



박선민
방송작가

양지와 음지의 변증법

동양철학 다시 읽기



“네 가 도대체 여자냐?” 또는 “너도 남자다 이 거지?” 하는 말에는 생물학적으로 분명히 그것인데 구실로 봐서는 함량이 차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구실’과 기대되는 ‘함량’, 이것은 소위 ‘~답다’로 표현되는 사회적 의미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여자다움의 일반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역설 이미지보다는 부드러운 이미지, 자기 주장이 강한 굳센 이미지보다는 수동적이고 약한 이미지, 직선의 이미지보다는 곡선의 이미지, 따지고 대들기보다는 순응하고 순종하는 이미지가 소위 여자다움의 이미지이다. 성별 분간이 어려운 돌 전의 여자아이가 아무리 우락부락 생겼어도 장군집이라고 했다가는 그 부모를

설설하게 하는 칭찬(?)이 된다는 것을 누구나 경험했을 것이다. ‘상대방을 때려할 줄 안다면 아기의 성별에 맞는 어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문화에서는 남자 주도/여자 보조, 남자 능동/여자 수동, 남자 굳센/여자 여림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앞의 항에 우월의 가치를 줌으로써 남존여비를 정당화한 것이 음양이론이다. 그렇다면 음양이 남녀와 짝을 이루어 천지, 존비, 강유의 개념들을 생산해 내고 남녀 관계의 규범으로 자리잡은 것은 언제부터인가. 천존지비(天尊地卑), 양존음비(陽尊陰卑), 남존여비(男尊女卑)가 짝을 이루어, 보라! 하늘은 높고 땅은 낮지? 그



하늘은 높고 땅은 낮지?
그래서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은 거야, 그러므로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인 거야.
이런 논리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

인간의 사유가 역사적 울타리에
갇힐 수밖에 없다면
남존여비의 음양이론은
남성권력의 확립을 위해
남성적 성질로
기호화한 것이다



래서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은 거야, 그러므로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인 거야. 이런 논리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그 이론 생산의 과정을 살펴보자.

모든 사물과 성질의 중간지대를 배제하면 양극단만 남게 된다. 귀한 것과 천한 것, 높은 것과 낮은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강한 것과 약한 것,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 등이다. 한 쪽 극단을 양으로, 다른 한 쪽 극단을 음으로 한 것은 일종의 ‘약속’이다. 하늘에 건(乾)이라는 이름을 땅에 곤(坤)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하늘이 하는 일을 건도(乾道)라고 하고 땅이 하는 일을 곤도(坤道)라고 한 것은 일종의 기호이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유사한 것끼리 분류하고 그것을 기호화해 추상적인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은 모든 문화권이 즐겨온 인간의 속성으로 보인다.

음양이론은 남자의 소망일문

그렇다면 음양, 남녀, 존비, 건곤, 하늘과 땅, 강함과 부드러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만나 짝을 이루게 되었는지 ‘주의’의 말을 들어보자. ①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건재와 곤재는 그것을 본뜬 것이다. ② 건도는 남자를 만들고 곤도는 여자를 만든다. ③ 건은 양의 속성이고 곤은 음의 속성이다. 건은 강하고 곤은 약하다.

이 세 문장을 편집해 보면 하늘=높음=건=남자=양=강함이라는 그림이 하나 나오고, 땅=낮음=곤=여자=음=약함이라는 또 하나의 그림이 그려진다. 즉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는 공간적인 위치가 귀하고 천한 사회적 존비개념의 근거가 되었다. 양의 속성으로 분류된 것은 음의 속성으로 분류된 것을 지배해야 하고 음은 양에 복종해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여자는 수동적이어야 하고 유순해야 하고 부드러워야 하고 정적이어야 한다.

이론을 만든 것은 사람이다. 사람을 대표하는 남자이다. 따라서 음양이론은 남자의 소망이 담긴 부분적인 진실일 수밖에 없다. 인간의 사유가 일정한 역사적, 시대적 울타리에 갇힐 수밖에 없다면 남존여비의 음양이론은 남성중심사회가 요청한 남성권력의 확립을 위해 권력을 남성적 성질로 기호화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특정한 시기의 역사적 과제가 낳은 과정적 진실일 뿐이다.

여성의 움직임을 한정하는 음양이론이 사실은 일정한 역사적 시점에서, 일정한 관점에서 만들어진 부분적인 진실이라면 그것은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 음과 양의 글자가 처음 만들어질 때 음양은 ‘그늘’과 ‘양지’를 가리키는 자연현상이었다. 햇빛이 드는 곳, 그



북쪽과 어둠의 고미도, 원래 북쪽과 어둠은 하나의 몸으로 살았다는 전설이 있다.

늘긴 곳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던 음양이 점점 유사한 성질을 포괄하며 범주를 확대해 나갔다. 예를 들면 양은 산의 남쪽, 건조한 것, 밝은 것, 더운 것과 짝을 이루고, 음은 산의 북쪽, 어두운 것, 습기찬 것, 추운 것과 짝을 이룬다. 생활양식이 복잡해지고 인간의 의식이 확대됨에 따라 거기에 내용과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사물과 사건의 양면적인 성질로 이해되거나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원리로 인식된다. 또 자연운동의 법칙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이 때 음양은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어느 것이 우월하거나 어느 것이 열등하다고 할 수 없으며, 하나가 지나치게 강하거나 다른 하나가 지나치게 약하면 자연현상에 이변이 온다고 생각했다.

음양, 무얼은 없다.

요컨대 음양은, 존재의 원리가 없을 뿐더러 영원한 양지, 영원한 그늘이라는 고정된 실제 개념이 없었다. 즉 그늘이었다가 양지가 될 수도 있고 건조하다가 습하게 될 수도 있는 상호 전화의 원리로 이해되었다. "음 속에 양의 성질이 들어 있으며 양 속에 역시 음의 성질이 들어 있고", "음이 극에 달하면 양으로 전화하고 양이 극에 달하면 음으로 전화한다"는 것이다. 즉 서로 상반된 속성을 가지지만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어느 과정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것일 뿐 절대적이고 고정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여자를 '음'이라고 하거나 남자를 '양'이라고 할 아무런 근거도 없고, 양이 좋거나 음이 나쁘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다. 자연현상에서 양지와 음지를 포착한 인간은 거기에 일정한 성질을 부여하고 싶어진다. 따뜻한 양지는 식물이 잘 자라고 물도 활짝 퍼져 기쁘다. 춥고 습한 음지는 식물이 잘 자라지도 않고 물이 움츠러들게 되며 기분이 우울하다. 그러나 양지란 음지가 존재함으로써 있게 되고 음지란 양지가 있음으로써 존재하게 되는 서로 상대적인 현상이다. 그 뿐 아니라 양지는 음지로, 음지는 양지로 변할 수 있어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상호전화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양지와 음지를 고정시키고 그것이 주는 느낌을 추상화할 때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는 가치가 나오게 된다.

인간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의 일이 벌어지는데 남성 중심의 질서개념이 자연현상의 삶과 죽음의 감정과 연합하여 나온 것이 음양, 천지를 이용한 개념화이다. 권력을 선점한 남자, 그들은 자연에서 유추된 개념으로 남

그늘이었다가
양지가 될 수도 있고
건조하다가 습하게 될 수도 있는
상호 전화의 원리로
이해되었다.

성성과 여성성을 이원화하고 남존여비를 논증하는 데 사용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강함과 약함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규정하고 그 규정된 성질로 한 인간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놓치는 부분 없이 얼마만큼 진실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굴센 여자, 어린 남자

초패왕 항우는 이른바 남성의 대명사이다. 산을 들 어올리고도 남음이 있는 기상, 거침없는 공격과 약탈, 포효하는 패기, 이런 것들 때문이다. 그러나 유방에게 쫓겨 사면초가가 된 항우가 여인 우미인에 의지하여 슬피 우는 모습은 어떤 인간도 이보다 더 여릴 수 없다. 송나라의 서정시인 이청조는 미세하고 여린 마음이 드러나는 시를 많이 써 천성이 여자로 각인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국가가 패망하게 되자 돌연 비분강개해서 초패왕보다 더한 기세의 시를 써 호소하는데 어떤 충활도 이보다 강할 수는 없었다. 마음 변한 연인을 떠나보내게 된 『시경』 시대 여성들은 "남자가 어디 너밖에 없다더냐, 옷기는 놈이야!"로 맞섰는가 하면, 「규원가」에서 허난설헌은 바람둥이 남편을 서술하는 데 강하고 당찬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자기 인생을 더듬어가며 객관적으로 성찰하는 그녀는 마음 둘 데 모르

고 이러저리 굴러다니 바람둥이가 된 남편과 극적인 대조를 보이는 것이다.

관습이나 사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사람이 만든 것이다. 절대적인 것이라 믿고 따르던 것이 자유를 제한하거나 행복을 방해한다면 없애거나 교정하는 것 역시 사람의 몫이다. 꼭 옳다고 믿고 있는 것이 정말 그런가, 절대적인 진리라 믿고 있는 것이 정말 그런가를 회의해 보는 것이다. '진리'란 때, 어떻게,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가를 회의해 보는 철학적 반성을 통해 내가 선 자리를 확인하고 내 삶을 성찰할 수 있다. 그런 과정은 자유와 행복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것이다.

"중국적 사유가 철학에 봉사한 것이 있다면 체계적인 것을 의심한 것이다." (임어당)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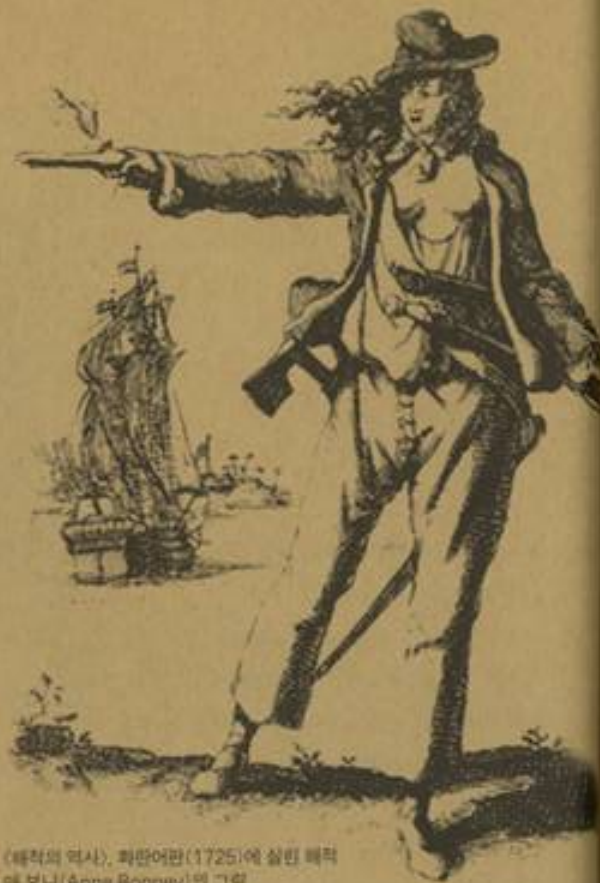


이숙인

국민대 · 생명대 강사, 동양철학

'몰란'은 있는가?

서양사 속의 남장여성들



《해적의 역사》, 피터 보너(1725)에 실린 해적 앤 보너(Anne Bonny)의 그림

당신이 남자라면 치마를 입고 거리에 나가보라. 아직도 바지 입은 여자에게조차 눈발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꽤 있지만, 치마 입은 남자는 이른바 '복장도착', 친절하게 말하면 변태성욕자 취급밖에 받을 것이 없다. 아무리 유니섹스 패션의 시대라고 해도 그건 다 유행을 따르는 한도 내에서 그럴 따를 일 뿐. 여전히 복장은 사회가 개인의 정체성을 평가하는 데 중심적인 요건이다.

물론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 주어진 삶을 거부하며 그 경계를 넘나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했다. 남성의 옷과 생활 양식을 따르고 남성의 일을 추구하는 여성들 역시 끊이지 않았다. 사회는 이들을 어떻게 취급했을까? 여자는 여자 옷을 입어야 하고 남자는 남자 옷을 입어야 한다는 규칙을 깨러드는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사회는 결코 없었다는 사실이야 말해 무엇보다 그렇다고 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변태' 취급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잔다르크가 마녀라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그녀의 남장이었고, 마녀재판 이후 처음 종신형을 언도받은 그녀가 결국 화형에 처해진 것도 감방에서 남

자웃이 발견되도록 꾸민 음모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그들은 잔다르크를 성도착자라고 비난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군대를 찾는 여성들

남성의 옷차림을 한 여성들이 사회현상으로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서양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진 '신여성'들이 출현하기 시작한 19세기부터이다. 그러나 남장의 전통 자체는 한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갖가지 이유로 여성으로서의 삶이 파분하고 건달 수 없다고 생각한 일부 소녀들이 남장을 하고 신분 올 위장한 채 남성으로 살아가는 일은 구전되는 민담이나 민요 혹은 소설의 소재로도 자주 등장하듯 일반 사람들에게도 낯선 것이 아니었다.

이들의 구성을 보면, 의지할 친척 없이 홀로 남겨진 젊은 여성들이나 여성으로서의 삶에 도저히 적응할 수 없었던 나이든 여성 등으로 다양했지만, 대부분 이전의 신분을 버림으로써 크게 잃을 것이 없었던 하층계급 출신인 경우가 많았다. 17, 18세기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에스파냐, 이탈리아 등지의 신문에서 실제 성별이 발각된 여성들은 종종 기사거리로 등장했으며, 남장여성들의 이야기는 각 나라 사이에서 번역되어 퍼지곤 했다. 이런 일이란 서로가 서로를 뵈러 아는 동네 안에서야 불가능한 법. 아마도 인구 이동이 적었던 중세에 여성들의 남자 행세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여성들이 선호한 곳은 군대였다. 당시 유럽에서는 전쟁이 잦았고, 군대는 지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신분을 숨기기에 좋았다. 게다가 여성으로서의 주어진 삶을 거부한 이들에게 전장에서 전장으로 이동하는 방랑과 모험의 생활이나, 거기에 필요한 힘은 매력적인 수밖에 없었다. 17세기 한 네덜란드 판리는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전에 아마조네스에 관해 말하지 않았나... 그러나 실제로 내 배에서도 남자의 일을, 그것도 아주 용감하게 해내는 여성들의 예가 많았다네. 나도 직접 목격한 경우도 있고... 이들이야말로 아마조네스가 아니고 무어란 말인가"라고 적고 있다.

여성들이 남장을 함으로써 할 수 있었던 '금지된 일들'에는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동성애, 적어도 이성애에 대한 거부도 포함되어 있었다. 평생 여성들에게 감정적·성적으로 이끌렸던 17세기 스웨덴 여왕 크리스티나는 결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왕위도 버린 채 평생 남장을 하고 살았다. 다른 여성과 사랑에 빠진 여성은 남자자리를

함으로써 실제 행동으로 옮길 용기를 얻었다. 18세기 말 이전까지 두 여성들 사이의 사랑은 이성애자의 사랑과 같은 형태를 띠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결혼한 부부를 흉내내는 것으로 나타나곤 했다. 남장을 한 여성과 다른 여성이 부부로서 심지어는 수십 년을 살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딸이 남장을 한 여자와 살고 있음을 알게 된 '장모'의 고발로 알려지기도 하고, 성공리에 술집을 경영하다 옛날 동네에서 온 사람이 얼굴을 알아보는 바람에 들켜 협박에 시달리고 돈을 뜯기다가 스스로 자백을 한 경우도 있었다.

배우들의 동성애

남성 복장을 한 여성들은 적발되었을 때 대개의 경우가 혹한 처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됐다. 처벌하는 자와 경계를 넘는 자 모두 그 의미가 단지 어떤 옷을 입느냐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여성의 남장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며, 사회질서를 혼란시키고 남성과 여성 사이의 위계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중세의 성자들로부터 시작하여 각 나라의 법률은 여성동성애를 화형에 처해야 할 죄로 규정했지만, 현실에서는 그들이 여성의 복장을 유지하는 한 극형은 면할 수 있었다. 남장을 한 여성과 여

성 복장의 여성이 동성애로 적발되었을 때도 남장을 한 쪽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던 것을 보면 동성애보다 남성의 자리를 넘봤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것이다.

그러나 뜻밖에도 실제 현실은 오히려 지금보다도 관대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18세기 미국에서 '티모시 태이'라는 군인의 진짜 성별이 발각되었을 때, 디즈니만화의 몰락처럼 그 역시 미국혁명에서 군인으로 복무한 공로가 인정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었

실제로 내 배에서도

남자의 일을,

아주 용감하게 해내는

여성들이 많았다네.

이들이야말로 아마조네스기

아니고 무어란 말인가

99

다. 물론 플란과 마찬가지로 '데보라 톰슨' 역시 더 이상은 남장을 포기하고 여성으로 돌아와야 했지만 말이다.

18세기 영국에서 동네 술집주인으로 35년을 다른 여성과 부부로서 살았던 메어리 이스트의 경우도 동네사람들의 반응은 둘 다 남자에게 체인 과거 때문에 혼자 살기로 한 것이며, 결혼을 안 한 여자 둘이 살자니 그 방법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이해와 동정이었다.

배우들도 대부분 관대한 처분을 받았다. 르네상스 시대에 남성배우들이 여성의 역할까지 도맡았던 데 비해 17세기 프랑스를 시작으로 여성배우가 남성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이들은 이성애자인 경우에도 종종 무대 위의 생활을 현실로 옮겨 남성의 삶을 원했고, 또 자신의 동상에 지향을 공공연히 내비치는 경우도 있었다. 종종 남자 역할을 맡던 파리 오페라의 가수 모랭은 순회공연 도중 지방 유지의 딸과 도망을 갔다가 잡혔으며, 영국의 남장 여배우 샬롯 클라크는 자서전에서 자신이 "내 살 때부터 남자 옷이 더 좋았으며, 집안일은 일체 배우기를 거부했다"고 밝히고 있다. 배우로서 남장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 늘 여자에게 이끌렸던 그녀가, 사랑하는 여성과 시골에서 함께 살게 되었을 때 누구나 그들이 부부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모랭과 클라크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은 배우들이란 원래 그렇게 별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뿐 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남성 영역으로 들어가는 여성지식인들

사회가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출신이 대부분 낮거나, 사회에서 예외로 치부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이들은 소수였고,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의 행동은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었음에도 사회 전체의 규범을 뒤바꾸고 질서를 흔드는 위협은 되지 않았기에, 처벌을 주도하는 '사회지도층'은 남



암스테르담에서 12년간 마코트 심부름꾼과 아무로 일하다 죽은 Claartje는 사후에 여자였음이 밝혀져 곧 전기까지 출간되었다. 사진은 그 전기의 표지(1743). 그러나 그녀의 불우했던 생애는 달리 전기에서는 살아서 부유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여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그렸다.

의 일'로 치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알려진 작가인 조르주 상드나 미술가인 보뇌르를 비롯한 중상류층 여성들이 남장을 하기 시작하고, 경계를 넘어서려는 여성들의 행동이 페미니즘이라는 운동으로 표출되면서, 그리고 사회질서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반응은 급격히 바뀌어갔다.

네덜란드 최초의 여의사이자 유명한 1세대 페미니스트 알레타 자롭스는 자서전에서 자신이 15살 때인 1870년, 평생 집안일에 바쳐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남장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거기서 마부가 되기를 열렬히 바랐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시대는 바뀌어 이러한 생각은 소녀들의 공상에 그쳤을 뿐,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행정체계가 발달하면서 신분의 위장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유럽

내의 여행조차 신분증명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편 그 이전까지 오로지 남성들만의 영역이었던 분야는 서서히 여성들에게도 문을 열기 시작하여, 자롭스는 최초로 네덜란드대학에 들어간 여성이 되었다. 남장을 하고 남자행세를 하는 대신 여성으로서 남성의 영역을 깨고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와 더불어 여성들에게는 이제 원한다면 여성들끼리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났다. 여성들을 위한 직종도 생겨났고, 새로 생긴 아파트나 대학가 등은 여성들끼리 살 아갈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제공하였다. 평생에 걸친 여성들끼리의 동거는 '보스몬식 결혼'이라고 불렸으며 '신여성'들 사이에 드물지 않은 사회현상이었다. 이 여성들은 남성과의 결혼을 거부하고 동성친구와 함께 살면서 재산을 공유하고, 가족 모임에 함께 참석하고, 침대도 같이 썼다.

'성과학'의 이름으로...

하층 여성들의 '일탈'과는 달리 지식과 경제력을 갖춘 여성들이 기존의 성역할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은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리하여 1880년대에 이르러 프로이트를 뒤이은 성과학(sexology)자들은 남성의 옷을 입은 여성들과 그 이전 시대까지 장려되던 여성간의 깊은 우정을 여성 성도착자나 레즈비언의 범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레브록

앨리스와 같은 성과학자는 선천적인 도착자는 남성 역할을 하는 여성이 되며, '정상적인 여성'은 이들 도착자를 허위 모방함으로써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이 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신여성'들이 처한 사회환경이 후천적인 도착자를 조장하고 있으며, 동성애의 증가는 현대 여성해방운동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결국 앨리스와 같은 성과학자들은 경계된 역할을 거부하는 모든 여성들을 변태성욕자로 낙인찍었을 뿐 아니라, 여성운동이 모든 죄와 악의 근원이며 여성들을 타락시키고 있다는 낯익은 주장이 과학의 이름으로 설 파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남장을 하고 남자행세를 했던 여성들은 여성으로서 다른 길을 찾을 수 없었던 시대적 한계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거부하려고 했던 '페미니스트'들이 아니었을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사랑을 이루기 위해 이들은 사회가 정한 성의 경계선을 넘었다. 그러나 이들은 여성에게 허락되지 않은 남성의 자리를 넘봤을 예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시도였을 뿐, 사회구조적인 문제제기를 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여성이 여성으로서 그 선을 깨려고 했을 때, 다시 말해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자 한 페미니즘이 운동으로서 자리잡아가면서 사회는 관용의 가면을 벗고 이들 모두를 변태라 몰아붙이면서 탄압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7]



백영경

한국여성연구소 연구원, 서강시전공

남자이름 쓰기

남자옷 입기

조르주 상드의 '선택'을 중심으로



사진작가 나디르가 찍은 상드의 초상사진. 루이 14세 시절 남자들이 쓰던 군장가발을 쓴 상드의 사진은 당시 프랑스 사회의 드레스코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상드의 의도가 엿보인다.

조르주 상드(George Sand)를 처음 알게 된 것이 언제였는가? 아마도 사춘기시절 문학소녀였던 때인 것 같다(내가 사춘기였던 시절의 문학은 지금 청소년들에게 영화나 대중음악과 마찬가지로 시대현상이었다). 당시 비자니아 울프, 루 샬로메, 조르주 상드 등 소위 여류문학자들은 그들의 문학작품보다는 유명 남성문인이나 지식인들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편지, 일기 등 사적인 문건들로 더 많이 알려졌고 덕분에 나는 소녀시절 이 엄청난 선각의 여성지식인들에 대하여 가당찮은 경멸감을 갖게 되었다.

특히 조르주 상드의 경우는 더욱 심했다. 남장을 하고 부츠를 신고 밤의 살롱을 드나들며 시가를 피웠던 여자. 이혼과 부도덕한 스캔들의 주인공이었음은 물론 연하의 청년음악가 쇼팽과의 사랑으로 그의 음악혼을 모두 빨아먹은 마녀 같은 여자. 아마 이쯤이 청교도적인 도덕관에 푼글이 있던 사춘기시절 내가 조르주 상드에 대해 갖고 있던 인상이었던 것 같다. 당시 쇼팽이 폐결핵으로 일찍 죽은 것까지 상드에게 혐의를 두는 듯한 글을 읽은 기억이 있다.

어쨌든 지금은 속죄하는 의미에서라도 악의적인 오해와 무지, 편견으로 가려지고 매도당한 과거의 여성들을 다시 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름 대신 조르주라는 남자이름을 쓰고 치렁치렁한 드레스 대신 남자옷을 입고 자기가 지은 이름으로 글을 써서 생계해결을 했던 여자. 조르주 상드는 그래서 페미니즘을 공부한 이후 내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보고 싶어한 여성의 우선순위에서 상위권에 들었다.

혁명 이후의 달라진 남녀 복장

이름과 옷은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한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단순히 말하자면 남자이름을 쓰고 남자옷을 입은 것은 여성성의 부정이다. 그러면 조르주 상드는 왜 남자이름을 쓰고 남자옷을 입었을까? 그렇게 해서 그녀가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녀는 어떤 것을 피하고자 했던 것일까? 그 모든 것에 이유가 있다면 그녀의 선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프랑스혁명 이전 구제재하에서의 의상은 색깔과 모양, 장식품, 천의 종류를 통해 사람



화가 드라클로와가 그린 상드의 초상화. 남성복장을 한 상드를 어린 소년 같은 모습으로 그렸다.

의 계급과 직업, 사회적 계층 등을 엄격하게 드러냈다고 한다. 이는 혁명정부가 무엇보다도 서둘러 의복의 평등을 추진하는 법령을 선포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이 복장법령의 제정으로 19세기 프랑스사회에서 시작된 변화는 의미심장하다. 이제 계급에 따른 의복의 구별은 없어졌으나 경제적인 부의 정도에 따른 구별이 생겨난 것이다. 이 구별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천의 질감이나 취향의 고급스러움 등 드러나기 힘든 비밀한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남성에게만 해당되었다. 혁명 이후 19세기 전반을 통틀어 남성복은 다양성을 잃어려는 엄격한 통제로 유명하다.

혁명 이전의 남녀복장은 거의 천의 종류로만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없었다. 같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색깔이나 천, 레이스, 리본 등 모든 것을 다양하게 공유했으며 이는 17, 18세기 프랑스를 다룬 영화 속의 화려한 남성복장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혁명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중상류층 이상의 남성들은 흰 린넨셔츠에 검은색이나 짙은 회색의 코트를 입었다. 남자들이 옷을 바꿔입게 되자 천과 색깔, 장식의 화려함 등 의상의 다양성은 여성복에만 남게 되었다. 이제 남성의 재산과 계급과 신분의 상징을 드러내는 옷차림의 의무는 온전히 여성들이 지게 되었



드라클로와가 그린 상드의 초상화를 모티브로 그린 칼라미타의 판화. 상드의 여성상을 강조해 이 중아처럼 그렸다.

남장을 하고
부츠를 신고 밤의 살롱을
드나들며 시가를 피웠던 여자.
이혼과 부도덕한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던 상드.

고 그 결과 여성의 드레스는 여성 자신의 취향과 스타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부가 속한 계급의 신분 표시용이 되었다. 상류층 여성들은 남편이나 아버지의 신분과 부를 상징하는 지표가 되었으며 여자들의 의상코드에 따라 남자들의 신분과 위치가 결정나게 되었다.

프랑스혁명정부가 의복의 평등화를 위해 제정한 법령은 결과적으로 남성에게만 적용되었으며 여성이 제외됨으로 인해서 과거의 신분계급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혁명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 여성들이 혁명에 참여했다라고 잘 알다시피 그들은 시민이 아니었다.

자유로운 모계 라인의 내력

그러면 조르주 상드, 열렬한 공화주의자였고 또 공상적 사회주의자였던 그녀는 어땠을까? 프랑스혁명 정부는 공식적인 의복의 평등법안을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혁명 9년에는 여성의 남성복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남성의 여성복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같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 당시로서는 남성의 여장이라는 것이 아예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일로 간주된 것이 아닌가 싶다.

어쨌든 여성의 남장이 법으로 금지되었으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규정이 적용되었는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남장의 필요성을 의학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경찰이 발부하는 허가증이 나오는 식이었다. 실제 로자 보뇌르(Rosa Bonheur)라는 여성은 허락을 얻어 남장을 한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나 조르주 상드의 경우는 공식 허가를 받은 기록이 없다. 따라서 상드의 남장은 허락받지 않은 것이었다. 상드가 체포의 위험을 감수하며 불법남장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경찰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장은 6개월마다 갱신해야 했으며 허가가 나더라도 '극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는 가지 못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장소들이 상드가 가고자 하는 장소였다. 때문에 상드가 구태여 허락을 구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간다.

조르주 상드는 프랑스역사에서 남장(crossdress)을 한 최초의 여성이 아니다. 자신이 밝히는 남장 이유를 살펴보면 남장은 그녀의 자유로운 귀족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모제라인의 집안 내력인 것 같다. 상드는 파리에 도착해서 겪게 된 어려움을 어머니에게 호소했고 귀족이었던 아버지와 달리 평민출신이었단 어머니는 자신이 썼던 방법을 딸에게 전해줬고 딸은 어머니의 조언을 받아들여 남장을 하게 된 것이다.

"남장을 통해 남성과의 우정이 가능하다"

조르주 상드가 처음 파리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이름은 오로르 뒤드방(Aurore Dudevant)이었다. 자신의 표현대로 그녀는 파리에 도착해 '흔티를 벗을 필요가 있었으며' 문학과 예술, 정치 등 당시의 지식인 서클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기 위해 극장이나 클럽에 나가 남자들을 만나야 했으며 파리의 밤거리를 돌아다녀야 했다. 그러나 남편에게서 오는 쥐꼬리만한 돈으로는 파리에서 필요한 의복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구두는 금방 닳았으며 드레스는 불편한 것은 고사하고 금방

벗어지고 더러워졌다.

당시 프랑스사회에서 여성이 입어야 하는 드레스는 한 마디로 그녀가 살고자 하는 인생과 정반대의 삶을 위해 디자인된 옷이었다. 상드는 "적은 예산으로 자신의 활동범위에 맞춘 편리한 옷차림을 갖추기 위해" 남자옷을 선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녀는 아주 실질적인 이유에서 남자옷을 선택한 것이다.

남자와 동등하게 활동하기 위해 남장을 한 상드의 선택은 자연히 남성과의 친교에 대해 철학적인 견해를 갖게 만들었다. 계급 없는 사회의 이상주의적인 형제애에 대한 그녀의 견해는 매우 도덕적이다. 그녀는 성적인 혼란이 없는 남녀간의 우정을 믿었고 남장으로 다른 남성들에게 동료로서 대우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고 무리 속에 섞여서 인정받는 것, 그것이 그녀의 목적이었다. 그녀는 남자옷을 입는 데서 더 나아가 여성적인 제스처나 행동, 여성으로 혼란된 몸짓까지도 다 버렸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여성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기도 이름과 옷만 남자의 것으로 하면 똑같은 사람(남자)임을 주장했다. 그녀는 남동생과 똑같이 회색양복을 입고 부츠를 신고 돌아다녔으며 어떤 회합에서는 남동생과 같은 사람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상드는 처음 책을 출판할 때 남동생의 이름 'Jules Sandeau'라고 서명했던 것을 계기로 그 이름을 쓰게 되었다. 그후 '인디애나(Indiana)'를 출판할 때 'G. Sand'라고 썼다. 그후에는 Georges로 썼다가 나중에는 s를 빼버리고 George라고 쓰게 되었다.

처음 상드가 남자옷을 입은 것은 여자로 눈에 띄지 않기 위한 변장에 불과했다. 그러나 곧 그 변장은 마치 무대의상처럼 복장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 동기부여의 모티브가 되었고 그녀는 복장에 맞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거기에서 즐거움까지 느끼게 되었다. 그녀는, 남장을 한 뒤 식당이나 극장, 원지집 등에



만화가 알시드 로렌츠가 그린 상드의 모습(왼쪽)과 왼쪽엔, 허락을 감추기 위해 남장을 했다는 상드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허락과선을 비롯한 여성적인 신체의 특성을 더욱 강조, 희화화시켜 그렸다.



러 회합에서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생기는 온갖 웃지 못할 행동과 반응을 자세하게 묘사한다.

그러나 상드의 경우 남자이름으로 활동을 한 조지 엘리엇 같은 다른 여성작가들과는 구별된다(살롯 브론테도 처음에는 남자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조르주 상드의 경우 옷이나 이름이나 상드 특유의 언급적인 선택, 즉 변장을 위한 것으로 페미니스트학자들은 풀이하고 있다.

자신을 숨기기 위해 사용한 남자이름

그녀는 "내가 명성을 얻으리라고 믿었다면 나는 이 가명을 바꿨을 것이다. 그러나 내 소설 'Lelia'가 비평가들의 호된 공격에 시달리게 되고 나의 모든 작품, 내가 사인한 이름까지 포함해서 가혹한 비난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름 없는 문필가들의 무리 속으로 숨어들어가 나 자신을 가릴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이름으로 계속 작품을 썼다. 그렇지 않았다면 난 아주 비겁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고백했다.

옷과 마찬가지로 그녀가 남자이름을 쓰게 된 것은 남자들의 무리 속에 감춰지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내려진 선택이었다. 그녀는 나중에는 자신의 가명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며 새 이름을 쓴 자신의 결정을 '계약'이나 '결혼'과 같은 것이라고 묘사한다. "계약과 같은 것이다. 조르주라는 이름의 가난한 초보시인

혁명적인 세상에서
이름이란 무엇인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숫자에 불과하고
말하고 투쟁하는 이에게는
상표나 모토와 같은 것이다.

과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 준 소박한 여신과의 새로운 결혼과 같은 것이다... 혁명적인 세상에서 이름이란 무엇인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숫자에 불과하고 말하고 투쟁하는 이에게는 상표나 모토와 같은 것이다."

이름은 귀족사회에서 그의 신분과 가문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혁명을 한 사회에서 그런 이름은 설 수가 없다. 귀족가문의 잔재를 갖고 있는 자신의 본래 이름과 남편의 이름 모두를 거부한 상드의 선택은 그런 의미에서 봉건적인 귀족제도와 남성가계라인을 전복시키고 그 자신만의 역사를 시작한 의미심장한 선택의 결과이다.

상드의 이름은 장식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 이름으로 불렸으며 그녀의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상드의 '가명'을 성으로 받았고 그녀의 모든 서류, 증서, 여권까지 모두 조르주 상드라는 이름으로 발행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출생과 양육, 결혼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만의 삶을 조르주 상드라는 이름으로 개척한 것이다.

조르주 상드는 '비담 조르주 상드'라고 공식적으로 불렸다. 그대로 풀이하자면 조르주 상드의 부인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녀는 결국 가부장제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한 부부문화에 대한 반란의 패러디를 시도한 것이다. [1]

류숙철(문화일보 차장, 본지 편집위원)

why not

상관없어,

날 그냥 내버려 둬

새로운 '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

목 소리 쿵다/가늘다.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의 함량. 머리카락 길고/짧다. 큰키/작은키. 얼굴의 윤곽선. 몸의 이미지. 옷차림, 색깔. 남자화장실의 기호는 파란색에 바지 입은 신사/여자화장실의 기호는 빨간색의 스커트 입은 숙녀. 1자로 시작하는 남자의 주민등록 번호/2자로 시작하는 여자의 주민등록 번호. 성격. 약하다. 수줍다. 말이 많다. 소심하다. 섬세하다. 대범하다. 의리있다. 박력있다. 힘이 세다. 그래서 너는 여자냐 남자냐...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스스로 나는 여자인가 남자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아니 확인당한다. 지금 내가 이 줄을 서야 하는가, 저 줄에 서야 하는가. 몸에 달린 성기의 구조적 차이만으로 결정하기 힘든 복잡하고 무의미한 나의 정체성. 그런데 과연 그 정체성을 찾아야만 하는 것일까.

의상디자이너 백남기 (28세, 여자옷가게 (지오) 운영)

눈부시게 환한 형광등빛 아래, 하늘하늘한 원피스와 탱크탑, 미니스커트가 예쁘고 앙증맞게 디스플레이되어 있다. 바비인형의 집 같다. 여자옷가게. 거기 마른 몸매에 까맣고 가느다란 머리카락 하고 에이프린 타입의 치마를 입은 남자가 말없이 서 있다. 한 쪽 귀에 귀고리, 손목에 체인팔찌, 목에도 여지없이 예쁜 목걸이가 걸려 있다.

무심코 옷구경을 하며 지나가던 여자손님이 문득 그와 눈을 마주치며 지나간다. 뒤이어 들리는 소리. "저 사람 남자야 여자야?" 10명 중 3명은 항상 그렇게 지나간다.

"여성스럽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 말 자체가 주는 느낌은 거의 없다. 나쁘지도 좋지도 않다. 상관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다. 여자들이 그렇게 말해 주는 건 상대적으로 기분 좋고, 남자들이 말하면 별로다." 그는 툭

신동호회의 (아르누보)란 의상디자인 모임의 회원이다. 디자이너, 패션잡지 기자, 의상학과 학생들이 대부분인 그 모임엔 여자들이 많다.

여자옷가게를 하기 전에 디자인스쿨 (에스모드)를 다니려고 결심을 굳혔을 때 얼마 아버지가 약간의 반대를 했다. 남자가 뭐 할 일이 없어 여자들이나 하는 그런 일을 하느냐는 정도였지만, 섬세한 그의 성격과 제대로 해서 프로로 크겠다는 그의 의견에 수그러들었다.

그는 스스로 좋아서, 멋져 보여서 그리고 뛰는 것이 좋아 여성스런 옷차림과 액세서리를 하고 다니지만 여성옷가게를 하는 그에게 그건 하나의 '전략'이었다. 우악스런 남자가 서 있는 여자옷가게에 어느 여자가 선풍 들어오겠는가 말이다. 묘하게, 혹은 애매모호하게(여간지 남잔지 모르게 꾸미고) 있는 모습이 손님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주는 걸 그는 안다.

그러면서도 절대 남자를 사이에서 여자 같이 보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 길모양이 어떨든, 성격이 어떨든 자신은 절대적으로 '남자'라는 것. 남자들 사회에서 '여자 같다'는 것은 어쨌든 경쟁력 면에서 묘하게 뒤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모든 게 다 '때'가 있다고 본다. 일의 특성상, 직업상, 나이상,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때'를 적절히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디자이너라는 직업의 특성상 자신 안에 있는 여성성, 예를 들어 섬세함, 민감함을 귀한 장점으로 갖고 싶다. 좋아하는 여성형은 매니시하고 보이시한 여성. 그리고 그런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더라도 터프하게, 저돌적으로, 박력있게 표현되는 남성적인 방식으로 여자를 사랑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손수 커피를 한 잔 타고 요런조런 스백을 하얀 접시에 받쳐 나오는 모습이 자연스럽고 귀여워 보였다.

전 국가대표 우슈 선수 양승일 (21세)

지금은 잘 자란(?) 의젓한 남자가 지난날을 회상할 때 으레 하는 말처럼 양승일씨 입에서 재미있는 말이 흘러나왔다.

"초등학교 때 주먹을 좀 썼다. 골목대장이었다. 내수일본(천성적인) 싸움꾼이었다고 할까. 나한테 얻어맞은 남자애들 임마가 종종 우리집에 찾아왔다. 임마가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그냥 힘자랑한 건 아니다. 이유 없이 나나 친구들을 괴롭히는 남자애들을 그냥 두고볼 수 없었다. 억울할 때 그냥 참지 않은 것뿐이다."





“자신을 두고 성별을 궁금해 하는
사람들에겐 그냥 속으로
한 마디 해준다.
‘내가 남자면 어떻게 할 거고,
여자면 또 어떻게 할 건데?’라고.”

여자아이만 주무룩 네 명인 김의 막내로 태어났다는 송일씨는 남자아이 중의 이름의 근원을 묻자 엄마의 꿈 속에도 인이 나타나 이름 두 글자를 지어주었다는 조금 황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웃지도 않았다. 위의 언니 세 명 모두 여자아이처럼 잘 자랐다. 송일씨만 운동 좋아하는 아이로 자랐다. 부모가 딸만 있는 집에 막내 하나쯤 아들처럼 키워 보고자 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냥 그렇게 된 것이다. 그의 몸매가 우람하고 튼튼한 것도 아니다. 우수는 운동의 특성상 키가 크고 무거운 사람보다는 작고 날렵한 사람에게 유리한 운동이기 때문에 키가 작은 것은 차라리 운동하는 데 도움이 된다.

태권도학원을 다니면서 운동을 하던 그가 중학생이 되던 즈음에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우수도장’의 간판을 본 것이 덜컥 우수를 시작하게 된 동기라면 동기였다. 중학교 1학년 때 입문하고 중3때 국가대표 상비군이 되었다. 이탈리아에서 열린 세계대회에서 7위를 기록한 것이 최고 기록. 현재 잠시 운동을 쉬고 있다.

숏키트라기보다 스포츠에 가까운 헤어스타일, 무채색의 옷들, 다부진 몸매의 이미지 때문에 남자로 종종 오인 받는 데다가 우수를 했다면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한다.

“너 장동할 수 있어?”든가, “너 지붕 날 수 있어?” 그럴 때의 대답, “글쎄요, 고수가 아니라서요.” 대중목욕탕에 가면 언니들에게 여탕 열쇠를 주고 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남탕 열쇠를 주던 일, 그냥 색깔만 다르려니 하고 받은 열쇠를 들고 들어가면 일하는 사람이 “왜 남자가 들어왔냐”고 황당해 한 일, 그럴 땐 다른 수가 없단다. 제발리 풀러딩 옷을 벗어 보여주는 수밖에.

화장실에 갈 때 여자들이 놀랄까봐 미리 “저 여자예요”라고 밝히며 들어가던 불편한 때면 여자인 그가 남성으로 여겨져서 불편한 것은 거의 없다. 하긴 여자화장실이 꼭 차 있을 땐 스스로없이 남자화장실로 직행해도 남자들

은 아무 것도 모른다.

밤늦게 택시를 타도 당연히 남자로 보고 업수이 보는 사람이 없었고, 머리가 짧아서 빗기에도 편하고, 진짜로 편한 것은 이 사회가 여성에게 편파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남성에게만 관대하게 허용하는 것거리들을 마음 편히, 몸 편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일. 아무리 ‘날라리’처럼 하고 있어도 환한 대낮에 거리에서 담배를 피게 되면 어쨌든 비난의 눈초리를 감수해야 하는데, 송일씨에게는 그런 눈이 없다. 누구도 거리에서 담배 피는 그를 여자인 줄로 오해조차 안 하기 때문이다.

언제라도 원하면 스타일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그녀에게 무슨 억압의 경험을 물을 필요는 없었다. 그냥 편해서, 좋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고 자신을 두고 성별을 궁금해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속으로 한 마디 해준다. ‘참 쓸데없는 데 관심이 많으시군요’ 라거나, ‘내가 남자면 어떻게 할 거고, 여자면 또 어떻게 할 건데?’라고.

바느질이나 고무줄놀이 같은 것은 관심도 없었고 땀날 딱지치기 구슬치기 야구 축구에 발목박기 같은 놀이를 했다는 송일씨는 아직까지 어떤 남자에게도 가슴떨림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애인이 되든 안 되든 딱 한 번만 가슴이 두근두근해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도무지 무서운 게 아무 것도 없어 보이는 송일씨의 마지막 말, “남자고 여자고 사람은 안 무서운데, 진짜 귀신이 무서워요.”

그래픽디자이너 이정우 (29세, 한국디자인사연구회 회원)

지하철 안, 좀 예쁘장한 남자가 뜨개질을 하면서 앉아 있다. 앞에 선 사람들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본다. 그저 좋아서 취미로 하는 뜨개질이지만 이정우씨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 뜨개질 코를 맞추느라 분주한 와중에도 “멋지게 보여야지” 하고 생각하느라 코를 빠뜨리기도 한다. 이야기만 들어도 유쾌하고 재밌다.

개인이 선택하는 드레스코드를 그 사람의 사회적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그는 망사티셔츠를 입거나, 화사한 컬러의 뽀는 옷을 입을 때 원하는 게 있다. 보수적인 생각으로 뚝뚝 뚝뚝 사람들은 자신의 외양을 보고 담삼이 돋았으면 좋겠고, 하고 싶지만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통해 해볼 용기를 갖게 되거나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지금은 그런 대로 외양은 남자로 보이지만 어렸을 땐 정말 성별이 모호했다. 끈 나시티셔츠에 예쁜 옷을 입고 다닌 데다가 좋아하는 놀이도 전형적인 소년들의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여성스럽다거나 남성스럽다는 구분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엄마 덕분에 나 자신도 그런 것에서 자유로웠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고 재수 없는 말이 ‘남자답다’는 말이다. 그



말 속에는 그가 혐오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폭력적인 남성성이 다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가 좋아하는 여성형을 즉 말하는데 듣기만 해도 즐겁다.

"이 사회에서 아줌마라고 칭해지는 여자가 좋다. 젊은 여성들이 남성에게 갖고 있는 환상 같은 것은 이미 지워지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나이의 아줌마, 게다가 적당한 근육은 너무 건강해 보인다. 몸에 관해 자유로운 여자, 남자라면 터무니없이 주목하지 않는 여자, 거기다 아이라도 낳은 여자라면 플러스 10점은 더 주고 싶어진다."

좋아하는 남자들은 아주 까슬러운 남자, 과장스럽다 할 만큼 여성적으로 행동하는 남자, 메이크업을 하거나 자신의 몸을 치장하는 것을 숨기지 않고 좋아하는 남자, 수영장에서 얼굴에 팩을 하고 누울 수 있는 그런 남자를 좋아한다.

천편일률적으로 규정된 이 사회에 한 덩어리 돌을 던지듯, 공격적으로 옷을 입는 그런 사람들을 진짜 좋아한다. 그는 여성스럽다거나, 남성스럽다거나 하는 것에서 이제는 억압도 스트레스도 느끼지 않는다. 자기 맘대로 하고 살 뿐이다.

꼭 덧붙이고 싶은 말. 읽고 있던 책에 백설공주와 계모의 일러스트가 있었다.

"이런 여자가 정말 멋있다. 마치 마녀처럼 형형한 눈빛, 그예겐 자기만의 방이 있다. 팩을 많이 입었으며, 실험실도 따로 있었다. 그리고 남편과 각방을 뒀다. 백설공주와 너무 대비된다. 너무 멋진 여자다." 그가 아주 어릴 때부터 성별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몸과 영혼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키운, 지금도 보랏빛으로 머리를 염색했다는 그의 엄마를 만나보고 싶었다.

여대생 전현경 (25세, 사회학과 대학원 휴학중)

"그런 얘기라면 제가 '딱' 이예요." 현경씨의 첫 마디. 거의 2~3일에 한 번씩,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자냐, 남자냐'를 궁금해한다. 과일가게 아줌마가 봉투에 과일을 담다가 "어휴, 남잔 줄 알았네" 하질 않나. 여자화장실에 가면 여자들이 그를 보고 절집을 하고 놀라질 않나. 공을 놓친 아이들에게 공을 차주면 "아저씨 고맙습니다" 하질 않나. 심지어 언젠가 택시를 탔더니, "아가씨, 여자예요? 남자예요?" 하고 묻더라. 보통의 상황에서야 그저 무관심하게 대처하거나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택시아저씨의 뻔한 수작엔 한 마디 응수해 주었다. "아저씨, 그 질문은 비문(非文)인데요"라고.

하긴 '삼박자'가 딱 맞는 것 같다고 자인했다. 세상사람들이 여자인가, 남자인가를 구별하는 것은 얼굴의 윤곽이 아니라 보통 바디이미지를 보고 성별을 구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남성판별 코드가 키가 크고, 어깨가 딱 벌어지게 넓은 것. 현경씨는 키가 174cm에 '한 어깨' 하는 데다가 여성임을 증명할 '가슴'까지 아주 없다시피한 '절박'이다.

아주 어릴 때는 모르고 지냈다. 어떻게 해야 여자 같은 건지 남자 같은 건지,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로 읽히는 지 관심도 없었다. 대학생이 되니까 갑자기 '이제 명실상부한 여자니 여자 타를 좀 내라'는 무언의 압력이 들어왔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여성도 남성도 중성도 아닌 무성의 존재였다가 갑자기 여성적인 코드를 내면화해야 하는 '여대생'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는 단지 여성으로만 보여지게 입는 옷, 악세사리, 포즈를 통틀어 '여장을 한다'라는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 생래적으로 '여장'에 혐오감을 느낀 현경씨는 어쩔 수 없이 '남장'을 택했다. '여장'이 싫어 어쩔 수 없이 '남장'

44

생래적으로

'여장'에 혐오감을 느낀

현경씨는 어쩔 수 없이 '남장'을 택했다.

'남장'을 택하는 길 외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33

을 택하는 길 외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연출도 실재로 돌아간 것 같다. 원치 않게 '남자'로 보여지니 말이다. 스스로 남자옷을 입고 '남자처럼' 보여지기를 원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호감이 있던 남자에게도 이른바 '남성성'이 보여지면 가차없이 싸늘해지는 성격이다. 나는 '남자요'라고 부르짖는 '남장'도, '여자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외치는 '여장'도 거부하는 그예겐 긍정적으로 보고 배울 '모델'이 없다. '남자 같다'는 말이 너무 싫어 한때 머리를 길러보았더니 '남자 록가수'로 보더라고. 꾸미지 않는 여자, 멋에 관심 없는 여자 정도로 보여지는 것도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스트레스를 받으며 적절한 자기연출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다. 그는 단지 '여성 그 자체'로만 보여지는 것이 싫고 불편해서 스커트도, 하이힐도, 긴 머리도 하지 않았다.

좋아하는 남자 타입은 너무 남성적이지 않으면서 자기연출이 능한 남자. 예를 들어 피부손질에도 관심 있고 예쁜 색깔의 옷에도 탄성을 지를 줄 아는 남자. 자신 안에 있는 여성성을 불편해 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남자다. 바깥 보면 현경씨가 그런 것이다. 너무 여성적이지 않으면서 빗을 내는 데도 정일을 쏟을 줄 아는 여자. 굳이 '리본'이나 '프릴'이나 '레이스' 등 '여장의 범주'를 혐오하지 않으면서 적절히 연출할 수 있는 여자. 마치 막연 행인들이 저 사람, 여자냐, 남자냐를 수군거리지 않도록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 말이다.

결맞는 취미도 가졌다. 바로 춤. 몸짓이 주는 느낌이 너무 여자다운, 아기자기한 춤은 싫어 힙합댄스를 배우고 있다. 파워풀하고 격렬한 춤을 추고 싶노라면 말 그대로 아주 해피댄스다.

그나마 남자처럼 보여서 좋은 것은 위압적인 몸매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보지 않는다는 것. 가만히 있으면 아주 어려워하거나 무서워하고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주면 아주 감지덕지한다는 것.





당신은 어떤 유형일까요? 2

각 항목들은 사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형화된 남성성과 여성성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남성적', '여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적인 관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이프가 고정관념을 정당화해? 하면서 섭섭해 하지 마세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남성성, 여성성을 점수화할 수 있습니다. 60개의 항목 중 20개는 남성성을, 20개는 여성성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즉 1, 4, 7, 10, 13, 16, 19, 22, 25, 28, 31, 34, 37, 40, 43, 46, 49, 52, 55, 58 등의 번호는 남성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행동사를 가진 문항이며 2, 5, 8, 11, 14, 17, 20, 23, 26, 29, 32, 35, 38, 41, 44, 47, 50, 53, 56, 59 등은 여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성 점수의 합계에서 여성성 점수의 합계를 빼십시오. 그리고 0.2322를 곱하여 나온 점수가 최종 결과입니다.(앗, 전자계산기가 필요하죠?).

1	남성성 점수의 총합계 (문항 1, 4, 7, 10, 13, 16, 19, 22, 25, 28, 31, 34, 37, 40, 43, 46, 49, 52, 55, 58)	() 점
2	여성성 점수의 총합계 (문항 2, 5, 8, 11, 14, 17, 20, 23, 26, 29, 32, 35, 38, 41, 44, 47, 50, 53, 56, 59)	() 점
3	(여성성 점수의 총합계 - 남성성 점수의 총합계) × 0.2322	() 점

3의 결과가

-2.025 미만이면 당신은 남성적 인성

-2.025 이상 ~ -1이면 : 남성적인 특성에 가까운 인성

-1 이상 ~ 1이면 : 양성적인 인성

1 이상 ~ 2.025이면 : 여성적인 특성에 가까운 인성

2.025 이상이면 : 여성적인 인성 ▶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97쪽으로, 처음부터 하시려면 73쪽으로 가세요.

Cafe' 논지당은

17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담던 이야기, 아름다운 추억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연세대 ~ 신촌로타리 중간 (형제길비 앞) 논지당 392-9527



작가 변정수 (35세, 『나는 남자의 몸에 갇힌 레즈비언』 저자)

"다른 사람들이 내게 생김새나 성격을 보고 여자 같다고 말한 적은 없다. 난 누가 봐도 남자 모양을 하고 있고 성격도 세상에서 말하는 남자 성격이다. 생각해 보면 내가 스스로 여자인가보다고 하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맺기에서 이뤄지는 사립의 방식이다. 조직보다는 개인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리더보다는 스테프가 내게 맞다. 내가 '여자 같다' 기보다 '남자가 아닌가보다' 하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이다."

변정수씨가 쓴 『나는 남자의 몸에 갇힌 레즈비언』은 제목에서부터 우리의 성정체성의 고정관념을 뒤집는다. 그는 남자의 외양을 한 여자다. 그런데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뜻의 책 속에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던 한국의 여성문제에 대한 생각을 조목조목 짚어놓았다.

그는 왜 자신이 남성이라는 사실을 그토록 혐오하는 걸까.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공동체 문화가 싫다. 공동체는 동질성을 전제한다. 그리고 이질적인 것은 배제한다. 경쟁을 강요하고 낙오되면 왕따시킨다. 남성의 세계를 단적으로 설명하는 경쟁관계, 서열관계, 주종관계, 선후배관계... 즉 자기들과 다른 것을 일단 배제하는 색시즘, 에이지즘 등 모든 것이 우리 사회가 주입하는 '남성성'에서 생겨난다. 그 남성성에 안티를 걸다보면 이렇게 된다."

남녀의 성차가 개인차보다 의미 있다고 여기지 않는 그는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을지도 모를 남성성을 혐오하다가 이제는 어느 순간 사람을 대할 때, '성'이란 필터가 없어져버린 것을 알았다.

어린 시절, 폐소하고 힘없어서 싸우기 싫어하는 그를 남자애들은 단 한 번도 남자들의 놀이에 끼워주지 않았다. '기침에 같다'고 놀렸다. 그것은 상투로 남았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여성문제에 관심 갖게 된 것도 그때의 기억 때문일지 모른다. 늘 사람이라고는 여자애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자들과 만날 때는 어쨌든 자신이 남자의 외양을 하고 있기에 생기는 '성적인 억압과 긴장'에서 벗어나는 게 힘들지만 남자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쉬웠고 또 좋았다.

"나는 이 사회가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또 많은 남자들의 모습에서 '아버지'를 본다. 조금만 잘하지 못하면 내치버리는 사회, 신뢰받지 못하는 자식의 비애, 자신과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 그 사회적 아버지. 남성성을 할하여 여자의 입장에서 던지는 미약한 반항이 내 삶의 뿌리일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는 강박관념 속에서 내 안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검열해야만 했다. 이미 관성화된 구별법을 가진 어른들이 단 한 순간도 우리가 여자임을, 남자임을 잊지 않도록 강요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희망이 아주 없는 건 아니라고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각해 봤다. 애초부터 강요하지 않는다면 몸과 영혼이 모두 자유로운 신인종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1]

글 권혁한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입니까”

제3의 성.
동성애자 & 트랜스젠더



인구의 5%는 동성애자다. 또한 만 명 중의 한 명은 트랜스젠더이다. 도식화해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4,500만 명이니 적어도 이밖 위에는 225만 명의 동성애자와 4,500여 명의 트랜스젠더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한층 실감나게 설명하자면, 고교시절 한 반 친구 중에 2~3명의 동성애자가 있었고, 당신이 만약 서울역에 몇 시간만 서 있다면 당신의 어깨를 스치고 간 사람 중에 한 명은 트랜스젠더였다는 말이 된다.

이상의 말이 거짓말 같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솔직한 편이다.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는 그리 눈에 띄는 존재도 아니고 더군다나 자신을 숨기며 살아가려는 사람들이니 당연하다. 그래서, 이제부터 당신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 가지 방향에서 설명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누구인지, 두번째는 이들의 사회적 위치는 어떠한지, 그리고 세번째는 이들이 공유하는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먼저, 동성애자라는 단어보다는 동성연애자가, 트랜스젠더라는 단어보다는 성전환증 환자라는 단어가

더 눈에 띄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총칭해서 호모, 변태성욕자, 오까마라는 말을 많이 쓴다. 하지만 실제로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쓰는 경우는 드물다.

무엇이 성을 결정짓는가

동성애자는 자신의 성(육체적, 정신적인 성 모두)을 인정하고 자신과 동일한 성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즉, 자신의 여성성(남성성)을 인정하고 자신과 동일한 여성성(남성성)을 가진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성적으로 끌리는 사람을 말한다. 트랜스젠더는 육체적 성과 정신적인 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로, 다시 말해 남자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은 여자라고 생각(아니 확신)하거나, 여성이라는 겉대기를 쓰고 있을 뿐 실제로 자신은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정신병자가 아니다. 이들은 그렇게 태어났을 뿐이다. 마치 당신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성이자 이성애자로 태어난 것처럼 말이다.

사실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의 개념은 별개의 개념이

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자. 만약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을 바라는 트랜스젠더(바란다는 말도 사실 잘못된 말이다. 바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여성이다. 근데 몸이 여성보다는 남성과 닮았을 뿐이다. 그들은 주어진 성을 전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타고난 성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가 다른 남성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는 이성애자일까? 동성애자일까?

정답은 이성애자이다. 왜냐하면 그는 여성으로서 남성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여성이라면 무엇으로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 유방, 자궁, 페니스...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성을 결정짓는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는가. 신체적인 조건들은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얼마든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유방암으로 유방이 없어진다고 여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듯이, 또한 호르몬주사로 가슴이 없어진지 만들어낼 수 있으니 말이다. 혹자는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여성이라고 말하며 그런 의미에서 트랜스젠더는 결코 여성이 아니라고 한다. 이런 정의에 찬성하는가? 그렇다면 여성은 왜 낳는 기계인가?

호모라 부르지 마!

우리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으로써, 사회적 편견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

호모라는 말은 단 두 글자이지만, 그 안에는 온갖 비아냥거림과 변태, 미친 것... 등의 의미가 담겨 있다.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이 말은 쉽게 말해 '조센징'이라는 말과 같다. 한국사람치고 조센징이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을 사람이 있을까. 동성연애자라는 말도 마찬가지이다. 평생 동성과 연애할(썸질)이나 한다는 말 아닌가!

진정한 사랑은 이성애자들만 할 수 있다는 그 오만

함 때문에 주위의 친구와 이웃이 남몰래 목을 매달고, 손목을 끊어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실제 동성애자들에게 소원이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애인과 다정하게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나, 부모님에게 축복 받으며 결혼하는 일 같은 작고 평범한 것을 대답한다. 트랜스젠더들은 임신을 하거나 생리를 하고 싶은 것을 소원으로 품기도 하지만, 역시 제일 바라는 것 중의 하나는 법적인 성별이 변경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첫자리의 수를 1에서 2나, 2에서 1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한다. 트랜스젠더들이 술집이나 막노동판을 전전하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그것뿐이라서가 아니라 무엇이든 주민등록증본을 요구하는 사

44

드랙쇼에는

성의 상품화가 없다.

대신 성의 희화화만 남아 있다.

쇼를 보고 있으면

성이 이토록 재미있는 것이었나라는

생각이 든다.

35

세구 드랙쇼의 한 장면





당신은 어떤 유형인가요? 3

◆ 남성성이란?

남성지향의 가치를 갖는 특성이다.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특성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욱 적절한 태도, 행위, 가치관을 말한다.

◆ 여성성

여성지향 가치를 갖는 특성이다.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특성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욱 적절한 태도, 행위, 가치관을 말한다.

◆ 양성성

양성지향의 가치를 갖는 특성. 이른바 여성적 특성과 남성적 특성 중 바람직한 것만이 결합하여 공존하는 것으로, 성격과 행동이 독립적이면서도 부드럽고 기존의 성역할에 배이지 않는 건강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적합하므로 바람직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신의 성역할 특성을 아셨나요?

이 범의 성역할 조사는 생물학적 성별보다는 사회문화적인 성역할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는 설문입니다.

따라서 이 설문에서는 생물학적인 성별의 차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면서도 이 설문지에서는 남성적일 수 있다는 거죠.

성별정체성은 생물학적 특성과 문화적 영향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우리 문화는 생물학적으로 부여되는 성별 특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시켜 적용하고 평균모형을 전형화하여 개인의 차이를 무시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여성성-남성성의 이분화된 틀은 사회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과장돼서 극단화되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강조된 여성성은 과연 자연스러운 모습일까요 의심하게 한다는 말이죠. 우리 모두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성역할 모델을 받아들이며 강화하도록 영향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여자의 역할/남자의 역할도 이분화된 틀 속에서 성장한 성인의 모습이 역으로 여성/남성이 갖는 본성적인 차이를 설명할 때 아주 좋은 사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주 여자다운, 여성의 역할을 기꺼이 수용하는 여성을 보면서 "그래, 바로 저 모습이야 저 여자는 저런 자신의 모습을 행복해하잖아. 여자는 원래 저래야 돼."

또는 "남자는 저렇게 남자다워야지, 저게 정상이야" 하는 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남평등을 실천하기에 앞서 자신의 내면은 사회가 부여한 전형적인 성역할로부터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되물어봅시다. 우선 자신부터라도 성차별적인 의식에서 벗어나보자구요. 물론 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뿌리깊이 자리잡은 전형화된 성역할의 틀을 쉽사리 벗어나기는 어렵겠죠. 시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번 설문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이중적인 성역할 문화로부터 자유로운지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됐기를 바랍니다. [7]

전지홍(전지홍 신경정신과 전문의 02-999-6644)/일러스트 난나

▶ 처음부터 하시려면 73쪽으로 가세요.

회가 그들을 거기로 내모는 것이다.

이태원에 가면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구성된 고급바가 있다. 허름한 옷을 입고는 입장도 안된다고 하는 이곳 손님 대부분은 부유한 이성애자이다. 일반 여성들보다 트랜스젠더들이 외모와 화술에서 훨씬 뛰어나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찾는다고 한다. 그러나 일전에 어느 트랜스젠더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법원은 그가 여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강간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재미를 보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성역할, 그런 건 없습니다

동성애 커플에게 사람들이 잊지 않고 물어보는 것은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입니까'라는 질문이다. 누가 남편 역할이고 누가 아내 역할인가를 묻는 것인데, 그런 구분은 없다고 하면 고개를 갸웃거린다. 이성애적이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남자 같은 레즈비언, 여자 같은 게이라고 쉽게 이야기한다. 하지만, 머리가 짧고 힘이 세고 어슬렁 걷는 것을 왜 하필이면 '남자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일까? 화장을 하고 상냥하게 웃으며 바느질을 잘 하는 것을 왜 하필 '여자 같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왜 인간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을 특정한 성의 역할로만 묶어두는가?

동성애 커뮤니티에는 드래곤쇼라는 특이한 쇼문화가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남자(게이일 수도 있고 이

성애자일 수도 있다)가 여장을 하고 쇼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화장을 하고 치마를 입고 여자 흉내를 내는 것과는 다르다. 이들은 여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도 아니거니와, 아름답고 섹시한 여성을 표현하는 것이 목표도 아니다. 그들은 여성의 전유물이 되어 있는 화장, 치마, 내숭, 애교... 등을 이용해 자기 내부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들이 표현하는 여성상은 매우 당당하고 아름답다. 때론 분수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퀸'인 것이다.

드래곤쇼는 성의 상품화가 없다. 대신 성의 회화화만 남아 있다. 쇼를 보고 있으면 일반사회에서 심각하고 무겁게만 느껴지던 성이 이토록 재미있는 것이었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드래곤들이 아무리 섹시하게 차려입어도 그 목적이 상대 남자를 유혹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객은 그저 감탄하고 즐거워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성애 사회에선 보기 드문 미덕이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다. 하지만, 이성애만이 정당하다는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게 단려비린다. 동성애는 이성애와 서로 공존하는 것이지 이성애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자란 말은 이성애자라는 말의 상대적 개념일 뿐이다. 하지만 이성애자들은 자신의 이성애는 잊어버리고 동성애만 이야기한다. 이상한 것들이라고, 정말 이상한 것은 한쪽 눈은 감고 세상을 보면서도 그게 다라고 믿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7]

한재운

버디 편집장

내가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된 것은 스물다섯 해를 보내고 있을 때였다. 내가 레즈비언이란 걸 알기 전에는 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해 괴로웠고, 내가 레즈비언이란 걸 깨달고 난 이후에는 세상이 나를 이유없이(아니, 그들의 이유는 너무나 명료했지만) 미워한다는 것이 괴로웠다.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으로부터 "뺏아죽여 버리겠다", "미친년", "저주 받아라..."라는

등 온갖 종류의 욕을 다 들어보았다. 가끔 호모포비아들로부터 테러를 당하는 꿈을 꾸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내가 동성애자임을 감시하게 된다. 작어도 편견과 무지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인권의 존엄성이 무엇인지는 알고 살아갈 수 있으니 말이다.

“이젠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다”

트랜스젠더 집중인터뷰

이프가 독자를 대신해 남녀의 경계선을 뛰어넘는 사람들을 만났다. 트랜스젠더. m to f는 남성의 몸을 가지고 있으나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f to m은 여성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내가 낳은 아이를 기르고 싶어요”

마리(가명, 24세, m to f)

사 진상으로 본 마리는 큰 키, 늘씬한 몸매에 빨간 드레스를 입고 멋지게 쇼를 하는 매력적인 모습이었다. 약속장소가 있는 이태원에서 어떤 사람일까 하는 궁금한 심정과 장소를 찾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뒤섞여 두리번거리다 결국 찾아들어간 레스토랑(아름 사, 기자는 바로 그 레스토랑 앞에서 해냈고 밖에선 안 보이고 안에서는 흰히 보이는 유리 덕에 미리 와서 앉아 있던 마리는 나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있었다). 자리에 앉은 기자에게 “당신일 줄 알았어요”라는 인사를 하면서 내 손목에 감긴 시계를 쳐다보았다. “어머, 시계가 정말 예쁘네요.”



시계 예기로 이내 관계는 편안하고 부드러워졌다.

— 지금 어디서 일하세요?

음, 업소 나가요, mtof 트랜스들이 일하는 곳이지.

— 대부분 생계수단을 위해서 나가는 거죠?

단순히 돈 버는 거 이외에 ‘나랑 같은 사람끼리 모여 있다’는 의의도 있어요. 일단 저희를 받아들이는 곳이 없고 일반회사나 직장은 다니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가게 사장님도 트랜스기 때문에 편하구요.

— 그럼 거기 고객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예요?

일반 회사원 하구요. 저희랑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호스티스나, 또 인텔리들. 굉장히 다양해요. 의사부터 시작해서.

— 그러면 그 손님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나요?

일상적인 대화요. 정말 일상적인 대화. 최신

유머도 얘기하고, 아님 요즘의 이슈거리... 뭐 그런 거죠. 그냥 사는 얘기들.

— 트랜스바에는 인텔리계층의 고객이 많았던데...

그건 맞는 말 같아요. 저희는 퇴근 후에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시사토론이나 그런 걸 주로 보고, 신문도 시사만평이나 사실 같은 거 많이 봐요. “제네는 남잔데, 화장하는 애들이다”라는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요. 무시당하기 쉬워서이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시켜요. 우리는 패션잡지 읽으면 시사잡지도 그만큼 읽어요. 남자손님들이 그래요. “잘 놀고 재미있고 애가 통하는 여기가 낫다”고 호스티스들도 재밌다고 해요. 가끔 몸싸움으로 아르바이트도 가요. 거기 언니들이 그래요. “아가씨 열 명 데려다놓으면 뭐하나, 너희가 훨씬 더 낫다”고 그래요.

— 보통 사람들 만나면 얘기가 안 통한다거나 벽 같은 거 안 느껴요?

우리 가게에 처음 오는 여자손님들은 처음에는 무서워하고 그래요. “제네 남자니까 생각은 남자처럼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해 주고 그러면 언니라고 그러고 남자로도 안 보인대요. 그리고 “다음에 또 올게요” 하고 가요.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통하면 더 이상 남자, 여자도 여겨지지 않아요.

— 언제 부터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게 됐죠?

저는,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여자는 그냥 친구였어요. 한 마디로 여자를 동성으로 생각했고 남자를 이성으로 생각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여자들을 보면 “아, 친구다” 하고 같이 놀러다니기도 하는데 남자들하고는 목욕탕도 같이 못 다니고 좋아하는 남자에 보면 가슴 설레고 그랬어요.

— 그게 언제부터였어요?

어렸을 때인데, 5~6살 때는 여자처럼 꾸미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모나 엄마가 예쁘게 꾸며주는 게 되게

“남자다운 남자가 없어요”

혁이(가명, 23세, f to m)

7 월 15일 신촌의 한 카페에서 fto m 트랜스젠더인 혁이를 만났다. 짧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린 그는 자그마한 체구의 소유자였다. 내가 취재 의도를 얘기하자 그는 단호하게 이런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차이를 차별로 돌고 가는 게 문제지...”

—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평범한 남성세계에서 보자면 남자는 힘을 가지고 있고 여자는 다른 강한 어떤 부분이 있어요. 모성애죠. 나는 그런 모성애를 mtof 누나들에게서 느껴요. 그리고 사실 여자들이 더 강해요. 조작을 이끌어가는 건 남자지만 그걸 움직이는 건 여자니까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확실히 공격하는 힘이, 사회적인 조직력이 다르다고 봅니다.

— 남자로 살아보니 느낌이 어떻게?

남성들은 책임감 같은 걸 느껴요. 사회는 남자를 봐주는 게 없거든요. 여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내 애인만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녀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고, 공부도 하게 해주고, 큰 일 있을 때 보호해 주고, 그렇게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피곤하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여성이 부럽습니다. 집안에서 음악이나 듣고 있고, 책이나 보고... 그렇다고 여자 앞에서 위세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여자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여성이 강하더라고요. 저도 화가 날 때면 시끄럽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지만 결국은 여자 말을 들어요.

— 파트너는 어떻게?

그때들도 내가 강하게 리드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딱딱있는 남자를 원했어요. 무시당한다는 느낌은 안 받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남성이 40kg의 팔

가마나를 들 수 있다면 여성에게 끈기를 준 거 같애요. 하느님은 참 공평해요. 제가 사랑했던 여자는 m to f였어요. 나보다 힘도 더 세고, 키도 더 크고 그럴지만 그에게는 나를 오히려 불렀고 결국에는 나한테 안겼습니다. 나는 그에게 남성의 몸을 가졌지만 어머니를 느꼈어요.

—남자들도 예쁜 옷, 꽃무늬 옷, 치마 같은 걸 입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자유를 갖게 옷을 선택하지 못하는 남자들이 많았을 텐데...

치마를 입고 화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남자를 구분할 수 없어요. 미를 추구하는 것은 남자가 모두 같다고 봐요. 그저 여자들이 더 감각적이라는 거죠. 사실 여자는 아이를 낳아 기를 수도 있고 특별히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는 선택의 범위가 넓어요. 바지를 입어도 되고, 치마를 입어도 되고, 잠에 있어도 되고, 일을 해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신이 남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나 근거가 있나요?

본능이죠. 남성은 말을 짧이 하지 못합니다. 그거 한 마디로 끝나요. 느낌인 거 같아요. 느낌은 표현할 수 없거든요. 저는 남성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남성이란 말입니다. 만약 남성, 여성이 사회화되는 것이라면 저는 여자로 키워졌으니까 당연히 여성이라고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데 학이님은 굉장히 단호하시네요?

그렇게 살 만하면 그런 거예요. 전일 만하면 그렇게 사세요. 얼마나 못 견디겠으면 자신의 주어진 몸을 거부하고 살겠습니까?

—언제 자신의 신체적인 성별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나요?

중학교 때였어요. 저의 몸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혐오스러워요. 여자들이 생리를 귀찮아하는 거

좋았어요. 장난감도 로봇 사주면 싫다고 집어던지고 그랬대요.

—자기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놓기 시작한 건 언제였어요?

그 때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니까... (TV저널)이었어요. 처음 나간 게. 아아 94년 2월쯤...

—그러면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남자애들하고 생활하고 그랬을 텐데, 남자를 세우는 어땠어요?

남자를 세우세요? 재밌어요. 단순히 말하자면 재밌고 그때는 지도 양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달리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남자들의 세계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재밌었어요.

—어떤 면에서 재밌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남자를 많은 사이에서 나도 남자지만 보호를 받는 거죠. 여성스럽기 때문에 보호를 받거나 호기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좋은 친구들이었나보다.

물론 어떻게 해보려는 친구도 있었어요. 한때는 성격을 바꾸려고 학교에서 잘 나간다는 친구들하고 놀아봤는데 뭐 별로 힘든 거는 없었어요.

—그럼 여자를 세우는 어땠어요? 남자에서 여자로 건너뛰기를 한 거 같아요.

남자를 세기보다 여자들은 오히려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관계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가장 가까운 여자가 엄마거든요? 엄마를 봐도 그런 걸 느껴요. 남자 때문에, 아파 때문에 머리 아파하고, 골치 아파하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좋아할 때 성관계를 가져요. 그 때만은 문제가 안 되는데 헤어지면 이전 문제가 되거든요. "게는 나를 겁탈했어"로 변해버려요.

—순결의식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닐까요?

정말 우리 나라에서 순결이라는 거는 너무 문제예요. 근데 정말 순결이라는 게 중요한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순결을 바쳤다면 그것은 정말 순결이죠. 헤어

졌다 해서 "게는 나를 겁탈했어", "나는 순결을 빼앗겼어" 그런 상황이 너무 웃겨요. 사랑해서 순결을 줬을 뿐이지 빼앗긴 건 아니거든요.

—제미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책에서 볼 때나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 수긍할 뿐이죠. 그 정도예요.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전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살아요. 그리고 저는 남의 개성을 존중해요. 그 사람이 찢어진 바지를 입었든 머리에 빨주노초와 물을 들었든, 또라이라는 생각보다 '정말 개성을 잘 살리고 다니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여자들이 문신하는 것도 저는 용감하고 멋있다고 생각했지 남들처럼 '아, 저 녀 보통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은 안 하죠.

—그런 남자들이 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을 다 아는 거죠. 여자들이 갖고 있는 거 남자들이 갖고 있는 거, 아무래도 아직은 양상이 다 존재하니까.

—그러면 여자들의 세계하고 남자들의 세계하고 어떤 차이점 같은 게 있어요?

정말 단순하게 생리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유전적인 성이 아니고는 다른 건 없어요. 여자들이 남자 일을 한다고 해서 요즘 욕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기증기 운젠 여자들이 더 잘 한다면서요.

—남자 마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고정관념 때문일 거예요. 남자여야만 할 수 있고 여자는 그 밑이다. 아버지가 있기에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기에 우리가 있고, 뭐든지 아버지로 시작해서 어머니로 넘어오기 때문에. 어머니가 있기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있기에 내가 태어난 거다라는 말. 엄마는 그냥 우리를 길러주는, 쉽게 말하면 어머니일 수도 있지만 보모일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어머니의 삶이 없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엄마가 에어로빅을 다니거나 엄마 친구들을 만나거나 놀러다니시는 걸 저는 너무 좋아해요. 엄마한

하고는 놀러요. 브라운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우리 회원님 말씀대로 어떤 여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목 위만 살아서 남자의 몸을 이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기 몸에 적응이 안 되겠어요?

—자신이 남자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텐데...

나도 남성을 사귀었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남자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상대 남자와 동질성까지 느껴졌습니다. 결국은 연애감정이 안 생기고 동요로서 느껴지는 겁니다. 나도 한때는 누구보다도 악랄하게 여자도 살리고 노력했어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남자도 사귀고... 그래도 나는 임신을 하기보다는 내 아내가 임신하는 것을 보고 싶고 아이를 낳게 하고 싶다는 거죠.

—지금쯤은 어때요? 지금도 자신의 몸에 대해 무관심인가요?

mmf 누나를 만나면서 달라졌어요. 서로의 몸을 보면서 서로의 몸을 사랑해 줬다는 겁니다. 어머, 너는 좋겠다. 가슴이 있고 자궁이 있어서... 너무 부럽다. 저는 또 누님들의 몸이 너무 부럽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사랑해야 한다는 걸 느끼게 된 거 같아요.

—요즘 우리 사회 남자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남자로 살아보니 남자다운 남자가 거의 없더라 말입니다. 남자에 대한 환상이 많이 깨졌죠. 어떻게 보면 트랜스들이 더 제대로 된 사람인 거 같아요. 남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자신의 어머니도 여자였다는 걸 명심하라는 거죠. 자신의 어머니도 여자였다는 걸 안다면 사회적으로 여자들을 그렇게 차별하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누나들이 저보고 권위적이고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 너만 온 절대 남자의 쓸데없는 것들, 남자를 못된 것 배우지 말아라"고 당부하시죠. 진정한 남자라면 가정을 위해 희생해야죠. 사랑하는 사람 대신 죽을 수도 있

고 더 못 해워서 한이라는 겁니다. 원금을 갚아줘도 아깝지 않고, 지나가다 예쁜 옷 있으면 애인한테 갖다주고 싶고 그런 거죠. 진정한 남자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여성을 억압한다면 못난 남성이지.

—트랜스젠더 여성들은 어때요? 여성으로서 차별 같은 것은 경험하지 않나요?

제가 만난 누나들은 차이를 원하죠. 어떻게 보면 mtf 누나들은 남녀차별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 누나들이 남성으로서 책임질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본능이 그렇다는 거죠. 특수부대 출신도 있어요. 자신이 남성이라는 걸 확인하려고 힘찬 일을 해보는 거죠. 하지만 결국 여성이라는 거죠. 근육도 있고 우렁차고 그래도 자신은 여자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여성의 삶을 그리워한다는 거죠. 페미니스트들이 억압된 삶이라고 아무리 외치더라도 그들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요즘은 오히려 mtf 누나들이 주장이 세요. 그러면서도 앞에 나설 일이 있으면 혁아, 니가 나가라, 니가 해라 그러죠. 근데 도대체 성추행이 어디까지입니까? mtf 누나들은 다리만 만져도, 쳐다만 봐도, 예쁘다고만 해도, 어머, 성추행이라고 그러고, 하하...

태엄마 생활을 찾으라고 말씀 드려요. 여자들이 손에 보는 게 참 많아요. 따지고 보면, 남자들이 누리는 거는 많지만 여자들이 누릴 수 있는 건 없어요. 하지만 요즘은 그것을 많이 누리려고 추구하고 있다고 봐요. 얼마 전에 거기 있죠? 남성접대부(接待婦) 문제화된 거요. 백지화됐지만, 제 세상에 여자 호스티스는 있으면서 여자들은 남자하고 놀면 안 되죠? 저는 YWCA 사람들에게 너무 박수치고 싶어요. 남성접대부 문제 들고일어난 게 정말 때에 맞추어 제대로 문제제기를 해줬어요. 가게에서도 가끔 모으자고 그랬어요. 여자와 우리는 주민등록번호 1번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로 남성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남성접대부인 거예요.

—접대부의 부(婦)자가 여성을 나타내는 거라서 안 된다고요.

그러면 말 바꿔달라고 하죠. 접대원.

—성전환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면 직업이 다양해질 수 있을 텐데, 그죠?

저희도 낮에 활동하는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네요. 이반들, 동성애자들 중에 미용, 패션, 탭댄스, 모델, 연예인 이런 쪽에 있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런 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가게에서도 그런 끼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는 룸에서 업는 옷들 사실 모두 제작해요. 카피가 없어요. 다 개발해요. 오히려 연예인들이 와서 따갈 정도예요.

—자신이 여성이라는 확신이 있었나요?

처음부터 이렇다 하고 확신은 없었어요. 제 자신이 느끼기에 그쪽이다 싶고 그쪽을 추구한 거죠. 사실 커밍아웃한 후 1년 정도는 진짜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살고 싶었던 삶이라 너무 좋아요. 제가 느끼는 느낌들, 남자로서는 칭찬을 못 받는 일인데 여자로서는 칭찬받는 거예요. 남자로서 제 모습을 보고는 "제는 호모 같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런 화장을 하면 "멋있다"라는 말을 들어요. 여자도 걸어도 될 때가 더 당당해요.

—어떤 여성이 되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쌍꺼풀 수술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박명수 있죠? 게그맨 그 사람 닮았다는 소리 들었는데 지금은 예쁘다는 소리도 듣고, 음, 그 가수 최창민 닮았다는 소리도 들어요. 예쁜 거보다는 매력있고 개성 있는 얼굴이 좋아요. 보이시한 이미지의 멋진 여자가 되고 싶어요. 개성있고 뚜렷한 여자. 푸플(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드래퀸(Drag Queen) 중의 한 명. 현재 미국에서 만능 엔터테이너로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 음악 등 종횡무진하고 있다)이 제 우상이예요.

—우리 나라는 남자, 여자에 대해 정말 고지식하게 생각하죠?

학교에서 특히 심해요. 여성스러운 애를 억압하니 까 더 여성스럽게 되요. "제는 너무 여자 같아" 놀리면 더 자기 자신이 불안해지면서 차라리 확실히 여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냥 여자친구를 사귄 수 있는데도 나는 정말 이상한가봐 하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억압하면서도 남자고등학교에서 예쁜 남학생을 성추행하는 남자선생도 있어요.

—연인들끼리의 사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성관계를 떠나서 이성애자이건 동성애자이건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고 봐요. 동성애자도 꼭 성관계로 만나는 게 아니예요. 친구나 같은 부류를 만나려고 하는 거죠. 남자는 여자를 마음 맞고 애기가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평생 같이 있어줄 친구가 돼요.

—꿈이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내가 낳은 생명체를 키워보는 게 꿈이에요. 법적으로 입양이 허락된다면 진짜 한두 명은 길러보고 싶어요. 아이에게 게이라는 걸 밝히겠지만 제대로 길러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꿈이 있어요. 양로원하고 보육원을 동시에 만드는 게 꿈이에요. 나이 많아서 하고 싶어요. 오십 정도에, 그때 되면 인식이 달라질라나.

—방송에도 자주 나가고 걸로 드러나는 걸 꺼리지는 않나봐요?

토크쇼에 나가서 재밌는 얘기 얘기하면서 인식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취지에서 몇 번 방송에 나왔어요. SBS <뉴스추적>에 나왔었는데 편집할 때까지도 같이 있었는데 그 뒤에 다시 바뀌어서 방송에는 정신병이 있거나 이상한 집단처럼 나왔어요.

—연예인 하면 잘할 거 같은데...

전 제 자신만의 쇼를 하고 싶어요. 저는 만약 연예인 되면 방송에 데뷔해서 바로 커밍아웃할 거예요. 중성적인 이미지가 요즘은 먹혀들잖아요. 중성적인 이미지로 스타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끔 트랜스젠더 영화가 텔레비전에 나오지만 흥미거리로만 나오잖아요. 영화

—애인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살아요?

저도 집안살림 참 잘합니다. 밥도 잘하고... 저도 보수파 진영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안 그러니까. 애인이 싫어지하면 제가 밥하고...

—지금도 같이 사나요?

아니요. 헤어졌어요.

—남자의 지위와 특권에 대한 선망이 있지 않나?는 오해를 받기도 할 거 같은데...

권위가 부러워서 남자 흉내내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모성애를 가지고 있다는 여성과 특권을 버려가면서까지 남자로 살려는 사람은 없어요. 남자의 권력이 부러워서 여성을 벗어던졌다면 그런 이미 남자가 아니예요.

—트랜스로서 바라는 게 있다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장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면서 사는 평범한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인지도 몰라요. 저는 외모상으로는 선어슴마 정도로 살아갈지도 모르겠지만 평범한 이성애자들의 생활을 꿈꾸죠. 정말 트랜스젠더들에게는 제3의 운동의 필요합니다.

(개같은 날의 오후)에서도 볼품없는 사람들로 취급됐잖아요. 최하류로 일반사람과는 다르게 차별화시키는 거잖아요. <뉴스추적>에서 내 한 마디가 도움이 될까 했는데...

—보통 mtf들은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마리는 그럴 계획 없어요?

7~8개월 정도 호르몬을 맞아서 우선 가슴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수술하는데 나는 10월 정도에 수술할 거예요. 몸이 완벽하게 여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II**

김보미 · 박미라

이 나이에 이 지경이라니

김혜준(가명, 35세, 자유기고가)



한 때 팔매의 옷을 만들어 입힌 적이 있었다. 동대문에서 꽃무늬천을 떠다가 진동선을 짚고 파고 주름을 많이 넣어 A라인의 긴 원피스를 만들었다. 하늘하늘하고 보들보들한 잠옷천을 떠다가 잠옷도 만들었다.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두 딸은 그 옷들을 입고 내 앞에서 왔다갔다 한다. 그 모습은, 그 옷들은, 예쁘다. 진짜, 그 옷들은 아이를 위해 만든 거였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명백하게' 내가 입고 싶었던 옷이었다.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갖고 있는 환상이 있다면(주로 영화에서 빌려온 환상이지만), 하얀 긴 원피스를 입고 긴머리를 포니테일 스타일로 묶고 앞머리카락을 바람에 흔들리며 얇은 끈이 하나 간신히 달린 샌들을 신고 바닷가를 걷는 것이었다. 물론 그때의 내 모습은 키도 늘씬하고 허리도 날씬할 것이다. 아, 얼마나 예쁠까. 숙녀복 카탈로그에서 막 빠져나온 모델처럼 보이겠지... 하지만 안타깝게 단 하루도, 단 한 번도 난 그런 자취를 해본 적이 없다. 나는 뚱뚱하고 작달막한 키에다 허리는 두껍고 허벅지와 종아리는 아물처럼 푹푹하다는 서글픈 인식 때문이었다. 내 꿈다 이룬 꿈을 천만다행하게도 적당히 예쁘고 적당히 날씬한 내 딸이 이루어주고 있는 셈이다. 아니 내가 딸을 통해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부터였을까. 내 몸에 어울리는 것은 아주 단순한 티셔츠와 청바지와 커다란 가방에 숏커트일 거라고 아예 단정해 버린 것은.

한때는 돈이 별로 없어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한때는 몸매 때문이었던 것 같고 한때는 보이시한 외모가 내게 어울린다고 말해 준 여자친구들 때문이기도 했다. 그런데 가늠하고 예쁜 여자에 대한 환상을 실험해 볼 기회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아니 남편과 아이만 있는) 집안에선 어떤 옷차림도 겁나지 않았다.

백화점 숙녀복 코너의 아기자기한 인형옷 같은 것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차마 못 들어가 스포츠의류 가게에서, 혹은 유니섹스모드 청바지가게에서 티셔츠를 사가지고 나오다가 미친 척하고 빨리 들어가 슬쩍 끈만 관심히 달린 원피스를 입어보지도 않고 사기도 했고, 잠옷가게에서 야지시한 팬티와 잠옷을 사기도 했다. 그리고 너무도 행복하게 집에서만 그 옷들을 입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갈 때는 여성적인 어떤 느낌도 없는 티셔츠와 청바지 차

림으로 건틀거리며 다니지만 내 집에서는 그래도 미니스커트도 입고 살짝 끈만 달린 면소매 원피스도 입었던 것이다. 그리고는 그 모습을 예쁘게 보여주는 내 집 식구들 덕분에 내게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을 했다는 것을 잊을 수 있었던 것이다.

밖의 사람들에게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이게 할까 하는 생각은 아직도 본연의 모습으로 남아 있다. 난 남들에게(남자 여자 모두에게) 내가 아주 단순한 성격이며 맛을 안 내고 책을 열심히 읽는, 성적인 매력과 외모엔 관심도 없는 여자처럼 보이길 원했던 것 같다. 어고생 때 읽은 책의 주인공처럼 '인식욕에만 불타는' 여자로 보이고 싶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그것도 실패한 것이. 오동통한 내 몸의 어디에서 '생애 대한 고민과 인식의 욕구'에 불타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겠는가 말이다.

그러다가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거나 정말 그 날은 그래보고 싶어 용기를 내 짧은 스커트를 입고 나가 사람이라도 만날 양이면 놀라서 한 마디씩 하는 사람들의 인사치레를 받느라고 피곤할 지경이었다. 편이야, 무슨 일 있어?에서부터 보기보다 뚱뚱한데...까지. 생각보다 어울린다에서 땀날처럼 하고 다니라는 말까지. 도무지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그리고 나면 더욱더 내 여성적인 옷차림은 집에서 외엔 해볼 엄을 낼 수가 없었다. 가짜 보석이 박힌 예쁜 머리핀도, 작은 핸드백도, 요즘 한창 유행인 곱창 머리끈까지. 이런 영원히 나의 것이 아닌 게 되어버렸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실이크 같은 내 생각과 행동을 사실 내 여자친구들은 모르고 있을 것이다. 이제 여자들 앞에서 내 성격과 말하는 아주 중성적인 것이 되어 친구들은 내 속에 아양이나 코팅, 내숭 같은 것이 있으리라고는 잘 짐작도 못하겠지만 난 남자를 만나면 내 여성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안달하는 면이 있다. 그것을 좋아하는 남자는, 관심 없는 남자는 하여튼 무리가 남자라면 필히 그에게 내가 여자라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필요 이상의 오버액션을 하게 된다는 얘기다. 딱히 날 좋아해 달라는 어떤 바람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게다가 옷차림은 그 남자나 나나 마찬가지로 일 만큼 여성적인 대라운 없는 여자가 목소리까지 바꾸면서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한 번 상상해 보면, 사실 나도 웃는다.

게다가 그 남자에게 호감이라도 가지게 되면 내 모습은 정말 절망가경이다.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이다. 밥공기에서 내 입까지 옮겨오는 그 짧은 거리가 꽤 그리도 멀고 힘든지. 술이면 술, 담배면 담배, 모두 남자 못지않게 잘 하면서 나는 내가 호감을 가진 남자 앞에서 도무지 모든 행동이 힘들고 꼭 그래야만 하는 것처럼 압전과 내숭을 부리고 싶어진다. 여자친구들 앞에서 해보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한 달살 돌는 여성성을 남자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남자들은 약하고 부끄러워하고 수줍어하는 여성의 모습을 좋아할 거라는 맹신이 내 속에 있기도 하다. 하여튼 남자들 앞에서 하는 내 이런 꼴을 보면 강하고 씩씩하고 목소리 한 번 화통한 나를 좋아하는 여자친구들은 아마 기질을 해버릴지도 모르겠다.

여하튼, 더 늦기 전에 이중적으로 분열된 내 모습을 통일시켜 보고 싶다. 밖에서도 내 환상 속의 그 여자의 모습으로 다니고 싶기도 하고 남자들 앞에서뿐 아니라 여자들 앞에서 내 여성적인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싶기도 하다. 그러기 위해선 해야 할 내 속의 고정관념이 너무나 많다. 똑똑한 여자는 맛을 잘 부리지 않는다는 것, 남자들은 여성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여자를 좋아할 거라는 것, 긴 원피스나 작은 핸드백, 실크블라우스 같은 것은 영원히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들... 사실이 되기 전에 꼭 해봐야 할 텐데... 벌써 서른다섯 살인데... 해보고 싶은 대로 실험해 볼 기간은 오년 밖에 안 남았는데 잘 될지 걱정이야.

나는 걸어다니는 썸쟁이다

정경아(28세, 이화여대 여성학과 재학생)

나는 걸어다니는 썸쟁이이자 썸쟁이다. 물론 아무 데서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함도 골라가며 한다. 착하
기만 하던(?) 내가 이렇게 된 건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세상의 남성중심성
을 포함한 모든 부당한 점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편하면서도 멋진(?) 지금
의 나의 스타일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즉 내가 페미니스트가 되고, 지금의 외모를 갖게 되자 나조차도 전혀 예상
치 못한 문제가 곳곳에서 일어났다. 나의 정체성을 이루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이미 세상과 불협화음을 내도록 예
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항상 낯선 곳, 낯선 사람에게서 일어난다. 오랜만에 종로에 나가 친구들과 밤늦도록 어떤 공연을 보고,
1차를 한 후 성대 앞 허름한 곳으로 2차를 간 날이었다. 밤도 늦고 돈도 없고 해서 첫차가 다닐 때까지 계속 그 술
집에 있어야 할 판이었다. 우리는 있는 돈을 탈탈 털어 소주에 감자국을 연신 먹어댔으며, 그 동안 푹혀있던 얘
기를 하느라 웃고 떠들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런데 잠시 한 친구가 화장실 간 사이에 건너 좌석에 있던 땀 남자가
내 앞자리에 툭툭 앉는다. 노래방을 가잔다. 이런 또 무슨 무례한 경우? 그래도 정중히 거절했다. 잘 생각이 없다
고, 아니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남자가 온다. 자기는 아까 그 사람의 후배인데, 자기 선배에게 왜 모욕을 주
느냐고 한다. 당신네들이 예뻐서 그런 줄 아냐고.

하하하. 나는 이런 황당한 경우를 당하면 뇌세포가 딱 정지하고 만다. 상황을 따져본즉슨 이런 말이었다. "예쁘
지도 않은 여자애들이 남자도 없이 놀고 있길래 불쌍해서 노래방 같이 가주겠다는데, 니네가 이런 호의를 받아들
이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건방지게 거절할 수 있냐. 그것도 나의 선배의 부탁인데..."

싸움대상의 첫째 조건은 말귀를 알아듣는 것이다. 이 경우는 절대 싸움이 안 된다. 그냥 빨리 나 자리로 가라고
했다. 가라고. 그랬더니 연신 니네가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한다. 그놈의 얼굴에 술을 확 끼얹었어야 하는데,
소리만 냈다 질렀다. 도대체 뭐하는 것이냐고. 일순간 술집이 조용해졌다. 내가 엄청나게 큰 소리를 냈던 것이다.

이제 그 날의 하이라이트를 얘기해야겠다. 조용해진 술집의 분위기를 깨는 아줌마의 목소리가 있었으니, "이제
학생들 그만 가. 밤늦게 여자들이 술 먹고 무슨 것이야. 내 보아하니 학생들이 먼저 크게 웃고 떠들면서 남자들 꼬
시고 있더구만..."

아, 세상은 지독히 치밀하게 여자들의 공간, 시간을 감시하는 망을 가지고 있다. 그 밤에, 여자들끼리만, 술집에
서 크게 떠들며 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을 거스르는 반역행위였던 것이다. 우리 자리에 남자 하나라도 있
었다면, 우리가 "네, 오빠들 같이 놀아요" 하고 간드러지게 말했다면, 우리가 좀더 조용하게 놀았다면, 아니 우리
가 밤늦게 고시생들이 우글거리는 그 술집에 가지 않았다면..., 여자들이 그들에게 얼마인 사슬을 조금이라도 풀
라치면 세상은 이렇게 거대한 반격을 해온다. 단지 여자들끼리 자유로운 시공간을 점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항상 나의 문제가 여기서 끝났으면 하고 바란다. 그러나 어김없이 찾아오는 또 다른 긴장. 이것은 대체로
의도하지 않은 때에 불쑥 나타나지만, 이 순간이 되면 나는 정말 우습고 서글피져서 말이 안 나온다.

좋은 기분 다 망치게 한 그 술집에서 우리는 새벽녘에 나왔다.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맞으며 그놈들의 행동, 주
인아줌마의 말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부평의지를 불태우고 있었다. 그리고 전철역. 나는 반대쪽으로 가는 친구



를 먼저 보내고 화장실로 갔다. 불일을 다 보고 나와서 손을 씻는데
한 아주머니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여자화장실 앞
에서 기웃거리고 있다. 연신 나를 보고, 화장실 냇말을 보면서 당황해
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다. 내가 있는 곳이 여자화장실이라는 걸
확실히 안 아주머니, 드디어 당당히 들어와서 한 마디 하는 말, "아
니 왜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와 있대. 망칙하게스리."

하하하. 세상은 이렇게 나를 미치게 한다. 한참 여자라서 받은
부당함을 삭이고 있는 나에게 남자라니, 그럼 지금까지 내가 부여잡고 있던 여자라는 정체성은
다 뒤흔 말인가.

여자인면서도 이 사회가 규정하는 여성적인 외모를 가지지 않은 나는 성별구분의 기준을 모호하게 하면서 사람
들에게 혼란을 일으킨다. 나도 내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다닐 줄 상상도 못했고 내 주변의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확실한 성별정체성을 가진 애이고, 주변사람들도 나를 의심할 바 없는 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발짝만 비껴나면 나는 내가 여자임을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 학교 안의 화장실에서도 나를 보고 놀라
고, 도서관 수위아저씨에게도 내가 여대에 합부로 들어온 남학생이 아님을 말해야 한다(물론 이제는 안 그렇다).
친구들이 나랑 같이 다니면 땀 남자랑 같이 가더라는 얘기를 들어야 한다. 그 중에서 가장 복잡미묘한 마음이 교
차할 때는 밤늦게 집에 들어갈 때이다. 가뜩이나 집에 들어가는 길이 무서워서 긴장하고 걷는데, 나를 남자로 본
여자가 전걸음을 재촉하며 나에게서 도망치듯이 가면 정말 서글프고, 착잡하고, 사는 게 장난같이 여겨진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서 "나 여잔데요. 나도 무지하게 무서워요" 하고 말하고 싶지만, 내가 다가가면 그 여자가 기
겁을 하고 달아날까봐 그러지도 못하는 것이다.

나는 한때 사람들의 이 끔찍한 고정관념과 이분법에 기가 질려 머리라도 길러볼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
제는 세상에 대해 조금 너그러워지는 연습을 하는 중이다. 이분적인 내가 왕따가 되거나 직접적인 폭력을 당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 아닌가. 그리고는 가끔씩 이런 상상을 한다. 전철에 앉아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외모를
모두 뒤죽박죽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애에게는 치마도 입히고, 단발머리도 만들어주
며 도무지 곱슬머리와 화장이 어울리지 않는 아줌마에게는 숏컷과 멋진 남방으로 스타일을 바꿔준다. 이렇게 재
미있는 상상을 하다보면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확인해 보려고 나의 가슴을 쳐다보는 사람에게도 썸 웃어줄 수 있
는 여유가 생기고, 반역적인 외모(?)로 이 세상에 판지를 걸고 싶은 욕망이 스물스물 기어오르곤 하는 것이다.

"엄마는 여잔데 왜 앉아서 쉬해?"

조미진(39세, 주부)

7 살 때만 해도 여자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던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한 학기만에 아주 완전히 '남자'가
된 스토리는 엄마인 나도 이해하기 힘들 지경이다. 입학식 날부터 남학생은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 베스트
에 점정 남자구두, 여학생은 하얀 블라우스에 리본, 여자구두, 그 정도의 불편은 감수한다고 치고, 방과후 남자

아이들만 답답선생님과 축구하기, 그런 그런대로 청량음료와 아이스크림 먹는 재미로 참아준다 치고.

여자친구들이 당하지 않는 머리 꺾어박히기, 머리카라 박치기 당하기, 뺨맞기... 어제까지 개방주의 교육을 하던 유치원에서 '고상한' 생활을 해왔던 자존감 높은 아이에게 학교는 너무나 큰 문화적 충격이었다. 그저 창피함과 모욕감 때문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학교와 선생님은 두려움 그 자체가 됐다. 다른 친구들 벌 받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아니 이럴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체벌은 교육적이건커녕 너무나 아프고 마음의 상처가 될 뿐이었다.

인격적인 대우하기와 자존감이 높은 어린이로 키우기가 교육관이었던 우리 가족은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가치관에 도전을 받아야 했다.

개인의 개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안 되는 그악스럽고 여유없는 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이 필요하다. 섬세한 감수성과 예민한 감성을 가진 체격이 큰 남자아이(바로 우리 아들이다)가 상처받고도 버틸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일까? 전략은 아주 단순하고 무식하다.

"한국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모욕감에도 굴하지 않는 철의 남성을 만들어야 한다. 체격이 클수록 거칠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고, 조심해도 당할 때는 더욱 강해져야 한다. 그게 싫으면 이 땅을 떠야 한다."

심성이 굵고 마음이 유난히 어려서 상처 잘 받고, 장난도 잘 치지만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많은 아들. 유난히 피부가 하얗고 토끼같이 겁 많고 선이 가늘어 데리고 나가면 다들 예쁜 딸이라고 하던 아들. 둥그랗고 예쁜 이마 나오라고 머리띠에 머리끈 하고, 귀고리 하기 좋아했고 엄마 몸팩트 두드리고 루즈바르기 놀이를 즐

기던 아들이 이제 반에서 가장 힘센 남자가 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나

는 정말 믿기 힘들다. 워낙 덩치가 커서 이제는 개인적인 배려가 많이 필요한 특별히 섬세한 아이라는 걸 전혀 눈치챌 여지도 없게 되었다.

외모가 그 아이의 정신까지도 결정해 버린 것이다. 차라리 이 거친 문화에서 살아남으려면 심성만큼 여린 외모로 동정의 대상이라도 되는 게 살아가기 유리하지는 않았을까?

유치원 다닐 때 축구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 "남자가 여자보다도 못해? 바보같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다. 남자, 여자 개념이 없었던 아들은 '여자 같다'는 말보다는 '바보'라고 한 것에 대해 속상해하고 화를 냈다. 그런데 이제는 남자친구들 사이에서 여자 같다는 소리를 듣는 걸 가장 수치스러워하는 아이가 되고 말았다.

3살 때 "엄마는 여잔데 왜 앉아서 쉬해?"(자기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고 엄마와 동일시하던 때)라고 물었던 일. 옷 사러 가서 자기가 고른 치마 사달라고 하는 걸 차마 못 사고 물레 똑같은 무늬의 바지로 바꿔 사가지고 온 것을 보고 잘못 가져왔다고, 왜 치마 입으면 안되냐고 울던 일. 엄마 치마 입고 예쁘다고 사진 찍고 좋아하던 일들이 있었다. 설거지, 요리하기, 빨래하기, 소꿉놀이를 좋아하던 애가 부엌에 들어오면 고추 떨어진다든금시초문의 밭에 어깨를 으쓱하던 일. 기저귀하고 수영장 다닐 적에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구, 이빠라" 하며 난데없이 남의 고



추를 만져 황당했던 일. 이런저런 일들과 불변들이 아들의 성장체감 형성에 기여했는지.

아들아! 너희들 세대에는 여자는 더 외존적인 미숙아 만들기, 남자는 터프가이 만들기 그만두고 다만 인간으로 대접받고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구나.

"뭘 보냐, 엄마?"

박해련(가명, 34세, 대학 강사)

남편의 성격은 순하고, 명랑하다. 그리고 남자들이 잘한다는 큰소리나 호통도 쳐본 적이 없다. 오히려 집안에서 큰소리를 낸다면 아내인 내 쪽이다. 나는 아이들에게도 남편에게도 화를 잘낸다. 아이들도 엄마인 나를 더 무서워하고 조심한다. 엄부자모가 아니라 엄모자부 격이다.

신혼 때 이런 일도 있었다. 내가 남편에게 한참 화를 내고는 시간이 좀 흘렀는데 남편이 간 곳이 없어졌다. 한참을 찾아보니 안방 문 뒤에 쏙그리고 앉아 있는 게 아닌가. "여기서 뭐하고 있어?" 하니까 입을 삐죽이며 남편이 하는 말, "너무 무서워..."

집안의 대소사는 내가 결정하고 물론 돈에 관한 결정도 내가 한다. 남편은 대부분(자신의 이해기만에 크나큰 해악이 없는 한) 내 의사에 따른다. 무조건 따를 때나 당신이 다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못을 박는다든지 기계를 고치는 일도 다 내가 한다. 우리 남편은 기계치다. 도가 지나쳐 운전도 못한다. 내가 운전하면 남편은 뒷좌석에서 아이들을 돌본다. 길거리를 지나면 옆차의 사람들이 우리 차를 기웃거린다. 아내가 운전하는 게 신기한가보다. 그러면 남편은 좀 창피한지 중얼거린다. "뭘 보냐, 엄마?"

길 가다 분위기가 좋은 카페가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남편이다. 일요일이면 속 늘어져 있는 사람을 끌고 나가 외식이라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 역시 남편이다. 세들에게 상냥하게 말하고 온갖 재물(?)을 떨면서 놀아주는 사람도 남편이다.



그러면 나는? 나는 욕쟁이다. 차를 타고 가다가 난폭운전자를 만나면 내 입에서는 저런 상노무... 하는 상욕이 튀어나오고 그 기세에 눌려 남편은 적소리도 안한다. 남편이 열다였다 못 연 병뚜껑을 가져오면 나는 단번에 화를 뿜는다. 그러면서 나는 남편한테 말한다. "아유, 그것도 힘이라고..."

남편은 비쩍 말랐고, 나는 뚱뚱하다. 우리는 포옹을 하며 서로 중얼거린다.

"아, 이래서 허리가 남창남창 날뻐한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내 대사)

"아, 이래서 듄직한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남편 대사)

여자다운 남편과 남자다운 여자가 만났으니 부부관계가 어떨까? 궁금할 게 분명하다. 그냥 재미있는 친구 같다. 왕수다를 떨면서 장난치는 때는 아주 죽이 잘 맞는다.

사람들은 이런 내 얘기를 들으면 어머, 남편이 그러면 너무 좋겠다

하고 부러워한다. 그러나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다. 물론 신혼초엔 그게 행복했다. 장난스러운 친구 같은 관계. 그러나 아내는 늘 고달프다. 가부장적 사회는 여자가, 남자 같은 여자답든 어쨌든 고달프기 마련이다. 여자가 파워 풀하면 그것 때문에 고달프다. 안락으로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 남편이 남자로 길러진 부분이 있다면 가사 노동에 게으르다는 점이다. 그리고 생계문제나 가족문제에 무책임한 경향이 있다. 아내가 어떻게 알아서 다 하겠지 하는 거다. 쓰다 보니깐 어떤지 최악의 남자 같다.

남편은 에너지가 적어서 그런지 제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어한다. 내가, 너는 어쨌든 그렇게 이기적이라고 따지면 푸그러들어서 아무 소리도 못 한다. 그러니 싸움 상대도 되지 못한다. 얼마 전 양친한 남편과 사는 기센 마누라 들끼리 모여서 이런 한탄을 한 적도 있다. "어휴, 차라리 가부장적이고 터프한 남자 만나서 기대 살 걸. 이전 너무 고달파서 원." (물론 어디까지나 농담이었음을 밝힌다.)

사실 여자가 경제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으면 살림하면서 내조라도 하는데 남자들은 집안일에도 무능하게 길러진 것이다. 그래서 시키는 일은 겨우겨우(무서워서) 하는데 시키지 않으면 죽어도 안 한다.

어쨌든 나는 이런 남편과 오래 살면서 남자에 대한 환상도 없고, 기대도 없다. 그리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남자는 양, 여자는 음 이런 논리가 얼마나 현실한 시기인지 예전에 확인했다.

그러나 이런 옛말은 맞는 것도 같다. "그저 한쪽이 무조건 저쪽이자 부부관계가 평화롭다"는 말이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 부부관계가 그나마 시끄럽지 않았던 이유는 남편이 무조건 저주고 따라왔기 때문이다.

넌 그 때 무섭지 않았니?

김지영(가명, 33세, 출판사 근무)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다고 하면, 그리고 학생운동을 했다고 하면 90년대 학번들은 꽤나 존경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우리도 그런 심정으로 싸우려고 하지만... 하면서 피스러워한다. 왜 존경스러울까? 처절하게 싸웠기 때문에? 용감해 보여서?

나는 결코 용감하지 않았다. 나는 얼마나 비겁했는지 모른다. 가부(거리투쟁) 명령이 떨어지면 그 날은 하루종일 가슴이 오그라드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몇 번 경찰에게 붙잡혀갈 뻔한 적도 있는데 용케 빠져나왔고 그럴수록 나의 심장은 더욱 굳었다. 그래도 내 주위의 여자친구들은 모두 용감해 보였다. 그들은 가부가 있을 후에 모여서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았다. 심지어 시위주동을 몇 번씩이나 하고도 경찰에게 잡혀지름 알는다며 부들부들하던 선배도 있었다. 남자들은 물론 더했다. 교내시위가 끝나고 나면 모두 학생회실에 모여 학자하게 웃으면서 경찰 '멧먹인' 이야기, 맞서싸운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 때 남자 같은 여자아이들이 단연 학생운동을 잘했고, 인정받았다. 말투도, 행동도, 일상생활도 딱 터프기어들이었다. 나 역시 여성스러운 태도와 몸매를 지닌 건 아니었지만 어떤지 그들 앞에 서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었다. 어쩌면 그들에게 묘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지금 그 친구들은 모두 결혼했고 아주 잘(?) 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도 사회운동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대학교 4학년 때, 내게 비공식 수배령이 내려졌다는 소문이 학교에 퍼졌다. 난 그 때 친구 한 명과 나란히 앉아

있었고, 엄마 생각을 했다. 엄마가 내 일 때문에 충격을 받아 쓰러지시진 않을까 걱정하면서 눈물도 흘렸다. 엄마는 심장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때 옆의 친구가 짜증난다는 듯이 내게 말했다. 너 왜 그렇게 소심하니?

그 당시 내게 가장 큰 화두는 영웅심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과연 왜 학생운동을 하는 것일까? 이렇게 무서워하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적응하기 힘들어하면서 나는 왜 운동을 할까? 휴머니즘 때문에? 아니, 그런 건 내가 두려움을 갖게 되면서부터 저만치로 사라져버렸다. 그럼 난 영웅심 때문에 운동을 하고 있는 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런 건 없었다. 그 당시 상황은 너무나 험악했고 나는 너무나 예민하고 겁쟁이었다.

스크림을 박고(팔뚝을 걷고) 행진을 시작할 때면 나는 내 모습이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었다. 운동가요를 들으면 피가 끓었지만 팔을 절도있게 흔들는 것은 연기하는 것 같아 어색하기만 했다. 물론 나는 인간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매우 컸던 아이였고, 역사와 사회의 옳고 그름을 정확히 알 의무가 지식인에게는 있다고 생각을 했고, 알고 있으면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학생운동을 했지만 한 번 위축된 마음은 쉽사리 풀리지 않았고, 그래서 늘 불안하고 힘겨웠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한 판시즘은 정말 여학생들의 자아정체감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다. 적어도 내 경우엔 그렇다. 나는 요즘도 나와 남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선 더욱 그렇다. 상황이 내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면 내 느낌과 감정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객관적 요구만 남는다. 그래서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 난 뒤에 혼자 남게 되면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른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객관적 상황을 파악하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나는 나이면서 사회의 일원이 되고 사회는 끊임없이 나에게 개입한다. 사회 없는 나는 없다. 내 헌신성이 학생운동을 살린다. 만약 후배들이 힘들어한다면 선배인 나에게서 문제를 찾아라. 우리가 무엇을 잘못 지도했는가.

나의 자아경계선은 늘 점검받아야 했고, 사회나 운동을 위해 언제나 허물어뜨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술을 마시는 것도 외박을 하는 것도 잘 하지 못했던 나는 고집 세고, 한계를 깨지 못하는 부르주아 근성의 여자 애였다.

그러나 나는 사실 누구보다 열심히 실천했다. 나는 여자로서도 그렇게 교육받고 실천을 강요받았기 때문에 나를 잡고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데 익숙했다. 나는 늘 운동과 대중을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헌신적으로 일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운동권의 삶의 원칙들을 누구보다 잘 지키려고 애썼고, 성실하기 위해 애썼다. '대중'의 반응이 없거나 후배들의 호트러진 모습을 보면 내 자신을 반성했고,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사회는 아주 강력한 네트워크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물론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그러했다. 그들에게 '봉사', '헌신' 같은 건 아주 익숙한 단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용기없는 여자애로 성공적인 졸업(그 당시는 시위주동을 하고 구속되는 게 성공적인 졸업이었다)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4학년 중반에 운동을 포기해야 했다.

나의 용기없음에 대한 열등감은 아주 한참 뒤에 깨졌다. 결혼한 남편이 자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깨는 걸 몇 번 본 뒤부터였다. 그도 역시 학생운동을 했는데 경찰에게 잡혀가는 꿈을 꿔다고 했다. 용기를 얻은 나는 주변의 친구들에게 물었다. 넌 그 때 무섭지 않았니?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친구를 아직은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세상사람들이 모두 80년대 학생운동의 열풍을 비난할지라도 나는 결코 그럴 생각이 없다. 그 때 어른들

의 세상이 그렇게 거칠고 폭력적이었으므로 우리도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말 이런 아쉬움은 있다. 내가 겁쟁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표현할 수 있었다면, 나는 정말 그렇게 공포스러웠을까. 내 선배나 동료들이 내 성격을 인정해 주고 감싸주었다면 나는 그렇게 한없이 위축되기만 했을까. 혹은 경찰의 폭력보다 내 성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았던 80년대 상황이 더 두려웠던 건 아닐까.

혼란은 오래도록 지속된다

임운진(가명, 33세, 주간신문사 기자)

아주 가끔,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는 사진들을 차곡차곡 쟁기며 꼼꼼히 살펴볼 때가 있다. 사진이래봐야 많지도 않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진 찍는 것에는 도통 익숙해지지 못할 만큼 태생이 촌스러운 데다가, 더욱이 뭔가를 모으고 간수하는 성격과는 거리가 먼 탓이다. 서랍, 옷장, 혹은 오래된 가방 안에서 따로따로 나뉠굴던 사진들조차 월세방을 전전하는 자취생활 몇 년에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지금 남아 있는 건 한 삼십여 장 될까.

아주 가끔, 내가 사진을 들여다보는 건 나란 존재가 갑자기 의심스러워지고 뭔가 비밀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현재의 내가 과연 어디서 어떻게 연유한 것인지가 무척 궁금해지는 그 때, 나는 과거의 내 얼굴, 추억, 나아가 그 속에 은밀하게 숨어 있는 존재의 흔적을 확인하고 싶어 사진을 보게 된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찍은 사진 속의 내 모습은 한결같다. 얼빠진 신병을 연상시키는 짧은 커트에, 험령한 청바지와 단추가 여럿 달린 청색 계통의 남방, 적당히 때 탄 운동화... 어깨와 눈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고 이빨로 입술 한쪽 끝을 살짝 물어 전체적으로 험상궂은 인상이다. 오른팔은 옆사람 어깨에 걸치고, 다른 한 손은 바지주머니에 찔러넣은 품까지 똑같다. 너무 거칠고 무식하게만 보일까 걱정스러웠던지 사진 속의 나는 원편으로 15도쯤 온 고개를 약간 숙여 우수우런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한다. 그래봤자 양아치 이상이 아니지만.

그랬다. 그 시절의 난 '남자 같은 애'로 불렸고 나 역시 그걸 원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그걸 원하는 게 먼저다. 그렇다고 내가 남아선호, 혹은 여성비하적 의식을 지니고 있던 것은 아니다. 물론 무의식중에 내가 여자로서 느끼는 피해의식이 작용했는지도 모른다. 7남매 중 여섯째딸로 태어난 배경 자체가 별 불일 없는 취급을 당하기 딱 좋은 데다가, 방 세 개 중 하나가 오빠 차지여서 나머지 두 개를 여덟 식구가 나눠써야 할 만큼 집안에서 아들이 대접을 받은 건 사실이니까.

그러나 그보다는 오히려 남에게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그 속에서 내 정체성을 확립하고 싶은 욕망이 그런 식으로 표출된 게 아닌가 싶다. 사실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는 그대로의 내가 너무 평범하다못해 사소하다는, 뭔가 조작하지 않으면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해왔고, 또 이것은 사춘기를 겪기도 전에 내가 얻은 유일한 깨달음이기도 했다.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나는 그림자 같은 아이였다. 동네아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참새처럼 조잘거리며 학교로 몰려갈 때 나는 늘 저만치 떨어져 타박타박 울리는 내 발자국 소리를 따라 혼자 걸었다. 점심시간이 되면 밥을 먹었고, 쉬는 시간엔 화장실을 다녀왔다. 특별히 친하게 지내는 아이는 물론 싫어하는 아이도 없었다. 담임선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학기초에 으레 실시하던 가정방문 때를 제외하면 도대체 이름 불릴 일이 없었다. 그

래도 혼나는 일은 좀처럼 없었다. 그만큼 내 존재는 등등 떠다니는 먼지와 비슷했다. 집에서 그랬다. 나는 만팔도, 아들도 아닌 여섯째딸에 불과했고, 게다가 부모의 눈길을 끌 만한 '특별함'을 타고나지도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멍청이나 바보였던 건 아니다. 오히려 나는 북하면 울고 싸우고 징징거리는 또래애들을 한심하게 여겼고 그런 아이들과 어울리느니 혼자 책이나 보는 게 낫다는 쪽이었다. 공부도 곧잘 했다. 그것 역시 의도된 면이 컸다. 너무 못하면 눈에 띄게 마련이니까. 무엇보다도 나는 혼자 있는 데서 오는 편안함을 즐겼고 사람들의 눈에 띄는 걸 싫어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 의식의 한 부분에는 또래아이들을 평가하는 세상의 기준에 대한 피해의식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나는 예쁘지 않았고 그걸 알고 있었다. 아빠 회사동료들이나 친구들은 나에게 예쁘다는 말 대신 똑똑해 보인다는 말을 했다. 한 번 그 말을 들은 후 나는 낯선 손님이 우리집을 방문할 때면 일부러 눈을 동그랗게 뜨고 힘을 꽂 주어 똑똑한 인상을 풍기려 노력했다. 그 말마저 못 들으면 마음이 너무 허전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런 내가 중학생이 된 이후 '말 없는 그림자 같은 아이'에서 벗어난 이유는 외로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렇게 살다 세상을 등지면 정말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고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사실이 조금은 두려웠던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예쁘지도 않고

부잣집 딸도 아니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남자 같은 아이로 나를 조각하는 거였다. 남들과의 차별성이 나를 부각시켜 줄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사진 속에 담긴 모습대로 외양을 치장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성적에도 신경을 썼다. 공부를 잘한다는 건 남에게 인정받는 충분조건은 아니어도 필수조건은 됐으니까. 게다가 또래 여자애들이 멋있다고 생각할 만한 것들을 하나씩 습득하기 시작했다.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가면 기타를 치며 노래했고 책에 쏘여 있는 멋있는 구절을 메모했다가 적당할 때 써먹기도 했다. 불쾌하게 생각하지만 아무도 이 의제기를 못하는 일들, 예를 들면 성적순으로 자리를 앉힌다거나 하는 따위의 일이 생기면 선생한테 대들면서 반항도 했고 그 때문에 반성문도 수백 장씩 써야 했다. 그 결과는 내가 쓴 반성문의 두 배나 많은 편지와 선물을 받는 거였고 친구들이 보내는 그 이상한 사랑(?)을 받으며 나는 쾌감을 느꼈다.

물론 그런 내가 늘 좋았던 것만은 아니다. 그깟 남의 시선 끌자고 잔머리를 굴리는 내가 때로는 혐오스러웠고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가 헷갈렸다. 나의 우울증은 점점 깊어가기만 했다.

서른이 넘은 지금, 나는 다중인격을 지닌 내 모습을 본다. 아무하고도 상관없다는 듯 홀로 음습한 기운을 풍고 있는 내면은 초등학교 시절 그대로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잔머리 굴리는 걸 보면 중고등학교 때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내가 누군지, 무엇을 원하는지가 헷갈리는 것이다.

때론 과거의 나에게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적도 있다. 전에는 입지 않던 소매 없는 셔츠나 짧은 반바지를 거리



낌없이 입었을 때,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 기분 좋게 술을 마시며 수다를 떠는 나를 발견할 때, 누군가와 사람에 빠져 자연스럽게 애정을 주고받을 때, 나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할 때... 그러나 그것은 항상 찰나에 머물곤 한다. 보통은 사람을 심하게 가리고,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애정표현에 서툴고, 치장을 꺼려하고, 무엇보다도 당겨진 시위처럼 늘 긴장돼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어쩌면 이런 내가 진짜 내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잠시나마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어 좋지만, 한편으론 끊임없이 타자의 시선을 의식하며 나를 조작해 왔던 삶에 길들여진 것 같아 슬프기도 하다.

앞으로도 몇 년간은 이와 같은 혼란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걸 나는 안다. 그래도 괜찮다. 나는 그저 내가 나 스스로에게 눈을 뜨고 마음을 열어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때가 오기를 바랄 뿐, 그 시점이 언제였으면 좋겠다는 염원 같은 건 없으니까 말이다.

나의 이름은 이수라(?)

조민기(32살, 카페 운영)

나는 나이 32살의 게이이다. '게이'라고 하면 아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장남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르겠다. 여기에서는 내가 '동성애자'인 모습보다는 나의 여성스러움이 가져다주는 불편함에 대해서 주로 말하고자 한다. 흔히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동성애자 하면 모두가 여성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만나본 수많은 동성애자들 중에는 나처럼 여성스러운 사람들도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

내가 언제부터 여성스러웠는지도 나도 잘 모르겠다.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은 남자아이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여자아이들과 더 많이 어울렸다는 것이다. 인형놀이, 고무줄놀이 등등... 다른 남자아이들은 공을 차고, 전등놀이를 할 동안에 말이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나의 여성스러움이 별 문제되지 않았다. 하긴 그 나이 때는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같이 어울려 노는 것이 전혀 이상한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요즘은 모르겠다. 아이들 성숙이 워낙 빠른 세대라).

중학교를 다니면서부터 나는 나의 여성스러움에 대해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물론 내가 남자를 좋아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 때문에도 괴로워했지만, 여성스럽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게서 놀림을 받는 것보다는 덜했다. 자연스레 나는 '미스 조', '섹시', '호모', '중성', '이수라 박사' 같은 어린 나이에도 듣기 싫은 그런 별명들을 붙이고 다녔다. 아이의 놀림과 더불어 나를 괴롭힌 것은 내가 여성스럽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체육시간이었다. 예를 들면 친구들은 체육시간에 공놀이를 할 때 나는 운동장 한구석에 숨어서 그들의 노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고, 어떻게 하다가 나도 그들과 같이할 수밖에 없었을 때는 나의 어설픈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의 놀림감이 되어야 했다. 그러한 놀림이 싫어 나는 점점 더 체육시간을 기피하게 되었고 어찌 보면 체육시간을 공포의 대상으로까지 여기게 되었다.

학교에서 내가 그러한 놀림을 받으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도 집에서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 하긴 형과 형수님 밑에서 살았으니 그들이 동생에 대해서 신경을 쓸 여유가 없기도 했겠지만, 집안식구들은 나의 여

성스러움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다. 그 점에 있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집안 식구들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무정하게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보아주지 않아서 때론 야속하다는 느낌도 받은 적이 있다.

그렇게, 때로는 자살의 결심까지도 하게 만들었던 여성스러움을 안고 고등학교를 마쳤다. 대학에 들어와서야 나의 숨통은 조금 트였다. 고등학교까지 나의 여성스러움을 조종하는 별명이 10개였다면, 대학에 와서는 그냥 한 두 개 정도로 지나갔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학생들이야 개인주의적인 생활이 강하다보니, 난 그들과 상대하지 않고 내 공부, 내 할 일에만 전념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5년 정도 했다. 그곳에서도 나는 여성스러움으로 인하여 직장동료들로부터 은근한 놀림을 받아야 했다. 다른 성인들이나 사람을 대놓고 놀리는 일은 당연히 없었다. 놀림이 없는 대신 난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면서 힘들어야만 했다. 내가 아는 어떤 레즈비언이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다. "게이(남자)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커피나 나르는 일을 하고 싶는데 시켜주지 않아서 고민이고, 레즈비언(여성)들은 남자들이 하는 기획업무 같은 것을 하고 싶어도 시켜주지 않아서 고민이다."

물론 극단적으로 표현한 우스개소리이다. 하지만 몇몇의 나 같은 사람들에게는 뼈저리게 다가오는 말이 될 수도 있다.

결국 나는 5년을 넘기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어야만 했다. 너무나 다행인 것은 명예퇴직의 이름 아래 어느 정도의 목돈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다. 근 1년 반 동안을 쉬면서 난 많은 생각을 했다. 나의 여성스러움이 전혀 부끄럽지 않

고, 부담되지 않고, 그러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PC통신을 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동성애자인권동호회'를 만났고 열심히 활동을 한 결과 지금은 PC통신을 하는 동성애자치고 나를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인사'가 되었다. 난 자유로움을 느꼈다. 수많은 동성애자들을 만나보면서 그들도 나처럼 여성스러운 면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고, 어떤 이는 나보다 더하다는 사실에 내심 위로를 받기도 했다.

지금은 이태원에서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다. 굳이 말을 하자면 '게이바'다. 오는 손님의 99%가 게이이다보니 내가 아무리 여성스러운 모습을 보여도 편하다. 가끔씩은 모르고 오는 이성애자 손님들이 나의 말투와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수근덕거리기도 하지만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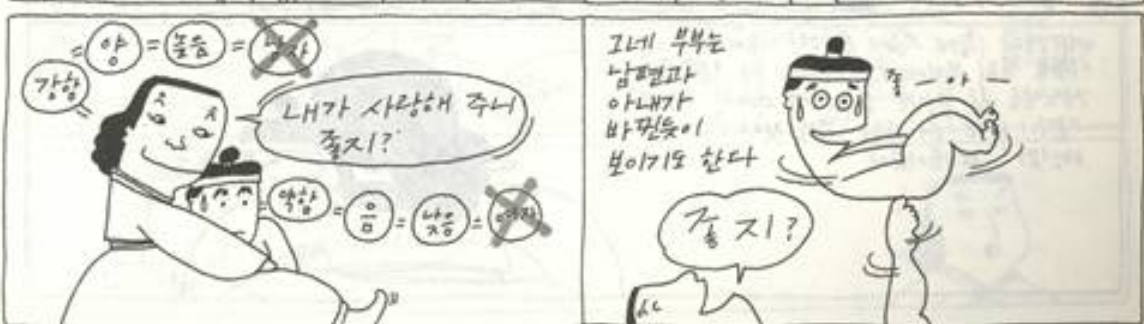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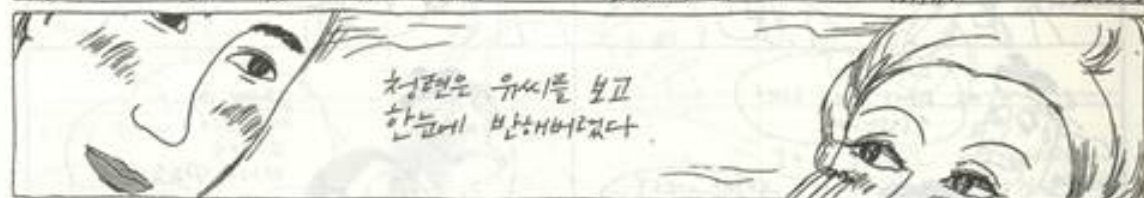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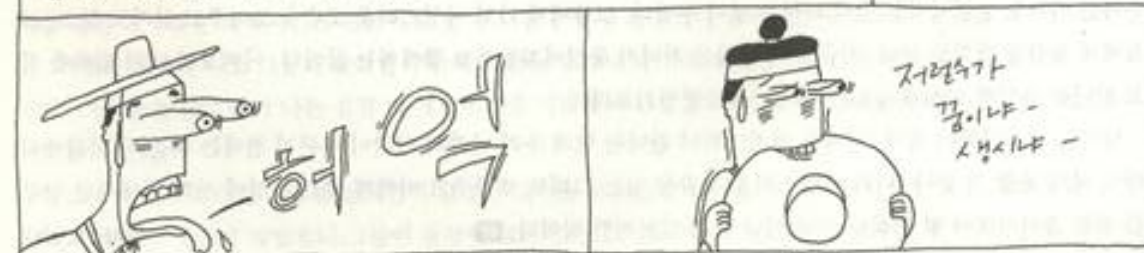
나는 아직도 일반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렵다. 그들에게 나의 여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그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싫다. 지금의 내 생활은 거의가 동성애자들과 함께하는 삶이다. 어찌보면 내가 접촉을 하고 만나는 유일한 이성애자들은 나의 가족들뿐인가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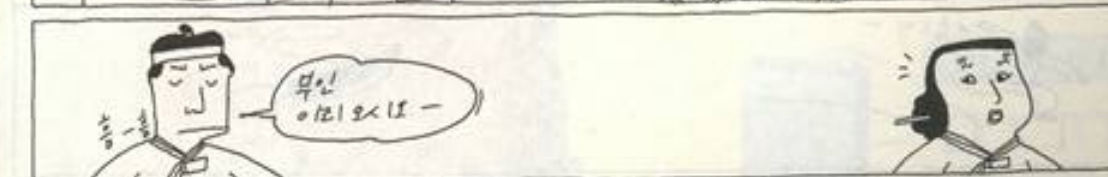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며,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는 현재 우리 나라의 시각이 바뀌기 전에는 나는 이 사회에서 바로 서지 못할 것 같다. 나의 여성스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아주고 이해해 주는 동성애 사회 안에서만 당분간 공룡 숨어지내야 할 듯하다. 무척이나 슬픈 일이지만 말이다. [1]

일러스트 난나

글·그림 / 장차현실

충청도 보은에 사는 아전 유씨가 관가일을 영남에 가서 애향 정도를 묵게 되었다.







일등 女性은 만들어 진다

자기관리에 소홀함이 없는 여성이라면 한번쯤 생각해 보는 이쁜이 수술, 병원을 찾아도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성기능 장애(불감증, 성욕장애, 성교통) 이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Dr. Gyno 101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 손상된 근육, 신경에 자극을 주어 약화된 골반 근육을 강화시켜 주므로 요실금 치료 효과가 뛰어납니다.
- 출산 후 이완된 질 근육의 수축력을 출산 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었다.
- 요실금은 물론 배뇨증, 생리통, 오동, 골반통, 여성 성기능 장애 등의 치료에 우수한 효과를 나타낸다.
- 남성에게는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의 개선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사용법이 간단하며 90%이상 높은 치료효과와 100%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 자신감을 회복하였고 부부가 공히 기뻐했다.
- 현재 종합병원 및 개인병원에서 적극 활용 중이다.



Dr. Gyno 101

DOCTORS

Doctors Co., Ltd.
TEL (02)3445-6859
<http://www.doctorsk.co.kr>

ATOZ TIME...



생활이 편리해집니다! 한대로 넉넉해집니다! 아토스

온 가족이 한 대로 넉넉하게! 온 가족이 한 대로 어디서나! 넉~은 경차, 쓰임새도 많~은 경차- 아토스와 함께 하십시오

경차가 이렇게 후련할 수도 있습니다

위로 옆으로 시원하게 탁 트인 실내! 온 가족이 여유있게 머무르실 수 있습니다. 경차도, 아토스 만큼은 넓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차가 이렇게 다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넓직한 활용공간, 간편한 시트변환으로 소파, 비즈니스 여가자가 한 대로 오게됩니다. 쓰임새 많은 경차! 아토스면 편리합니다.

경차가 이렇게 험셀수도 있습니다

국도경차 최대 출력! 아토스는 온가족이 타고 여한 없이 달리고 싶게 할 수 있습니다. 한차에 오릅니다. 파워 스프레스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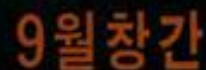
말수록 큰 차
ATO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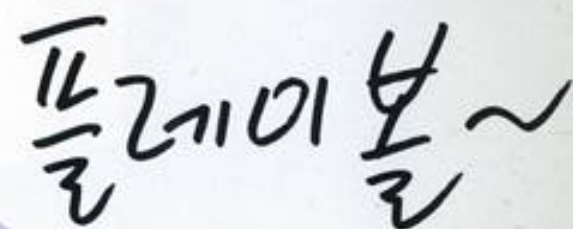
할아버지, 금방 갈게요.



초등학교 2학년인 영호는 아직도
정읍에 있는 할아버지 댁이
잠깐이면 닿는 가까운 곳인줄 압니다.
하기야 고속도로에 오르면
곧 잠에 들어졌으니 그럴 수밖에요.
빠르고 편한 고속도로 덕분에
영호의 꿈은 갈수록 풍성해집니다.



800-368-5868 • FAX 313-338-5868 • WWW.DRUGS-AND-DEATH.COM



레인보우
브라운 픽스

레인보우
브라운 락스

* **울리오** : 본사(02)514-0056 · 이대점(02)312-5531 · 부천LG백화점(032)320-7159 · 일산그랜드백화점(0344)910-2113 · 잠실글로벌백화점(02)417-0834 · 대전연비백화점(042)256-3073
 천안글로벌백화점(0417)559-9129 · 부산지사(051)502-2586 · 대구지사(053)425-6462 · 광주지사(062)267-8072 · 대전지사(042)627-4179 · 강원지사(0371)732-2976

우리나라에는 서울우유가 있습니다



서울우유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선정
'98 고객만족 최우수 상품

서울우유는 살아있다!



자연
생명
생각
이슬
초원
무궁화
푸른 들
푸른 하늘
맑음
깨끗함
신선함
맛
영양
사랑
행복
가족
건강...

서울우유에는 오직 살아있는 것들만 들어 있습니다



대표전화 : (02)433-8151
소비자상담 : 080-021-6666
인터넷주소 : <http://www.seoulmilk.co.kr>

CLIO
PROFESSIONAL



12-이 볼 ~

나는 '볼'로 마무리한다!
5가지 컬러뽕앙스, 클리오 파우더 볼

- 브러쉬 한 번에 다섯가지 컬러가 골고루 섞이므로 누구나 손쉽게 색련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 브라운 믹스는 윤곽을 자연스럽게 잡아주고, 레인보우는 얼굴 전체를 화사하게 꾸며줍니다.
- 미세한 입자로 화장이 잘 먹고 투명감이 오래 간직됩니다.
- 단단한 볼라임이므로 가루분보다 사용기간이 길니다.



“빠르고 믿을 수 있는
뉴스같은 두통약, 참 좋겠죠?”



전 꼭 타이레놀이에요. 믿으니까요.

전 머리 아플 때 꼭 타이레놀을 선택해요.
단일성분으로 두통을 깔끔하게 없애 주거든요.
빠르고 믿을 수 있는, 뉴스같은 두통약 -
전 꼭 타이레놀이에요. 믿으니까요.

빠르고 믿을 수 있는
타이레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하고, 복용량 주의사항
및 부작용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관을 몰라도 되지만
삼성전관이 없으면 안되는 이유

삼성전관이 없다면
TV도, 핸드폰도,
노트북PC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알고 계신 분들도 더러 있지만
삼성전관이 무슨 일을 하는 기업인지
아예 관심조차 없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컬러 브라운관 부문 세계1위란 사실도,
노트북PC의 핵심부품을 만든다는 사실도
21세기 멀티미디어시대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기업이란 점도
사실 소비자 여러분에게는
그리 중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삼성전관 역시 저희를 내세우기보다는
우리 제품을 선택한 기업이 먼저라는 점을
언제나 명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계일류 수준의 제품들 안에는
언제나 삼성전관이 한몫하고 있다는
소박한 자부심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래가 보이는 창

SAMSUNG

삼성전관

타이레놀은 사람의 권리와 함께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사랑의 타이레놀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8년 전통의 대학신문 **캠퍼스라이프**가

대학신문



섹시 캠퍼스

로 바뀌었습니다

쌍방향 대화 인터넷 시대 선두... '섹시세대' 문화 주창
8년 전통의 퀄리티 페이퍼... 젊음지향 밀레니엄 시대 선도

8년 전통, 정상의 대학신문 캠퍼스라이프가

오는 9월17일 창간 2주년을 맞아 'XY세대'로

재호를 변경하면서 '제2창간'을 선언합니다.

캠퍼스라이프는 지난 해 8월9일 인터넷 대학신문을 개편해

독자의 쌍방향 대화가 이루어지는 첨단 홈페이지를 개발,

가동함으로써 밀레니엄 시대를 선도하는 청신성부천

대학신문으로서의 1위 자리를 굳히게 되었습니다

1일 평균 2만2천여 명(2000년 10월)의 방문객에게

빠르고 정확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캠퍼스라이프는 독자가 직접

참여하는 캠퍼스 라이프, 캠퍼스 미팅이,

섹시 세팅 등 폭넓은 인기를 구가하는 코너는 물론

※ 캠퍼스 라이프 유학생 정보

학구적 정보까지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극한의 젊음, 꿈, 미래를 자랑할 대학신문 캠퍼스라이프는

신문재호를 'XY'로 바꾸고 21세기 리더스클럽으로서의

'XY세대'를 주장합니다

새로운 대학신문 'XY'는 8년 전통의 역사를 잇는

불러라 페이지로서 청신성부천은 물론

쌍방향 대화의 인터넷시대물신에도 나가는

리더스클럽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X세대와 Y세대의 '집결'을 기다



대학신문 'XY(섹시)'는 X세대와 Y세대의 집결에서 문화의 꽃을 피우려합니다. '사태지시대'로 불리는 도전적인 X세대와 디지털세대로 불리는 감성적인 Y세대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식 기반 감성으로, 세계에 도전하는 XY(섹시) 세대의 대변자가 될 것입니다.

미지수 X와 Y, 그 '집결'을 찾다



대학신문 'XY(섹시)'는 미지수 X와 Y를 상징함과 동시에 두 미지수가 함수관계로 만나는 '집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집결'으로 다가오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과 진리에 대한 열정을 담아낼 것입니다. 또한 감성과 이성, 현실과 이상 등 세계를 가능케 하는 두 개의 축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XX XY, X세대와 Y세대가 만난다



대학신문 'XY(섹시)'는 남성과 여성을 상징하는 상충색채 X와 Y를 의미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조건에서 만나는 대학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중심으로 한 편집방향으로 대학인의 '본질 찾기'에 노력할 것입니다.

X세대 Y세대, 그들만의 문화를 찾는다



대학신문 'XY(섹시)'는 X세대(극한의 젊음)를 의미합니다. 젊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문화'를 담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어릴 적 대중문화 흥취(흥취)는 지양합니다. 젊음의 힘과 개성이 살아 있는 '신인' 안들기에 힘낼 것입니다. 새로운 대학신문 'XY(섹시)'는 '제2창간'을 통해 무엇보다도 독자와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본지는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활동하는 명예기자들 적극 지원해, 대학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대학신문 'XY(섹시)'는 21세기형 퀄리티(quality) 페이퍼를 지향할 것입니다. 타 매체와 인터넷(quality) 경쟁을 뒤로하고 기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중시하며, 그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우리에게 변화를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학신문 'XY(섹시)'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밀레니엄을 활짝 열어갈 것입니다.



1999년 9월 1일
당당한 10대 고교신문

제1창간 창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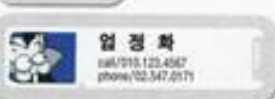
국내최초 대량판(일간지 크기) 주간 고교 전문지 시대 열어
서울·경인지역 500여개교 학교내 집중 배포...10대 문화선도



stikərz:™

따! 좋은 캐릭터명함 - 스티커즈

여기 좀 봐바~~~ 응모권만 보내면 77명을 추천해서
에~쁜 캐릭터 명함,스티커즈를 준대~지금 빨리 응모권을 보내봐바.



따분하고 재미없는 아저씨 종이명함. 정말 짜증이지?
주체할 수 없는 개성으로 똥물 뽐낸 우리 매일매일 튀고싶은데...
나를 알리는 것두 알아. 그런데 엄서한장으로 똑똑 뽐낼 수 있는 방법이 있데...
그게 모나면~자세히 읽어보면 그 방법이 보인다구~

1. 먼저 엄서한장을 준비한다.
2. 다음은 아래에 있는 응모권을 오려 엄서에 붙인다.
3. 그리고 이름, 핸드폰 또는 비빔, 전화번호, 이메일 또는 메세지, 너의 집주소를 빠짐없이 꼼꼼히 적는거야.

다 적고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2-16 보궁빌딩 1층 스티커즈로 보내면 돼. 아참 <http://www.stikerz.co.kr> 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구요.



가장 얇게, 가장 가볍게 만난다 걸리버 메이트

스스로 알고 가볍다고 말하는 20세기 휴대폰은 없습니다.
800만 두께 19.15mm, 무게 76g를 실현하고 MSM 3000을 채택한
걸리버 메이트로만 새로운 휴대폰 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가장 얇고 가벼운 휴대폰. 걸리버 메이트를 만나십시오.

21세기 휴대폰 기술, MSM3000 채택

더 빨라진 데이터 속도, 더 길어진 배터리 사용기간,
초경량, 초박형의 실현 등 MSM3000을 채택한 걸리버 메이트가
휴대폰의 기술을 한차원 올려놓았습니다.

국내 폴더 중 최초, 인터넷 구현

한정된 정보만을 받는 일반 휴대폰과는 달리 인터넷 전용
웹브라우저 기능으로 제대로 된 인터넷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서비스 개시 시 별도 확인)

● 초 박 형 두께는 19.15mm!

앞선 기술인 coe-board 설계를 실현,
초박형 폼으로 대어났습니다. (소형 배터리를 제외)

● 초 경 량 무게는 딱 76g!

무게를 느낄 수 없을 정도의 76g을 실현, 휴대와
사용의 불편을 해소시켰습니다. (소형 배터리를 제외)

● 최 장 시 간 통화대기 150시간!

MSM3000채택과 저전압 설계 기술로 150시간까지
통화대기가 가능합니다.



● HSP-9600 3.125mm, 1000mAh
Gulliver mate



삼성전자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 고객센터 1522-1472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서울, 경기, 충청,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고객센터 1522-1472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서울, 경기, 충청,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고객센터 1522-1472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서울, 경기, 충청,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이른 새벽, 한적한 국도에서
갑작스런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가장 먼저 달려오는 차는?



삼성화재는 전국 어디서나 사고접수 후, 10분 내에 안심콜을 해드리고
30분 내에 현장에 출동하는 3단계 안심콜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야간이동 보상서비스만을 운영, 24시간 가장 빠르고 친절하게 도와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고객께서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지오입니다
스타지오는 삼성화재의 카운터로서
여러분께 힘이 되는 친구를 항상 찾은 것입니다.

- ◆ KCS 자동차보험 부문 고객만족도 1위!
- ◆ 보험금처리 속도평가 최우수 보험회사 1위!
- ◆ 아시아 9-5-00 신질 최우수 경영기업!
- ◆ 미국노믹스 리얼타임 선정 대상에 200대 기업!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친구!

SAMSUNG

삼성화재

한약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만든

산딸기차



추석선물로 최고의 만족을!

산딸기 차란

한약을 사랑하는 모임 (한사모)의 회장 하우형(43) 씨가 개발한 산딸기차(복합차)는 산이나 들에 자생하는 야생산딸기를 고농축하여 구기자, 오미자, 감 등을 기미해 무병부제, 무색소로 자연의 맛과 색을 살려 먹기 좋은 티백형으로 제작한 건강차이다.

차의 효능은

차의 의학적 효능에 대한 예기는 여러 옛 문헌을 통해 찾아 볼 수 있다.
■ 중국 노부부가 아들을 얻었는데 몸이 워낙에 약해 걱정이 이만저만 없었다. 그런데 어떤 노인의 처방대로 산딸기를 달여 먹었다니 건강을 되찾았다.
■ 산딸기 차의 이름이 복분자(覆盆子)로 불려졌다고 전한다. - 본초강목 -
■ 이롭게 하고 몸의 피로회복과 기운을 돕고 눈을 밝게 하는 효능이 있다.
■ 또한 신장의 기능을 도와 남자들의 정력을 좋게 하여 머리털이 자라는 것을 막고 임신을 도우며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과 '오줌싸개' 어린
■ 계 좋다. - 동의보감 -

자나치게 정력을 소비해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으며 성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좋은 치료제이다. -약초꾼 최진규의 '토종약초장수법' 중 산딸기편-

제품의 종류 및 가격

포장단위 120포 48,000원, 300포 (100일분) 98,000원

- 전화주문시 전국 어디나 배달하여 드립니다.
- 한사모는 상표가 등록된 한약을 사랑하는 모임의 약자(略字)입니다.
- 원조 산딸기차, 한사모 산딸기차는 같은 상표, 같은 제품입니다.
- 한국식품연구회에서 모든 기준에 적합하다는 시험 성적서를 받았습니다.
- (인터넷 이용 <http://www.hansamo.com>)

경향신문, 스포츠조선, 한국경제, 일간스포츠, 스포츠조선, 스포츠투데이, 서울경제, 등에 산딸기 차의 효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 되었음.

문의전화 (02)966-8836(대), 967-8838 야간 (02)965-5482
청우당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 2동 892-128

호주풍의 패밀리 레스토랑



OUTBACK STEAKHOUSE®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특징하고 저렴한

다운언더 세트 (라치 스테이크 ₩9,900)을
즐기세요.



월할라 파스타, 후라이드 치킨 샐러드, 아웃백의 특선 볶음밥, 햄버거 스테이크, 치킨 온더 바비큐 다양한 메뉴와 함께 (중 택) 콜라, 부쉬맨 브레드, 수프, 그리고 커피가 풀코스로 제공됩니다.

■ 매일 낮 12시 ~ 오후 5시 까지 제공됩니다.

- 공항점 : 366-1101 5호선 발산역 1번 출구
- 강남점 : 3445-4701 강남역 7번 출구 한남 대교 방면 700m 직진
- 홍대점 : 3142-4435 홍대역 2번 출구 춘천 B/D 1층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
FORBES '99년
"미국 최고의 레스토랑"

틈새에



직접 짜 놓는 튜브식

바퀴살충제 - 타겟 튜브!



바닥과 벽 사이 틈



싱크대의 서랍 사이 틈



가스렌지와 벽 사이 틈

신제품

기존 설치식 바퀴살충제와는 달리 튜브식이라 미관상 보기 흉한 곳(천장, 바닥의 모서리), 설치하기 어려운 곳(가구나 벽면의 틈새)에도 손쉽게 조금씩 짜 놓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겟 튜브 하나면 온 집안 구석구석 틈새에 숨어있는 바퀴벌레를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야?

난나의 세상 /



죽기 전에 데뷔하고 싶었던 여자, 〈미술관 옆 동물원〉의 이정향 감독

전혜성(소설가, 『마요네즈』의 작가)



이정향씨를 만나기 전날 밤이다.
비디오로 〈미술관 옆 동물원〉을 구해본 나는 낮은 정도의 백램프 하나만을 켜두고, 적당한 어둠 속에 우두커니 앉아 있다. 용환, 지환이는 깊이 잠들고, 엔드크레딧이 떠오를 때쯤 방에서 컴퓨터에 매달려 있던 남편이 끝났어? 하면서 마루로 나온다. 내가, 볼래? 리와인드 시켜줄까? 하고 건성으로 물으니 남편도, 됐어, 라고 건성으로 대꾸하면서 목욕용 타월을 챙겨 들고 욕실로 들어간다.
나는 내일 그녀를 만나기로 했다.
...? ?? ??? ????? ??????
물론 나는 그녀를 전혀 모른다. 아니, 꼭 그렇게만은 말할 수 없겠지. 그녀에 관한, 적어도 두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사실은 알고 있으니까.

젊은 여자(세상에서 이 말만큼 내 마음을 이완시켜 주는 말도 없다). 〈미술관 옆 동물원〉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도 하고, 양심도 없이, 데뷔작 하나로 비평과 흥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우리나라 영화사상, 별로 없었던 일 같다.

아니, 설령 이 정도조차 모르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 때문에 그녀에 대해 무언가 말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까?

완벽하게 낮은 타인일지라도, 한두 페이지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

문제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영화를 보고 나니, 마치 나쁜 시력으로 아득한 곳을 또렷이 보아내려고 애를 때처럼, 왠지 매우 피곤하고도 헛된 느낌에 사로잡히는 데 있다.

물론 영화 자체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느낌이다. 그 영화에 대해서 말하자면... 뭐랄까, 피로 같은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득하지도 않고, 오히려 아주 생기있고, 해피엔딩에, 정교한 영화다. 캐릭터, 구조, 대사도 반짝거리고, 심은하—이미 받을 만큼 칭찬을 받은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 그녀에게 직접 들려줄 수 있는 기회도 아닌 다음에야, 어떤 아침도 보태고 싶진 않지만—는 어쨌든 매우 예쁘다. 한 마디로 썩 괜찮게 굴러간다는 느낌으로 시간이 나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볼 수 있는 영화다.

그런데 내가 편협한 인간이어서 그런지 어떤지, 기분을 아무리 가볍게 가져보려 해도, 피곤하고 헛되고 아득하기만 하다. 그런 성격의 느낌들이 이윽고, 하나의 축구공으로 뭉쳐져, 머리 속에서 이쪽, 저쪽 뛰어다닌다. 피웅, 피웅!

“프레임을 통해 보면 모든 게 의미있다.”

이튿날 오전, 약속장소에 나가기 위해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릴 때쯤에나, 가까스로 상상의 머리통을 절개해 축구공을 끄집어낸다. 거죽에 이렇게 썩어 있다.

‘사랑과 낭만적 환상에 대한 거부증’.

공, 그렇구나. 나는 이미 사랑의 허구성과 낭만적 환상의 사기성을 못 보거나, 안 본 채하기엔 깊은 강을 건너버린 40세였던 거다.



그녀를 만나기 전 백 미터 앞. 내겐 이 점이 못내 부담스럽다.

태풍 올가와 풀 사이의 여름날 오후. 안국동 크라운베커리에서 이프 편집장 박미라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유리벽 바깥 거리로 어느 순간 그녀가 나타났다.

유리벽 때문인지, 일종의 프레임을 통해 보고 있는 느낌이다.

영화 속의 춘희는 철수에게 화면을 의미하는 프레임을 손가락으로 지어보이면서, '프레임을 통해 보면 모든 게 의미있게 보인다'는 뜻의 대사를 했던 것 같다.

그녀를 보고 기분 좋아하는 사진기자. 이런, 이미 두터운 팬층이 형성되었군. 장소를 옮기니, 이번엔 카페여자가 그녀를 알아본다. 그런 장면을 대하니, 엉뚱한 호기심이 발동한다. 명백한 성공임이 입증되기 전에, 사람들은 저에게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이정향 감독(시나리오 작가이자), 결혼하지 않은 여자. 서른여섯인데 학생 같아 보인다. 화장기라곤 없다. 먹는 것에 비해 입는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단다. 셔츠 셔너 장, 청바지 두어 벌이면 거뜬히 1년을 난다. 신문 애독자. 아침마다 한 글자도 안 빼놓고 '휴지통'까지 암기해 버린다. 뉴튼, 과학동아 같은 잡지책도 좋아한다. "영화가 남편이라면 음악은 친구"인 정도.

오독한 분위기. 내적으로 잘 단속된, 냉혈적인 것과는 다른 의미의 차가움. 안경테 안쪽으로 은닉돼 보이는 아주 예민하게 떨리는 신경줄 같은 것이 전달돼 온다. 이런 것들이, 영화관에서 무기가 되어주었을까.

"60퍼센트는 운이고 40퍼센트만 실력이었다"고 말하지만, 자신감이라는 내적 기운이 그려내는 확고한 선 같은 게 표정에 존재한다. 무엇보다, '미술관 이후'에 대한 강박증이 없다.

(미술관 이전의 그녀가 그랬듯이) "요즘은 그냥 놀며", "하나의 작품을 하기까지 적어도 3년 정도의 시간은 갖고 싶다."

미술관은 '서울 관객만 45만'을 동원했다. 사실 어떤 영화들에 대해서는 몇만이니 몇십만이니 할 때 만 앞의 숫자가 올라갈수록 영화의 현실을 오히려 개탄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다행히 미술관은 그런 범주에 드는 것 같지 않다. 아무도 그러리라 예기치 못했던 영화사의 효자상품이 되기도 했다는데.

흥행 성공은 그녀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20년 생각하며 걸은 길인데, 관객에게 가장 고맙다. 관객과 대화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 기쁘다."

깜마르고 옛때 보이는 여자가 대단한 일을 해냈다.

"애, 정신 차려"

그녀 앞으로 좀더 바짝 다가선다. 그녀가 어떤 일을 해냈든, 내 속에는 시비의 불꽃이 있다. 그러니까, 나의 문제는, 이미 고백했듯이, 그녀가 아무 간섭 없이 밀고 있는 듯한 '사랑에 대한 낭만적인 환상'을 우습게 여기는 병. 그런 거라면 가끔씩 이른 나이에 해부수면 그럴수록 덜 후회로운 인생을 살게 되리라고 믿는다. 45만이나 되는 관객 중에 10대 소녀가 상당수라니, 의기마지 일어난다!

여기서 영화를 보면서 내가 느낀 가장 솔직한 감상을 털어놓자.

일단 나는 영화의 출발점이나 다름없는, '철수'의 등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가 춘희의 방에 뛰어든 방식은 너무도 무례한 '마초'의 그것이다. "방값을 냈으니 입 달으라"는, '내가 돈 벌어드주니 입 달으라'를 연상시키고, 애인에게서 온 전화가 끊겼으니 어떻게든 도로 이어놓으라고 우기는 형국은 전형적인 '불도저맨'이다. 도대체 왜 춘희는 그런 철수를 빗자루라도 휘둘러 내쫓아버리지 않고 침대를 차지하게 그냥 두는 건지. 하지만 둘의 사이는 '하모니어들하게' 발전되어 춘희가 쓰고 있던 시나리오를 함께 써나가는 단계로까지 진전이 되는데, 이 남자는 춘희가 완성하지도 않은 시나리오를 자기 멋대로 완성해서 공모에 집어넣고는, 심지어 춘희와 자기의 현실을 자기가 써넣은 시나리오의 결말대로 연출해 버린다.

남자의 이 모든 일방통행이 지극히 아름다운 상황인 것처럼 그려진다.

이윽고 미술관과 동물원이 갈라지는 풋말 아래서, 불에 입을 맞추인 춘희가 더 이상 흐뭇할 수는 없다는 표정으로 행복한 웃음을 머금은 장면에 이르러선, "애, 정신 차려, 너 이제 시나리오 쓴다 씨!"

나: 영화 앞부분의 철수는 전형적인 마초더라.

이감독: 마초 같은 철수가 춘희에게 맞춰지는 변화를 보이고 싶었다. 철수는 춘희를 위해, 춘희에 맞추어 만든 인물이다. 미술관하고 동물원이 나란히 있다는 게 정말 재미있어 보였다. 그 미술관과 동물원만큼이나 서로 다른 두 남녀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서 사랑으로 가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어쨌하랴, 너의 진실과 나의 진실이 미술관과 동물원만큼이나 다른 걸.

나는 이쯤에서 슬그머니 시비심을 건어들인다.

요컨대 나는, 내가 나의 주관적인 느낌에 매달려서는 안, 된, 다는 강박관념과 싸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명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젊은 여성이 영화계라는 남성적인 킬리만자로에 자기의 깃대를 꽂기까지, 얼마나 외롭고 고단한 싸움을 했겠으며, 밤낮없이 세헤라자드의 기지와 끈기를 퍼올렸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걸 궁금해할 텐데.

더구나 그녀와 마주앉은 지 삼십 분도 안 되어 또렷이 감지돼 오는 진실의 선 같은 게 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고 믿고 있는 그 무엇들, 가장 자신있는 방법론으로 설득력있게 그려냈을 뿐이다.

나는 그렇게 마음의 짐을 털어내며, 그녀에게 한결 곱살긋게 굴고 싶어한다.

짝사랑을 많이 했느냐고 물어본다.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영화 속의 춘희는 바로 자신이라고.

다시 나: 짝사랑을 하면 번번이 짝사랑에 그치고 마느냐.

그녀: (번번이) 그렇게 된다.

나: 아니 표현을 좀 하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해가 안 간다.) 나도 짝사랑을 해보았지만, 어떻게든 결론을 내지, 품고 있는 것만으론 못 견딘다.

그녀: 나는 안 그렇다.

나: 이유가 있다.

그녀: 대학시절, 일방적인 짝사랑의 괴해를 본 적이 있다. 나는 좋아하지도 않는 어떤 사람이 자기 짝사랑을 마구 공개하는 바람에 진짜 좋아하는 것처럼 되어버려, 정작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정을 드러낼 수조차 없었다. 자기만의 감정을 그렇게 강요해선 안 되는 것이다. 나는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에 신경이 쓰인다. 영화를 할 때도 그렇고, 모여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올 정도로 무서운 책임감이 느껴진다.

나: 너무도 기다렸던 기회였으므로 정말로 소중했을 것 같다.

그녀: 이루 말할 수 없이. 밤에도 다음날 촬영 준비 때문에, 하루도 쉬거나 놀지 않았다. 영화 찍을 때, 입맛이 하나도 없어도 밥을 먹고 했던 게, 책임감 때문이었다. 내가 컨디션이 좋아야 모든 게 돌아가므로. 촬영전야에 스태프들과 술 먹고 노는 감독들,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천재 아니면 무책임한 인간. 나는 책임감이 강하다. 원하는 한 장면을 얻기 위해 테이크를 9번, 10번 고쳐 잡았다. 영화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잘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9번, 10번 테이크를 잡는 감독은 심중판구 어려운 입장에 몰린다. 그렇게 많이 잡아봐야, 결국 첫번째 아니면 두번째로 가게 된다고. 하지만 미술관은, 편집된 필름에 결국은 9번째 10번째 테이크가 들어갔다. 편집기사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런 거였는데... 사실 찍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이 영화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었다. 배우들조차 그랬다고 생각한다. 재미와 흥행을 확신한 사람은 나 하나뿐이었다. 재미에는 공감했던 기획자도 흥행에는 회의적이었다. 내가, 이 영화 30만입니다. 하면 모두 우. 했다. 농담 말라는 식으로. 전부 나 안 듣는 데서 이 영화,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거야, 우근거리기도 하고. 나중에 다 들었는데, 스태프 중에 한 아이 정도만, 내게 공감하고 있었더라.

20년의 꿈이 이루어지다

이감독의 영화사랑은 자그마치 20년 전으로 거슬러간다.

중3 때 <타워링 인페르노>를 보고 폴 뉴먼한테 반하면서, 장차 영화감독이 아닌 그 무엇도 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혼자서 그렇게 꿈만 꾸었던 게 아니라 주위에도 그렇게 선언을 한다. 폴 뉴먼이 좋아서, 그가 나오는 모든 영화를 찾아 보기 시작하고, 남이 모르는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외국잡지글목을 뒤지는 '매니아'가 되어간다. 고등학교 시절엔 자신과 어떤 친구를 모델로 한 시나리오도 써보고, 그걸 누구한테 보여주고, 얘기 듣고, 학교 시험은 벼락치기로 대충 때웠으므로, '3지망'으로 서강대 불문과에 들어갔지만, 워낙 프랑스영화도 좋아하므로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다행이었다. 누벨바그 영화를 보며, 연극을 했던 대학시절, 4학년 때 대학극 연출을 했는데, 뮤지컬이었고, 그 때 연출을 했던 경험이 오늘날까지 여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졸업 후 영화아카데미 4기 입학. 그 후로도 영화 아닌 길을 걸으려고 한 적은 없다. 대학을 졸업한 젊은 이에게 가장 별 볼일 없는 수준의 수입밖에 보장 못 해주는 영화편이지만, 본의 아니게 빈둥거리게 되는 시간도 있었다. 스물여섯에 혼자 미국여행을 했다. 그녀 생애 가장 좋았던 일이었다. 2달 동안,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다니며 잠도 차 안에서 자면서, 미국 뒷골목을 보고 다녔다. 이 여행



필자 전혜성씨(왼쪽)와 이정형 감독이 인사동 한 찻집에 마주 앉았다.

으로 훌쩍 갔다. 나중에 딸을 낳아도, 꼭 그 나이쯤 혼자 하는 미국여행을 권할 것이다. 그 때 못다 본 요세미티 국립공원, 나이에가라폭포, 워싱턴의 동굴들을 찾아보라. 언젠가는 다시 가겠다. 영화에서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좋아 영화를 한다. 착한 사람들만으로 되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 악인이 안 나오는, 규모가 작고 적은 제작비로 찍을 수 있는 영화를 좋아한다. "가깝고 쉽고 감동이 있는 영화를 찍고 싶다."

88년 말경에 당시 성고문사건에 논란 학교 신부님들 — 서강대에는 신부님들이 있다 — 권유로 한국에서의 여성 인권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이브의 설 자리>를 만들었다. 88올림픽 기록영화팀에는 영화아카데미 멤버라면 거의 참여했던 것 같고, <오늘 여

자>라는 영화에서 스크립터, 그 후로도 한국영화 두어 편에서 연출부 생활을 했다. 딱히 일이랄 만한 것이 없을 때도 "빈둥거리며" 시나리오도 끄적거리고, 집에서 용돈도 타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랬던 것들이 다 "의미있는 빈둥거림이 되어주었다." 조금씩 쓰고, 쓰다가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딱 덮어두고 한참 지났다가 다시 생각이 나면 이어쓰고 했던 것이 97년 <미술관 열 동물원>의 시나리오로 완성된다. 『씨네21』 시나리오공모에 냈다가 최종심에서 선택되지 못했는데 그때 예심 뒤편 영화사 기획들 사이에선 이미 재미있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다시 청룡영화상 시나리오 공모에 집어넣어서 가작 두 편 중 하나로 상을 받는다. 『씨네21』 공모에 낼 때 시나리오 투쟁에다 이렇게 밝혀놓았다.

"연출의 권한을 제게 주지 않을 시, 당선은 포기하겠습니다."

영화사 <시네2000>의 한 기획자 — 이 분도 여성인데 — 가 '미술관' 시나리오에 관심을 갖는다. 한참 시나리오를 수배하다가 영화사 사무실 안에 있었는데도 몰랐던 것을 알게 된다. 연출자를 이리저리 물색하다, '이정형 그녀 아니면 이 영화 제대로 찍을 사람 없다'가 된다.

20년의 꿈이 이루어지다.

그 감동을 그녀는 이렇게 표현했다.

"죽기 전에 데뷔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 작품은 10대, 20대 때 내 방의 감동사니들을 다 보여주는 것 같은 의미가 있다. 만약 당시의 공모에서 떨어졌으면, 이 이야기에서 완전히 떠났을 것이다. 춘희는 나의 분신이다."

영화의 어디에선가 철수는 춘회를 이렇게 묘사한다. "양말을 신지 않고 물 마실 때 컵을 안 쓰고, 음식을 보면 이상한 소리를 지르는 너"라고. '전망 좋은 방'을 갖고 싶었던 춘회.

고통을 모르는 세대의 매력적인 자화상, 춘회

나는 이 춘회를 보면서 고통을 모르는 세대의 매력적인 자화상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자기만의 개성을 꿈꾸고, 그 개성에 대하여 다분히 자기암시적이며, 또 그 개성이 세상(또는 남성)을 움직일 매력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싶어하는, 자기에게 반하며 성장한 세대의 초상화이다. 관객이 동원되면서 기꺼이 지지할 수 있는 주인공을 창조한다는 건, 물론 모든 작가들의 꿈이기도 하다.

춘회는 아직 가난한 듯하고, 꿈은 있지만 실현되지 않았으며, 어쩌면 가난이나 꿈보다 그녀에게 더 중요해 보이는 짝사랑은 더더욱 이를 길 없다. 만약 그 춘회가 나의 주인공이었다면, 나는 춘회에게 고통을 알게 하었을 것 같다(물론 그랬다면 시나리오에는 채택되지 않고, 20년의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미술관'의 사랑이 낭만적 환상이듯이, 내겐 춘회도 고통을 모르는 세대의 낭만적인 자화상처럼 보인다. '미술관'을 선택하고 지지한 관객은 그 낭만과 환상을 선택하고 지지한 것이다. 영화는 꿈꾸기라고 했는가, 춘회는 그런 의미에서의 '영화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인공이다.

아마도 이정향, 그녀가 영화를 통해 영화를 배울 뿐 아니라, 인생도 영화를 통해 배우고, 영화 그 자체를 위해 영화를 하는 새로운 세대에 속하기 때문이리라. 그녀는 자신들—그와 비슷한 영화도래들—에 대하여 "생활의 수단으로 영화를 선택하지 않은 신세대"라는 확실한 소속감을 갖고 있다.

그녀는 여성이기도 하지만, 영화계에 새로운 물결로 등장한 영화신세대의 당당한 일원이기도 한 것이다. 그녀가 말하는 신세대가 구체적으로 누구 누구를 지칭하는지, 영화계 사정에 어두운 나로서는 확실히 알 길이 없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이 신세대라고 하자, 그냥 신세대처럼 보였다.

아무튼 이 신세대는 시나리오에서 알아볼 수 있는 문제점을 뽐낼까지 떠안고 가는 데 가장 발끈한다. 다른 문제라면 몰라도 시나리오의 문제는 시나리오 단계에서 해결돼야만 한다는 것이다. 대다수가 그걸 안 해서 영화를 망치는 건, 근본적으로 요행수를 노리기 때문이다. 간혹 그런 식으로 요행이 먹히는 경우도 없진 않기 때문에, 그것에 속아서, 혹시 되겠지, 이런 스타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겠지, 속아주겠지, 그렇지 만, 자신들부터 못 속고 이미 느끼는 걸, 관객이 속을 것 같은가, 엄청난 낭비는 이렇게 일어난다. 누가 책임질 건가.

누구에게나 젊은 날의 꿈은 있다.
중3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에 홀자는 영화감독 아니라 그 이상되는 꿈도 꿈다.
그 주술에 걸려 배로 빈둥거리고 배로 떠돌며, 자신이 그냥 늙어가게 놓아두

지조차 못한 채, 영화 아닌 다른 그 무엇도 하고 싶지 않다고 끊임없이 자기암시를 해대고 있을, 그러한 청춘들이 어찌 이정향씨뿐이었으랴. 나는 이 글을 쓰면서,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음지에서 냉정한 실력을 쌓고 있을 술한 '미래의 이정향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하나의 듣직한 현실로 연결될 때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하겠다는 결론에 이른다.

나와 함께 있던 여러 시간 동안, 한 번은 내가 엉뚱하게 나의 죽음에 관한 강박관념과 내 안의 종교성을 관련 지으면서 기독교와 페미니즘의 충돌에 대한 나의 깊은 근심과 딜레마를 심각한 표정으로 털어놓았더니 건디다 못해 몇 번 하품을 하기도 하면서, 그녀는 다양한 빛깔과 형태로 자신의 무늬를 드러내고, 자신과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분량의 아주 알맞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실 그녀의 영화에서 맨 처음 느꼈던 것들에 대하여 나는 아직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모두가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서 굳이 앵무새를 떨고 싶지 않았는데, 영 말자니 너무 쓸쓸하다. 그러니까...

내가 '첫키에' 이 영화의 제목에 반했었다는 것, 미술관과 동물원은 그녀가 말하려고 한 남녀관계에 대한 매우 아름답고 적절하며 통찰력이 깃든 은유였다. 특히, 천문학의 용어들을 끌어다 쓴 사랑에 관한 장면들이 기억에 남는다.

만약 내가 15년쯤만 세월의 길을 거꾸로 걸을 수 있다면, '미술관'과 '춘회'의 팬이 되었으리라.

그녀는 아직 부모님과 함께 신사동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언제나 밥술에 밥이 있고, 그녀 자신이 일상의 자갈구레한 것을 쟁기지 않아도 되는, 엄마가 제신 지금의 환경이 그녀에게 가장 편하다.

그렇지만 단 하나, '전망 좋은 방'을 갖고 싶다. 사실은 나도 언제나 전망 좋은 방을 갖고 싶어했다. 그렇지만 현실의 나는 '전망 좋은 부엌'을 갖고 있을 뿐이다. 나는 진심으로, 그녀가 전망 좋은 방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사진 엄윤순



김세영성형외과클리닉

TEL 515-0030

아름다움 속엔
아름다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름 한국영화, 여성을 지우다

남성영웅담에 편지 걸기



이준 | 박 | 이준웅 | 박 | 박

올 여름 한국영화는 대단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게 영화시장을 내주는 것이 관례처럼 되었던 여름영화시즌은 한국영화 선봉으로 상황을 역전시키는 이벤트를 보여주었다.

〈용가리〉가 거품진 어설픈 영화여도 희귀한 어린이용 한국영화이자 대단한 사전 캐릭터 홍보로 100만 명 관객을 넘어설 추세이다. 한국영화의 장르와 소재의 지평을 넓힌 잠수함영화 〈유령〉은 위험한 발상의 거친 시나리오에도 불구하고 수중 특수효과와 독특한 소재로 인기를 누릴 만하다. 뽀뽀하고 아기자기하며 독특한 비주얼 효과로 연애담을 만들던 이명세 감독의 〈인정사정 볼 것 없다〉도 화려한 비주얼 효과로 관객을 사로잡고 있다.

〈쉬리〉로 입증된 한국영화의 위세는 단발성이 아닐 수 있다. 여름 한국영화 블록버스터들이 증명해낸 셈이다. 이제 한국영화는 대작중심 스케일, 참신한 발상과 스타일로 변신해서 승승장구하는 기분좋은 모습이다. 그에 비하면 할리우드영화의 기세는 많이 위축되었다. 물론 과거에 비해 한국관객 취향에 맞는 이렇다할 할리우드영화는 없다는 진단도 있지만 그보다는 한국 영화들이 더 화제와 이목을 끈 결과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기세 좋게 잘 나가는 한국영화에 공통점이 있다.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특수효과, 그와 엮물리는 스펙터클한 화면, 따라서 작품 단가가 올라간 대작 경향, 그리고 거의 모두 여자가 나오지 않는 남성영웅담이라



많은 논란속에서도 좋은 흥행 성적을 거둔 〈용가리〉.

는 점이다. 남성영웅담에 왜 편지를 거냐고? 그건 아니다. 남성영웅담, 그 중에서도 〈유령〉처럼 여성이 타지 않는 잠수함이 남성만의 세상을 그리는 영화가 된 것은 당연하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같은 형사영화도 범죄자의 여자와 그 친구 말고는 카메라가 형사인 남자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지당한 일이다. 그러니 이런 남성 세상에 여성이 짝 대가 어디 있겠는가.

〈용가리〉는 남성영웅담이 아니라 대괴수 용가리 영웅담이라는 예외적 상황이다. 그런 유의 할리우드 내러티브를 빌려온 탓인지 톱툰하고 정의감 넘치는 여조수를 중요한 조역으로 등장시킨다. 완전 여름 한복판 영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친 김에 그 전에 나온 〈이재수의 난〉까지 짚고 넘어가자. 소문으로 아시다시피(본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 영화도 전형적인 남성영웅담으로서의 역사극이다.

영화가 현실을 표상하는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지금 이 시기 한국영화 세상은 (관객 말고 스크린을 중심

으로 볼 때) 남성만의 세상이다.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나 남자를 낳은 여자가 희미한 흔적으로 보일까 말까 하는 정도로 남자들이 세포생식을 한 게 아닌란 점을 보여주는 배려가 있긴 하다.

블록버스터와 공익광고가 같은 이유

아무튼 영화를 한 편씩 떼어놓고 보면 왜 남성만 나오는지, 왜 남성영웅담인지 다 이해가 가고 설득력이 있지만, 이것 지형도처럼 여러 편 겹쳐서 펼쳐놓고 보면 왜 모두 남성뿐인지 의아해지기 시작한다. 그건 마치 무심하게 보아넘기던 TV나 신문의 공익광고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과 일맥상통한다. 즉 모범적인 국민의 모습으로 다수의 남성이 등장하고 홍익점으로 여자 하나가 긴 장면을 보면서 이 땅에서 여자로서 사는 이가 이곳을 자신들의 세상이라고 느낄 수 없는 부자연스러움과 옴모론의 예감 같은 것 말이다.

다시 한 번 상상해서 만일 외계인이 지구를 이해하

려고 우연히 99년 여름 한국영화들을 샘플링해서 모니터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 아마도 지구는(혹은 지구의 이 부분에는) 주로 남자들만 살거나 남자들만 바깥에 나와 설치하는 땅인 걸 보니 단성생식이나 무성생식으로 재생산을 하나보다. 그리고 어쩌다 나오는 남자 아닌 다른 존재는 변형이나 돌연변이인가보다. 라고 추론하지 않을까.

왜 영화에 등장하는 남녀간의 숫자가 문제냐고 묻는다면, 영화는 거의 비슷한 숫자의 남녀관객을 대상으로 하니깐라고. 그리고 이런 관객 수는 거의 반반에 해당하는 세상의 남녀비율과 얼추 맞아떨어지는 숫자

남자들만의 세상을
구가하는
공익광고처럼
왜 한국영화의
이미지 표상체계는
남자만의
세상에 흥미를 느낄까

을이고, 정치권이든 어떤 직종에서든 심지어 군대에 서조차도 여성의 비율은 그 나라의 여성 인간지수와 함수관계를 갖기에 숫자비율은 중요하다고 대답하고 싶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여성 비율이 세계 하위권인 한국에서 영화만 예외이겠는가. 라고 자조적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나선다. 영화가 보여주는 세상이 그나마 희귀한 여성조차 타자화하고 주변화하기에 급급한 것을 너무 쉽사리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남자만 보거나 남자의 눈으로만 보라(?)

<인정사정 볼 것 없다>는 눈길을 사로잡는 화려한 비주얼 효과의 두드러짐에 비해 시나리오가 좀 엉성하다. 쫓는 형사쪽(박중훈, 장동건 등)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풍요한데 그 상대인 쫓기는 범죄자(안성기)에 대한 정보는 충분치 않은 불균형을 보여준다. 이를 태면 왜 그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으며, 매우 섬세한 비주얼 효과로 진행되는 초반의 범죄

현장도 대체 왜 사람을 죽여서 뭘 훔쳤는지 궁금할 정도로 기본적인 전제를 요령껏 제시하지 않는다.

하긴 그냥 범죄자로 타고났고 그냥 범죄자들끼리 치고 박고 하

다가 죽은 거겠지. 라고 편하고 편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된다.

그러다보니 범죄자와 그의 여자(최지우) 캐릭터에 대한 묘사도 불투명하고 상투적이다. 범죄자의 여자에게 형사가 연정을 품게 되는 과정도 좀 황당하게 펼쳐진다. 범죄의 뒤에는 여자가 있다던가. 신창원의 여자를 집탈한 형사와 달리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의 박중훈은 그나마 연정으로 발전하니 인간적으로 볼 수도 있다. 확실히 영화세상은 낭만적이고, 그래서 파란 현실을 위로하는 기능도 있으니까.

이 영화의 유일한 여성조역 최지우가 박중훈의 마음을 사로잡는 과정은 드라마적 연유에서보다 그저 예쁜 여배우는 주연 남자배우와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매우 단선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관점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래서 도대체 그녀의 역이 어떻게 기획된 것인가 보도자료에서 찾아보았다. "트레이드마크인 청량한 이미지로 특히 남성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최지우. 순간 표정연기가 강한 귀여운 얼굴과 팔동신(이건 동양인이 맞추기 불가능한 기준이라는데...)의 늘씬한 몸매..."라는 최지우 캐스팅 이유와 "땀에 젖은 사슴처럼 촉촉한 눈망울의 여자"라는 최지우 배역 김주연에 대한 설명은 매우 솔직하게 여배우와 여성캐릭터를 타자화하고 있어서 놀라울 정도이



이명세 감독의 <인정사정 볼 것 없다>에서 형사역을 맡은 박중훈(왼쪽)과 장동건.

터. "집념의 추적자 우형사. 동물적 감각으로 집요하게 범인을 추적하는 과격하고 우직한 형사"이다. 그리고 영화에도 그런 터프가이를 동물적으로 캐릭터화한다. 다음은 장동건. "이지적인 추적자 김형사. 서늘한 이성을 지닌 원칙과 가정에 충실한 검술의 고수"인 그는 박중훈의 다혈질에 대항하는 대립형이며 비교적 원칙주의자로 준수한 외모에 걸맞는 준수한 캐릭터를 구사한다.

그런데 이들의 거친 형사/이지적 형사 이미지에서 여성관객의 구미를 당기는 점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건만 왜 최지우의 캐스팅에는 '남성의 적극적 지지' 같은 수사법이 동원될까. 이걸 남자만 보거나 남자의 눈으로 보라는 주문이 아닐까.

영화에서도 최지우는 그녀 자신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박중훈의 시선에서 또는 안성기의 여자로서 타자화된다. 슬집 호스티스인 그녀는 이 남자에게서 저 남자에게로 넘겨지는 교환의 기호이며 그것은 그녀가 촉촉한 사슴의 눈망울을 가진 미인이어서 가능하다. 다른 나라 영화에선 여자가 지구 대표로 지구를 구하러 외

다. 남성영화에서 여배우를 대하는 방식. 여성캐릭터를 설정하는 개념이 얼마나 세심하며 낭만적이고 그 바탕에 성찰적 발상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믿기지 않으면 남자형사들의 캐릭터 설명과 캐스팅 이유를 비교해 보라.

우선 박중훈부터.

계에 파견되기도 하고 실제로 여자가 우주선을 타기도 한다. 한국의 새마을금고 여직원(은행털이영화)보다 박진감 넘치는 액션신을 연출하는 현실이 존재하는데 왜 그런 현실은 이런 액션영화에 반영되지 않는 걸까. 영화 만드는 사람들은 주로 남자에게 목매달고 사는 여자들만 보아온 특이한 생활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일까? 액션영화에서, 형사가 나오는 영화에서 양남이자 홍일점으로 나오는 여성캐릭터. 호스티스였다가 주인공 남자들의 시선/사랑을 촉촉한 눈망울로 맞는 최지우의 존재는 불수록 흐릿해지며 남자의 늪같은 어깨라는 밧 속해 갇혀 있다.

새마을금고 여직원은 어디로 갔나

<유령>으로 넘어가자. 핵잠수함 '유령' 속에서 벌어지는 긴박한 전쟁놀이를, 아슬아슬하게 파시스트적 경계를 넘나드는 야릇한 애국주의로 묘사한 이 영화는 눈길을 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특수촬영을 결합한 잠수함과 수중장면들은 한국영화의 기술적 성과를 보여준다.

일본에 핵을 날려 독립주권국가의 본패를 보여주겠다는 부함장 최민수는 함장을 죽이는 반란을 일으키고 일본 영해에서 일본 잠수함을 격침시키려는가 하면 핵발사키를 요리사 뱃속에서 꺼내는 미친 사람이다. 그의 반대편에서 끝까지 이성적으로 그에 맞서는 정우성은 일당백 정신으로 최민수의 음모를 저지하는 역할을 맡아 일본을 겨냥한 핵발사를 막고 유령을 침몰시키는 또 다른 선한 영웅이다.

이런 위험천만하고 광적인 잠수함 속에 여자가 존재하기는 불가능하다. 단지 해군인 아버지의 의문사를 떠올리는 정우성의 어린 시절에 대한 단편적인 이미지 속에서 안타까운 표정의 어머니가 잠시 스치고 지나간다. 아니 또 있다. 정우성을 도와주다가 마취 안된 채 배가 갈려 최민수의 손에 끔찍한 고통을 당하다 죽는 요리사가 물레 품에 넣고 보는 가족사전에 등장하는 아



431(정우성)은 202(최민수)의 일본을 향해 핵을 날리려는 시도를 막으려 한다.

내도 있긴 하다. 그런데 이 호련한 여자들의 공통점은 과거회상이건 스틸사진 속에서건 큰 의미가 없는 존재란 점이다. 애초에 위험한 핵잠수함 '유령'에 타는 승무원들의 조건이 과거를 지우고 번호로만 불리도록 설정한 것도 남자만의 세상의 터프한 법칙과 파워게임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의도와 잘 맞아떨어진다.

《용가리》의 여성캐릭터

그런데 왜 쓸데없이 정우성의 어린 시절 회고담에 어머니의 호련한 잔영을 집어넣었을까. 정우성의 존재는 아버지의 과거와 연결되는데 왜 굳이 어머니를 잠깐 집어넣고 그에 대한 어떤 의미부여도 안 하는 걸까. 어차피 이젠 씩씩하고 치열하고 미쳐가는 남성들의 싸움이니까 잠수함 밖, 혹은 과거의 여자들이란 드라마에 방해가 될 뿐이다. 써놓고보니 이상하다. 여자가 방해가 된다? 그러면 괜히 가족사진이니 과거 기억 속에서 어머니 같은 이미지로만 존재하는 그런 여자들조차도 아예 깨끗이 지워버리는 것이 나았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면 일부러 없애는 그런 이중성은 벗어날 테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수준 미달인 낙심스런 《용가리》는 그나마 한국 여름영화 중 여성캐릭터를 가장 적극적으로 살려낸 편이다. 용가리 발굴로 명예와 부를 꿈꾸는 못된 야심가 캠퍼박사의 조수인 홀리는 이성과 윤리성을 결비한 전문가이다. 홀리는 휴즈박사와 함께 용가리가 재앙을 가져올 존재임을 깨닫고 묵시론적 예언이 담긴 상형문자를 풀어내는 중요한 일을 수행한다. 그렇다고 홀리가 상황을 주도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녀는 캠퍼의 조수에서 휴즈의 조수로 이동하는 중요한 보조자이다. 마치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의 최지우가 나쁜 편 여자에서 좋은 편 여자로 이동하듯이 홀리도 악에서 선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홀리는 최지우와 비교해 볼 때 캐릭터 성격과 기능이 전혀 다르다. 홀리는 최지우처럼 촉촉한 눈망울로 남자를 기다리는 닷에 걸린 여성이 아니라 숨이 턱에 닿도록 뛰면서 자신의 지성을 발휘해 사건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홀리는 다른



잠수함 유령의 승무원들은 자신들의 운명도 모른 채 항해를 시작한다.

인물들처럼 미국인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뛰면서 일하는 여성은 미국여성이지 한국여성은 아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서 문제해결에 나서는 용감하고 똑똑한 여성의 존재는 보조자이건 주도자이건 고정적인 지분을 갖고 있다. 《에일리언》 시리즈는 차치하고라도 《공고》, 《트위스터》, 《콘택트》, 뉴버전 《스타워즈》, 심지어 본드걸로 악명 높은 007시리즈조차 싸우는 본드걸로 바뀐 세상을 살고 있거나 살고픈 현대 여성관객에게 아부한다. 그런 면에서 거품진 성공을 거둔 《용가리》가 갖는 장점은 적어도 허구의 세상에서라도 여성에게 활동적인 캐릭터를 주려는 흥내라도 났다는 점일 것이다.

한국 여름영화가 할리우드를 제압하는 대단한 순간에 저널리즘은 격찬을 보낸다. 한국영화들이 흥행지수를 높이는 데 여성관객의 기여도 있다.

그런데 남자들만의 세상, 여성을 호련한 잔영으로 남기거나 지워내고 고작해야 남자의 여자로나 설정하는 이런 아픈 세상을 구경하고 나오면서 이 나라가

자신의 나라라는 생각을 하는 여성관객이 얼마나 될까. 남자들만의 세상을 구가하는 공익광고처럼 왜 한국영화의 이미지 표상체계는 남자만의 세상에 흥미를 느낄까 생각해 본다.

경제위기 이후 고개 숙인 남성들을 위로하고 다시 한 번 여자들의 자리를 지워내려는 한국사회의 반동적 마치증이 한국영화에 활력과 영감을 준 결과라면 이젠 우려할 만한 성공이고 사이비 성공이다. 계속 이런 식이면 어느 순간 질려버린 여성관객이 극장을 채워주는 일에 별로 흥미를 못 느낄 테니까. [7]



유세진

영화평론가,
동국대 영화학과 교수

강렬하고 힘찬 팔 색깔의 폭죽 '99 여성미술제 '팔쥬들의 행진'



204×94.7×43cm, 1996.
이미경, 〈침대에 놓인 전기장판〉, 혼합재료.

팔쥬들이 모였다. 팔쥬들이 모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전국의 콩쥐들과 콩쥐 때문에 만사 편안했던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나 물론 우리는 그렇게 드러내놓고 팔쥬짓을 하지는 않는다. 이런저런 다양한 표정과 능청맞은 행동거지, 예술이라는 애매모호함으로 무장한 우리가 속은 팔쥬였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실은 너도 팔쥬지? 다 알아, 우리 같이 가자"라는 속삭임을 은밀히 전달하는 세련미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현대의 팔쥬인 것이다.

우리가 아직도 콩쥐로 보이니?

이러한 팔쥬들이 모인 '99여성미술제(99. 9. 4~9. 27/ 예술의전당 미술관 1, 2전시실)는 한국 여성미술의 지나온 자취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향방을 가늠해 보는 회고적인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여성미술제이다. 여성미술이 '여성에 의한 미술' 이상의 의미로 대두하고 페미니즘미술이 화단의 한 흐름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는

현시점에서 이와 같은 여성미술제의 개최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다.

우선 〈팔쥬들의 행진〉은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팔쥬로 비쳐지는 여성작가들의 현실을 풍자적으로 은유하기 위하여 붙인 제목이다. 즉 전통적인 남성시각에서 보면 주체의식을 갖고 창조활동에 전념하는 직업여성작가들은 모두가 팔쥬들일 수밖에 없다. 역사 속의 여성대가들과 현재 활동 중인 현역작가들의 작업을 한 자리에 모은 '99여성미술제'는 그래서 팔쥬들의 행진이 된다.

또 이번 여성미술제는 수직적 구조를 탈피하는 수평적 조직체계에서도 팔쥬들의 미덕을 발휘했다. 예술감독 밑에 각 부문별 큐레이터나 코디네이터를 두는 일반적인 대규모 전시회와는 다르게 이 전시는 5인 큐레이터의 협업으로 이루어졌다. 각 큐레이터들이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상호협약하에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전시회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진보/보수, 민중계/제도권 등으로 엇갈리는 기존 화단의 이분구도를 뛰어넘은 인력 편성에서도 팔쥬적 도전을 확인시킨다. 집단 이기를 내세우는 권력형 체제 대신에 화합과 조화에 유념하는 치유행의 대안체제로, 악성 이분법을 조려한 남성적 질서의 병폐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길고도 강한 기획회의, "팔쥬 되기 힘들네"

이 전시의 개념을 설정하고 골격을 세우기 위하여 97년 겨울부터 장장 일 년 반 이상의 긴 시간을 운영위원(위원장 윤석남 외 김인순, 김홍희, 박영숙, 이해경)과 전시기획위원(위원장 김홍희 외 김선희, 백지숙, 오해주, 임정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연구했다.

전시회는 크게 '1부 역사전'과 'II부 주제전'으로 구성되는데 두 전시 모두 다섯 명의 전시기획위원들이 분담해 꾸렸다. 1부 역사전은 조선시대부터 80년대까지의 여성미술을 다루고, II부 주제전에서는 90년대 현역들의 작업을 5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보여준다. 역사전은 다시 2부분으로 나누어서 첫 부분은 조선조 여성미술(김선희)과 20세기 전반의 근대여성미술(김홍희)로 한다. 파소평가되거나 잊혀진 여성작가들을 재조명함으로써 과거 여성미술의 역사적 의미를 부각시키고 동시에 시대적 한계를 짚어보기 위하여 마련된 이 부분은 예산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김명희, 〈시마라칸트의 황금복숭아〉, 칠판에 유채, 파스텔 120×124cm 1999.

전시 팜플렛에서만 다뤄진다.

다음은 해방공간 이후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근현대 여성미술로서, 이 부분은 모더니즘 계열(임정희)과 민중계(백지숙, 오혜주)로 그루핑하여 그 당시에 제작된 역사적 작품들을 1층 특별전시장에 진열했다. 한국화단의 지형을 구축해 온 이분법적 대립의 진면목을 노출함으로써 그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촉구하는 한편, 어떤 분위기 속에서 페미니즘미술이 출현하게 되었는지 그 미술사적 배경과 형성 과정을 보여주자는 것이 이 부분 역사전의 의도이다.

이번 미술제의 주축을 이루는 II부 주제전은 여성의 감수성(김선희), 여성과 생태(임정희), 섹스와 젠더(김홍희), 제식과 놀이(오혜주), 집 속의 미디어(백지숙)의 5개전으로 구성. 현대 페미니즘미술의 현장을 소개했다. 여기에 등장한 5개 주제는 현대 페미니즘과 페미니즘미술의 핵심개념들이자 첨예한 이슈들이다. '여성적 감수성'은 페미니즘미술에서 여성미학과 관련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예민한 문제이며, '여성적 생태'는 여성의 자연과의 상호의존성, 상호관련성을 깊이있게 다뤘다. '섹스와 젠더'는 생리적인 성과 사회화된 성이라는 개념의 성정체성을 주제화했으며 '제식과 놀이'는 여성적인 의식(儀式)과 여성적 놀이를 조형적으로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집 속의 미디어'는 공간과 매체에 대한 여성 특유의 감성을 시각화했다. 각각의 주제는

담당 큐레이터에 의해 재해석되어 독립된 전시로 보여지며 '다양성의 조화'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왜 이들이 팔쥬일까요

결국 전시회 자체는 1960~80년대까지의 회고전과 1990년대의 현역 주제전으로 대별되는데 이를 통해 한국 현대 여성미술의 어제와 오늘을 조망하려는 것이다.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의 여성미술은 50년대 말부터 미국과 프랑스에 유학, 모더니즘의 세례를 받은 해외파작가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동시대의 지배적 사조였던 앵포르멜, 모노크롬 양식을 구사하면서 중앙화단에서 일각을 드러낼 수 있었던 이 모더니즘 계열의 작가들은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다면 무비판적으로 남성양식을 수용, 기성화단을 살찌우는 데 일조한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작가에 대한 편견이 극심했던 그 시대 분위기를 되돌아볼 때 그들이 전업작가로



박세진, 〈about Belle, Jr〉, 종이에 아크릴, 70×90cm, 1998.

정복생, 〈얼굴없는 날개〉, 혼합재료, 1999.



활동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평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여성미술의 위상을 높인 점에서 그 성과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추상미술 일색의 시대에 형상과 내러티브로 여성미술의 독자영역을 고수한 일부의 여성작가들이 있었다. 여성 특유의 환상과 나르시즘을 형상화하며 여성의 심리적, 일상적 경험을 주제화한 이들에 의해 '여성적 미술(feminine art)'의 전행이 마련되었다. 이 가운데 1971년에 결성된 '표현그룹'은 여성적 미술과 페미니즘미술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여성작가의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데 뭉친 이들은 '여성적 자아의 표현'을 추구하기 위하여 '장보기', '집'과 같은 여성의 일상적 주제에 주목하고 장식적인 '패턴 페인팅'을 실험했으며 수예와 같은 여성적 소재도 개발했다. 여성문제를 인식하고 여성성을 중시하였으며 또한 그룹활동을 통해 자매애를 고취한 점에서 이들의 활동은 페미니즘 운동의 초기 사례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 제약을 도전보다는 타협을 통해 해소하려는 태도나, 여성성을 정치적으로 전락화시키지 못한 점에서 이들 그룹의 인식론적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표현그룹과 그밖의 형상화자들이 남성 본위의 모더니즘 화단에 도전하면서도 크게는 모더니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반면에, 80년대 중반에 등장한 민중계 여성화가들은 반모더니즘의 기치하에 본격적인 페미니즘미술을 대두시켰다. 1985년에 결성된 〈터〉동인들, 1986년 〈반에서 하나로〉라는 전시회로 페미니즘미술의 실질적 선두주자임을 입증했던 〈10월 모임〉일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여성미술연구회〉(여미연) 동인들은 여성의 현실을 직시케 하는 〈여성과 현실〉전을 매년 개최함으로써 현실을 외면하는 형식주의 모더니즘과 부계적 미술전통에 도전했다. 이들은 또한 미술이 일부 선택받은 계층의 전유물일 수 없다는 평등의식을 가지고 〈노동미술위원회〉를 조직하여 계층간의 소통과 연대의식을 고양하고 삶의 예술 강령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관심은 일차적으로 여성성보다는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과 계급에 있었다. 성의 문제를 계급의 문제로 전환시킴으로써 여성성이라는 핵심을 간과하고 여성양식을 수립하는 데 소홀했던 점이 민중계 페미니즘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공로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여성의 보편성이나 특성을 신봉하는 본질주의자들과는 달리 성별과 계급의 상호관계와 그것의 역사적 변화를 인식하고, 여성의식과 사회의식에 기초한 페미니즘미술을 대두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이들의 노력으로 한국 여성미술사의 중대한 분기점이 마련된 것이다.

90년대 여성미술은
이 시대가 배출한
새로운 감수성의 신세대
작가들에 의해
주도된다.
이들은
성, 신체, 환경, 생태,
매체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은
관심을 보인다.

II부 주제는 탈모더니즘의 코드로 작업하는 90년대 현역작가들의 작품들을 통해 한국 여성 미술의 현황을 검토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자리로 준비되었다. 90년대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기류 속에서 다양한 양식과 장르가 혼재하는 가운데 기존 작가들이 변신을 시도한 시대이기도 하다. 모더니즘 작가들은 극단의 형식주의를 기피하고 이야기와 장식을 회복시키고 있다. 한편, 민중 계 여성작가들은 사회적 관심에 덧붙여 예술과 자신의 문제로 시선을 돌리면서 그에 부합하는 새로운 미학과 양식을 대두시키고 있다.

그러나 90년대 여성미술은 무엇보다 이 시대가 배출한 새로운 감수성의 신세대 작가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그룹보다는 개별 활동에 의존하고 고급보다는 저급을 선호하며 이젤 페인팅 대신에 퍼포먼스, 설치, 테크놀로지 등 새로운 매체를 사용하면서 성, 신체, 환경, 생태, 매체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은 관심을 보이는 이들에 의해 한국 여성미술뿐 아니라 포스트모던 미술의 본격화와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II부 주제가 5개 이슈를 통해 궁극적으로 보여주려고 한 것은 여성들간의 차이와 이질성이다. 여성들 사이의 차이, 페미니즘 시각의 차이를 이슈화하는 것이 현대 페미니즘의 과제이며 그러한 이질성의 전략으로 계급구조와 이분법을 극복할 수 있다. 이 주제전에서는 20대 후반에서 60대 연령에 이르는 다양한 작가들의 이질적 작업을 한 공간에 펼쳐보임으로써 여성들간의 차이를 가시화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복수 개념의 '페미니즘(feminisms)', 비여성적인 것, 비페미니즘적인 것까지도 포용하는 확장된 개념의 페미니즘이 새시대 여성미술의 새로운 지표로 제시될 것이다.

행진은 계속되어야 한다

'99여성미술제는 여성미술은 물론 페미니즘미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기회를 마련하려고 했다. 페미니즘미술은 일시적인 유행이나 사조가 아니라 여성과 여성미술이 대상화되는 성차별 문화에 대한 인식론적인 비판이다.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고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문제삼는 여성 작가라면 누구도 페미니즘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딸구조주의 페미니즘이 시사하듯이, 여성미술이 단지 여성에 의한 미술이 아니라 여성, 미술, 이념, 권력의 역동적 관계의 소산이라면 그 관계의 그물망을 재조직함으로써 새로운 비전의 여성미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팔뚝들이 그물망 새로짜기의 첫 시도로 행사를 마련한 것이다. 이름하여 '99 여성미술제 — 팔뚝들의 행진.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국제적으로 팔뚝들의 축제가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99여성미술제 사무국 02)3477-0346) [11]

'99여성미술제 기획위원회

REVIEW ADVERTISING

광고의 영원한 '봉', 아줌마

REVIEW CARTOON

캔디캔디를 다시 보다

REVIEW CINEMA

프리티우먼, 신데렐라우스를 만나다

REVIEW MUSIC

'동아와'의 김태영 인터뷰

REVIEW BOOK

이프가 뽑은 가을책



광고의 영원한 '봉', 아줌마

속옷, 식기세척기, 자동차 광고의 여자들



이남경

혹시 나만 배딱하게 보는 걸까
궁금해졌다. 트라이광고를 본
여자 카피라이터(기혼)는 나와
비슷한 반응을 보인 반면,
40대 초반의 남자 카피라이터
선배(기혼)는 그런 관점으로는
생각해본 적 없다고
열렬하게 말했다.
광고와 페미니즘은 양립하기
어려운 것일까?
남자가 페미니즘 시각을 갖는
일이 어려운 것일까?
나이 서른, 나 역시 기혼이며,
현재 광고대행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하고 있다.

번 편하고 단순하고 과격한
사람. 놀어지고 처지고 평
퍼짐한 몸매에 여자이기를 이미 포
기한 여자. 억척스러우면서도 영
악하지는 못하고, 책임감은 엄청
강하면서 막상 자기 권리 앞에선
소극적인, 평생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아온 존재... 처녀 같은 아줌마
들이 늘고 있다는 요즘도 '아줌마'
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지배적이다.

그러면 광고 속의 아줌마는 어떠
한가. 곱게 한 화장에 말끔한 옷차
림이 조금 다를 뿐 본질은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얼핏 보
면 아줌마를 엄청 걱정하는 듯하지
만 겉과 속이 다른 광고.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아줌마
를 무시해 버린 광고, 아니면 애초
부터 남성우월주의 시각에서 출발
한 광고...

여기 여자들, 특히 아줌마를 우
롱하는 광고 몇 편을 소개한다. 그
리면서 궁금해진다. 아줌마에 대한
편견 대신 씩씩하고 생활력 강한

아줌마의 장점들을 광고에서 활용
할 수는 없을까. 한편으론 걱정스
럽다. 아줌마를 우롱하는 광고들이
과연 아줌마를 설득할 수 있을까?

한 방에 못 끝내고 다시 트라이?

트라이 광고(오른쪽)는 얼핏 보
면 IMF로 힘을 잃은 남편들에게
화이팅을 외치는 건전한 캠페인처
럼 보인다. '다시 트라이'라는 카
피는 '다른 속옷 입지 말고 예전
에 입던 대로 계속해서 쌍방울) 트
라이를 입으라'는 메시지와 함께
IMF 때에 많이 힘들지? 싸나이가
그러면 안 되지. 기운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 그
렇다면 이 팬티를 만드는 회사는
이 땅의 모든 남편(남자)들을 응원
하고 있는 기특한 회사이며, 트라
이를 쟁취입은 남자들은 다시 꽃
하게 일할 것이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이 광고를 '건전
하게' 해석했을 때 가능한 메시지
이다.



유동근이 자신있게 서 있는 트라이 광고

동료모델트 — 자신의 방송활동
을 줄여가면서까지 내조에 충실하
고 있는 — 와 결혼해서 별다른 스
캔들 없이 잘 살고 있는 모델트 유
동근이 심상치 않은 포즈로 서 있
다. 늘 반듯한 모습을 보여주던 그
이기에 그의 노출(변강쇠로 유명
한 이대근의 노출은 별 감흥이 없
을 것이다)은 보는 사람에게 충격
적이다. 반라의 차림, 열려 있는
지퍼, 음흉한 표정. 속옷을 보여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 제품을 보여줘야 하는 광고

의 속성상 남자속옷 광고에 팬티
입은 남자를 보여주는 것은 당연
하다고도 볼 수 있다. 또 기왕이면
유동근처럼 몸매가 똥빵한 모델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트라이처럼'의 남자가 외치는
'다시 트라이'라는 카피는 여러
가지 상황을 상상하게 만든다. 트
라이를 드러내고 자신있게 서 있
는 유동근의 포즈를 보면 왠지 또
한 명의 모델이 있을 것 같다. 유동
근이 청바지의 지퍼를 마저 내리
고 '트라이처럼'으로 다가갈 젊
은 여자. 아니면 유동근의 유혹을
기다리고 있는 평범한 아내들(만
약 유동근이 잠옷 차림이라면 '아
내와 함께 있는 침실'이라는 공간
설정이 가능하겠지만, 광고 속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또 다른 곳
이란 느낌이 든다. 남자들이 혹시
'트라이할' 의욕을 상실' 할까봐 눈
앞의 여자를 아내 아닌 제2의 여자
로 설정하는 세심한 배려(?)까지
놓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 광고에서 생략된 여
자다. '그냥 트라이'도 아니고 '다
시 트라이'라니! 세상에 이 가상
의 여자모델은 반라의 건장한 남

자모델의 적극적인 대시를 몇 번
이고, 몇 번이고 감당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다. 트라이의 주체는 남자, 트라이
할 대상은 여자인가?

BYC, 믿으라구?

엄앵란이 나오는 BYC 광고는
피해자(?)인 아줌마를 내세워 남
편의 불성실함을 은연중에 정당화
시키고 있는 광고이다.

만약 잉꼬부부로 소문난 하회라
나 신애라가 '믿으니까, BYC'라
고 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최수종 같은 애처가를 못 믿으면
세상에 믿을 남편 하나도 없지',
'차인표 같은 남자를 믿는 건 당연
한 거 아니야?'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BYC의 '믿으니
까'라는 메시지에 '정말 믿을 만해
서 믿는다기보다는 믿으려고 애쓰
는 체념'의 흔적이 엿보인다. 신뢰
보다는 자기희생을 걸고 있는 것이
다. '별 수 있나, 믿어야지' 하는.

왜냐하면 BYC가 내세운 모델의
대상이 '세상에 믿지 못할 사람이
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인물'
이기 때문이다.

방송에서 언제나 아내의 미덕에
대해 강조해 왔으며, 세상이 다 아
는 남편의 외도를 가뿐하게 용서
해 버림으로써 웬만한 바람 가지
고는 명함도 못 내밀게 만들어버

66

애초부터 남편은
부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므로
식기세척기를 쓸 일이 없으며,
오로지 아내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동양매직 식기세척기 광고

린 목소리 큰 아줌마, 엄앵란이 이
제 광고에서까지 바람둥이 남편을
믿는다고 선포해 버렸다. 참고 살
아온 세월이 억울하지도 않은지
주부대상 방송프로그램에서 토크만
나면 자신의 고행담을 늘어놓았
고, 늘 아내가 참으면(남편이야 어
떻게 하든 상관없이) 집안에 평화
가 찾아온다'로 마무리짓곤 했다.

결혼선택이자 인생선택인 그녀
의 한 마디는 웬만한 남자의 얘기
보다 더 설득력있다. 배우였던 그
녀가 대중매체에서 갖는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쯤되면 왜 엄앵란을 모델로 선
택했는지 짐작이 간다.

또 한 명의 BYC 모델 원미경은
SBS 드라마 <은실이>에서 바람난
남편을 감싸고 이해하며 첩의 아
이까지 거둬 보살피는 너그러운
여자로 나온다. 50대도 모자라 30
대 주부들까지 '남편의 바람 앞에
너그러워지라'는 교리를 설파하
고 있는 셈이다. '그래, 엄앵란도

믿고 산다는데, 장낙도(드라마
<은실이>에 등장하는 인물) 부인도
믿고 산다는데, 나 정도는 양호하지
뭐' 하는 제념을 자연스럽게 유도
하려는 것 아닐까. 남편의 속옷을
개면서 '믿으니까' 라니? 도대체 뭘
믿으라는 것일까? 결혼한 사람으로
서 나도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남편을 믿듯이 BYC의 제품도
신뢰한다(덤으로 못 믿을 사람도
믿게 만드는 기적의 속옷 BYC)'
는 믿음줄 의도였겠지만 참으
로 시의적절한(?) 캐스팅 덕분에
남편의 바람을 정당화하는, 그것
도 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옹호해 주는 듯한 광고가 되고 말
았다. 광고에서처럼 무턱대고 믿
는 것이 아내들한테도 정말 좋은
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식기세척기 한 대에 속지 말자
집안일은 힘들다. 전업주부나
맞벌이 주부나 힘들긴 마찬가지
다. 아직도 드라마나 광고에선 남

편의 가사노동을 서비스 차원에서,
또 흥미 위주로 다루고 있고 어
찌든 제대로 다루려고 해도 어찌
된 일인지 뭔가 모자라는 남편으
로 묘사된다. '팔뿐이나 집안일에
적극적'이라는 편견을 조장할 뿐
이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드라마
나 광고에서보다 현실의 가사노동
은 훨씬 더 여성중심으로 처리되고
있을 것이다. 집안일이란 '아내가
할 일'이며 남편이 설거지를 하는
것은 '어쩌다 한 번 선심쓰는 서비
스'이다. 아내인 여자들조차도 아
직 '남편의 서비스'에 감사하고 있
는 실정이고 남편은 '도와주는' 행
위에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동양매직 식기세척기 광고(위)
는 이런 한국적인 상황을 적절하
게 활용했다. 얼핏 보면 '편찮은
남편, 남편이 사준 식기세척기 덕
분에 한결 편해진 행복한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실
제로 보통의 부부들이라면 이런
상황에 고마워할 수도 있을 것이

다. 또 '아내를 위한 투자가 가장
성공적인 투자'라는 카피는 아내
들이 현혹되기 충분하다. 하지만
식기세척기를 사는 일이 최선이었
가는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식기세척기를 아내에게 '사 주
는' 이유는 주된 사용자가 아내이
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남편은 부
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므로 식
기세척기를 쓸 일이 없으며, 자신
과는 상관없는 오로지 아내에 대
한 투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남
편들은 세척기 한 대를 사주고서
아내한테서 '평생우대' 받을 아무
진 꿈을 꾸다.

하지만 식기세척기 구입은 어디
까지나 남편 자신을 위한 선물이
기도 하다. 그리고 남편의 가사노
동 참여 가능성을 더욱 촉진시키
는 선물이기도 하다. 기왕이면 진
짜 아내만을 위한 선물을 할 수는
없을까? 컴퓨터나 배낭여행 왕복
여행권 같은 거 말이다.

대형자동차 광고에 여자는 없다

지금까지 자동차광고에 많은 여
자모델들이 있었다. 특히 소형차
나 국민차일수록 여자모델이 많
다. 세피아 채시라, 티코 김혜수,
라노스 최지우, 액센트 김남주, 최
근에 시비가 일었던 비스토의 외
국모델까지. 마치 소형차는 여자
가 타는 차라고 확인이라도 시켜
주듯이 여자모델들이 줄줄이 등장

했다. 소형차의 경제성과 여자의
알뜰함? 큰 차 탈 능력이 안 되는
여자는 작은 차를 타시라? 물론 지
프 무쏘가 커리어우먼을 모델로
내세운 적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큰차 광고에서 '운전석엔 남자, 여
자는 그 남자 덕분에 옆좌석에 동
승하는 운 좋은 여자'이다. 실제로
대형차를 타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많아서 남자가 메인모델이 되는지
도 모르겠다. 그러나 여성을 남자
의 성공열차에 편승하고자 하는 존
재로 그리는 광고는 보는 사람을
썩쓸하게 한다. 언젠까지 여자는
남자의 성공 소품 중의 하나이며,
스스로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도 없
는 듯한 존재로 남아야 하는지...

'그랜저XG가 있어 그 남자의 세
상이야 훨씬 여유로워졌'겠지만
남자의 어깨에 매달려 있는 여자는
'그 남자(동시에 그랜저XG를 가

리킵)가 있어 나까지 덩으로 여유
를 맛본다'는 한심한 표정을 하고
있다. '그의 세계(그랜저XG)만큼
이나 넓은 그(남자)의 가슴에 안겨
그 넓은 그(남자)의 세계에 있다.

썩썩한 아줌마를 볼 수 있다면

성의 상품화만이 여자를 화나게
하는 건 아니다. 아줌마의 몸매를
홍보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둔하
다고 타하는 것만이 아줌마를 무
시하는 것이 아니다. 노골적으로
보여주면서, 더러는 교묘하게 감
추면서 대다수 여성인 아줌마를
우롱하는 광고. 마치 '이것이 아줌
마의 운명'이라거나 '아줌마는 원
래 이런 존재'라고 강요하는 것 같
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고리타분한 역할분담은 이제 지겹
다. '세상은 여전히 남자의 것. 그
아래 여자?' 11

대형차로선 여의적으로 한때 여성을 주인공으로 했던 무쏘 광고.



순정의 덫

『캔디캔디』를 다시 보다



남선경

가끔씩 '이프의 논조들은 무척이나 비슷하며 또한 그래서 이질적이다'는 말을 듣는다. '그런가' 하고 생각하다 우연찮게 원고를 청탁받고 급하게 쏟아내다보니 웬지 내 논조도 닮아 있는 듯하다. 매번 필자들을 찾는 위치에 있다가 차일피일 원고를 미루며 맘을 빼는 내 모습이 조금은 민망스러운, 나는야 만화계의 이프라고 생각되는 만화잡지 『오즈』의 편집장.

예 감한 것이지만 잡지를 내면서부터 만화 보는 눈이 점점 더 까다로워진다. 이전에는 단순히 본전 생각나는 만화와 그렇지 않은 것 정도의 구분이 다있는데, 이제는 주류 스타일인지 아닌지, 독자를 속이기 위해 트릭을 썼는지 아닌지, 그림을 날렸는지 꼼꼼히 그렸는지, 배경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다보면 작품이고 뭐고 산산이 분해되어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아아 이러면 안되는데, 만화만은 어떻게든 판타지로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안 그래도 삭막한 세상인데 말야.

각설하고 한동안 방송가를 떠들

썩하게 했던 <토마토> 표절 논쟁을 접하고는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 뭘 배웠다고? 『해피』? 어 그건 나도 봤던 건데... 그게 그걸 표절한 거였나? 그러고는 『해피』를 다시 읽었다. 근데 문제는 『해피』를 다시 읽어도 별로 표절작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TV 드라마를 제대로 보지 않은 내가 이런 판단을 내릴 처지도 아니지만, 주위들은 이야기로는 어느 한 장면이 빼다박았다 뭐 그런 소리는 없었는데 전체적인 대결 구도나 스토리 풀어나가는 방식이 비슷하다는 게 표절 판정의 이유가 되나? 솔직히 <토마토>와 『해피』가 별개의 작품이라는 주장을 하려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어느 고관대작의 집에서 미화 몇만 달러가 다발로 나왔 다치자, 아마도 신문, 방송 가릴 것 없이 엄청 떠들 것이다. 공적자의 도덕적 불감증이 어떻게 이래서 외

환위기가 왔네 어떻네 그러면 시민들이 덩달아 분노하면서 그 고관대작을 성토한다. 그러면 난 그게 참 신기하다. 아니 새삼스럽게 왜들 그러지? 그걸 이제까지 몰랐단 말야? 음— 정말 아무도 몰랐단 말이지. 정녕 나만 알고 아무도 몰랐단 말인가... 2,000~3,000억대의 비자금 사건으로 국민들 심장도 꽤 튼튼해진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닌가. 생물학적 역치는 일정해도 사회적 역치는 증가하는 법이라던데 말야. 이제 일, 이억이면 콧방귀 뿜 때도 안 되었나...

그런 얘기다. 사실 여성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화에서 <토마토> 버전의 이야기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



는 가난뱅이 출신 착한 여주인공과 그런 그녀에 매료되어 따르는 매력남들— 부자(귀족) 집안의 예의바르고 착한 남자, 배경 좋은 남자답잖게 터프하면서(담배는 필수다. 다른 소도구로 대체해도 무방) 적당히 예의없는 남자, 그리고 귀족처럼 고상하고 품위있는 생활이 몸에 밴 남자—그리고 여주인공을 사사건건 괴롭히는 돼먹지 못한 여자캐릭터... 불멸의 역작 『캔디』 이래로 충실히 지켜지는 정통 순정 공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보니 모든 사건의 원흉이자 주범인 『캔디캔디』를 다시 읽고 싶은 생각이 불끈 드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서점으로 직행, 최근에 나온 소장판 『캔디캔디』(4권 전집, 정판을 가장한 해적판)를 다시 구입해 보게 되었다. 아, 어찌나. 과연 과거의 감동이 그대로 재현될 것인가. 김영숙시리즈에 폭 빠져 허우적대다 황미나를 거쳐 신일숙으로, 한때는 『오, 한강』이나 『북해의 별』 등의 작품



가난뱅이 착한 여주인공과 그녀에 매료되어 따르는 매력남들, 그리고 여주인공을 괴롭히는 돼먹지 못한 여자캐릭터... 이아말로 정통 순정 공식이 아닌가.



그 이상이다. 왜냐, 캔디는 '여성 모두의 처지'를 대변하는 강력한 설정(가난하면서 고아 출신)으로 여성들을 작품에 빠져들게 하기 때문이다. 여성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니 다소 비약이 아니냐고 반박할 분이 제실지도 모르겠다. 천만의 말씀.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물론 돈이다. 하지만 그것은 남성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다. 여성의 경우,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남자가 없다면(또는 남성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나 다름없다. 결국 아무리 부자이거나 권력을 가진 여성이더라도 남자를 얻지 못하면 가난뱅이나 똑같은 것이다. 게다가 태어났기부터 여성의 적은 여성! 낙태의 위험을 벗어나 생명을 부지한다 하더라도 어머니로부터 떨어져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여성은 천애고아나 똑같다. 사실 '출가외인'이라고, 여성이 결혼해서 호적을 파 갖고 가면 그때부터 시집 귀신이 아닌가. 명절 때마다 시댁 눈치 보며 열심히 일하는 부엌대기 모습은 바로 부모 없

만이 입을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만화를 기피하다가, 어느날부터인가 장르, 내용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읽어대며 행복해하는 잠식성 만화광을 자처했다가, 이제는 작품성, 내러티브 등의 게나발을 울리며 작품을 골라내는 굉장히 일관되지 못한 작품편력을 갖고 있는 내가!

과연 왕년의 대작 『캔디캔디』를 다시 읽으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것이 궁금했다.

끊임없이 환상을 꿈꾸게 하는 『캔디캔디』는 역시 퍼펙트했다. 명작은 명작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처지와 조건이 다른 모든 여성들을 감동의 도가니로 평등하게 몰아넣는 작품이 존재한다는 것은 단순히 통속구조를 울궈먹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첫째, 가난하고 고아 출신인 캔디. 으레 주인공이란 거지먹는 구석이 있긴 하지만, 캔디의 매력은

는 처지, 신데렐라와 다를 것이 무엇이었는가.

둘째, 꽃미남들을 거느리는 강력한 위안. 일단 착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꿀이 비'면 곤란하고 너무 똑똑해서 남자들에게 부담을 줘서도 안 된다. 적당한 여성성을 지니면서도 켈트파탈의 요부형이 아닌, 남성들에게 선택받을 만한 여자로서의 요건을 가지기란 꼭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사실 캔디는 현실에서는 별 볼일 없는 여자이다. '여자답게' 살기 위해 수술이라도 할라치면 견적이 한참은 나올 듯한 그런 얼굴 아닌가. 그런데도 그런 그녀를 보는 족족 남자들은 척 반해버리니! 왓카닥에다 미모가 한참 딸리는 99% 여자들에게 대단한 카타르시스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잘 보이기 위해 애쓸 필요 없이 남자를 고를 수도 있다. 어차피 여성에게 최고의 권력은 남성이니, 그렇게 부여된 만큼 제한된 권리라도 마음껏 행사해 보자. '나는 모범생이요' 얼굴에 먹 붙여놓은 FM코스의 '안소니' 타 입을 피할 수 있다는 것(속지 마라, 판타지이기에 망정이지 이런 남자가 결혼해서 돌변한다)이 여성의 최소한의 자존심이겠다.

세월이 지나면서 여성의 눈높이에 맞춰 남주인공의 면모도 바뀌고 악역도 생기있게 단장을 하고는 있지만 역시 기본설정은 『캔디



캔디』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게 현실이다(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평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름난 작품들을 비판할 때도 '뻔한 구도인데도 독자를 빨아들이는 연출력이 놀랍다!!'는 식으로 장르의 흡인력을 인정하곤 한다. 그렇다면... 통속적 뼈대를 알몸으로 드러내는 순정의 장르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어설픈 페미니스트로서의 자아정체성을 의심해야 하는 여성들이 아직까지도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어디까지가 거짓말이고 현실인지를 뻔히 알아야인데, 청닝 여자들의 판타지는 스스로가 원해서 생성되는 것일까. 아니면 좀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여성의 사회적 위치 문제를 순정장르가 교묘하게 꺾고 있기 때문일까. ■



66
캔디를 보는 족족 남자들은
척 반해버리니!
왓카닥에다 미모가 한참
딸리는 99% 여자들에게
대단한 카타르시스가
아닐 수 없다.

프리티우먼, '신데렐라'를 만나다

영화 <노팅힐>의 남과 여



이순주

나는 산꼭대기를 보지 않는다.
꼭대기를 받치고 있는 풀들과
나무들의 뿌리를 본다.
단식 8일째. 내 깊은 내면의
바닥에 가보고 싶어질 때면
습관처럼 단식을 한다.
참 우습다. 삶의 에너지를
끊어버려서 살고 싶다는
의욕이 되살아난다.

올 여름에 개봉한 영화 중에 3편을 보았다. <스타워즈 에피소드 I>과 <미이라> 그리고 <노팅힐>. 이상하게 10일 정도씩 간격을 두고 봤는데도 영화관에 가던 날은 꼭 비가 왔다. 그래서인지 영화를 생각하면 내용보다는 긴바지를 입고 나섰다가 바짓단이 젖을 것 같아 반바지로 갈아입던 기억부터 난다.

그 중 비오는 날에 가장 잘 어울리던 영화는 휴 그랜트와 줄리아 로버츠의 <노팅힐>이었다. 어느 시인의 "비오는 바다는 젖지 않는다"라는 시구처럼 너무나 많은 사랑타령의 바다에 떠다니는 나로서는 웬만한 자극에는 쉽게 젖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뻔한 주인공, 뻔한 스토리. 끝이 환하게 보이는 해

피엔딩의 가벼운 멜로코미디. 사실 그 상투성에 미리 질려서, 나는 관심을 딴 데로 돌리기로 했다. 거창하게도 영국영화가 할리우드에서 성공하게 된 요인들을 분석해 보고 싶었던 것이다. 어떻게 영화를 풀 어갔을까... 이런저런 것들이 궁금 해서 영화관을 찾았다. 어디 단단해진 내 감성을 건드려보라지 하 는... 약간의 오만도 함께.

영국영화가 미국에 입성해 성공을 거둔 작품으로는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미스터 빈>이 있다. 그리고 <노팅힐>. 세 편의 영화는 모두 리처드 커티스의 작품이다. 이 성공으로 리처드 커티스는 미국인의 취향을 이해하고 영국 문화가 선택할 표현양식을 잘 알고 있는 최고의 작가로 등극했다. <노팅힐>은 너무나 미국적인 줄리아



서점주인인 휴 그랜트와 세계적인 여배우 줄리아 로버츠는 우연히 만나 사랑하게 된다.

로버츠와 너무나 영국적인 휴 그랜트가 만나 보여주는, 영국 영화계가 미국에게 바치는 짝사랑의 연서이다. 분명 두 사람의 만남엔 야릇한 상징이 깔려 있다. 영국과 미국의 차이점과 그것의 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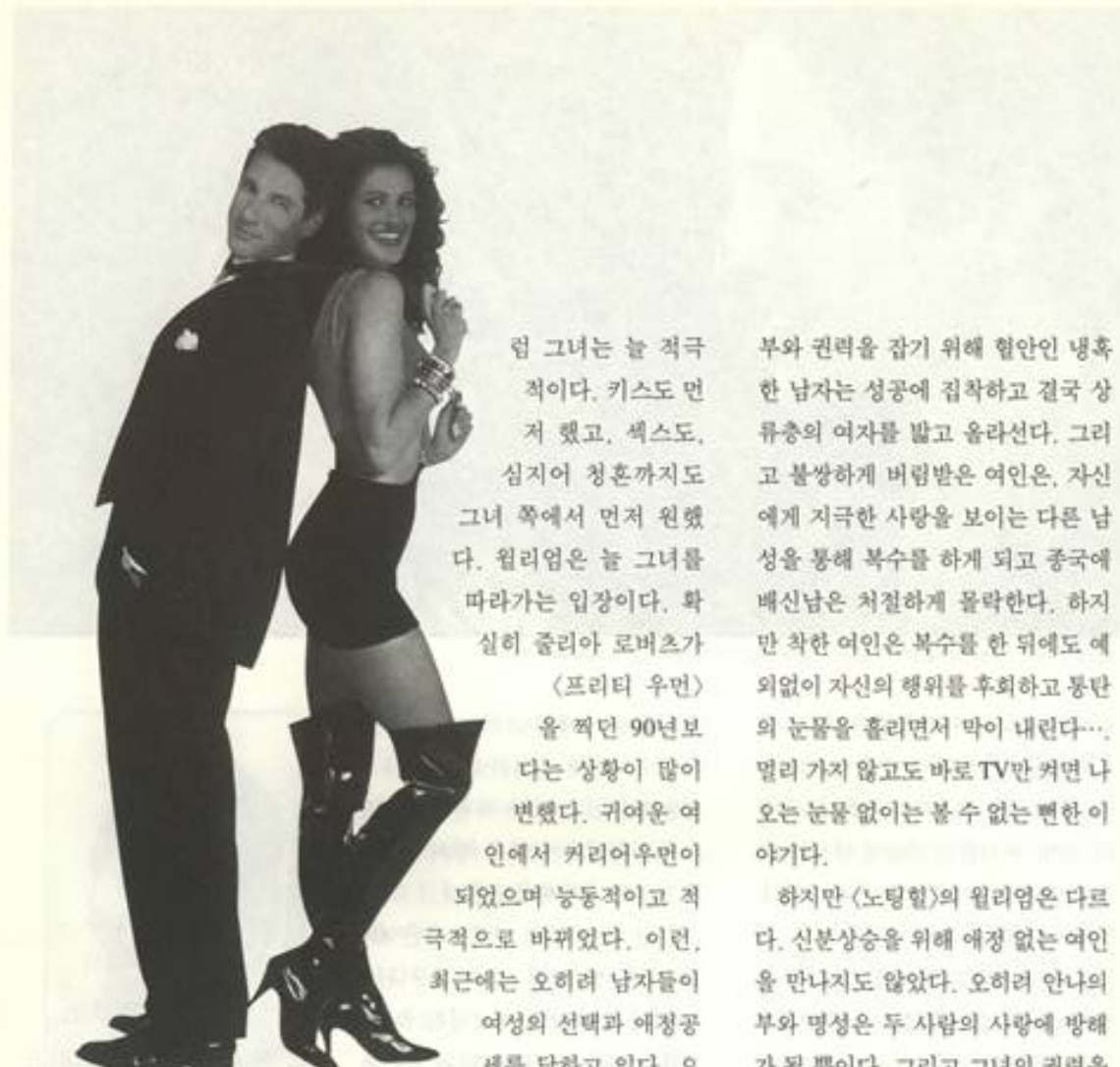
리처드 커티스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이기도 한 노팅힐은 골동품 시장으로 유명한 영국의 소도시이다. 휴 그랜트는 이 노팅힐에서 여행서적 전문점을 하는 소시민 윌리엄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우연히 서점에 들른 유명 영화배우 안나(줄리아 로버츠)를 만나고 사랑에 빠진다. 세상에 어느 사랑이나 쉬운 것은 없겠지 만 신분의 차이가 너무나 큰 두 사람

의 사랑은 오해가 얹히고 꼬여 이루어지기 어렵게 흘러간다. 더구나 이 혼경력이 있는 파산 직전의 윌리엄은 소심하기까지 해서 상처가 두려워 사랑을 거부하기도 한다.

몇 년 전, 정확히 짚어보자면 90년도에(아, 벌써 십 년 전이구나...) <프리티 우먼>으로 신데렐라 콤플렉스의 전형을 보였던 줄리아 로버츠. 그 때만 해도 그녀는 증권가의 날리는 큰손을 만나 신분상승의 기회를 거머쥐는 창녀로 등장했었다. 하지만 이번엔 현대판 신종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스크린의 스타로 변신한다. 창녀가 아닌, 영화제 시상식에서 붉은 융단을 밟는 공주가 되어 노팅힐에 나타난 것이다. 이 영화에서 사랑의 주인공은 단연 안나이다. 미국인이며 여배우라는 직업, 그리고 연애경험이 풍부할 것이라는 선입견처

66
<노팅힐>에서
줄리아 로버츠는
현대판 신종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스크린의 스타로
변신한다.

99



줄리아 로버츠를 단숨에 스타덤에 오르게 한 영화 <프리티 우먼>.

럼 그녀는 늘 적극적이다. 키스도 먼저 했고, 섹스도, 심지어 청혼까지도 그녀 쪽에서 먼저 원했다. 윌리엄은 늘 그녀를 따라가는 입장이다. 확실히 줄리아 로버츠가 <프리티 우먼>을 찍던 90년보다는 상황이 많이 변했다. 귀여운 여인에서 커리어우먼이 되었으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최근에는 오히려 남자들이 여성의 선택과 애정공세를 당하고 있다. 오히려, 이런 분명 기분좋은

통쾌한 일이다.

반면 이번엔 남자인 휴 그랜트가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보이는 전형이 된다. 하지만 윌리엄은 신분상승을 노리고 여자에게 접근하는 예전의 남자주인공과 차별성이 있다. 예전의 남자는 상류층의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너무나 희생적이고 착하기만 한 연인을 배신한다. 그것도 처절하게.

부와 권력을 잡기 위해 혈안인 냉혹한 남자는 성공에 집착하고 결국 상류층의 여자를 밟고 올라선다. 그리고 불쌍하게 버림받은 여인은, 자신에게 지극한 사랑을 보이는 다른 남성을 통해 복수를 하게 되고 종국에 배신남은 처절하게 몰락한다. 하지만 착한 여인은 복수를 한 뒤에도 예외없이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통탄의 눈물을 흘리면서 막이 내린다... 멀리 가지 않고도 바로 TV만 켜면 나오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편한 이야기다.

하지만 <노팅힐>의 윌리엄은 다르다. 신분상승을 위해 애정 없는 여인을 만나지도 않았다. 오히려 안나의 부와 명성은 두 사람의 사랑에 방해가 될 뿐이다. 그리고 그녀의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조용히 그녀의 명성을 받아들이고 가까이서 지켜봐준다. 여성의 위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질시나 열등감으로 여성을 괴롭히지 않는다. 남성을 언제나 여성보다

우위에 배치시켜야 안심하는 기존의 영화와 비교해 본다면 <노팅힐>의 윌리엄은 '이상적인' 남성 신데렐라라고 할 수도 있겠다.

영화 속에선 두 사람이 너무나 아름답게 사랑을 하는 것으로 전부한 상투성을 용서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윌리엄의 친구로 나오는 조연들의 연기는 덤으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기쁨이다. 특히, 윌리엄의 괴상한 룸메이트인 스파이크의 연기는 정말 압권이다. 구석구석에 숨어 있다가 조용히 던져주는 영국식의 품위있는 유머는 영화를 지겹지 않게 한다. 아, 참, 또 하나의 보너스. 삽입곡들의 감미로움이다. 사랑에 빠진, 그리고 실연과 재회의 배경이 되는 음악들이 너무나 좋았다.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는 아니었지만, 무미건조한 일상을 벗어나 가랑비에 촉촉히 젖어보고 싶다면, 그리고 가볍게 웃으며 현실을 잊어보고 싶다면, 아니면 새로 시

작하는 용기 없는 연인들을 위해 추천해 주고 싶은 영화이다.

영화가 끝나고 거리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웬지 우산을 펴고 싶지가 않았다. 그냥 비내리는 거리를 걷고 싶었다. 영화중에 휴 그랜트의 대사가 생각난다. "나는 꿈을 꾸지요, 현실에서는 할 수 없던 것들을 꿈에서는 해보지요. 당신과 키스도 하고 사랑도 하는..." 나도 영화를 보면서 잠시 꿈을 꾸고 싶다. 노팅힐의 예쁜 정원에서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는 해질녘에 새로 시작한 애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는 상상을 해본다. **II**

첫데이트로 영화관에 간 휴그랜트는 안경을 못찾고 대신 잠수경을 갖고 간다.



남성을 언제나 여성보다 우위에 배치시켜야 안심하는 기존의 영화와 비교해 본다면 <노팅힐>의 윌리엄은 '이상적인' 남성 신데렐라라고 할 수도 있겠다.

if가 '팍팍 미는' 여가수 음반

올해 상반기를 결산한 음반 시장 10위권 안에서 여가수의 활동이 돋보였다는 소식이 돌린다. 핑클, 김현정, 엄정화, SES 등이 그 주역들. 방송에 얼굴을 많이 비치고 판매량이 많다고 해서 인기가 많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여가수들이 선전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래퍼에게 가창력을 바라는 것이 어불성설인 현 가요계에서 우리는 여성가수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노래를 뛰어난가게 잘해야 하는지, 작사작곡 능력이 뛰어나야 하는지, 예뻐야 하는지, 노래방에서 부르기가 쉽고 기분좋은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혹시 너무 엄격한 잣대로 그들을 절수해가지는 않는지 궁금하다. 어느 곳이든 어느 시간이든 당신이

흥얼거리고 있다면 그 노래와 그 가수를 좋아하는 것이다... 지나친 비약일까?

올 가을에 첫 앨범을 내는 소나, 정말 오랜만에 우리 곁에 돌아온 한영애, 이상은, 박미경과 프랑스의 비아, 세자리아 에보라를 소개한다.

소나 (All Best)

매력적인 저음과 시원한 고음을 바탕으로 한 파워풀한 소나의 가창력은 당신을 단번에 사로잡을 것이다. 또한 18살답지 않게 메시지의 전달능력이 뛰어난 그녀는 노래로 이야기할 줄 아는 가수다. 혼혈이라는 것, 할머니와 단둘이 산다는 건 그녀를 이해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지 노래

를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타이틀곡인 〈너의 향기〉와 〈아이리스〉를 포함해 10곡 중 7곡이 발라드이며 〈보이지 않나요〉는 전형적인 팝 발라드로 추천하는 곡이다. 그녀는 지난 7월 9일부터 8월 1일까지 공연된 뮤지컬 〈페임〉에서 여주인공으로 가창력과 연기를 이미 인정받았다.



한영애 〈난.다〉

4년만에 나온 한영애의 5집. 매 앨범마다 새로운 시도를 해온 그녀가 이번에는 테크노 음악을 도입했다. 음악적 실험 속에 팬들을 배려한 정성을 담았고 장르도 발라드, 포크, 트립, 트롯 등 다양하다. 타이틀곡인 〈난.다〉는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곡. 〈따라가면 좋겠네〉는 레게풍의 경쾌한 곡으로 한영애만이 제대로 부를 수 있는 곡이다. 옛 트로트를 리메이크한 〈봄날은 간다〉는 심금을 울린다. 수록된 9곡 모두 경쾌한 곡은 경쾌한 대로 서정적인 곡은 그 나름대로 각각의 개성이 독특하게 살아 있다.



이상은(리채) (Asian Prescription)

이번 앨범은 도시바-EMI에서 발매된 국내앨범으로 95년 〈공무도하가〉 앨범에 실렸던 〈공무도하가〉, 〈삼도천〉, 〈새〉를 영어로 다시 불렀고 새로운 몇 곡이 추가됐다. 〈Spring〉, 〈Ogiyodora〉는 특히 추천하는 곡이다. 노래들이 강하거나 격하지 않고 정제된 느낌을 주며 마치 숲 한가운데 들어온 기분이 들게 한다. 비오는 날에 들으면 적격. "음악이 한약이 되어 영혼을 강하게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상은의 바람대로 음악이 '들린다' 기보다는 '스며든다'. 하지만 노래는 단지 처방일 뿐, 그 다음은 듣는 우리의 몫이다.



박미경 5집(집착)

〈이유값지 않은 이유〉, 〈이브의 경고〉의 박미경이 이번에는 라틴 음악으로 돌아왔다. 타이틀곡인 〈집착〉은 라틴계열의 삼바리듬에 한국적인 정서와 맛을 담았다. 훨씬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여성무용수들과 라틴댄스까지 선보인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매력적으로 변신하는 느낌을 준다. 댄스곡인 정재운 작곡의 〈남겨진 아픔〉과 이승철과 함께 부른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운 사람〉은 멜로디가 아름답다. 3집앨범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보이스레슨을 받아서 훨씬 더 편안하고 파워풀해진 목소리를 직접 확인해 보길.



비아(BIA)
(LA MÉMOIRE DU VENT(바람의 기억))

상송이라고 하면 누구를 떠올리는가. 정통상송을 만들기로 유명한 사라바(Saravah) 음반사에서 내놓은 비아의 앨범. 97년에 발표된 이 앨범은 프랑스의 일간지와 평론지의 격찬을 받았다. 비아는 브라질 태생으로 남미와 유럽을 두루 여행하면서 얻은 경험들을 음악에 녹여냈다. 특히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 라틴음악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부드러운 곡인 〈Mon amour〉, 〈Photo〉를 비롯 편안한 상송을 느낄 수 있는 기피가 될 것이다.



세자리아 에보라(CESARIA EVORA)
(CESARIA)

세네갈 서부해안에 위치한 케이프 베르데 섬. 어업을 주로 하는 탓에 남자들은 바다로 욕지로 나가고 섬에 남아 있던 여인들이 부르던 노래가 후에 발전해 모나(mona)가 됐다. 이 모나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세자리아 에보라의 앨범. 이 앨범은 95년에 발표돼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모았다. 노래들이 전체적으로 서정적이며 감미롭다. 때로는 푸른 바다를, 때로는 집시들의 축제를 연상시키는 특유의 리듬과 멜로디가 인상적이다.



여름의 사나이 클론이 3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무대 뒤쪽에서 폭발하듯 시원하게 노래하는 여성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머리에는 일명 대결레 가발을 쓰고 '돌아와'라고 노래하는 그녀. "목소리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만 본 기억은 없는 데..." 하는 이프 독자들에게 김태영씨를 소개합니다.

김태영씨는 90년 9월부터 CM송으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 때는 광고음악에서 주로 예쁘고 감미로운 목소리가 쓰여서 태영씨 음색은 과격 그 자체였대요. 개성있는 보이스컬리로 인해 자칫 식상하게 들릴까봐 1년 정도 일하고 1~2년은 쉬고 다시 일을 했대요. 그러던 중에 드라마 〈종합병원〉의 삽입곡인 〈혼자만의 사랑〉으로 가요계에 데뷔했죠. 〈혼자만의 사랑〉이라니까 이제 좀 기억나시죠? 참, 이프 독자들은 나이 따윈 궁금하지 않을 테지만 약간 힌트를 드리다면 태영씨는 30대 초반이에요.



if가 만난 사람

'돌아와'의 가수 김태영

처음 데뷔했을 당시 모습에 비해 요즘의 현란한 의상과 화장에 놀랐다고 하니깐 "나도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화장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색다르게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자가 김태영씨를 만난 곳은 7월 30일 밤 12시 세라돈 위키일 호텔 클론 라이브 콘서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일 콘서트에 앞서 그가 화장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화장 전에는 평범하면서도 부드러운 모습이었던 화장 후의 모습은... 그래요, 마녀 같았어요. 훨씬 강해보였거든요. "원래 전 예쁘고 아름답거나 소니 같은 분위기는 싫어요. 나만의 느낌, 자유롭게 느끼는 내 자신 그대로가 좋아요."

태영씨는 노래를 사랑합니다. "전 노래가 너무 소중한데요. 노래를 하면 할수록 어렵지만 이제는 내일이구나 생각하게 돼요." 태영씨는 나이가 40, 50이 되어도 노래

할 거래요. 와우— 가요무대도 마다않겠다는데요.

10월 경에는 자신의 음반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클론의 음반에서 불렀던 곡들과 비교할 때, 비트 있는 댄스곡이라고 해도 댄스보다가 좀더 강조될 거래요. 아직 정확히 곡이 모두 선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이프 독자들에게 꼭 기대해 달라고 당부했어요.

어리고 예쁘장한 여가수들이 많은 가요계에 언니로 활동하기 힘들지 않냐고 물었어요. "가끔은 별 건 다 강요하는 방송계의 논리가 수긍하기 힘들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감을 갖고 노래하는 여가수들이 있어 든든해요." 그래서 〈펄클〉의 옥주현, 〈더바〉, 임창화 같은 후배들이 너무 예쁘고, 항상 열정으로 가득한 박미경씨를 좋아한대요. 참, 태영씨가 한 농담 한 마디. "멋진 남자랑 스캔들 한 번 나는 게 소원이예요."

인터뷰 전에 이미 태영씨는 이프를 읽어봤대요. "우리 사회에서는,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자기 이름 걸면서 똑부러지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잖아요. 근태이프는 아니더라고요. 정말 통쾌하면서 시원했어요. 보통 잡지와는 정말 달랐어요. 오히려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시원하게 말하는 이프가 너무 좋다면서 이프 독자들에게 한 마디 해줬어요.

"수준 높은 독자가 있어야 수준 높은 잡지가 있다." 카아— 정말 멋진 말이죠?

콘서트 직전의 긴장 속에서 태영씨를 만났지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함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멋지게 해내는 프로로 느껴졌어요. 남을 의식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충실하려는 가수 김태영씨의 멋진 모습, 멋진 활동을 기대해 보자구요. "

글 김보미/ 사진 조여권

if 가 뽑은 가을의 책

에세이

어느 시대에도 용감하게 인생을 헤쳐간 여성들이 있었고, 그들을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되는 일이다. 여자라면 으레 달팽이가 집을 댈 것처럼 거대한 드레스를 끌고 다녀야 했던 시대에 감히(!) 세계여행을 떠난 10명의 여자 이야기인 『길들일 수 없는 자유』(막달레나 피스터, 주자네 헤르텔 역음/김경연 옮김/여성신문사 펴냄). "화가 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듯, 시인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싶어하듯, 나는 세계를 보고 싶었다. 여행은 내 청춘의 꿈이었으며, 추억은 내 나이의 청량제였다." 이다 파이프의 이 말을 나침반 삼아 누구도 길들일 수 없었던 자유로운 영혼들을 만나러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용감한 한국여성이야기.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서진규 지음/북하우스 펴냄). 가난하고 성차별적인 가정에서 자란 가발공장의 종업원, 남의 집 가정부로 건너간 미국에서 그녀의 삶은 어떻게 전개될까. 신산스러운 인생의 절곡을 희망이란 이름으로 개척해 나간 입지전적인 여성의 이야기. 실컷 놀고, 자고 싶은 나에겐 그의 성공이 희망과는 좀 다른 이름으로 읽히기는 하지만 그의 히스토리는 분명 대단히 감동적이었다.

제목만큼이나 솔직한 성 이야기 『나는 솔직하게 살고 싶다』(김지룡 지음/명진출판사 펴냄). 대단히 방방한 그래서 오히려 모험기로 읽히는 성생활보고서. 해도해도 너무하다 싶은 일본 풍속산업의 전모를 간접체험 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이 책은 쓰레기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회의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성문화의 본질을 깊이 성찰하고 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페미니즘과 다르지 않은 주장을 터득한 남성, 그의 자기 고백을 듣는다는 것은 분명 새로운 독서경험이 될 것이다.

성에 대해 도통했다며 함부로 지껄이는 밍살스런 남자의 입을 막고 싶은 분이라면 『몸, 과학, 에로티시즘』(시부사와 타츠히코 지음/바다출판사 펴냄)을 읽어보시길. 짧은 시간에 단편적인 성지식을 두루 섭렵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여성주의에 입각한 성찰적 메시지를 기대한다면 곤란할 듯.

산부인과 전문가가 쓴 피임법 가이드 북 『이너 스페이스』(정경숙 지음/세계의 여성들 펴냄). 콘



돔, 페미돔, 페서리, 루프, 경구피임약, 질정, 좌약, 젤리 등 피임법에 대한 정보가 총망라되어 있다. 아울러 성폭력과 낙태에 대한 작가의 성찰과 대처방법 등을 접하면서 자신의 생각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자녀들에게 피임 교육용으로 선물하면 좋을 책.

자신의 야망을 딸에게 무사해 자신의 본신으로 만들려는 아버지와 이런 아버지를 영웅시하며 자신과 동일시하는 딸, 이른바 '아버지의 딸'에 초점을 맞춘 『영웅의 딸』(미린 머독 지음/신광인 옮김/하웅백 해제/청동거울 펴냄). 아버지와 남자들의 세계를 모방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여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 '아버지의 딸'들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사례분석하고 있다. 아버지의 기대와 인정을 받기 위해 늘 불안하게 일에 매달리는 딸들이나 여성으로서 홀로서야 할 딸의 삶을 생각하는 아버지라면 꼭 읽어야 할 책.

의사소통의 장애를 극복하고, 사랑을 지키고 싶은 연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책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존 그레이 지음/김경숙 옮김/친구미디어 펴냄). 남자와 여자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은 화성인과 금성인 만큼이나 다른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차이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실제적인 예화들을 풍부하게 소개하고 있다.

『남성의 과학을 넘어서』(오조영란, 홍성욱 지음/창작과비평사 펴냄)라는 한 권의 책에서는 '페미니즘과 과학'이라는 조금은 생소한 주제를 매우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다. 객관적이며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대단히 남성중심적인 과학의 영역-과학, 기술, 의료-을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시원하게 풀어내고 있다.

흔히 '아줌마'란 말로 비하되는 중년여성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제3의 성, 중년여성 바로보기』(여성을 위한 모임 지음/현암사 펴냄). 가사노동, 어머니, 성과 사랑, 젊음과 아름다움, 슈퍼우먼 등 다섯 가지 주제로 나누어 중년여성들의 현주소를 짚어내고 있다.

우안녕

여성과 사랑의 역사·사랑의 문화사

대부분의 이론서(여성학을 비롯)는 너무 딱딱하고 따분해서 작심하지 않으면 끝까지 독파하기 어렵다. 독자를 괴롭히는 이런 책들을 재미있게 읽는 방법 중 나름대로 감평방법을 택해 보면 어떨까? 이를테면...

◆ 사랑, 그 딜레마의 역사

볼프강 리트 지음/장혜경 옮김/오사출판 클리오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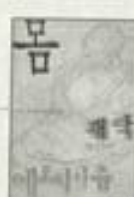
텍스트의 진지성: ★★

텍스트의 오락성: ★★

전제대상: '사랑도 상품에 불과하다'는 말에 발끈하는 당신, 혹은 노래방에서 <사랑밖에 난 몰라>라는 흘러간 유행가 버전을 주기적으로 누르는 당신.

장점: '나는 섹스한다. 그래도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무한 사랑의 시대에 과연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턱을 괴고 고민하게 만드는 내용. 그리스신화에서 니체, 프로이트에 이르는 사랑의 개념 변천사를 매끈한 문체로 풀어내고 있다.

단점: 신화와 서양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는, 등장하는 신들의 이름에 지쳐 따분하다 못해 책을 집어던질 위험성이 잠재해 있다. 하지만, 굳이 신들의 이름에 구애받지 말고 내용을 따라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이유

저술 타르르스 지음/ 히스테리아 옮김/ 도서출판 토리
나의 문화 지혜

텍스트의 구체성: ★★★

텍스트의 효용성: ★★★

전제대상: 아직도 여성과 남성, 누가 더 나은가?라는 고리타분한 논쟁을 즐기는 당신, 혹은 아직도 만물의 척도는 남성이라고 믿고 있는 우매하고 미개한 당신의 애인.

장점: 여성과 남성이 대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 서로 다른 존재라는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우리'라는 상호보완적인 입장에 서서 일과 각자의 인생, 지구환경 문제에 대해 더불어 고민할 수 있을 거라는 다소 타협적인 시선을 유도하고 있다. '다르다'는 것은 우위 내지 우열의 개념이 아니라, 공존자로서 다른 충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해 설득하고 있다.

단점: 대부분의 역서들이 그러하듯, 우리와 동떨어진 현실적 기반에서 이루어진 데이터여서 읽는 이에게 책을 덮고 한숨을 내쉬게 만드는 구석이 있다. 우리가 그들처럼 고민하려면 얼마나 더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며 목청을 높여야

하는지 쏙쏙해진다.

◆ 여성의 역사

나탈리 제온 데이비스·아들렛 파르주 편집/ 오형준 옮김/ 새물결 펴냄

텍스트의 오해성: ★★★

텍스트의 효용성: ★★★★★

텍스트의 지루함: ★★★

타겟: 도대체 여성이란 무엇인가, 여성이 자연적, 수동적 존재로 머물지 않고 특정한 사회 속에서 다양한 코드로 자기존재를 발현할 수 있는가에 의심이나 의문을 가져본 당신, 혹은 전혀 무관심했던 당신의 연인.

장점: 대부분의 여성(학)에 관한 개론서들이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여성에 대한 전단문 정도로 평화되어 오던 불신의 벽을 허물어줄 여성사에 대한 결정판. 여성들이 기존의 남성의 시선에서 자연적 존재 혹은 부수적 존재로 자리매김된 마네킨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긴밀한 연관성을 맺어온 역사적인 존재라는 인식지평을 넓혀주는 훌륭한 안내서이다.

단점: 가볍게 훑어넘길 자세로

책을 집어들었다간 큰코다친다. 서양사 내지 서양문화사에 대한 교양 이상의 지식을 요구하며 또한 당신이 흥미위주의 책이 아닌 양서를 읽을 만한 자격이 충분한지 참을성을 시험하는 지점이 있다.

◆ 인식과 에로스

로빈 메이 숏 지음/ 허라금 옮김/ 이화여자출판부 펴냄

텍스트의 효용성: ★★★

텍스트의 오해성: ★★☆☆

타겟: 결혼은 남녀간의 성의 계약에 불과하다. 고 말한 칸트를 한번 씹어보고 싶은 당신.

장점: 같은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역사의 해석이 달라지듯이, 여성학자가 마르크스적 관점에서 바라본 칸트철학은 감정·욕망·쾌락 등등의 에로스를 억압하는 반여성적인 서양철학의 전통과 초기자본주의 금욕주의적 세계관을 드러내는 것으로 읽힌다. 순수성과 객관성의 탁월한 해석이 같지만, 실은 반여성적인 세계관의 담지자임을 예리한 분석력으로 파헤치고 있다.

단점: 칸트와 마르크스에 대한 사전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고급

독자(?)인가 교묘하게 끊임없이 묻고 있다.

... 하여 당신과 나의 감평지수가 서로 다르다면 당신은 매력적이고 주체적인 독자임에 틀림없다.

광고 뼈막하게 보기

"인간은 침묵할 수는 있어도 의미하지 않을 수는 없다."

최근에 어느 기호학 강의에서 언어학자 김성도로부터 들은 얘기이다. 우리의 일상이 의미를 담지한 기호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명료하게 드러내주는 말이다. 매일 아침 TV뉴스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건널목에서, 우리는 설세없이 "나를 주목하세요" 하는 표지들을 만난다. 그저 스치고 지나가면 그 뿐이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얼핏 스친 이미지들은 부지불식간에 우리 뇌리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충동이나 욕구 발산의 기록제로 작용한다. 광고 하나가 한 사람의 사고를 조장하고

광고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고 한다면 고개를 가우뚱할지도 모르겠다.

자, 그럼 이런 목소리가 기억나는가? "낮선 여자에게서 그의 향기를 느꼈다."

한동안 일상생활에서 회자되던 모 화장품 광고카피이다. 왕지아웨이 감독의 <타락천사>를 연상케 하는 고독하고 음울한 배경 장면과 맞아떨어져서 소비자들의 무의식 속에 안전하게 고착된 카피다. '광고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김병희 지음/황금가지 펴냄)에서 저자는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열쇠로서의 광고(이미지)의 숨은 힘을 여러 각도에서 짚박하게 후벼내고 있다. 광고 제작에 얽힌 재미난 에피소드를 털어내면서도, 비평적 관점(기호학적,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적, 사회심리적, 수용자반응적)에서 광고를 바라보는 시선을 정리해 준다.

그렇다면 광고의 유형이나 방법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국내 굴지의 광고회사 <제일기획>에서 카피라이터로 다년간 근무한 경력을 십분 활용해서 생생하게 광고

의 현장을 스케치해주고 있는 '원 광고, 든 광고, 난 광고'(이화자 지음/나남출판 펴냄)의 목차만 훑어봐도 한 눈에 잡힌다. 패션광고, 향수광고, 공익광고, 기업광고, 백화점 광고, 화장품 광고, 제품이탈 광고, 라이프스타일 광고, 유행어, X세대 광고 등등 시원한 화면구성과 함께 산뜻한 문체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느 부분을 골라읽어도 무방하다.

"침대는 과학입니다"라는 광고 카피 때문에 초등학교생들이 침대가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라고 의미론란을 일으키는 현상에 대해 그냥 웃어넘길 일만은 아니다. 이제 광고(이미지)는 우리의 소비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하나의 '프로파간다'라는 사실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져나오는 광고에서 무엇을 읽어낼 것인가? 광고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텍스트로, 대학의 언론관련 학과에서 필수로 다룬다는 '광고의 사회학'(강준만, 박주하, 한은경 편역/한울 펴냄)의 일독을 권한다. 김정복

무서운 소유욕과 지배욕의 오른손 사람을 거부하고, 오히려 무력과 허무와 고독의 왼손 사람을 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원뿔 날개가 약간 무거운 새』(김승희 지음/열린책들 펴냄). 양날개의 균형을 잃어버려 힘겹게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강이 깊을수록 무거운 바윗돌을 가슴에 안고 건너는 것이 인생의 지혜임을 조용히 그러나 간곡하게 말해 주고 있다.

『내 생애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전경린 지음/문학동네 펴냄)의 즐거리는 표면상으로 남편의 외도에 분노하는 여자가 자신도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다. 하지만 남편의 외도가 계기가 된 것일 뿐 안정된 결혼생활이 가져다주는 사랑과 평화의 연재든지 허구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장롱 속에 잠들어 있던 자신을 깨우고 상상력의 끝

까지 달려갔던 주인공 미혼은, 사랑이 삶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소문처럼 그렇게 도처에 널린 것이 아닌 여전히 예외적이고 특별한 것이 사랑'이 아니겠냐고 불순하게(?) 속삭인다.

공지영의 소설은 늘 편안하면서도 순간순간 격동적으로 빠져들게 하는 힘이 있다. 『존재는 눈물을 흘린다』(공지영 지음/창작과비평사 펴냄)는 공지영의 두번째 소설집으로 비이성적인 선생의 폭력 앞에서 신음해야 했던 우리들의 학교생활이 녹아 있는 『광기의 역사』, 혁명의 전원지인 모스크바에는 무엇보다 '돈'이 없고 몸을 파는 인터결만이 있는 것 같지만 모국어와 아이가 기다리는 고국을 향하며 쉽게 절망하지 않는 『모스크바에는 아무도 없다』, 사랑의 끝을 보고자 했던 조급함을 책망하면서 저마다의 존재는 눈물을 흘리지만 서로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희망을 버

리지는 않는다는 내용의 표제작 『존재는 눈물을 흘린다』 등이 실려 있다.

『내가 가장 예뻤을 때』(신이현 지음/작가정신 펴냄)는 전후 일본의 여성시인의 시 제목이다. 『내가 가장 예뻤을 때/ 나는 아주 불행했고/ 나는 아주 열광했고/ 나는 무척 쓸쓸했다』는 시처럼 청춘들에게 보내는 슬픈 연가다. 화려한 비상을 꿈꾸지만 '아무리 발버둥쳐도 절대로 저 빌딩을 넘을 수는 없음'을 알아버린 여고생의 일탈을 선 불리 계도하려 하지 않는다.

이밖에 여성주의 관점으로 볼 수는 없으나 여성들의 사랑에 대한 욕망, 남성에 대한 성적 공포심과 분노 등을 드러낸 20세기 영미 여성작가들이 쓴 유령이야기 『밤의 여신 넥스의 초대 1, 2, 3』(루스 렌들 외 지음/이경희, 박주연 옮김/책세상 펴냄)은 심심풀이로 읽어볼 만하다. **문숙경**



남성의 과학을 넘어서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본 과학·기술·의료

오조영란 · 홍성욱 엮음



객관적 진리, 과학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해부한다!

국내의 과학기술사학자 11인이 이제까지 남성중심의 역사가 낳은 과학지식과 소용구조의 모순을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여성의 자발적 참여만이 이를 타파할 수 있음을 밝힌 국내 최초의 시도.

뜨거운 외침이 아니라 지식사회학적 관점으로 재구성한 페미니즘론. 한국의 페미니즘에 과학적 이론을 도입한 책이다. —한국일보

남성중심적인 과학계가 어떻게 여성을 체계적으로 배제해왔는지, 과학기술이 정치적·문화적 자장 안에서 어떻게 여성을 억압하는 도구로 바뀌는지를 자세히 살피고 있다. —한겨레

현대사회의 대항적 담론인 페미니즘의 지평 넓히기. —문화일보

신국판 308면/값 9,000원

전문 역사가의 탁월한 서술이 복원해낸 초창기 페미니스트들의 투쟁 역사!

페미니스트

비교사적 시각에서 본 여성운동
1840~1920

리처드 에번스 지음
정현백 외 옮김

참정권 획득과 같은 빛나는 성취들을 이뤄내다가 20세기 초반 그 에너지가 소진된 초기 페미니스트운동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리처드 에번스의 이 책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오늘날의 페미니즘을 객관화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여개국의 역사를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여성해방적 실천이란 어떤 것이며, 그것은 사회 내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는지에 관한 귀중한 통찰과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신국판 376면/값 10,000원

(주)창작과비평사 전화 718-0541~4 팩스 713-2403 인터넷 홈페이지 www.changbi.com

진짜 <카이스트>에는 이희향이 없다



드라마 <카이스트>의 한 장면. 그러나 실제 카이스트내 로봇축구동아리에는 여학생이 없다.

지난 1월부터 <카이스트>(SBS)라는 TV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다. 내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실명을 제목으로 삼은 드라마다. 남녀간의 낭만적 사랑 이야기에 치중하던 종래의 캠퍼스드라마와 달리, 과학기술도들의 희망과 도전, 성취와 좌절을 진지하게 그려냄으로써 청소년층을 비롯해 폭넓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함을 주고 있다고 한다.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는 첨단 과학기술 지식을 인간적인 채취에 녹여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는 데 안성맞춤이라는 호평도 얻고 있다고 한다.

드라마 방영 이후 학교 캠퍼스에 부쩍 늘어난 관광버스의 행렬은 매스컴의 위력을 느끼게 한다. 덩달아

나도 이런저런 자리에서 카이스트에 대해 질문을 받는 기회가 많아졌다. 이번 여름방학에 내 강의를 수강한 이화여대, 숙명여대 학생들 다수가 드라마를 보고 학점교환 프로그램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이 드라마가 과학기술도들의 삶을 실감나게 전할 경우 사회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획자측의 기대가 허황된 것이 아니었음을 실감한다.

그런데 나는 드라마 <카이스트>를 보면서 여성의 위상에 관한 우리의 현실과는 아득한 거리를 느낀다. 우선 텔런트 이희향이 배역을 맡은 전자공학 전공의 여성교수는 실제로 찾아보기 어려운 인물이다. 우리

나라 4년제대학의 공학 교수 7,000여 명 중에서 여성은 50명 미만이고, 여성교수 반 이상이 물려 있는 전산학 분야를 제외하면 각 분야마다 여성교수가 한 손에 꼽히도록 드물기 때문이다. 카이스트에도 물론 공학을 전공한 여성교수는 없다.

여학생과 남학생이 균형있게 섞여 있는 강의실과 실험실 풍경, 동아리 활동도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전국적으로 공학 분야 여학생의 비율은 10% 미만이고, 대학원에서는 그 비율이 훨씬 낮아진다. 학부 여학생 비율이 20%를 넘고 전공 선택이 자유로운 카이스트에서도 여학생들은 생물학, 화학, 수학과 일부 공학 분야에 몰려 있다. 극중에 나오는 학생들의 구심점인 마이크로봇축구 동아리에는 지금까지 참여한 여학생이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드라마는 지금의 현실을 생생히 그려내기보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나 후한 점수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배제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과학기술계 진출은 지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1995년 말 기준으로 정부출연 및 민간 기업 연구소의 여성연구원 비중은 5% 내외이고, 대학의 이공계 전임교수 중 여성은 2.5%에 불과하다. 25년 전과 비교해도 여성교수의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다. 현장실무 경험을 중시하는 기술사의 경우에는 여성이 더욱 희귀해서 0.3%밖에 안 된다. 반면, 자연과학 전공 대학졸업생 중 여성의 비율은 46%나 되고, 전체 대학교수의 14%, 언론기관 종사자의 14%가 여성이다. 과학기술 전문직에 진출한 여성이 소수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교육수준도 다른 직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부진한 것이다.

이렇듯 과학기술 분야에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비단 우리 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서양의 여성학자들은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이 군대 다음으로 가



드라마 <카이스트>에서 공학 교수 역을 맡은 이희향.

서양의 여성학자들은

과학기술이

군대 다음으로 가장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여성을 배제해 온

사회활동의 영역이라고 말한다.

장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여성을 배제해 온 사회활동의 영역이라고 말한다.

여성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야 비로소 대학 입학이 허용되었고, 곧 이어 대학원과정도 고급 과학기술자



마리 퀴리.

훈련의 필수과정으로 요구되기 시작하면서 여성은 다시 대학원 입학에 거부당했다. 온갖 지혜와 굳은 의지로 힘겹게 장벽을 넘어 과학기술계로 진출한 여성들은 소위 '여성적'인 일, 즉 눈에 띄지 않는 하급 보

조직에 머물도록 강요당했다. 과학기술이 전문적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여성의 대학원 입학을 막아놓은 채 박사학위 소지자가 아니거나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여성의 진출과 승진을 봉쇄한 것이다.

달라진 서구 여성과학자

그 유명한 마리 퀴리의 일화는 과학기술계의 여성배

제가 얼마나 완강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1910년 파리 과학아카데미의 정회원으로 그녀를 추대하자 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녀는 이미 1903년 방사능 연구로 남편과 함께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고, 다시 금속 라듐의 분리로 1911년 노벨화학상을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다. 그러나 노벨상 두 차례 수상이라는 초유의 영예를 안게 된 마리 퀴리임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표결에서 아카데미 입성은 좌절되고 만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구미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과학기술 분야 진출을 활성화하는 데 여성뿐만 아니라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제는 드라마 <카이트>에서와 같은 인물과 배경이 낯설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바뀐 것이 사실이다. 물론 과학기술계의 여성배제에 항거하고 힘을 합쳐 정치적 형평성을 이루고자 한 여성들의 치열한 문제의식과 투쟁 없이는 불가능한 결과였다. 과학기술계의 성차별은 근대 과학기술이 최고의 가치로 내건 합리성과 객관성의 이념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었다. 페미니스트들도 지난 30여 년간 과학기술계에서 여성의 진출 기회와 활동영역이 대폭 확대되었음을 인정하고, 바로 이

런 이유 때문에 현재 과학기술 속의 여성문제에 대해 새로운 인식과 방향전환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1990년대 들어 미국에서는 남성의 성역으로 치부되었던 항공 우주국(NASA)의 기술책임자, 공군장관(Secretary of the Air Force), 국방연구부장, 공중보건국장(Surgeon General) 등의 직책을 여성이 맡게 되었다.

새로운 전략적 요충지, 과학기술

이제 우리도 여성의 과학기술 분야 진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시점에 이르렀다. 과학기술계의 저조한 여성참여는 중대한 사회적 불평등이며 사회적 손실이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전문직 진출이 활성화돼야 하고, 과학기술이 이런 전문직이라는 사실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특히 오늘날 가속적인 기술혁신과 정보화의 물결 속에 우리의 삶 구석구석 과학기술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여성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과학기술 분야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자원과 기술력 확보에 기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과학기술 분야 여성인력의 사장과 이탈은 엄청난 교육투자의 낭비이며 국력의 손실이다.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의 동참 없이는 과학기술입국의 꿈이 실현될 수 없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람직한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대 과학기술은 남성의, 남성에 의한, 남성을 위한 과학기술로 발전함으로써, 한편으로 치우치고 무분별한 인명살상과 환경파괴까지 치닫게 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과학기술 지식을 만들어내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배제되었고, 따라서 여성이 관심을 갖고 여성에게 문제가 되는 영역은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피임은 그 사회적 중요성에 비

해 연구가 소홀했고 그것도 주로 여성의 피임법만 연구되었다. 또한 현재의 무성한 정보화 논의 속에서도 여성에 대한 관심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과 활용방식은 누가 어떤 시각에서 무슨 이해관계에 따라 그 과정에 관여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앞으로 새롭고 대안적인 시각으로 무장한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과학기술의 영역을 확장하고 진정한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다.

최근 여성의 과학기술계 진출에 대해 정부측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금년의 어느 행사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여성과학기술자 우대를 정책우선 과제로 꼽았고, 여성과학기술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프로그램도 기획되고 있다. 교육부의 브레인 코리아 21(Brain Korea 21) 계획에도 과학기술 여성 전문인구인력 양성이 소수 특화분야의 하나로 명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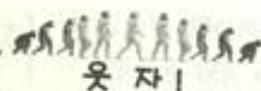
유감스럽게도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여성들의 관심은 아직 미미하다. 호주제 폐지, 성폭력 방지 등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들이 산적한 우리의 현실에서, 과학기술과 여성문제는 아직도 추상적이고 사치스러운 논의로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고도의 기술사회임을 명심하자. 과학기술은 새로운 전략적 요충지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다시 범할 수는 없다. [1]

윤정호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교수로
과학기술사회학을 전공한다.
여성으로, 특히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가슴으로 깨달은 후,
과학기술과 여성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나의 삶에 대한 성찰이 나의 딸과 나의 학생들의 자유롭고 당당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웃자!

초코파이

어느날 조식끼리 싸움이 벌어졌다.
먼저 지존파, "난 지존파 김이다."
그러자 막가파, "난 막가파 최다."
그러자 어느 파의 한 사람이 중앙으로 걸어나오며 조용히 말했다.
"난 초코파—이다~~~!"

보청기

한 늙은 노인이 몇 년 동안 귀가 잘 안 들어서 고생하다가 의

사를 찾았다.

의사는 노인에게 귀속에 쏙 들어가는 보청기를 주며 사용해 보고 한 달 뒤에 다시 찾아오시라고 했다. 한 달이 지나고 노인이 의사를 찾아왔다.

"어떠세요?"

"아주 잘 들립니다."

"축하합니다. 가족분들도 좋아하시지요?"

"우리 자식들에겐 이야기 안 했지요, 여기저기 왔다갔다하면서 그냥 대화 내용을 들었수. 그 동안 유언장을 세 번 고쳤도요."

“너는 에미 애비도 없냐?”



참가자 : 울보, 완장, 시비, 포기, 품생, 한강, 지퍼, 해박, 물렁, 사소 등 모두 10명(미혼 5명, 기혼 5명)

일시 : 1999년 8월 10일 점심시간

울보: 수다방 주제를 싸움으로 했어요. 사실 여자들이 잘 못 싸우잖아요. 그래서 맞힌 게 참 많을 거 같애.

완장: 왜, 우리 저번에 미친 놈하고 싸웠잖아.

무서: 뭔데?

완장: 아니, 저번에 물렁씨 차 타고 나랑 울보랑 꺼서 가는데 저 큰길로 나가자마자 저 길에서 대판 싸웠잖아.

시비: 아니, 왜 싸워?

완장: 길이 막혀서 겨우 끼어들었는데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 하나가 속도도 안 줄이고 오다가 우리가 기본 나쁘다 이거지. 그래서 “이 씨×년아!” 하면서 지나갔는데, 물렁씨가 “뭐야, 이 씨×학!” 했더니 오토바이를 차 앞에다 막 세우는 거야. 그러더니 욕을 얼마나 하는지, 생전 그런 욕은 처음 들어봤네. 뭐 개한테 갖다 줘도 안 먹을 년이구나. 뭐래나?

시비: 어머, 그래서?

완장: 근데, 물렁씨가 허나도 안 지고 싸우는 거야. 난 가슴이 벌렁벌렁하는데...

물렁: 아니, 그 놈도 웃긴 게, 욕하면서 “내려, 내려!” 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사단낸다 그러면서 내려려고 차 문을 확 열었지. 그랬더니 웃긴 게 이 놈이 발로 문을 막아서 못 내려게 하는 거 있지. 지도 무서웠나봐.

울보: 막 주먹으로 코앞까지 종주먹질도 했어요.

완장: 근데 웃긴 게 그 놈이 가고 나서 차가 출발한 지 얼마 안됐는데 뒤를 보니까 울보가 뒷좌석에 앉아서 줄줄 울고 있는 거야.

모두: 하하하...

시비: 왜 그런 거야? 창피한 거야?

울보: 나는 왜 우냐면, 그 상황이 너무 무서운 것도 있고, 혼자 자괴감을 느끼는 거야. 난 저기서 싸워야 하는데 하는데 하면서 몸은 주저앉아, 주먹은 불끈 쥐지만 힘은 자꾸 빠지는 거야. 나는 결국 저기에 참어도 못하고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결국 당했구나 하는 생각만 있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식구끼리 온천에 갔는데, 엄마랑 여동생이랑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어떤 아줌마가 동생 사위기를 잠깐 빌렸어요. 자기 닮았으니까 한 번만 쓴다고. 그랬는데 한참을 쓰는 거야. 거기다 자기 다 쓰고 자기 친구까지 빌려주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동생이 점점 화가 나는데 상대가 어른이니까 참다가 결국은 아줌마 너무 오래 쓰는 것 같다고 그런 거야. 근데 그 아줌마들이 들은 척도 안하고 계속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가 너무 한 거 아니냐고, 애 거라고 무서한 거냐고 하면서 싸우게 된 거야. 근데 나는 그 상황이 너무 두렵고 별거 없고 싸우는 것도 웃기고... 하여튼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 그래서 옆에 있는 아줌마 쪽으로 몸을 틀어서 그 아

줌마 딸인 것처럼 있었거든. 그랬더니 나중에 엄마가 큰딸이라는 게 엄마가 싸우면 거들어야지, 내가 이 상황에서 뭘 믿겠냐고, 뭐 엄마한테 등짝 맞았지.

모두: 하하하...

완장: 그러면서 우는 거야? 눈물의 의미가? 난 그때 그 생각했어. 자기도 덩치가 있지. 나도 덩치가 있지, 울보까지 나오면 이 남자가 갖은 욕을 하고 달려들었지 만 덩치에서 밀릴 것이다. 근데 울보가 안 나온 거야. 뒤를 봐도 없는 거야.

무서: 한 번은 나외보지.

울보: 나오기까지는 했어. 그래서 선배가 오토바이 번호 적으라고 해서 번호까지 적었지.

완장: 맞다. 내가 참 적으라고 그랬다.

울보: 발발발발 발면서 적었지.

완장: 난 번호를 왜 적으라고 그랬냐. 어떻게 할러구?

사소: 적어도 관찰지.

시비: 그럼, 경찰에 전화하고 막 그래야 돼.

물렁: 여보세요, 나쁜 놈이 있는데요, 저한테 막 욕을 하거든요? 이 놈이?

시비: 그럼, 여경에 그런 조치가 있으면 좋겠어. 길거리에서 폭언 당할 때 긴급전화하게, 여경에 전담부서가 있으면...

물렁: 그것도 일종의 성희롱이야. 아니 성폭력이야.

시비: 명예훼손이라니까. 길거리에서 여

자한테 욕하는 거. 그런 거 있으면 신고를 받는다 그러면 오토바이 번호 딱 알려주고, 간단하잖아.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시비: 난 또 화가 나면 막 밀려.

물렁: 멀리지.

한강: 왜 부들부들 떨리지?

시비: 왜 차분하게 못 하는지 몰라.

한강: 그런 사람 존경스럽죠, 차분하게 얘기하는 사람.

완장: 차분하게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한강: 드라마에서는 많이 나오잖아.

무서: 그런 사람 있으면 미울 거 같애. 내가 아는 친구 둘이 MT를 갔대. 한적한 산길을 둘이 가는데 뒤에서 어떤 술취한 놈이 오더라. 무섭잖아. 술 취한 사람 자체가 공포스럽잖아. 근데 이 사람이 막 “아, 이 씨×년아!” 그러더라. 가다가 애네 둘이 놀라서, “저 말이에요?” 했대.

모두: 하하하...

무서: 이 사람은 술김에 그냥 그랬는데 너무 공손하게 “저 말이에요?”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 년아, 그럼 너 말고 누가 있냐?” 그러더라. 너무 무서워서 도망왔대. 근데, 거기서 정말 싸우는 사람이 있어. “아, 이 놈아 니가 뭔데 그러냐” 그러면 오히려 이 사람이 도망갈 텐데. 그렇게 못 하겠는 거야. 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 언니 부부랑 휴가를 갔어. 공중전화를 쓰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 언니가 한참 기다리다가 공중전화를 썼고, 그 다음에 내가 전화를 할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사실 일행이지만 언니 쓰고 나 쏠려고 줄을 서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근데 이 사람이 딱 광대 스타일이야. 언니가 전화를 두 통째 쓰고 나서 인제 내가 전화를 쓰려고 하니깐 “이, 씨×년들이!” 이라고 우리한테 덤비는 거야.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억울한 거야. 아저씨 왜 그러시냐구. 나도 계속 줄

서서 전화를 기다린 거라고 했는데 계속 말 끝마다 욕인 거야. 왜 그 공포감 있잖아, 말끝마다 욕이고 저 사람이랑은 대화가 안 통하겠잖아. 허는. 너무 무서워서 몇 마디 허다가 푸그러들었는데, 우리 형 부랑 남편이 놀래서 왔는데, 우리 남편이 형 부랑 말이 더 재있어.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야. 전화를 기다리게 한게 잘못이라는 거야. 우리가 전화를 오래 했고 물론 언니가 전화를 짧게는 안했지. 그렇지 만 그렇게 예의에 벗어나게 오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 거기다 나도 줄을 서있었고, 근데 전화를 오래 썼고 그 남자가 그렇게 심하게 욕하는 걸 못 들었고 이런 사람처럼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겠지. 그리고 자기 와이프가 길거리에서 그런 사람처럼 말다툼하는 것도 싫었을 거 같애. 그래서 언니를 끌고 갔는데, 우리 언니가 너무 열받은 거야. 형부랑 대판 싸웠잖아.

사소: 근데 남자들은 싸울 때 왜 그렇게 욕을 잘해?

울보: 욕이라는 게 평상시에 쓰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뭐라고 욕했을 때 그거에 대해 숨이 막히면서 그 뜻이 뭘까 생각하면서, 또 되받아쳐야 되는데 내가 아는 욕은 없잖아. 내가 모르는 별 욕이 다 나오니까, 수습이 안 되지.

물렁: 나는 우리 엄마가 굉장히 욕쟁이라서 욕을 생활화하면서 살았는데도 남자들 욕은 진짜 못 당하겠어.

시비: 그 욕하는 거는 무슨 신고 대상이 안되나? 되지 않나?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욕하는 건 엄청난 모욕이잖아. 그게 신고 대상이 될 거 같은데. 그걸 진짜 알아봐요?

울보: 그러다가 해꼬지 하면 어떻게 해.

완장: 그래 우리나라는 해꼬지 때문에 더 못 싸우는 거 같애. 누굴 신고하면 그 다음에 애가 내 얼굴을 기억하니까.

물렁: 우리 나라 사람들은 불행에 대한 상상력이 너무 커.

시비: 그러면 당하고 살아야지. 뭐.

물렁: 그 사건 알아? 신혼여행 차가다가 사고 난 거.

완장: 둘 다 죽었잖아.

지퍼: 엄청 싸서.

물렁: 안 비킨다고 죽었단가. 늦게 가서?

지퍼: 아니, 비포장도로라서 앞차가 천천히 갔는데 뒷차가 추월해서 가면서 언저리를 막 쫓긴 거야.

물렁: 알부러?

지퍼: 아니, 빨리 달리니까. 그러니까 이 뒷차 사람이...

완장: 사냥꾼들이었다면서요.

지퍼: 응, 사냥꾼들. 엄청을 들고 있었어. 그래서 남편을 봤는데 부인이 남편이 막 피를 흘리니까 병원에 데려가달라고 그러니까 발로 걷어차고 죽었잖아.

완장: 그래서 그 부부는 신혼여행 한복 입고 죽었나 그랬잖아.

물렁: 옛날에 왜 또 공중전화 박스에서 젊은 남자가 전화 오래 쓰니까 뒤에 애기 엄마가 오래 쓴다고 뭐라 그러니까 칼로 찔러 죽였잖아. 그런 게 상상되니까 픽소리 안하고 살아야 될 것 같잖아.

한강: 그래서 공중전화 한동안 무서운 적이 있었어요.

물렁: 그런 사건이 굳이 보도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시비: 보도는 해이지.

물렁: 근데 그런 보도 때문에 공포심을 느끼는 거 같애, 여자들이.

완장: 그래, 굳이 공포감을 주면서까지...

시비: 아니 공포감보다 예방할 수 있지.

완장: 뭘 예방해요?

물렁: 공중전화에서 무례하게 했을 경우 여자가 잔소리를 할 만한 거잖아요. 전화 짧게 하라고. 근데 그런 소리도 못 하겠다니까.

한강: 아니, 진짜 그런 거 있었어. 어떤 여자가 전화 잘못 받아가지구, “너희 집에 딸 있지?” 이거잖아.



원장: 그거 제일 무섭잖아.

한강: 잘못 걸려온 전화에 대고 그랬대, "전화 똑바로 하라고. 지금 몇 번째냐고" 그리고 끊었는데 한 동안 말이 안 들어왔는데 말을

잡아다가 온몸에 문신 새겨서 들어보낸 거예요.

물령: 맞아. 맞아. 그런 일 있었어.

한강: 그 다음부터는 내 친구 엄마들도 그랬어. 전화가 잘못 걸려와도 공손하게 "잘못 거셨어요" 하잖아.

물령: 제발 잘못 거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받아서... 하여튼 불행에 대한 상상력이 뛰어나.

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폭력으로 부터 보호받을 거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 누가 길거리에서 날 때려도 지나가는 누군가 날 도와주리라는 믿음도 없고.

물령: 그렇지.

무서: 그리고 나는 제일 무서웠을 때가 경찰서를 들여다봤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을 쥐어매고 있잖아.

모두: 하하하...

무서: 싸우다가 끌려왔는데도 그 안에서 또 막 때린다? 경찰은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 안 알려. 우리 동네 파출소가 그런 사람이 많은데...

한강: 동네를 바꾼, 동네를...

모두: 하하하...

무서: 버스 타고 가다보면 파출소 안이 보이는데 어떤 때는 아저씨가 신발을 벗어서 아줌마를 때리는 거야. 글썽 경찰서 안에서, 근데 세상에 다 구경하고 있더라니까.

한강: 그게 가족 싸움이라는 거야.

시비: 그건 말도 안돼. 그런 파출소 가서 무서씨가 얘기해야 돼.

모두: 하하하...

시비: 아니, 순경한테는 얘기해야 되지.

이러시면 안 된다고. 여성단체 가서 얘기 하겠다고 그래야지. 경찰이 그런 직무유기하는 거야. 가르쳐줘야 돼.

물령: 근데 그럴 때 있잖아. 그 비굴함... 시비: 육체적으로 악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악할 때는 달려들어도 자기 손해에 뭐... 일단 그 자리는 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물령: 아니, 지금 무서 같은 경우에 목격자라든지 폭력의 현장에 있으면 그런 경우에 자기가 같이 싸우지 못한다든지 부당함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조차 굉장히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야.

무서: 맞서지 못하는 거. 마음은 그런데...

물령: 왜 그래? 왜 그런 거 같아?

포기: 난 어렸을 때 되게 잘 싸웠거든요? 이걸 싸운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뭘 잘못하면 일어나가지고 "선생님, 이러시면 되나요?" 하면서 아꾸구자꾸구 이러면서,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기가 막힌 애였어.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6년

동안 몸부림을 치면서 되게 처절하게 당한 거예요. 내가 정당한 내 의사를 밝혔을 때 어떻게 당한다는 걸 6년 내내 아주 처절하게 느꼈고, 또 그걸 집에 가서 얘기하잖아? 나 맞았다고 그러면 우리 엄마가 또 날 야단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가 싶은 거야. 내가 생각할 때 이 건 정의인데...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해봤자 소용없고 하면 내가 당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시비: 그러니까 유럽이나 선진국하고 다른 게 시시비비를 잘 안 가리잖아요. 걔네들은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게 돼 있거든.

물령: 그렇게 먼저 이성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시비: 근데 우리는 그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싸우면 "뭐야, 지금 따지자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선 기가 죽는 거야.

무서: 너는 에이, 애비도 없냐?

지퍼: 나이 가지고 딱 제압을 해버리는 거야.

물령: 우리 나라 사람들은 기선을 제압하는 게 중요해.

시비: 왜냐면 가부장적 사회니까 우선 싸우다가도 "너 나이가 몇 살이야" 하면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구.

물령: 내가 너 같은 자식이 있는데...

시비: 그렇지, 아직도 우리 문화는 시어머니한테 뭐 옳고 그른 거를 따지나, 일단 순종하고 나중에 말해라.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비합당한 방법이거든요?

무서: 따져보자!

시비: 그럼, 이걸 따져야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 아니야?

무서: 그래도 따져보려고 오는 사람은 큰 참대니까. 근데 아까 선배가 말한 것처럼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면...

물령: 그래서 남자들이 "이, 씨×년" 이러고 나오는 이유가 기선을 제압하려고 그러는 거라니까.

무서: 아줌마, 중년여성들이 싸움을 잘 하잖아. 그게 아줌마가 시시비비를 잘 가리는 게 아니라 남 말할 틈을 안 주잖아. 막 그냥 자기 말만 하고, 뭘 말하려면 그냥 다다다다. 대화가 안 되잖아.

물령: 그런 아줌마하고 싸우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한이 맺히잖아, 한이 맺혀.

시비: 그리고 사회 분위기가 특히 여자가 싸우는 것을 곱게 안 봐요.

원장: 그래 맞아. 그 때 우리 싸우고 집에 들어갔을 때 남편한테 "물령씨 차를 타고 가다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그럼 넌 뭐했어?" 그래서 "나도 옆에서 좀 거들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봐, 여자가 운전하고 다니면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한다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나는 그런 일에서 배제되기를 바라는 거야.

시비: 아, 맞아.

원장: "그래서 너 운전 배우는 게 나쁘다는 거야," 아니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니냐고 했지. 그럴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싸우든지 그 놈이 나쁘다고 얘기해 줘야지.

시비: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자들을 길들이는 것 중에 그것뿐만 아니라...

원장: 무서씨 형부나 남편도 그거였던 거야. 그 험한 꼴에서 너는 빠져라.

물령: 남 싸우는 꼴 못 보는 거 있지. 우리 나라에서는 어쩌면 싸움이 의사소통의 수단일 수도 있는데 무조건 화해시키고 그러잖아.

시비: 맞아.

원장: 응. 애들한테도 그러지.

시비: 시시비비를 안 가려. "너도 잘못됐구, 너도 잘못됐구. 둘 다 잘못했으니까, 빨리 화해해!" 이러구서 말아버리잖아. 이러면 안 되거든요?

원장: 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비: 안되지. 시시비비를 가려줘야지 나중에 안 그러지. "너는 이점을 잘못한 거 같고, 너는 오게 그런 것 같다"든지 그런 거를 분명하게 해줘야 된다고. 뭘 잘못했는가, 왜 싸움이 났는가 그거를 분명히 오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너는 형인데 싸워? 넌 동생이 형한테 대들어?" 하고 무조건 얼버무리고.

물령: 또 두 사람이 싸우는데, 오래된 감정 때문에 붙었던 말이야. 둘은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이 똥똥똥 갈라가지구 한 쪽으로 밀어뜨려놓고 하나는 저 쪽으로 끌고 가고 그러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 왜 싸우니, 왜 화가 났니" 이렇게 물어봐주면 "그러니까~"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잖아. 그렇게 해주길 원할 때가 있는데, 무조건 싸움을 가로막으면 창피해져. 거기서 연성을 높였던 나는...

시비: 그렇지, 싸움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물령: 연성을 높였던 내가 부끄럽고, 다시는 어디 가서 이런 짓 하지 않아야지 하면서...

사소: 여자애들도 싸우게 키워야겠다. 여자애들은 아예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화해부터 가르치잖아, 계속.

물령: 그래, 아우 미치겠어.

폴생: 모성신화라든지, 여자는 대지의 어머니고 뭘 뚫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싫어. 여자는 항상 평화롭고 감싸고 이런 역할 규정도 싫고. 오히려 잘 싸우고 논쟁적이고 잘 해쳐나가는 게 살아나가는 데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여자는 여자답지 못하고 매력 없고...

물령: 맞아요.

한강: 근데 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이 얘기를 꺼냈잖아. 내가 누굴 땀겨든 술 먹고 남자애를 땀겨요. 근데 땀겨 술김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개가 계속 짹짹 땀겨요. 고등학교 때부터 개가 굉장히 나쁜 애야. 우리 모임에서 아주 나쁜 짓을 했는데, 그러다가 잘못 걸린 거지. 막 보니까 내가 술도 좀 마신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짹짹거리자 하고 짹짹대려 왔네? 그래서 술 먹다 말고 내 눈에 띄었지. 끌고 나와서 대로변에서 땀 때리고 발로 차고 그랬는데, 다행인 게 내 친구가 이랬대. 다른 선배들은 술 먹고 땀 짓이야, 중계중계 해야지 하는데 "차워, 선배, 애가 화난 게 있으니까 땀겨요" 하고 개를 잡아줬어. 일파 쫓구나 그래서 개를 발로

땀 땀. 그리고 나선 너무너무 속이 후련한 거 있잖아. 기분이 너무 막 사는 거야. 그리고 잡아준 개가 너무 고맙고.

물령: 하하, 동지애가 썩었어?

시비: 맞는다고 개가 합의를 했어?

한강: 그건 아니죠. 진짜 잘못된 걸 개는 알지. 맞아야 할 놈인데... 땀. 시비: 근데 그거는 거꾸로하면 여자가 손해라고. 맞아야 할 놈 하나만 맞는다. 때린다. 남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여잘 때린다구.

한강: 그럼 폭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시비: 그게 남성문화야. 그걸 그대로 답

습한 거야.

한강: 그럼 난 계속 남성문화가 좋을래. 패니가 기분 좋던데...

시비: 남자들이 기분 좋으니까 자꾸 때는 거야. 때면 기분 좋으니까.

한강: 그럼 말로 해야 되는 거야?

시비: 만약에 "너 잘못 했으니까 맞을래?" 그래서 맞겠다고 합의했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는데 때린 건 폭력문화 그 대로지.

한강: 아...

물령: 근데, 그 권력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저런 관계에서 폭력도 지양해야 되나?

시비: 난 그렇다고 생각해. 폭력은 폭력 아니니까. 아니, 남자가 먼저 때렸으면 때려도 돼. 근데 그게 아니잖아.

물령: 말이나 행동으로 폭력적으로 그 친구가 했을 수도 있잖아요.

시비: 근데 그건 남자들이 하는 말이란 똑같은 거야. 맞을 짓 했으니까 때린다고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야.

한강: 그거랑 마찬가지로?

시비: 그럼. 그래서 난 먼저는 절대 때리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먼저 때린 쪽이 잘못이라고 생각해. 뭘든지. 그건 남자들의 논리 그대요. 그렇게 말하면 여자들이 그럼 가정폭력에 대해서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한강: 맞을 짓이라는 게 너무 확연해도?

시비: 그건 너무 주관적이야.

원장: 그럼 누가 때리고 싶을 때는 먼저 건드려서 한 대 치게 한 후에 해야겠구나. 그래야 성립이 되겠구나.

모두: 하하하...

시비: 경찰서에 가서도 누가 먼저 때렸는가가 굉장히 중요해.

원장: "때려봐! 때려봐" 해서 한 대 친 다음에 시작을 해야겠구나.

한강: 한 대 쳤는데 뽀이면 어떡해?

무서: 근데, 여자가 폭력에 맞설 수 있는 어떤 경험이 있어야지. 폭력 자체가 두려

워서 절대 맞서지 못하는 쪽이 대부분 여자들이거든.

물령: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그 쪽으로... 맞아본 적도 없고, 때려본 적도 없고.

무서: 응, 폭력에 대한 공포심 이런 것만 있고, 난 <우리> 같은 영화 보고 너무너무 끔찍했거든, 근데 폭력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사회 속에서, 그게 또 지배적인 논리가 되는 사회 속에서 여자들이 이거랑 맞서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비: 근데 여자치고 난 폭력으로는 여자가 남자를 못 맞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적 정치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폭력으로 맞부딪쳐서 여자가 싸워서 이길 수 있었어?

완장: 못 이기냐? 이길 수 있을 거 같은데...

시비: 못 이겨. 그걸 원력으로 어떻게 이겨.

물령: 우리 남편은 이길 수 있는데 난...

모두: 하하하...

완장: 난 싸울 때 칼 들어본 적 있어.

시비: 칼을?

무서: 죽인다고? 아니지? 나 죽었다고지?

완장: 아니지, 나 아니야. 한 번만 더 건드리면 너 죽는다...

시비: 그래? 무지하게 일방적이구나.

완장: 상대가 무서워해요. 일단 들고 있으니까, 이게 무킨데, 근데 내가 들고도 무서워 정말. 너무 무섭잖아. 칼이 없거나 무서워요.

물령: 무섭지.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이 여자가 한 번 편이 되면 끝까지 갈 애다라는 생각이 드는 여자는 할부로 못하죠.

시비: 할부로 못하지.

완장: 진짜 못해. 그건 보여줘야 돼.

시비: 보여줄 필요는 있지. 한 번은...

무서: 그러니까 성희롱 당할 때 애들이 하는 처방이 그거잖아. 더 세게 나가는 거. 성희롱하려고 그러는데 애가 가만있으면 더한대잖아. 지하철, 버스 같은 데서도 하여튼 막 욕하면서...

물령: 아우, 난 너무 부러워.

완장: 어떤 사람? 대드는 사람?

물령: 전철에서도 그렇게 질박거리면 "아저씨, 좀 비켜서 앉으실래요? 좀 저쪽으로 가서 앉으실래요?" 이렇게 큰소리로 얘기를 하는 사람 있잖아.

한강: 그렇게 얘기하면 "누구야? 밤금?" 같이 탄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물령: 광장공포증이 있는 건지. 허여튼간에 다 쳐다본다는 게 창피해서도 못하잖아.

무서: 나도 성희롱을 세 번이나 당했거든.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칼같이 시골 출신은 알아보는지.

시비: 지하철 안에서?

무서: 가리봉에서 강남으로 출근을 했는데, 딱 같은 코스에서, 같은 농한테, 어떤 농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상주하는 농이 있는 것 같애. 아무튼시간에 나 혼자 스스로 해결하는데 꼬집거나 잡아당기거나...

물령: 뭘 잡아당겨?

모두: 하하하...

무서: 거기서 못 잡아당기지. 치마 그런 생각도 못했지.

시비: 아니, 어떤 성희롱? 더듬거렸다고?

물령: 사정도 해요.

물보: 정말?

무서: 내가 스커트를 긴 거를 입고 있었는데 세 번이나 치마가 여기까지 올라가 있었어.

시비: 치마가 이렇게 올라가 있대구? 긴 치마가?

무서: 어, 긴 치마가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 거야. 지하철 1호선 되게 밀리잖아.

시비: 앉아서?

무서: 아니, 서 있는데. 치마가, 겨울인데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 거야. 거의 허리까지. 팬티 다 보일 정도로...

물령: 하하하...

한강: 밀려서 올라간 줄 알았겠지.

무서: 어, 처음에는 밀려서 올라간 줄 알

았어, 치마를 막 내렸다가 근데 가만있는데 이게 또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어떤 인간이 올라고 있는 거야. 봤지. 그 때는 무섭더라. 진짜, 소리 지를 엄두도 안 나고. 그래서 도망갔다. 사람이 많으니까 가다 몇 발짝 못 가잖아. 근데 따라와서 또 올라오는 거야.

모두: 어우...

무서: 그 때는 정말 공포스럽더라구.

한강: 그래서?

무서: 어, 손으로 올리니까 손을 꼬집고 막 그랬지. 그래도 이 사람은 얼굴에 표시 하나 안 나고.

지파: 어유, 세상에...

무서: 그게 가슴에 한이 맺혔지. 한 번은 셀러리맨인데, 엄청 밀리니까 옆에 있는 남자와 포옹하는 자세가 된 거야.

모두: 하하하...

무서: 그래서 어색해서 돌아왔다?

시비: 아유, 지하철 문제야. 정말.

무서: 근데 이게 애한테 자극이 됐나봐. 그 때부터는 내 허리를 막 잡더니...

모두: 어머...

무서: 거기서 그걸 하는 거야.

한강: 미친 새끼다.

물령: 감아지네. 개들이 그러잖아. 막 잡고 올라가서...

무서: 어, 근데 이게 막 잡고, 그 때 내 허리가 또 가늘었잖아. 한 손에 막 잡히는 거야.

모두: (거의 자지러진다) 하하하...

한강: 한 손은 아니겠지.

완장: 두 손.

무서: 그래가지구 막 하는데, 사람이 내 엉덩이에 자기 겨를 대고 하더라니까. 숨소리까지 헉헉대면서. 나는 정말 꼼짝도 못했어. 이렇게 끼어 있는 데다가...

물령: "그렇게 좋아?" 하지 그랬어.

모두: 아~!

물령: "잘 왜가니?"

모두: 하하하하...

무서: 나는 그래서 그 농 바지 같은 데 꼬

집고 그거밖에 할 수 없었어. 꼬집고 잡아당기고 이러는데, 한 데 정신 팔려서 그 아픔은 참을 수 있나보지. 계속 하더라구. 그리고 나서 이 인간이 먼저 내렸다가 그 때는 기분이 아침부터 너무너무 불쾌하고, 그 상처가 지금까지 안 잊혀져.

물령: 진짜 더러웠겠다.

시비: 아우, 세상에...

무서: 그래서 그 뒤로 내가 지하철에서도 한 번 그런 일 있으면 절대 가만히 안 있겠다 버리고만 있는데, 그 뒤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

한강: 눈에서 살기가 풍겨지니까 못 오나 보다.

물령: 그렇지. 나는 고등학교 때 뭘 어저께가 내 옷에 비듬이 떨어졌대. 그러면서 뒤에서 이렇게 털어주더니 손을 만져. 근데 아버지 같은 사람이야, 나이가. 그러면 또 우리가 존경해야 되잖아. 아버지벌이나.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 있었는데 내 손을 이렇게 뒤로 갖고 가는 거야. 근데 손이 물렁물렁해.

모두: 하하하...

한강: 아우~.

물령: 그제 성기인 줄 누가 알아. 손이 참 벅가 없다. 그러면서...

완장: 그제 왜 물렁물렁해. 그 때쯤이면 뽕뽕하지.

물령: 아니, 커져 있지만 아직 뽕뽕하지 않은 상황 있잖아.

한강: 우린 알아들을 수가 없어. 우리 처녀들은...

물령: 그래도 존경해야 되니까 한참 있다가 너무 이상해서 뒤를 보니까 시타구니에 내 손이 가 있는 거야.

완장: 미친새끼야, 진짜.

물령: 근데 울면서 그냥 혼자 내렸다는 거 아니야. 여자들한테 그런 경험들 있잖아. 어렸을 때부터 한이 맺힌 거야. 곳을 하든지 해야지.

무서: 그런 얘기하면 애들 중에 지기는 "아이, 쌍놈이!" 이러면서 싸운다는 거

야. 그러면 진짜 무서워서 그 남자가 피한다.

시비: 당황해서라도 그러겠다. 정말, 응.

무서: 난 그런 사람 보면 부러워. 어떻게 재는 저렇게 처음부터 알았을까싶기도 하고.

물령: 그 기질은 어렸을 때부터 키워지는 거 같애.

시비: 아니 근데 왜 성추행으로 갔어?

사소: 그러게?

무서: 내 말은 싸울 때 남자들이 여자들 기선을 제압하는 게 성이란 말이야. '너는 여자야. 너는 여자니까 안돼.' 그 때 그 성이라는 게 곧 섹스를 의미하거든?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너무 실감나는 싸움을 봤는데, 뭐냐면 우리 고등학교 앞에 되게 오래된 재래시장이 있는데, 그 재래시장 앞에서 동네 경매하고 그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줌마하고 싸운 거야. 이 아줌마는 50이 넘는 아줌마였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줌마면 얼마나 억세겠어. 애는 20대 갓 넘은 장매야. 처음에는 이 아줌마가 질 리가 없지. 머리카락을 잡고 이놈아, 저놈아 하면서 니 놈 나이가 몇 살이고, 니 놈은 에이도 없나고 막 싸우는데 나중에 딱 한 마다에 이 아줌마가 기가 막 켜졌거든? 그제 뭐냐면 "이, 보지아!" 막 이런 거야. 이 아줌마한테, 너는 막 보지밖에 안돼. 그러니까 너의 나이나 연봉이나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지.

사소: 그럼 "이, 자지아!" 그랬어야 되는 데...

시비: 그 때는 차리리 눈 딱 깔고 "그래서 어땠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애.

물령: 그래.

시비: "그래서 내가 보지라는 게 너 어땠다는 거야?" 정말 궁금한 얼굴로 물어보면서...

모두: 하하하...



한강: 아, 끝내준다.

완장: 아니,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논리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일단 발발 발발한다고...

시비: 훈련을 해야 돼. 그래, 나도 못할 것 같애. 발발 발발가지고,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지.

완장: 근데 싸움은 진짜 훈련이야.

시비: 그러니까 남편이랑 싸울 때 훈련을 많이 해야 돼.

완장: 나처럼...

사소: 근데 남편은 "보지아" 하면서 나오지는 않잖아.

모두: 하하하...

물령: 근데 그렇지 않아? 맨날 남편만 당하잖아.

완장: 그래, 한 데서 당해가지구 집에 와서 남편한테만...

사소: 맞아.

물령: 우리의 실험용이면서 분노의 표출 구이면서...

지파: 모르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 말고 아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 얘기해 보지. 부부라든지, 친구라든지, 부모라든지...

시비: 선생님이 먼저 해보세요.

지파: 나는 화가 나면 입을 다무는 버릇이 있어서, 지파를 막 달았다고 생각을 해요.

완장: 여자들의 싸움 방식이 이거 같애. 그냥 막 달아버리는 거.

무서: 나는 끝까지 가는데...

물령: 누구하고? 남편하고?

무서: 남편한테 할 말 다해.

시비: 나도 할 말 다해야지 오만쯤이라도 할 말 못하면 자다가 일어나서라도 해야 돼.

물령: 그럼 다른 사람한테도 그래요?

시비: 난 그럴 것 같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름 뽑아야 돼서 병원에 갔었거든. 근데 이름 뽑고 있는데 나중에 간호사가 이름을 부르는데 차트가



바뀐 거야. 그래서 의사를
찾아서 항의를 했어요. 아
니, 병원에서 그런 실수를 하
면 어쩌냐고. 그거 잘못하면 큰일날 일
이잖아. 밀평한 이 폼을 수도 있고. 그래
서 끝까지 따졌어요. 사과 안 해가지고
그 과장 찾아가고 거긴 우리 남편하고 가
기는 했지만, 과장 찾아가서 딱 불러갖
고 사과 받았어. 끝까지. 근데 그 때 우
리 아들 꼭 물어쳐려 나 싸우는데 저쪽
에 가가지고, 모르는 척하는 거야.
무서: 울어?
모두: 하하하...
올보: 난 개 이해해.
시비: 나중에 "왜, 그러니?" 했더니 참피
해서 그랬대. 그래서 "그건, 아니다. 싸워
야 된다" 했더니 그래도 참피하대. 자긴.
지피: 맞아. 배라도 뺏으면 양장 뭘 거 콩
팜을 뭘 수도 있는 거야. 차트 바뀌면은...
시비: 글썽 아이예요. 당연히 사과를 했
어야죠.
물령: 자기가 보기에는 싸우지 않을 상황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싸움에 대한
판단 기준도 굉장히 주관적인 거 같은데.
시비: 근데 일단은 여자가 싸우면 림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해.
한강: 와!
물령: 그런 거 있다. 굉장히 똑똑한 조카
언니가 하나 있는데 동네에서 남자애들
이 여자애 하나를 뺏아 뒀다고 개를 희롱
하려고 그러는 거야. 동네를 이렇게 지나
가는데 여자애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
요" 막 이러구. 근데 그 때 언니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남자애들 틈으로 들어가
서 "어머, 너 왜 여기 있니?"
모두: 어~.
물령: "너 엄마가 찾는데 빨리 와" 이런 식
으로 동네에서 아는 애처럼... 그러니까
이제 싸움도 안되고 애들 딱 빼낸 거야.
완장: 너무너무 멋있는 여자다.
시비: 어머, 불러와!
완장: 지혜인 거 같애. 여자들이 알아두

면 좋은 지혜.
해봐: 근데 여자가 싸움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는 게 좋다는 게... 제가 방
송국에서 PD 사회를 보면 저희 같은 경
우 여자PD가 두 명밖에 없어요. 근데 막
싸울 때가 있어요. 진짜로 소리 높여서
욕하고 그러다가 상대가 "너, 여자지!"
이러면서 아한 말을 막 하면...
시비: PD들도 똑같구나. 남자들은 나쁜
놈들이야. 똑같애.
해봐: 그러면 그 언니가 "야, 해봐!" 하면
서 등을 벽에 기대요. "야! 해봐" 오히려
더 강하게 해요.
물령: 하하하...
시비: 근데, 무슨 말을 했길래...
해봐: 거기서는 PD들끼리 싸우는 거보
다는 보통 밑에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있
잖아요. PD들은, 그리고 거의 남자인데
움켜잡는 애들로 시작해서 거친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하고 싸우다 보면요,
발의발 욕도 다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래, 너 그렇게 해봐! 그렇게
자신 있으면 해봐!" 그러면 남자애들이
오히려 기가 막 쏘아서, 그 다음부터 그
소문이 퍼다하게 퍼져서...
물령: 재는 건드리면 안돼. 그런 거겠지.
난 진짜 그렇게 싸우고 싶어.
완장: 해봐 그래서 진짜 하면?
모두: 하하하...
시비: 못하지.
무서: 상상력이 너무 뛰어나.
시비: 남자들은 절대 못해. 그게 서질 없어.
지피: 쏘아서 못 서.
모두: 하하하...
사소: 대부분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싸우
는 거 보면 여자들은 싸우면서 "때려 때
려" 이렇게 나가잖아. 그 양태를 보면은,
남자들이 폭력적인 말과 동시에 "야, 씹
×년아"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완장: 왜 그거 있잖아. 너무 가까이 머리
를 대서 못 때리는 거. 그럼 "저리 좀 가
봐" 그러지.

모두: 하하하...
완장: 내가 막 들이밀면서 한 번 그랬더
니 "어떻게 때려, 여기다 갖다대면?" 팔
이 안 나가잖아 하더라구.
무서: 하하하... 못 때리게 하려고 일부
러 그런 거 아니야?
완장: 이걸 실행해. 애네 아빠가 그러더
라구. 하도 영기니까. 부부싸움 하다가
"때려봐 때려봐" 이랬는데 진짜로 때렸
어. 팔뚝을. 정말 아프더라구.
한강: 추억으로 맛있어?
완장: 응. 그 다음부터는 때려봐 소리 절
대 안 해. 워낙 아프기 때문에, "이제는
때려봐 소리 안하네" 그럼 "어우, 너무 아
파" 그래. 여기(팔뚝을 가리키며) 한 번
맞아갔구 여름에 가운뎃 입고 다닌 적 있
거든요. 애네 아빠도 놀란 거야. 맘이 또
잡 드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가 시커멓게
진짜 양이 들어오니깐 그걸 집에서 일부
러 보여주는 거야. 어떻게 반팔을 걸고
다녔다니깐. "이거 봐" 하면서.
올보: 완장이야.
시비: 그렇게 해야 돼.
완장: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때리고, 볼
때마다 미안해 죽겠는 거야. 난 악도 안
발랐잖아. 일부러 명 오레가라구. 계속
이러고 다닌 거야.
물령: 내 친구는 남편이 때렸는데 턱 돌
아갔잖아.
모두: 어머...
물령: 그러가지구 그 이밤에 병원을 여섯
군데를 갔대. 첫번째 병원에서 다 맞춰졌
는데 아직 안된 것 같대구. 이 병원 저 병
원 응급실 돌아다니면서 "저 남편한테 맞
았는데요" 이러면서.
모두: 하하하. 너무 웃긴다.
사소: 언제? 요즘에?
물령: 아니, 신혼 때. 여기저기 남편 끌고
다니면서 턱이 이상하다고...
완장: 너무 귀엽다. 한 번 맞으면 끝까지
갑 때까지 가서 버릇을 막 고쳐줘야 돼.
물령: 근데, 남들 볼 때 맞는 거는 진짜

억울하더라.
완장: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물령: 남들 앞에서 맞는 거는 개인적으로
개가 나한테 사과를 해도 이걸 씻어줄 수
가 없는 거야. 진짜.
포기: 결혼하기 전에는 오빠한테 맞는 애
들 되게 많거든요?
모두: 그래, 맞아...
포기: 제 친구 중에서 개는 어렸을 때 하
도 맞아가지구 대처방법이 없는 거야. 개
칼 들었잖아. 오빠한테 그랬어. "내가 너
한테 맨정신일 때는 악하다. 하지만 니가
잘 때 내가 너를 공격할 수 있다. 너 잘 때
문 잘 잠고고 자라" 너 죽어버릴 거라구.
감옥 가버릴 거라구.
물령: 어, 괜찮다.
모두: 와~.
포기: 그리고 나서 개가 부엌에서 뭐 하
잖아? 그러면 오빠가 문 잠구. 칼 들고 있
으면...
모두: 하하하...
물령: 상습적으로 손버릇 나쁜 애들이 있
나봐. 집에서부터...
한강: 우리 오빠는 나한테 맨날 얻어터졌
는데, 한 번 합기도 다니면서 이기려고
그러더라. 그래도 계속 맞았지.
물령: 근데 맞아주는 거 아니야?
한강: 아니요. 오빠 진짜 악해요. 저보다.
전 또 양이 있어서 절대 안 맞거든. 오빠
성격이 소심하고 아무나하고 안 싸우고
올어오 또.
완장: 여자에 같은 거네.
한강: 완전히 여자지. 아빠가 무슨 소리
하면 나는 뻔뻔하게 밥 먹고 있는데 오빠
는 울고 있어. 오빠도 좀 안스럽지. 우리
오빠가 바보되는 것 같네.
사소: 욕은 나쁜 거야? 어떤 거야?
무서: 나쁘지.
시비: 들어봐, 기분 되게 나쁘지.
물령: 일방적으로 하는 건 나쁜 거지. 아
까 얘기했던 것처럼 같이 할 때는 지지 않
게 하기 위해서 해야되는데.

시비: 여자들이 주로 욕을 안 배우고 자
라잖아.
물령: 하연 흔 나고.
시비: 그래서 요즘 10대여자 아이들이
욕 잘하는 게 어쩌면 다행이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령: 근데 욕 한 번도 안 써보다가 쓰니
까 어떤 때는 시원하더라.
완장: 어떤 욕을 써봤는데?
물령: 글썽 나는 꿈을 꿔도 고운 말을 썼
다니깐.
모두: 하하하...
물령: 심지어 여자동창끼리 너무 빈가와
서 이념아 그러면 되게 싫었거든. 그런데
남자친구랑 친하게 지내다 싸우게도 되
잖아.
완장: 싸움이야? 주제가?
시비: 애인과의 싸움.
물령: 근데 내 남자친구는 끝까지 한 마
디도 안 지고 다 캐서 날 잡아뜯는 거야.
아우, 뭐 이만 게 지나실고 그리고 너무
귀찮았어. 어쨌든시간에 애정에 금이 조
금만 가는 조금만 보이면 싸우는 거야.
애는 계속 싸움을 거는 거야. 양탈도 부
렸다가 울었다가 뭐 별짓을 다하고 싸움
을 계속 거는데 막 귀찮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애정이 되더라고. 계속 내가 욕을
들었어. 나는 뭐 허위위식에 가득 차 있
고 온갖 갑질이 있고, 말은 점잖게 하는
데 바닥은 너무 허위위적이고 정도 없고,
그렇다는 거야. 그걸 막 욕으로 하는 거
야. 소리도 막 지르고 그러면서 싸웠지.
그래서 이 개새끼야, 이 나쁜 놈아 발발
욕을 다 하면서 싸웠어.
완장: 발발 욕이라는 게 두 개네. 팔...
모두: 하하하...
한강: 나뻐어, 씨... 어떻게 자란 거야.
물령: 그 정도만 해도 감정이 훨씬 정확
가 되더라니까. 싸움의 방식이 냉전보다
열전이 낫다고 생각하고, 그 열전도 자기
가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도 여자
들한테는 필요하더라. 그 동안 갑질에 싸

여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 내가 아주 낯것
의 감정 같은 거를 막 하는 게 좋은 싸움
이더라.
물령: 싸움도 싸움 나름인 게, 그런 건 수
다로 막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나라 남자들은 소리가 너무 커서 내 소리
도 안 들릴 정도니까. 그런 때는 대화가
아니고 이걸 그냥 욕박지르는 거, 소리
크기 자랑하는 거지. 그럴 때는 진짜 열
받는 거지.
포기: 그런 남자들은 다 성대수술을 시켜
야 돼.
무서: 나는 언제부터인지 친구들과 싸우
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거든? 어느 때부
턴 친구들과하고는 안 싸워.
물령: 그래 그래. 친구와의 싸움, 그 얘기
좀 한 번 해보자.
무서: 친구하고 왜 옛날에는 질투하고 싸
우기도 하고 빠지면 화해도 해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언제부터가 상처 줄 말과 이
런 것들을 안 할래 그리고 서로 피하고 이
래. 그러면서 마음 속에 쌓이는 거 같애.
물령: 딱 벽을 쌓지.
무서: 나도 그렇거든? 왜냐면 같이 놀면
분명히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를 감내하
면서 화해해 나가면서 서로 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싸움 대상하고는 거리를 두
면서 점점 더 나쁜 사람들과고만 놀
러 그러고.
완장: 응. 나도 그래.
물령: 그게 사회생활이 힘든 거잖아. 조
직이나 회사나 어디나 그거 때문에 사람
들이 치이는 거잖아.
물령: 그래서 술자리가 있는 거잖아. 남
자들이 싸우고 술자리에서 풀고.
물령: 그러니까 여자들은 사회성이 없다
고 그러는 거야. 소심하다고 그리고 그런
굴이 생겨. 진짜. 그러니까 더 스트레스
받이지.
사소: 남자들은 그런 관계가 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 거의 그렇잖
아.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살 수 있잖아.

폴생: 근데 그게 어쩌면 여자들이 사회에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지.

사소: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고.

무서: 그게 논쟁문화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애. 심지어 대학교수들도 있잖아. 각각의 논문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해. 날 카로운 코멘트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두려움실한 문화야.

물령: 길거리에서 만나서 싸운 거야 미친 게 지나갔나보다 하면 되는 거고. 사실은 이런 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거 같애.

한강: 좋은 게 좋은 거더라는 말이 참 안 좋은 말인데.

시비: 안 좋은 말이야.

무서: 솔로 해결한다는 거 난 사실 술을 되게 좋아하거나 술문화도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나는 술에 취했을 때 말이 많아지고 다른 사람도 말이 많아지고 술 취해지잖아. 그런데 또 술문화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원장: 그런 댜 더 상처를 받지. 나는 지금 술 먹고 약간 풀어지고 현만함 할 말 다 하면서 솔직한 감정으로 다가가는데 너 술 먹고 하는 얘기니까 하면서 신뢰를 안 한다거나. '너 취했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 술자리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싫지.

시비: 그것도 다 훈련을 해야 되는 거 같애. 대학도 훈련하고 싸움도 훈련하고 배워야 되고. 한국여자들은 싸움을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애, 앞으로.

물령: 그 싸운다는 게 논쟁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비: 뭐든지. 논쟁도 마찬가지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자꾸 시비를 가리고 싸움을 거는 거를 자꾸 배워나가야지.

물령: 아니,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싸우는 것도 다 좋은데 오히려 싸우고 나서 뒷정리가 안 되는 게 더 많은 거 같애. 싸우

고 나서 그 때 내가 어떤 심정이었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았고 너의 말 중에서 사실 이 부분에서 화가 났었고, 이렇게 뒷정리가 되면 개하고 켄잡을 거 같은데, 대부분 싸우고 나서 보기 싫게 되지.

한강: "내가 그렇게 생각한대? 차..." 이렇게 되는 거지.

물령: 내 경험에는 어른이 돼서 싸웠을 때는 항상 뒷정리가 안된다는 두려움이 있어.

시비: 근데 싸울 때도 싸움 내용이 중요할 거 같애. 인신공격 하면 안되거든. 어떤 분명한 사실을 놓고 싸우면 감정이 그렇게 안 상하는데, 너는 인간성이 어떻게 하고 하면서...

사소: 여자들은 우선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대. 남자는 잘못을 상대방한테 넘기고,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게 아닌데도 혹시 또 내가 뭘 잘못 했을까 하고 걱정한대.

물령: 그러면 나는 이렇게 싸우고 싶다. 이런 거 없어?

사소: 난 사소한 거에 욕심 걸고 싸우고 싶어.

물령: 하하하, 사소한 것? 시장 아줌마처럼 싸워보고 싶다는 거지?

사소: 응. 딱 봤을 때 불평등하고 불공평하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을 때 진짜 막 삐뚤어지면서 싸워봤으면 좋겠어.

폴생: 나는 멋있게 싸우고 싶어.

원장: 어떤 게 멋있는 건데?

폴생: 가끔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싸우면 어떻게 되나면, 난 폴생폴생잖아. 싸우고 나서 그런 나를 떠올려봐. 내용을 떠올리는 게 아니고, 얼굴이 빨라나, 콧구멍이 벌름거렸나. 목소리가 어땠나...

모두: 하하하...

폴생: 난 항상 신경질이나. 내가 멋있지가 않았던 것 같애. 왜 있잖아. 멋있게 싸워가지고 누가 봐도 감탄하게.

물령: 예를 들자면 뭐 없어? 그렇게 멋있게 싸우는 게 있어? <모래시계>처럼 싸

우는 거?

한강: 차분하게 싸우는 거.

폴생: 아니야. 격양되게 정열을 다하면서 연기를 하더라도 딱 하는 거 있잖아. 싸움을 할 때 그게 집중이 되잖구 열정이 '딱' 터져갔구 막 카리스마를 뽐으면 서...

사소: 그래도 콧구멍 벌름벌름할 겁?

모두: 하하하...

폴생: 게다가 내가 기억도 못하게 그 순간에 내 목소리가 났겠는지...

모두: 몰라지경!

폴생: 그래, 몰라지경. 최중이 다 제압되고 싸움에서도 이기고.

무서: 나중에 싸우고 박수 받아, 딱...

한강: 여러분!!!

해박: 난 던지면서 싸우고 싶은데.

모두: 하하하...

지퍼: 베개나 쿠션 같은 거?

물령: <마지막 전쟁>에서 심혜진이 그렇게 던지면서 싸우는데 진짜 통쾌하더라. 나 던지면서 싸우는 거 싫어하거든. 드라마에서도 집어던지는 거 싫어하는데 그때는 진짜 시원하더라.

원장: 심혜진 그거 뭉치가 다쳐서 꼬였잖아.

사소: 남자들이 여자를 왜 때리겠어. 그게 얼마나 통쾌한 건데. 때리는 게.

폴생: 그리고 나서 속이 시원하니까 빌지.

사소: 나는 진짜 남편한테 대라고 그러잖아. 한 대만 때리게 해달라구. 한 대만. 딱 하면 얼마나 시원한대.

모두: 하하하...

폴생: 남자친구랑 해본 건데 그걸 확장시키고 싶은 거지. 그걸 체험하니까 너무 짜릿했거든? 아예에서 비가 막 오는데 비를 맞으면서 싸웠어.

원장: 진짜 좋았다.

물령: 완전히 폴생폴생이다.

모두: 하하하.

폴생: 아무도 없잖아. 비도 오지 빗소리가 너무 크니까 양대로 소리지를 수도 있

잖아. 자꾸 악을 울리는 거야. 요거를 써르고 저거를 써르고. 꼭 그게 괄호 열고 난 욕도 못하지 소리도 못 지르지 예뻐하는 거 같애. 그게 느껴져. 내가 감정을 잘 드러내. 비오는데 내가 점점점점 올라가서 소리를 막 질렀어. "아~" 하고.

물령: 너무 시원했겠다.

폴생: 응. 속 시원한 거야. 거기서 내가 막 때렸어. 막 머리를 쥐어막고.

올보: 난 호신술을 익혀서 낯선 남자와 싸울 때도 맞는 게 두렵지 않아서 싸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

시비: 아니 호신술을 진짜 익혀야 된다고 생각해.

원장: 호신술 안 배워도 돼. 마음만 그렇게 먹으면 돼.

지퍼: 나는 미친개한테 물리듯이 아까 같이 운전하다가 욕하고 덤벼들고 그랬을 때에는 그걸 이겨봤자. 진흙탕에서 싸워봤자 내 몸에도 진흙이 튀겨.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싸움에 안 밀려드는 게 제일 상책인 거 같애. 거기서 개한테 조금 이겨봤자 거기가 거기라구.

원장: 그래요?

한강: 근데 그 때 덤벼서 '야, 아줌마들 무섭네' 그럴 수도 있겠고, 저번에 어떤 교수가 차를 탔는데 여자애가 핸드폰으로 크게 떠들었다고 여자애를 뺐대요? 그래서 여자애가 때렸잖아. 이제 그 교수는 여자애들 안 건드릴 거야. 아무리 크게 떠들어도. 당한 게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여자애들이 계속 대응을 한다면 아마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무서: 그럴 거 같기도 해.

폴생: 근데 잘 싸워서 이기는 건 냉정하게 이기는 거려?

물령: 근데 어느날은 갑자기 왜 흥분해 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 왜.

원장: 난 흥분했을 때 말을 논리적으로 못하거든? 말을 버버버버 하는데, 제일 취약이 우리 남편이 한참 싸우다가 꼭 그래. "너는 논리가 안 맞아."

모두: 하하하...

원장: 이 논리라는 말이 정말 취약이야요. 내가 논리적으로 굉장히 취약하다는 의식이 있는 데다가 지금 굉장히 흥분해서 이말 저말 하고 있는데 논리가 안 맞아 그러면 "그럼 너 논리적으로 말해 봐" 그러면서 또 말이 안 되는 거야. 논리 갖구 한 두어 시간 싸워.

지퍼: 근데 싸움할 때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요? 서로 흥분했을 때? 그게 논리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 거 같애요. 왜 나만 이야기를 하다보면 저 쪽에서는 왜 할 말이 없겠어요. 방해하죠? 그러면 내 논리가 다 깨져요. 그럼 그 다음 말이 안 이어져. 그 다음에는 감정으로 가요. 그러면 알프리 갖고 주거나 받거나 하면 나중에는 진짜 할 얘기는 못 해가지고, 내 의사를 충분히 전하지 못해. 그래서 나는 감정으로 가면 글로 써요. 편지로. 그러면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었는지 전후좌우로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의사는 잘 전할 수 있어요.

시비: 근데 나는 부부싸움하면 다 해버려거든요? 있는 대로 그냥 다 터쳐버리고 나서 솔직하게 다 말해버려. 시어머니 문제가 나와도 "당신 엄만데 왜 그걸 나한테 그러느냐" 뭐 분명하게 얘기하고, 확실하게 그걸 다 해버려. 속에 있는 말 그대로 다 해버려요.

지퍼: 아니, 근데 중간에 대꾸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시비: 대꾸할 말이 없죠. 당신 엄마지 않나 하는데 그럼 맞지. 우리 엄마야? 자기 엄마 맞지. 그럼 할 말이 없지.

모두: 하하하...

시비: 기는 막히지. 기는 막히지만 논리적으로 할 말이 없지. 그거는.

한강: 가만히 있어가지 어떻게 하겠어. 자기 엄만데.

사소: 근데 집안일은 대부분 남자들이 잘못된 거잖아.

시비: 응. 논리적으로 싸우면 별로 할 말

이 없어.

사소: 그래, 할 말이 없어.

폴생: 그럼 남자들은 대체로 별로 싸움을 거는데?

시비: 사실은 여자들이 잘못을 적게 해. 남자보다. 여자들이 말을 잘해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야. 사실 남자들이 훨씬 부당한 이득을 많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포기: 가수 송대관이 맨날 하는 말이 자기가 정말 화나는 이유는, 자기 아내가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기 때문 이래.

모두: 하하하...

무서: 나는 내가 말을 막 하면은 남편이 가만히 듣고 있을 때가 많거든. 하고 싶은 말 다하고 나면 갑자기 남편한테 미안해지는 거야.

물령: 승리한 자의 겸손이야.

모두: 하하하...

시비: 승리한 자의 여유.

무서: 아니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확실하게 풀려. 쌓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들 하고도 그렇게 싸우면 관계가 더 순습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한강: 흠 있다 남여봐, 싸워보게.

사소: 부부관계에도 애정이 있으면 끝까지 싸우는 거 같애. 근데 애정관계가 종식었다 그러면 싸우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 때부터 존대말 써.

모두: 하하하...

시비: 오늘 진짜 싸움 얘기 많이 했다. 11

일러스트 난나





웃자!

유명 디자이너가 고위 공직자들의 부인에게 웃을 싸게 판매했던 이유

1. 그 부인들의 몸매가 디자이너로서의 도전의식을 고무시켜서 — 그들이 입어서 늘씬하고 우아한 웃을 만들 수 있다면 불멸의 명성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지.
2. 정가를 다 받으면 정치인들의 부패가 더 심해질까 두려워서 — 정치인들이 쏘들리면 결국 비리가 생기고 그것은 국민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나 하나 희생한 것이지.
3. 다음 개각 때 좋은 일 있을까 싶어서 미리 관리를 해둔 것이지 — 인사가 만사라면서.
4. 그래도 남는 게 있으니까 — 불황이니 워니 해도 늘 돈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

페미니스트에 대한 고정관념

1. 모든 남자를 불구대천의 원수로 삼정한다 — 나는 남자가 좋다. 남자가 없다면 도대체 누구를 씹으며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2. 이기적일 것이다 — 참으로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 이외의 존재에 대해 진정한 연대감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과 어린이가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3. 못생겼을 것이다 — 생긴 걸로 평가하지 말자. 남자가 돈 없고 권력 없고 정력 없다고 멸시받는 것은 그래도 낫다. 노력하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 잣대들이다. 게다가 실제로 당당한 여자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스스로 아름답다.
4. 모성애가 부족할 것이다 —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뻐한다. 별 걱정을 다해 주셔서 감사 할까?
5. 그들의 남편 혹은 애인들은 고생 깨나 할 것이다 — 모르는 소리. 스스로 페미니스트를 자처할 정도면 동등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것이다. 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매달리지 않는다. 생각해 보라. 부담이 덜어진 관계가 고생일지.

국회의원에 대한 고정관념

1. 지조가 없다 — 절대 아니다. 권력을 향한 일편단심은 충량이 부끄럽지 않다.
2. 전문성이 없다 — 결코 아니다. 선거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칼날을 비껴가는 데 누구 못지 않은 전문성이 있다.
3. 공부하지 않는다 — 무신 소리. 상대의 약점을 찾아낼 때는 발정도 설치하며 연구한다. 게다가 다양한 표현을 구사해서 상대를 험담음에 얼마나 많은 자극적인 어휘들이 필요한지 사람들은 모른다.
4. 하는 일 없이 세비를 축낸다 — 표결이 있을 때마다 하는 몸싸움이 어떤 건지 당신들은 모른다. 우리의 평균연령을 생각해 보라. 이 나이에 힘든 골프라도 쳐서 체력을 배양하지 않는다면 그 격렬한 정치활동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장담하건대 일반인들은 아마 하루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5. 입법활동보다는 정쟁에 더 열심이다 — 우리 나라 사람들 너무 법을 좋아한다. 법 만드는 게 능사는 아니다. 지금 있는 법도 다 지키지 못하면서 자꾸 법만 만들어서 뭐 하자는 거냐?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하루빨리 지양되어야 한다.

아줌마의 피해망상

1. 남편이 엉겨 붙으면 내가 화장실이나? 남편이 피하면 이제 흥미 없다 이거냐?
2. 자식이 보이면 내가 니 종이나? 자식이 친구들과의 교제에 바쁘면 그래 다 컸다 이거지?
3. 식당에 가서 종업원이 주문 받으러 안 오면 내가 없어 보이냐? 종업원이 썰매게 달려와 주문을 받으면 안 먹고 그냥 갈까봐서?

난영

어떤 맞선

난나의세계상 2





적의, 왕비의 혼례복이기도 했다.



한국의 혼례복

혼례의 방식이나 절차는 본래 각 나라마다 고유한 풍속을 지니고 있으며 혼례의상 또한 민족색이 짙게 표현된 민속복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요즘의 결혼의식은 우리의 혼례풍속 뿐만 아니라 신부의 혼례복마저 유럽식의 웨딩드레스로 탈바꿈시켜 놓은 지 오래다. 물론 옛 혼례의상이 요즘에도 폐백시에 신부가 입는 의상으로 남아 있긴 하다.

사실 서구의 웨딩드레스에 비해서 전통혼례복의 경우 그 의상의 명칭이며 의미가 무척 어렵게 다가오는데 이것은 우리의 옷 명칭이 대부분 어려운 한문으로 표기되어 있고 또 지금은 거의 입지 않는 특수복으로만 남아 있기 때문이 아닐까.

양과 음이 만나는 시간 혼시(昏時)

지난호에서 웨딩드레스를 설명할 때는 결혼이라는 단어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했는데 이번엔 혼례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조상들은 남자가 장가든다는 뜻인 혼(婚)자와 여자가 시집간다는 뜻인 인(姻)자를 써서 예로부터 혼인(婚姻), 혼례(婚禮)라는 말을 썼다. 또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일을 양(陽)과 음(陰)이 만나는 것으로 여겼기에 혼인을 치르는 시



뒤 1938년 당시의 전통혼례 모습.
긴 비녀에 도투박당기가 인상적이다.
아래 활옷을 금계 차려입은 신부,
소매끝의 흰 한삼에 놓여진 수가 곱다.

전통복식에는
옷 그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염원과 철학과
미신적 요소가 아울러
담긴 것이
특징이다.

간을 양과 음이 만나는 저녁시간 즉 혼시(昏時)가 적절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식은 주로 저녁에 치러졌다. 그리고 날저물 혼(昏)자를 써서 혼례(昏禮)라 하기도 했다. 우리 나라 헌법이나 민법에서는 아직까지 혼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결혼식, 결혼선물, 결혼피로연 등과 같이 우리는 결혼이라는 말을 더 애용하고 있는 듯하다. 명칭만으로 서두를 너무 길게 늘어놓은 것 같다.

나쁜 일은 빠저나가라고 삼베로 만들어

여자들이 그 어느 날보다 혼례 때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꾸미고자 했던 건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아래 위가 하나로 연결된 웨딩드레스에 비해 우리의 전통혼례복 차림은 저고리, 바지, 치마 형태의 속옷을 꺼입은 뒤 위는 겹옷에 해당하는 삼베장 저고리를, 아래는 금박단을 댄 넓은 폭의 대란, 스란 치마를 입었고 혼례복에 해당하는 '활옷'과 '원삼'을 덧입었다. 원래 활옷과 원삼은 왕비나 공주, 왕주의 대례복으로 널리 입혀진 상류계급의 의상이다. 이같이 왕가여인들의 의상이 조선 후기에 와서 서민들의 혼례복으로 허용된 것이다. 평소 흰색과 같은 무색의 의상만을 입던 서민여성들은 시집갈 때 비로소 화려한 색상의 의상을 처음 입게 되었는데 패션의 상향지향적 심리가 이 당시도 이렇게 충족될 수 있었던 것이다.

활옷과 원삼의 특징을 살펴보면, 둘 다 소매통이 굉장히 넓고 본래의 팔길보다 훨씬 길었으며 소매 끝에는 색동과 백색의 한삼이 대어 있다. 길이는 치마길보다 짧아 치마단의 화려한 금박이 겹으로 드러나 보였다. 허리보다 조금 위에 금박의 문양이 있는 대(帶)를 띠 모습도 예쁘다. 활옷에는 부부애와 장수, 복을 기원하는 어성지합 백복지원(二姓之合百福之源: 남성과 여성의 합이 만복의 근원이자), 수여산부여해(壽如山富如海: 산과 같이 오래 살고 바다같이 부귀하라)라는 덕담이 쓰여지고 불로초, 산, 바위, 물결, 동자, 연꽃, 모란, 나비와 같은 자연의 무늬와 문양이 색실로 곱게 옷 전체에 수놓여 있다. 이같이 전통복식에는 옷 그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염원과 철학과 미신적 요소가 아울러 담긴 것이 특





홍관삼, 양어깨와 가슴 중앙에 보(補)를 댔다.
주로 궁중여인들의 대례복으로 입었다.

징이다. 나쁜 일은 모두 빠져나가고 시원하고 좋은 일만 있으라는 의미에서 겨울철에도 위에 입는 속적삼을 삼베와 모시 같은 시원한 여름소재로 만들어 입었던 것도 재미있다.

활옷과 원삼 등은 사실상 궁중의 의상인 데다 비단소재에 자수금박을 댔 고가의 의상이었기 때문에 서민들에겐 혼례의상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결국 서민들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를 마련하여 서로 세내 입거나 집안 단위로 한 벌을 마련해 두고 대대로 전해 입었다. 웨딩드레스의 비용이 만만치 않아 드레스를 맞추는 아내

하느나 맞춤입대나 하는 식으로 가격을 조절하는 요

즘과 마찬가지로였다.

청실홍실은 예로부터 결혼을 뜻하는 색상이었다.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을 우주원리와 사상체계의 중심으로 삼았던 우리 민족은 이를 근거로 한 색채관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청색과 홍색을 대비시키는 것이 기본이었다. 울긋불긋 고왔던 원색의 우리 혼례복에서도 새하얀 웨딩드레스에서처럼 신부의 순결함과 청아함이 느껴진다. 색상이 갖는 의미도 의미지만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의 모습이 보기 좋은 것이다.

개화기, 한복차림에 면사포

전통 혼례의상과 한복은 개화의 물결 속에서 서서히 서구 패션의 영향을 받으며 서구화되어 왔다. 혼례의식도 점차 간소화해 서구식의 결혼풍속이 신여성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특히 혼례복도 단순화 경향을 띠게 되면서 수수한 한복차림에 서구의 면사포와 베일을 착용하고 혼례를 치르게 된다. 당시 여성들의 헤어스타일도 비녀 찢은 생머리가 아닌 꼬불꼬불하고 짧은 파마머리가 유행했다.



민가의 전형적인 혼례복.
모아든 손 위에 흰색의 천을 한 번 더 올렸다.

서민들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마련해 서로 세내 입거나 집안 단위로 한 벌을 마련해 대대로 전해 입었다.



1935년경의 결혼식 장면. 흰색의 한복차림에 머리에는 화관을 썼다.

1930년대, 새로운 의례준칙이 선포되어 모든 관혼상제가 더욱 간소화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한복개량운동과 더불어 한복을 예복으로 간소화시켜 착용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다. 일상복으로서의 한복이 점차 양장에 밀려

사라지게 되자 예복으로나마 한복을 유지시켜 보자는 의도에서였다. 요즘의 한복도 생활복으로 서보다 특별한 날 입는 예복으로서의 성격이 짙다. 해방에서부터 70년대까지의 혼례의상을 살펴보면, 흰색 비단 치마저고리에 흰 너울, 즉 면사포를 쓴 차림이 보편적이었다.

남자의 경우, 양복화와 단발령의 영향으로 흰색 와이셔츠에 흰 타이, 흑색 모닝코트와 양복바지가 신랑복의 대표적 형태였다. 그리고 웨딩드레스에 면사포를 쓰고 손에는 흰장갑을 끼고서 하얀 백합꽃을 든 신부의 모습도 연이어 등장하게 된다.

웨딩드레스에 비해 우리 고유의 전통혼례복은 이같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 발전하지 못했다. 개화라는 큰 사회변동 속에서 우리 것이 아닌 서양복이 모든 것을 대신하게 되었고 이로써 우리의상은 더 이상 다양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이다.

옛 것 그대로를 확인해 보고 싶다면 단국대 석주선박물관이나 경복궁의 국립민속박물관에 가보자. 디자인의 지혜로움과 색상의 아름다움, 제작기술에 절로 감탄하게 될 것이다. ■

이재진

대구 효성가톨릭대 의류학과 졸업,
일본 오사카모드학원 졸업,
파리 에스모드 수료,
숙명여대 의류학과 대학원 재학중이며
프리랜서로 패션관련 활동중.



BIBIDY 가 섹슈얼리티 문화 계간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역사발굴
신라의 화랑엔 게이가 있었다
가상현실
이성애 순애보강경구소공
인간애 뜨는 황어영화
정오년 까탈을 방조하는 교과서를 뒤집어라
이성애 순애보강경구소공
나는 왜 동성애를 원할까

8월 25일 버디 16호
(가을호)가 발행
되었습니다
전국 유명 서점에서
만나세요

특집 동성애 이미지의 성공시대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는 죽는 다
순물 산부인각에 게이 커플이 있다구?
30~40대 레즈비언 커플 탐방기
- 행복은 이성애순이 아니잖아요
교사일지 선생님 우린 목졸리게 아니예요
햇이슈 자살을 방조하는 교과서를 뒤집어라
역사발굴 신라의 화랑엔 게이가 있었다
인터넷 따지일보 동성애를 까발려라
버디이벤트 쿼어 영화 신촌에 떴다
- 버디주최 정기쿼어영화상영회(3개월간 계속)

예약판매(11월 발간 예정)
레즈비언의 사랑,
건강 그리고 섹스
(이책은 서점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버디 편집부로
Tel: (02)706-5196

오늘도 엄마는 비자금을 꿈꿀까?



엄마들의 비자금 유형은 놀랍게도 똑같다. 그것의 수입원도, 쓰임새도, 그리고 그 결말도.
심지어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만의 돈을 갖고 싶어하는 여성의 열망조차 똑같다.
비자금 주머니에 담긴 여성들의 희망과 행복과 절망의 한숨소리를 한 번 들어보자.

다음 11호 주제는 엄마의 '가지 못한 길'입니다. 분량은 원고지 7매로 써주시고,
채택된 분에 한해 1만 원권 도서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추락하는 비자금엔 날개가 없다!

“아, 나 어디 갔다온 줄 아냐?”

평상시보다 두 옥타브는 올라간 상기된 목소리로 엄마가 전화를 했다. 엄마의 들뜬 목소리에 이끌려 나는 인사도 뒤로 한 채 “어디 갔다왔는데?” 하고 물었다.

“여성단체 세미나에 1박2일간 갔다왔는데 겁나게 재밌더라. 세상에 왜 그렇게 똑똑한 여자들이 많더냐... 서너 시간씩 강연을 들었는데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듣고보면 구구절절 다 옳은 얘기만 하더라.” 엄마는 숨도 쉬지 않은 채 수영장에서 만난 친구가 주선을 해서 한 여성단체의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아무개 박사, 아무개 의원, 아무개 장관, 아무개 회장 등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여성계 인사들의 강연을 듣고 신나는 음악에 맞춰 캠프파이어도 하고, 하루종일 물릴 만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보내 1박2일의 세미나 일정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끝에 엄마는 이렇게 말한다. “나도 배우기만 했으면...”

엄마는 내가 봐도 참 아까운 여자다. 좀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했다라면, 혹은 좀더 ‘똥똥한 남자’와 결혼했다라면 엄마 말대로 ‘한 자리’ 하고 있을 재목이다. 지금은 골다공증 때문인지 키가 많이 줄었지만 한때 우리 엄마는 늘씬한 키에 수려한 외모로 동네에서 눈에 띄는 예쁜 아줌마였다. 뿐만 아니라 사교력도 뛰어났고, 리더십도 있어서 늘 엄마를 중심으로 친구들이 모였다. 엄마 나이 삼십대 때 엄마는 정말 잘 나갔다. 엄마 나이보다 10년, 20년 더 많은 아주머니들을 ‘거느리며’ 계모임을 여럿 이끌었다. 친목계, 반지계, 혼사계 같은 소규모 계에서 시작해 천만 원대에 이르는 대규모 무기성 계모임까지 꾸려나가며 엄마의 활동영역은 넓어졌다. 엄마의 지갑에는 늘 돈이 많았고, 덕분에 우리 형제는 먹고, 입고, 쓰는 데 있어 풍족했다.

그 시절 우리 엄마의 생활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세무반코르다. 엄마는 25년 전 그 때 돈으로 30여만 원에 이르는 세무반코르를 딱하니 맞춰입었다. 진한 갈색의 보들보들한 세무코트를 걸쳐 입고 허리에 벨트를 질끈 묶고, 칼라깃을 세우고 나서면 세상에 그런 멋쟁이가 없었다(그 세무코트는 이제 내가 입고 다닌다). 아빠가 버는 돈에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아빠에게 사업자금을 대주던 엄마가 큰소리를 치는 것은 당연했다. 아빠와 싸움을 한 판 하고 나거나, 우리가 말썽을 피운다 싶으면 엄마는 “자식도 소용없고, 남편도 소용없다”며 “내 인생은 내 것, 니그들 인생은 니그들 것”이라고 말해 왔다.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버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훨훨 날아갈 것만 같아 보였던 엄마의 두 날개가 똑 잘려버린 듯한 느낌이 든 것은 내가 고등학교 2학년 즈음이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가 주방 한쪽에 꾸그리고 앉아 마늘을 까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알고 있는 엄마는 그 시간에 그런 모습으로 주방 구석에 앉아 마늘을 까고 있을 사람이 아니었다. 엄마! 하고 뛰어들어가려다 나는 멈칫했다. 엄마의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였다. 엄마에게 뭔가 아주 중대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알고 보니, 아마도 기천만 원대로 기억되는 큰 계를 하다 누군가 계돈을 타고 도망가 계가 깨지고 그 빚을 고스란히 엄마가 떠맡게 되었던 것이다(계모임을 하는 여자들의 고정 레퍼토리!!).

엄마의 어깨가 것처럼 처진 것은 계가 깨져 빚을 떠안게 되었다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다. 엄마에게 계모임이라는 것은 직장과 같은 거였다. 거기에는 엄마의 직장동료들이 있었고, 때만 되면 일정한 액수의 금액이 엄마에게 돌아왔다. 엄마의 모든 자신감은 바로 그것으로부터 나왔던 것이다. 계가 깨짐으로 해서 엄마는 직장을 잃었고, 동료들을 잃었다. 엄마는 돈 몇 푼 못 받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십수 년 쌓아온 관계를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리는 수많은 친구들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더 끔찍 앓았다.

그 사건 이후 엄마의 활동영역은 급속히 축소되었고, 엄마 발에 따르자면 “세속의 삶”을 버리고 “종교적인 삶” 속으로 들어왔다. 엄마는 더 이상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 후로는 변변한 겨울코트 한 벌 없이 지냈다. 그렇게 10여 년이 흐른 뒤에 5년 전 나와 동생이 맘을 먹고 6개월 할부(밍크틸이 짜 — 악 둘러져 있어서 당시 내 월급에 오십 만원을 더 보태야 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비쌌다)로 엄마에게 무스탕코트를 한 벌 사드렸다.

엄마는 기뻐했다. 그런데 나는 자식들이 사준 무스탕코트가 주는 기쁨이라는 것이 그 옛날 엄마가 직접 사입었던 세무코트에서 느낄 수 있었던 자신감에 비해 더 나은 감정일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이 옷만 입고 나가면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도 부잣집 마나님 소리를 듣는다”며 우리가 사준 무스탕코트를 애지중지하지만, 그 옷을 입고 나섰을 때 엄마의 뒷모습에서는 그 옛날 세무코트를 입고 나서던 엄마의 뒷모습에서 느껴졌던 위풍당당함이나 자신감은 찾아볼 수 없다.

“아!!” 여성단체 세미나에 갔다온 엄마의 흥분된 목소리가 아직 전화선을 타고 들려오고 있었다. “난 네가 여성 미시기 한다가에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지 몰랐는데, 세미나 갔다오니가 좀 이해가 된다. 너도 여기 내려와서 여성단체에서 일하면 안되냐? 그럼 한 자리 할 텐데...” 엄마에게 여성단체에서 만난 여성들은 자신만을 위한 비자금 주머니를 단단히 틀어쥐고 있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엄마는 당신이 이미 오래 전에 잃어버린 그 주머니를 평생 지키고 사는 여자들에 대해 부러움을 넘어서 경외심까지 내비쳤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고스란히 내게 이입되고 있었다. 나는 꼭 만주머니 차고 살리라, 그리고 그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오부들(32세, 자유기고가)

그 때 그 동전들은 따뜻했네

우리 엄마는 재테크에 서툰다. 한푼두푼 아껴 알뜰살뜰 모으는 제주도, 문어발식으로 이런 저런 계를 늘려가면서 목돈을 만들어가는 융통성도 없다. 아버지 한 분의 수입에 온 가족의 생계와 우리 형제들의 교육이 달려 있던 시절, 어디선가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정확하게 지출해서 살림을 ‘무사히’ 꾸려나가는 것이 엄마의 유일한 테크닉이었다.

그런 엄마에게 30년 동안이나 계속되어 온 비자금이 있었다. 모이기가 무섭게 빠져나가느라 한 번도 목돈으로 키워보지 못했고 겨우 불량식품 하나 사먹을 정도의 적은 액수가 대부분이었지만 ‘온밀하게 조성되고 전달된다’는 점에서 엄연한 비자금이었다. 콩나물값을 깎아 만든 50원, 100

원에서 가게는 당산을 위해 살 물건을 싸구려로 대신
하고 남긴 몇천 원, 심지어 10원짜리까지 엄마
의 비자금 주머니는 늘 수많은 동전들로 찼다.

저녁 무렵 엄마의 시장바구니엔 그 날 저녁
밥상에 오를 반찬거리 말고도 나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호떡(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호떡 한 장이
20원이었다)이나 동전 몇 개가 숨어 있었다. 신문지로 둘둘 싼 다 식어버린
호떡 하나라도 받는 날엔 언니나 동생이 볼세라 얼른 삼키고는 냄새를 날리느라
공중에서 손을 휘휘 저어졌고, 동전이라도 한두 개 몰래 쥐어주시는 날엔 주머니에 며칠을 넣고
다니면서 행복해했다.

대학 졸업 후 떨어져 살면서도 나에게 대한 엄마의 동전특혜는 계속되었다. 시골집에 갔다가 상
경하는 날, 나를 배웅해 주시는 엄마의 손엔 늘 동전주머니가 들려 있었다. 500원짜리로만 골라
한참을 주시고도 "여기, 이것도 가져가라" 하고 계속해서 동전을 내미신다.

동전을 꺼내느라 분주한 엄마의 손놀림을 보고 있다면 '그만하시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어
차피 엄마의 동전특혜는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참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저만
치서 나를 향해 질주하시는 엄마가 보인다. 엄마가 왜 질주를 하시는지 알면서도 나는 짐짓 모르
는 척 시침을 뚫 댄다.

"왜, 엄마? 내가 뭐 놓고 왔어?"

"아가, 이거 갖고 가서 맛있는 거 사먹어. 응?"

이미 양쪽 주머니가 터질 지경인데 엄마는 기어이 동전을 쥐어주신다. 급하게 챙기셨는지 이번
엔 100원짜리도 많아 보인다.

"엄마, 쓰세요. 이것도 많아."

두세 번에 걸쳐 쥐어주고서야 발길을 돌리시던 엄마가 이제는 흰머리가 성성한 할머니가 되었다.
어제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께 다녀왔다. 그런데 이제 엄마는 더 이상 비자금을 만드시기 않는
것 같다. 아니, 생각해 보니 결혼하고 나서는 엄마의 비자금 혜택을 누려보지 못했다. 설마 남편
이 엄마의 보살핌을 대신해 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걸까(남편은 내 보호자가 아니건만 그런
생각이시라면 정말 섭섭하다)? 주머니 가득 동전을 담아 돌아오는 날엔 늘 가슴 뭉클했는데...

어쩌다 엄마에게서 받는 동전 몇 개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돈의 전부였던 어린 시절, 엄마와 나
사이에 온밀하게 이루어지던 특별한 의식, 서울에 도착해서까지 아직 엄마의 체온이 남아 있던 따
뜻한 동전들, 바지주머니가 미어지도록 꼭꼭 눌러담아 주시던 엄마의 그 비자금이 너무 그림자.

이남경(31세, 광고기획사 근무)

엄마와 나의 경제학

우리 엄마의 평생 화두는 '돈'이다. 칠순을 바라보는 지금 아직도 밖에 나가면 50대란 소릴 듣
는 엄마. 그 뿔뿔 뛰는 생명력의 원천도 어쩔 지칠 줄 모르는 돈에 대한 애착 때문은 아닐까.
엄마의 욕구불만은 아주 어릴 때 비롯됐다. 남녀쌍둥이였던 엄마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포대기
에 얹혀졌으나 그래도 사흘 내내 살아남아 세상별을 구경할 수 있었고 그 후로도 번번이 여자쌍
둥이라는 이유로 집안의 주요 대사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엄마는 공부를 잘 했지만 늘 최
인처럼 학교에 다녔고 졸업 후 교편을 잡아 집안을 건사했지만 노처녀가 될까 전전긍긍하다 소문
이 두려워 한 번 선 본 사람과 혼인을 해야 했다.

그래서일까, 엄마는 항상 말이 많았고 불만이 많았고 늘 무언가를 찾아해매는 사람처럼 보였
다. 나는 그런 엄마가 못마땅하고 불안해서 어려서부터 엄마를 싫어하고 멀리했다. 우리 삼남매
가 엄마를 어떻게 대하든 말든 엄마는 악착같이 살림을 일구었다. 얼마나 알뜰하고 극성이었으면
내가 7살 무렵 유리컵을 하나 깨뜨리고 엄마의 야단이 두려워 기절을 다 했을까.

그런 엄마의 성화에 열심히 따라준 것은 그지없이 착하신 우리 아버지였다. 직업군인이던 아버
지는 엄마의 독려에 따라 전국으로, 월남으로, 퇴역 후엔 중동으로 돈이 더 벌리고 일이 있는 곳
이면 어디든 갔다. 내가 20살이 될 무렵, 우리 가족은 드디어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에 자리를 잡았
고 엄마는 사방에 전화를 하며 인생의 승리를 자축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엄마의 욕심은 거기
서 그치지 않았다. 엄마는 또다시 부동산 근처를 기웃거렸고 투자를 한다며 사기꾼에게 걸려 재
산을 거반 날리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아버지는 머슴이었고 방관자였다.

이제 엄마는 퇴직군인으로 연금을 받는 아버지에게 품착없이 쥐어사는 신세다. 더욱이 젊은 시
절 엄마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던 온갖 재테크의 실패는 엄마를 더욱 눈치꾸러기로 만들고 말았
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다. 엄마는 언제나 아버지에게 큰소리를 친다. "아니, 내가 그렇게 정신없
이 돈 날릴 때 당신은 뭐했수? 따로 비자금이나 모아둘 일이지."

반면 이렇게 뻔뻔한 엄마 밑에서 자란 내 경우는 어떤가.

남편은 내가 탄주머니 차는 것을 끔찍히 싫어했다. 내가 8년간 벌어들인 월급은 몽땅 그의 통
장으로 들어갔다. 나는 처음엔 그게 싫어서 따로 경제권을 갖자고 했다. 나로서는 그게 탄주머니가
아니라 당연한 재산분리이건만 그는 그걸 여러 이유를 대며 막았다. 집을 사는 데 빚이 많았다.
내가 이걸 관리하는 것이 당신에겐 훨씬 편리할 것이다. 왜 날 믿지 못하느냐... 그러다 그의 재
테크 방식이 슬슬 못마땅해지기 시작했다. 한 마디로 끝없는 차입경영이었던 것이다.

둘의 월수 400만원쯤이면 집도 있겠다, 자식 하나 달랑 풍족하게 키울 수 있겠는가, 도대체 뭐
에 걸신들려 막지를 사질 않나, 끝없이 대출을 받지 않나, 그러난 말이다. 내가 그런 문책을 제기하
면 그는 딱하다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그럼 니가 이거 다 운영해 봐. 나도 이런 거 하기 정말
끌쳐 아파." 그러면서 내민 그의 관리장부는 그야말로 규모만 작았지 한 회사의 회계업무 만큼이
나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고 월급을 갖다바쳤다.

간혹 그의 가족들이 이런 충고를 했다. "올케도 집안경제에 관심 좀 가져봐. 혼자 신경 쓰는 게 안쓰럽지도 않아?" 나는 그런 말들을 모른 척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외쳤다. '경제관이 달라요. 난 저 사람 하는 것 바라보기만 해도 힘이 드는 걸요.'

우리 사이는 점점 벌어졌다. 그는 계속 빚을 내 집을 계약했다. 그리고 경제환란이 닥쳤다. 중도금을 낼 수 없어 집 두 채가 날아갔고 그는 빚더미에 올랐다. 평소 그가 경제관념이 없다고 잘 보던 선배부부는 현금을 은행에 착실히 넣어두어 아무 손해도 입지 않았다.

남편이 끝으로 이런 말을 하자 나는 조용히 그와 헤어질 결심을 했다. "파로 모아둔 돈 좀 없어요? 그럴 때야말로 그런 게 필요한 거야."

지금 나는 혼자가 되었다. 그런데 남편은 내가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까지 관리하다 폭 그만큼 만 위자료로 지불했다. 이유는 그의 파산 때문이었다. 앞으로 내가 살면서 벌어들인 돈을 회수할 가망은 전혀 없다. 그런데도 그는 천연덕스럽게 아이의 양육비를 들먹거린다. 나는 그 과정에서 뼈저리게 후회를 했다. 왜 악착같이 분리경영을 주장하지 않았을까 하고, 왜 물래라도 내 몫을 챙기지 않았을까 하고.

이숙경(38세, 회사원)

희생이라는 이름의 비자금

비자금? 말 그대로 비밀스런 돈으로 세간에선 말 많고 탈 많은 돈이다. 그러나 결혼한 사람이라면 한결같이 없어서는 안될 것으로 간주하는 돈! 그 비밀스럽고 은근한 돈이 우리 엄마에게도 꼭 한 번 있었다.

우리네 어머니들이 그렇듯 우리 엄마도 모성신화를 간직한 분이셨다. 자식과 남편을 위해 자신의 많은 부분을 희생하는, 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셨던 어머니. 하지만 딸인 내겐 "여자라고 해서 뒤지지 마라", "네 밥벌이는 내가 해라", "보다 전문성 있는 직업을 선택해라" 같은 말을 해주셨을 만큼 꽤나 건취적인 분이셨다.

그런 엄마가 어느 날부터 경제력을 갖게 되셨다. 애들 교육비 때문에 팔을 걷어붙이신 터라 작은 가게였지만 악착같이 불려나가셨던 엄마. 그 덕에 힘들지만 나와 동생은 원하던 음악과 미술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철이 없기도 했지만, 고3 시절 한사코 집에 있기를 원하는 딸 때문에 가게를 그만두신 엄마. 그 뒤론 허리띠 졸라가며 동생 공부를 시키셨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대학 4학년 때 일이다. 갑작스런 사고로 집안형편이 무척 어렵게 되었다. 당장 동생과 내 등록금이 막막했고 처리해야 할 돈도 산더미였다. 그때 엄마만 똥가 결심한 듯 통장 하나를 내놓으셨다. 현금 500만 원. 나중에 안 일이었지만 그건 엄마의 비자금이었다. 하지만 당시엔 누구 하나 묻지 않았던 것 같다. 궁금해 할 새도 없이 급한 불부터 꺼야 했으니 말이다. 그 돈은 하루를 가지 않았지만 어쨌든 어려운 고비는 넘겼다. 엄마의 비자금을 난 그때 처음 보게 되었다.

모을 때의 세월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짧았던 순간, 그건 허무함이었을 것이다. 당신 자신을 위해 써보고 싶었을 그 돈, 그 돈은 또 하나의 희생으로 끝나버렸다. 난 말했다. 당연히 가족을 위

해 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그건 절대 아깝지 않을 거라고...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생각이 얼마나 이기적인 발상이었는지 난 안다. 헌신적인 어머니상에 엄마의 삶을 끼워 강요하는 지배논리. 그것이 내 속에 있었던 거다. 나 또한 그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할 여성임을 왜 몰랐는지...

그 사건 이후 엄마 참 많이 달라지셨다. 무척 강해지셨고 희생이라는 이름으로만 살진 않으신다. 누구의 엄마로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내세울 줄 아는 여성이 되신 것 같다. 이젠 당신을 위한 투자는 물론 당연히 자신의 몫도 요구하시는 엄마! 참 모르겠다. 너무나 당연한 걸 왜 이제까지 생소하게 느꼈던 건지...

이제 난 조금씩 알아간다. 엄마를 한 인간으로, 한 여성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그 당연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바람직한 것인지. 또 딸로서 그 모습을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비록 그 한번의 비자금까지 자식들에게 돌아갔지만 그 돈을 통해 엄마 잃었던 자아를, 잃었던 여성을 되찾으신 것이다. 어쩌면 지금도 또 하나의 비자금을 꿈꾸고 계시지 모르겠다.

박선형(26세, 방송작가)

강동계좌의 비극

요 몇 년의 집안 경제상황은 무참할 따름이기에 능력없고 이기적인 딸자식에게 '어머니의 비자금'은 불편한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 툭툭툭툭 꾸준히 무너져오던 재정 사정, 이 즈음은 순전히 어머니가 변통하는 돈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 어머니와 직접 대화해 볼 시도는 전작에 포기하고 그저 눈치로 더듬더듬 글을 쓰는 형편 역시 서글프다. 걱정과 위안을 나누는 인터랙션이란 태고적에도 존재한 적 없었던 듯 냉랭한 모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데다 어머니가 최근 들어선 돈문제에 있어 극도로 히스테릭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내 코가 석자요' 하며 전혀 힘을 보태지 못하고 있는 불효막심함이 현재 내 모습 아닌가.

어머니는 전업 가정주부. 명문대를 졸업하고 경제연구소라는 번듯한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 결혼과 동시에 직업 등 일체의 사회활동을 '정지' 하셨다. 가사·육아의 문제, 유복한 환경도 그에 작용했겠지만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는 건 '품위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한 어머니의 보수적인 사고가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다. 처음 어머니가 비자금을 조성하던 방법이나 목적은 안락함을 최선의 미덕으로 추구하는 당신의 성향과 궤를 같이 했던(할 수 있었던) 절로 기억한다. 생활비에서 조금 떼어두거나 친척·친구들과의 갯돈, 생일이나 명절 때의 축하금 등을 모아두는 무난한 방법을 이용하셨던 것 같다. 돈이 어느 정도 마련되면 가구나 전자제품의 교환 등 절실하지 않으나 즐거울 수 있는 사용처에 돈을 쓰셨다.

어떻게 주식투자라는 적극적인 전문적인 재테크를 모색하게 되었는지의 연유는 정확히 모





르겠으나 내가 중학생 때쯤 어머니는 증권에 한참 열중하게 되었다. 처녀적 직장환경이나 당시 증시상황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주식투자가 어머니의 치밀하고 용의주도한 성격과 궁합이 잘 맞았던 것 같다. 어머니의 재테크를 무조건 불신하고 반대하는 아버지 몰래 당신은 야단스럽지 않은 선에서 증권뉴스를 쟁겨 보셨고 지인들에게 조언도 구하셨다. 만족스러운 결과로 돈 드는 이런저런 대소사에 윤기있게 대처할 수 있었던 몇 년째었나? 어머니는 그 유명한 쌍봉계좌의 비극을 체험하게 되었다. 투자상담가의 실수가 명백한 부분이 있었던지 변호사가 동원되는 소동으로 최소한의 투자금은 회수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가 재테크에서 손을 떼실 충분한 이유가 되었던 듯하다. 어쩌면 큰 돈을 굴릴 수 없게끔 그 때부터 비실거리던 아버지의 경제적 무능력도 어머니가 더 이상 개인적인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게 거들었던 것 같다.

형편이 유복했던 박복했던 간에, 또 비자금이란 생활비든 간에 어머니에게 있어 돈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가족과 가정의 한계에서만 유용했어야 했다. 자기중심적인 면모가 유난스러울 정도로 분명한 분임에도 자신을 위해 맘 편히 돈을 '낭비' 할 수 없다는 강박관념이 있으셨던 거다. 차별, 인색함, 무신경, 무관심... 내가 불만 가득히 정리하고 있는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결국 자식으로서의 유대는 그래서 지속될 수밖에 없나보다. 어머니는 파소라고, 가족이라는 제도로써 당신의 삶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교만함의 한편, 몇 년간 살뜰살뜰 돈을 모아 냉장고를 바꾸며 기뻐하던 어머니의 모습에 대한 그만큼의 죄스러움이 함께 한다.

김민정(가명, 26세, 자유기고가)

도망갈 차비도 없었던 엄마

엄마의 젊은 시절에 비자금이 있었다면 그 이후의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이라는 가슴 아픈 공감을 했던 적이 있다.

내가 결혼한 후 3년이 더 지나고 나의 큰아이가 돌이 좀 지났을 무렵이다. 생활이 너무나 무의미하게 느껴져 "엄마는 왜 살았어요? 난 도대체 왜 이려고 사는지를 모르겠어요"라고 질문한 적이 있다. 엄마는 "그 때마다 늘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느라 살아왔다"고 대답하셨다. 그러면서 "그래도 넌 네가 돈 벌잖니? 나도 그 때 도망갈 차비만 있었더라면 도망갔을 텐데, 차비가 없어서 못 갔다"고 하셨다. 도망이란 말을 듣는 순간 심판처럼 떠오른 기억 하나. 엄마와 아빠의 부부싸움 장면이었다. 자라면서 부부싸움하는 장면을 몇 번은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부모님은 자식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안 보이려 방문을 닫고 조용조용히 싸우셨던 분들이라 부부싸움하신다는 것을 아는 척도 해서는 안될 것 같은 분위기에서 자랐다. 그런데 내 무의식 속에 깊이 억눌려 있던, 우아한 우리 부모님의 이미지에 안 맞는 기억이 불쑥 떠올랐다.

내가 네 살이나 다섯 살쯤이었나 보다. 부모님의 말다툼 끝에 저녁밥상이 없어지고, 그 밥상으

로 엄마를 내려치려는 아빠와, 방 구석으로 몰려 공포에 질려 얼굴을 가린 엄마와, 자지리지게 울 어쭈렁하던 동생의 목소리, 그리고 그 때의 경악과 공포까지 한꺼번에 떠오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화목한 척, 부부 사이가 모범적인 척, 그리고 아빠가 이 세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가장이자 완벽한 아버지인 듯 우리를 세뇌시켜 왔던 엄마...

아마도 난 내 속에 아빠에 대한 증오를 그 어린 시절부터 느끼고 품어왔을 것이다. 그렇지만 엄마에게 새겨당한 어린 나는 혼란 속에서 그 증오를 저 가슴 깊은 은밀한 곳에 감춰두고 살아왔는데, 불현듯 그 증오까지 한꺼번에 떠오른 것이다. 그 날 난 그 기억을 입밖에 내지 못했다.

엄마의 세월이 지난 다음, 부부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때 그 일을 내가 기억하고 있음을 밝혔다. 분노 때문에 목소리가 떨려나왔다. 엄마에게 아빠가 잘못하기만 하면 이제 내가 가만 두지 않을 것이란 말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다.

지금 두 분은 우아하게 사신다. 하지만 우리 엄마의 마음 속에 숨겨둔 상처와 분노도 과연 다 치유되었을까? 비자금 한 푼이 없어서, 비자금을 조성해 볼 수조차 없어서 굴욕적인 부부생활을 견뎌내야 했던 내 엄마의 영혼의 상처는 아물었는지. 여자도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다시 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은 누구나 있어야 한다. 여성들이여, 비자금을 쟁겨라. 남자들도 다 쟁겨라. 심지어 그들은 최소한의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더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싶어서이다.

곽형관(37세, 교사)

한국여성민우회 '평등' 자동차보험

민우회가 펼치는 '평등' 보험세상으로 오세요.
간편한 계약, 철저한 관리, 친절환 서비스를 약속합니다.

고객의 계약으로 생긴 수익금은 여성운동에 지원되어
'평등' 사회를 만드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이제, 자동차보험 및 각종 보험은 민우회로 문의하세요.
민우회 '평등' 보험은 LG화재와 함께 합니다.



보험고객 전화 02-737-5786
한국여성민우회 '평등' 보험

곳간이 차야 대우도 받는다

어머니의 비자금을 얘기하자면, 우리의 가족사를 빼놓을 수 없다. 어머니는 젊어서 아버지의 끝없는 사업(?)구상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 이런 장사를 하시다 안 되면 그만두고, 또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그러다가 본전까지 떨어지면, 다음 장사밑천 대는 것은 어머니 몫이었다. 늘 천정에 가서 돈을 융통해 오곤 하셨다.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될 무렵, 우리 가족은 서울로 상경했고, 어머니의 친정집(외가)과도 거리상으로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새로운 사업구상들도 사들해졌다. 이로써 어머니의 아버지 장사밑천 대는 역할도 끝이 났다.

내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어머니의 시대(친가)에서는 온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다. 종손인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으니 다른 여자(씨받이)를 얻어, 아들 하나 낳아 호적에 올리라는 거였다. 그 후 아버지의 공인된(?) 외도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밖에서 얻은 아들을 집으로 데려오지는 않았고, 어머니와 나를 제외한 집안 어른들은 모두 그 아이를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무렵 어머니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비자금 말이다. 물론 뼈뺏한 생활비에서 대단치 않은 것이었다. 시장바구니 끼고 콩나물값 깎아가면서 모으는 것이니 오죽하랴. 딸 하나 밖에 낳지 못한 죄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시작된 자구책이었고, 그 동안 친정집에 손 벌리면서 얻은 경험에서 비롯된 일종의 대책이었으리라.

내가 스무 살 되던 해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나와 어머니 우리 두 모녀에게 남겨진 것은 단칸방 하나에다 알지 못하는 어음조각리 몇 장뿐이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다.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 두 모녀는 눈물조차 흘리지 못했다. 어머니의 한푼 두푼 모은 비자금이 이때 우리 두 모녀의 생활비가 되어 주었다.

그 당시 깨달은 것은 경제적인 독립이 정신적인 독립의 기본이 된다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한푼 두푼 모은 비자금은 후에 유용하게 쓰였고, 어려운 시기에는 어머니에게 위안과 힘이 되었다.

남편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여자들과 이야기해 보면 자식 때문에 산다고 말하지만, 사실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혼자 살 자신이 없다. 이 사회에서 남편 그늘이 아닌, 이혼녀로서, 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것이다.

'곳간이 차야 예절을 안다'는 옛말이 있다. 경제적인 여유가 사람을 비굴하게 하지도 않고, 사립다운 예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일 게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자면 곳간이 차 있어야 대우도 받지 않는가! 부부간에도 말이다. 곳간은 경제적인 능력이다.

어쨌든 돈이 너무 많아, 게을러지고, 잡생각이 많이 나는 계층이 아닌 바에야 우리 같은 소시민에게는 적당한 경제적 여유가 오히려 돈으로부터 어느정도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특히 이 사회에서 약자로 살아가는 여자들에게는 그나마 어느 한 구석으로는 힘이 되어 주고 있지 않은가.

정보라(36세, 주부)

당대비평

특집/우리 안의 파시즘: 내면화된 권력, 혹은 '자발적 복종'에 대하여

일상적 파시즘의 코드 읽기 임지현

반공주의 회로판 읽기 권혁범

한국 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 논리와 가부장성 김은실

군사 파시즘의 잔재와 교육 박거용

전체주의적 법 질서의 토대, 주민 등록제 김기중

승리주의를 넘어서, 예수의 복원을 향해 김진호

논단 부패의 정치경제학과 시민 민주주의 홍윤기



특별기고

한반도 핵·미사일 위기의 군사정치학

위기의 주요인은 미국에 있다 리영희

대담 지구화, 경제 위기, 그리고 대안적 정치 경제 월든 벨로·권혁범

'히노마루'·'기미가요'의 법제화, 죽어가는 일본 민주주의 서경식

창간 두 돌 기념 좌담 새 세기를 바라보며 진보의 미래를 생각한다

김동춘(사회) 최규엽 남인순 고영주 이인영

시 강은교 이상국 김혜순 윤재철 김용락 이재무

신문 한상봉 송경동 나희덕

1999·脫獄 홍성담 전으로 읽는 21세기 현실주의 미학 그림·홍성담, 글·서해성



'긱긱한 독신'의 조건

결혼에 대한 통념으로 인해 맘 고생하는 이들에게 경험담을 얘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서야 나는 '서른일곱 나이에도 불구하고긱긱하게 홀몸으로 버티고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레 좀 특별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모름지기 여성과 남성은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이 하늘의 이치이고 순리이며, 그 이치를 따르려면 결혼을 통과하는 것이 절대 상식인 사회에서 아직도 미혼이니까 말이다. 그렇다고 부와 명예, 미모의 삼박자를 갖춘 '화려한 싱글'도 아닌 것이.

별로 내세울 일도, 숨길 일도 아니지만 난 지금까지 완전한 나의 자유의지로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기까지 사실 별로 결혼 압력이라고 느낄 만한 것도 없었던 것 같다. 상대방은 내게 압박감을 주고 싶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스트레스로 느끼지 않았으니 압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을 것 같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 집 어른들이 내 뜻대로 하게 처음부터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았지만, 내가 고민할 정도는 아니었다.

부모님에게 내 의사를 분명히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관철될 수 있었던 데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생전의 어머니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도 자신의 직업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성들이 보기 좋다고 하였고, 너도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와 결혼한 이후로 전업 주부로 지내셨던 어머니는 가끔 자신이 일매여 산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 그런 분위기를 느낄 때 나는 '엄마가 만약 이혼한다면 어떨까'에 대해 생각했고, 한번은 이 상상을 얘기해 엄마를 당황하게 만든 적도 있다.

아버지는 실행민이어서 누구보다 가족에 대한 애착

과 책임감이 강했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강압적인 태도와 권위주의로 나타나곤 했다. 그래서 가끔 나와 충돌을 빚기도 했다. 나는 가족에게 화 한 번 낸 적 없는 '착하고 평범한 딸'이지만 아주 가끔은 당돌하고 온근한 고집으로 내 의지를 관철하곤 했다.

아버지는 내가 졸업 후 여성신문에서 '배고픈' 기자 생활(일반적인 의미의 기자는 배고프지 않음)을 할 때도 참으로 못마땅해 하셨다. 도대체 왜 시집은 안 가고 기를 쓰고 월급도 시원찮은 곳에서 생고생을 하느냐는 것이다. 급기야 결혼 압력이 시작될 참이었다. 나는 동생들에게 절리적거리지 않게 얼른 순서를 내주었다. 동생들까지 결혼 안 해서 괜히 나 때문에 늦었다는 '원망'을 듣기 싫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홀로 남은 아버지를 남동생이 결혼하면서 부양하게 되었고, 나는 그 틈을 이용해 독립할 수 있었지만, 가끔씩은 아버지의 회유와 협박을 들어야 했다. "향후 네 계획을 들어보자"로 시작되어 급기야 "나 살아 있을 때 결혼해야 내 마음이 편하겠다"로 이어졌지만, 커다란 강요로 느끼지는 않았다. "제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그냥 결혼해 행복하지 않게 살기를 바라세요?"라는 지, "언젠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는 때가 있겠죠"라고 하면 더 이상 아무 말씀 안 하실 정도가 되었다. 외할머니의 간절한 호소는 사실 지금도 뵈 때마다 있는 일이다. 두 손을 부여잡고 "아이구, 언제 할래? 나 죽기 전에 하는 거니?"라고 하시다가 손주사위, 심지어 증손주는 언제 안아보냐고 하실 때면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었다. 불효라고 느껴야 할 텐데 솔직히 그런 예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이 동요되지를 않으니 그 점

이 민망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가족들과는 이렇게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주변의 지인들이었다. "결혼은 선택이지만 그래도 아이는 낳아봐야 하며(아 이 한 명 낳고 싶은 내 마음을 알고나 있다는 듯이), 그러려면 아무래도 결혼을 일찍 해야 하고(아이는 반드시 결혼해야 낳을 수 있는 거였다) 그래야 아이가 다 자라는 것까지 안전하게 돌볼 수 있다..."는 논리다. 어쨌든 모두들 나를 염려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그러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독이 생기는 일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세심한 신경을 쓰는 것은 '불안정한 이웃'에 무심할 수 없는 우리의 인지상정이니까, 그런데 그 의지 또한 만만찮아 이제는, 결혼은 당장 안 하더라도 남자 소개나 받아보라고 한다. 결혼은 나중 문제고 알아워서 나를 것 없지 않냐면서, 이럴 땐 단호하게 거절하기가 참 그렇다. 남성혐오증이나 대인기피증을 지닌 것도 아니고,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때문에 마음에 빗장 채운 것도 아닌데 하는 생각에 내키지는 않지만 몇 차례 어정쩡하게 등 떠밀려 소개를 받아본 적도 있다. 그리고는 얼마나 나 자신에게 화가 나던지,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인데 남이 맞춰준 사람—이미 서로의 조건에 대해 건주고 따진 다음—과 적극적인 자세 없이 마주앉아 무슨 진실이 오가고 마음이 열리겠는가. 단언하건대 이런 식으로 만난 사람과는 절대 지인도 친구도 될 수 없고 또 그럴 이유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한 이상 상대방에게도 못할 것이다. 애인이거나 남자친구를 소개해 준다는 것이 어디까지나 선의인 것만은 분명하다 하더라도.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여성은(또는 남성은) 불완전해 보여 하다못해 애인이라도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고 불안정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누가 뭐래도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다. 주위의 이웃과 벗과 더불어 풍족한 마음을 나누며 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키지 않아도

'서비스 차원'에서 일일이 현재의 내 심경과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애인을 두지 않은 여성을 정작 불안정하게 하는 것은 그러한 사회 인식이다.

삶의 모든 과정에서 사회통념과 부딪칠 때 당당해지려면, 특히 결혼 압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지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왜 지금 나에게 결혼은 필요하지 않은지, 의사가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단호해야 한다. 그리고 결혼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명백히(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바로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 부모님의 강요도, 사회의 통념도, 나이가 꼭 차서도 아니어야 한다. '세상 살기가 간단하지가 않은 것 같다' 하더라도(이런 이야기라도 할라치면 결혼하라고 한다), '우리 사회는 한 사람을 가족의 개념에 넣지 않고 그래서 임금 등 여러 면에서 상대적 차별을 받는다'고 느껴도(이럴 때도 억울하면 결혼을 하라고 한다) 내가 연애가 결혼을 선택한다면 최소한 이런 이유에서는 아닐 것이다.

다음으로, 더욱 중요한 조건은 스스로 경제적 심리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20대 중반을 넘어 의존해 사는 것은 부모님께는 '민폐'요, 자신에게는 '자존의 문제'다. 제 스스로 독립하지 못하는 딸에 대해 '결혼을 통해 사위에게 위탁'이라도 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은 냉정하게 들리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심리적으로 독립하려면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며 그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게 된다. 이와 함께 경제적 독립까지 이루려면 분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20대도 아니고 30대 넘어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은 오히려 불효다. 함께 살다보면 스스로 알아서 모든 일을 할 나이에 늦은 귀가, 결혼 모두 쓸데없이 신경 쓰이는 법이다. 스스로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혼에 대한 압력을 '잔소리' 정도로만 들을 수 있도록 자신에 대한 믿음도 쌓아야 한다. **최창희** 국회의원 보좌관



상대적이고 적대적인

페미니스트 백과사전

남영지음

아줌마: 알고보면 여자. 성별을 떠나 인간적인 성숙을 이룬 존재.

아저씨: 언제나 남자인 줄 알고 있다. 오름이 붙어 있는 한 남자일 수밖에 없는 존재.

아줌마의 지혜

1. 늑대의 탈을 뒤집어 쓴 남자인지 남자의 탈을 뒤집어 쓴 늑대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
2. 결혼이란 많은 경우 이혼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다보니 유지된다는 사실을 안다.
3. 남편을 통해 속고 속이는 세속의 권모술수에 통달해 있다.
4. 남의 도시락에 들어 있는 콩도 내 콩과 같은 콩과 (料) 식물임을 안 먹어봐도 안다.

귀신

1. 옛날 이야기 속에 자주 나오는 정의의 수호자. 그래서 나온 명언이 '귀신은 뭐 하나, 저런 놈 안 잡아가고...'이다. 정말 뭐 하는지 몰라!
2. 어항된 존재로 상징되기도 한다. 그래서 씬데 없는 애기를 하면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한다'고 하는 것이다. 사실 귀신은 바빠서 씨나락씩이나 팔 시간이 없다고 전술한 바 있다.
3.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존재. 그래서 남편이 비자금 조성한 경위에 대해서는 '귀신도 국할 노릇'

인 것이다. 남편들이란 귀신도 속일 수 있다.

욕심: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물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늘어가는 현상.

어리석음: 어쩌면 자기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

돈: 영혼의 감옥. 그러나 유혹적인 감옥.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새 한 발짝 들여놓기 쉽다.

비극: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나도 언젠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 마음을 비울 수가 없다.

희극: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다른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문은 많이 들었다.

게임: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규칙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행하는 놀이.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가 천재 지변이나 불가피한 인간적인 이유로 함께 최초의 밤을 보내게 된 날, 여자가 남자에게 절대 그 남자야 한다고 말하더라도 남자는, 할 일은 하고 그냥 자면 된다고 알아듣는다.

치세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 일반적으로 진심을 다해 사람을 대하면 좋은 관계가 형성된다고 믿어지지만 주부들의 경우는 반드시 그렇지 않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며느리로서 당연하게 수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은 시간이 갈수록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열 번 잘 해도 한 번 실수하면 그걸로 봉변이다. 반면 처음부터 실수만 하다가 보면 한 번만 잘 해도 칭찬을 받는다. 그러므로 자신의 서비스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적당히 모른 척 상대방을 포기하게 하는 기술도 필요한 것이다.

새옹지마: 복은 절대적인 복이 아니며, 재앙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재앙인 것만은 아니다. 사고를 당해 수술을 받아야 한다. 재앙이다. 그런데 퇴원할 때 웃을 입어보니 그토록 질리게 버티던 살이 다 빠졌다. 친구들이 부러워한다. 복이 된다. 집에 와서 옷장을 열어보니 맞는 옷이 없다. 모두 새로 장만해야 한다. 재앙이다.

자아동일성: 일관되게 자신을 자신으로 인지하는 의식. 어릴 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거의 자동적으로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 그러나 의식적으로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는 사람은 무척 드물다. 다만 늘 나라고 생각해 온 관성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재야의 진보인사였던 자신과 보수야당의 중요 인사인 지금의 자신 사이에 놓인 객관적인 격차가 자신에게는 당연한 자신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매저키즘: 학대나 고통을 통해 쾌락을 느끼는 성향. 주로 부정적인 성향으로 간주되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결혼생활을 버려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 배양할 가치가 있다.

고정관념: 현실을 해석하는 고정된 틀.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변한다.

데이트: 남녀간의 탐색전. 관건은 자

신의 본색을 숨기면서 상대의 본색을 발견하는 데 있다.

술주정: 취한 상태에서는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피해가 없는 한 대부분의 정신나간 언행이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리는 행태. 남자들은 술에 취해서로 행패를 부리고 나면 친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제 정신으로 친구를 사귈다. 여기에서 남자들은 자기들끼리도 혼미한 상태가 아니면 호감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유추된다.

악마: 사악한 존재로서 천사의 반대말. 대부분은 자기만의 악마를 가장 효율적으로 일깨우는 사람과 일생을 보내게 마련이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비극이요, 도전인 것이다.

좌절: 사랑할 만한 남자는 모두 죽고 없다는 현실에 직면할 때 느껴지는 감정.

애국자: 고위관료의 부인들에게 쓴 갈고리로 옷을 판매하면 돈이 되는 말. 그런 행동이 애국이라면 국립묘지에 묻힌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싸게 팔았던 것일까?

성차별: 남자와 여자를 차별해서 비난하고 씹는 행위. 예를 들자면 누구는 사각 상자 가득 돈을 주고받고도 거의 멀쩡하게 고개 들고 사는 데 기껏 기천만원 짜리 종고모피 왔다갔다 한 거 가지고 숨어다 너야 하는 현상. 한 가지 밝혀줄 점. 모든 모피는 종고다. 왕년에 가족 주인이 걸치다 죽은 다음에 만들어지니까.

북풍: 한반도에서 비정규적으로 부는 바람. 특히 세상이 어지러울 때 북풍이 한 번 불면 어지러운 문제는 다 기억 저편으로 날아가는 신비한 바람. ☐



독한 여자가 천사보다 아름답다

강화에 24시간 탁아방 문여는 임정숙씨

스 무 살. 그때는 모든 것이 푸르게만 보였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을 산다는 게 기쁘고 밤이 되면 내일 다시 태양이 뜰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뭔가를 이뤄야겠다는 욕심이 없어서인지 희망과 절망이 구분되지 않았다. 두려움도 없었다. 그저 마음 가는 대로 흐르면 되지, 싶었다. 그러다 보면 길이 보일 거라고. 길을 따라 걸어가면 그만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임정숙(42)씨가 그 '길'을 발견한 건 대학 1학년 때다. 어느날인가, 평소 아빠처럼 따르던 성당 신부를 좇아 들어간 낯선 동네에다 그녀는 그만 덜컥 살림을 차리고 만 것이다. 머리에 이가 바글

거리고 소매는 누런 코로 땀질땀질해진 꼬마들과 한술밤을 먹으며 살게 된 그곳은 바로 <새벽들의 방>, 간판을 걸고서야 비로소 그 달동네가 사당동 판자촌이라는 것을 알았을 정도로 그녀는 자기 일 외에 다른 것에는 무지했고 또 무심했다.

"그 날 신부님과 함께 간 곳은 수녀님들이 기거하는 방이 있어요. 지붕이 어깨에 닿을 만큼 낮고 비좁은 집이었죠. 거기서 함께 미사를 드렸는데 웬지 모르게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이곳이 내 있을 자리다 싶은 생각도 들고."

마흔에 혼자 되어 7남매를 키운 엄마는 딸의 돌연한 자퇴와 출가를 반대하지 않았다. 자식이 여럿이니 사는 모양도 가지가지인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분이어서 굳이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출발이 순조로웠던 것에 비하면 생활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열 명이 넘는 아이들을 한꺼번에 건사해야 하는 일은 그냥 한두 명 머리 쓰다듬어주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던 탓이다. 그래도 동네사람들은 아직 일이 손에 익지 않은 처녀를 '천사'라 불러주며 그녀가 돌보는 아이들보

그녀는 강화도 <흙집어린이집>에서 살고 있다. 도시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이란 욕심과 경쟁과 이기심밖에 없다는 생각에 하늘과 바다와 흙의 건강함이 느껴지는 강화도를 택한 것이다.

다도 예뻐했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사당동 새벽방과의 인연은 거기까지였다. 서울 곳곳이 개팔이라는 명목으로 파헤쳐지는 판에 사당동 판자촌만 예외일 순 없었다. 아주 잠깐, 동네사람들과 함께 악도 써보고 울기도 해봤지만 소용없었다. 줄지에 거리로 물린 그녀는 마음이 허전했다. 다시 시작하고 싶었고, 그것도 뻔하면 남들이 엄두를 못 내는 곳에서 일을 저지르고 싶었다.

그런 그녀에게 난지도가 눈에 띈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남들에게 난지도는 범법자 혹은 사회부적응자들이 우글대는 거대한 쓰레기하치장에 불과했지만 자신의 가능성을 시험하고 싶어 환장한 그녀에선 마치 미지의 세계와 다름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난지도는 여자 혼자 일을 꾸미기엔 거칠고 험한 곳이었다. 사당동에 있을 때만 해도 '좋은 일 한다'고 그녀를 부추기던 이들과 다들 제정신이 아니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20대였고 여전히 두려움을 몰랐다. 텅빈 자신감 이면엔 그녀 특유의 무지와 무심함이 한 몫 했을 것이나 스스로 그것을 알 리 없었다. 결국 그녀는 사당동 새벽방 철거 후 잠시 다니던 유치원에서 번 돈 4만원을 털어 난지도 모래땅 40평을 구입했고 학생 때 봉사활동을 하며 얼굴을 익힌 서초동 넝마주이들의 도움을 얻어 공부방을 짓기 시작했다. 집 짓는 데 필요한 재료는 모두 쓰레기하치장에서 구했다. 하루종일 쓰레기더미를 뒤지며 쓸만한 물건을 골라내는 것도 재미라면 재미였다. 임씨를 불러 온 사람들은 냄새가 난다며 코를 쥐었지만 그녀는 마침내 공부방을 완성했고 난지도 청소년들을 하나씩 불러들였다.

"처음엔 힘들었죠. 아이들이 어디 그렇게 마음을 쉽게 여나. 그래도 내가 거기서 살다시피하니깐 이방인이라 생각이 안 들었나봐요. 괜히 눈 부릅뜨고 쳐다보던 애들이 나중엔 제 발로 기어오데."

난지도에서 그녀가 산 세월은 4년. 일이 손에 붙고 정이 들 만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난지도도 언제까지 미지의 세계일 순 없었다. 그곳 주민의 눈으로 보면 쓰레기더미가 곧 삶의 터전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엄청난 투기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철거를 며칠 앞둔 어느날 밤, 그녀는 잠이랄 수도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며 '그저 잠시만이라도 편안하게 눈 좀 붙였으면' 생각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세상의 끝으로 왔건만 거긴 더 이상 끝이 아니었다. 애초에 가졌던 모험심과 자신감조차 무절없게 느껴졌다. 시작과 끝, 전진과 후퇴,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등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 같았다. 말하자면 그녀는 참 많이





지쳐 있었던 것이다.

남자를 만난 건 바로 그 무렵이다. 아는 선배와 길을 가다가 마주친 그 남자는 선배가 잘 아는 사람으로 남루한 옷차림과 저지분한 외모가 영락없는 난지도 걸인 풀이였지만, 그래서인지 오히려 첫인상이 밍지 않았다.

알고보니 남자는 '감옥을 세 번이나 갔다왔다'는 운동권, 7년이나 가난한 아이들과 함께 살았으면서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운동이 뭔지 잘 몰랐던 그녀로서는 그 사람의 모든 게 그저 신기하기만 했다. 더욱이 남자가 일하는 인천의 한 운동단체에서 어린이집 교사를 찾는다고 해 그걸 기회로 자주 왕래하다보니 차츰 정도 들었다.

그러던 어느날 남자는 대뜸 결혼을 하자고 했다. 달콤한 속삭임도 미래에 대한 든든한 약속도 없이 그냥 결혼하자고만. 당시 그녀는 나이만 먹었다뿐 남자와 손 한 번 잡아본 일이 없는 쪽박이었다. 결혼하자는 게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말인 줄 알았고 그걸 철썩같이 믿었다.

남편이 된 남자는 부인에게 노동자가 될 것을 요구했고 그녀는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아이의 부드러운 땀살을 보듬어 주던 손으로 전자부품을 조립하려니 힘이 들었다. 아이들을 바

라보며 웃어주던 눈으로 정신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벨트를 따라잡으려니 어지러웠다. 그래도 야근 한 번 특근 한 번 거르지 않았다. 때로는 공부한다고 물려온 여자들과 남편을 단칸방에 남겨두고 야근을 나가야 할 때도 있었지만 삶은 내색을 할 수도 없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당시 운동권의 요상한(?) 생활방식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가슴 속에 품은 생각마저도 원칙과 규율로 통제하려드는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지 일상생활에서는 하나같이 무기력하고도 느슨한 모습을 드러내는 게 보기 싫었던 것이다. 크고 작은 싸움이 반복되자 그녀는 서서히 지쳐갔다. 일에 지칠 땐 잠시 쉬면 그뿐이었는데 사람한테 지쳐서 생기는 상실감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가슴도 해보고 친정엄마한테 하소연도 해봤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그녀가 다시 일을 벌인 건 바로 이 때문이다. 눈과 마음을 맞출 대상이 없어 허허롭기만 한 가슴에 무언가를 채워넣고 싶었던 것이다. 마침 아이가 태어나 공장에 계속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그녀는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여성노동자들의 아이를 돌봐주는 탁아방을 차렸다. 그 때 간판에 새긴 이름은 다음 아년 '새싹들의 방'. 어쩌면 그녀는 사당동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일까?

"어느날 거울을 보는데 내 얼굴이 내 것 같지 않았어요. 두려움 하나 없이 밝고 당당하기만 하던 표정이 어둡게 일그러지다못해 비루하게 변했더라구요. 그냥 가슴이 꼭 메이태요. 사는 게 뭔 가 싶기도 하고, 이래선 안 되겠다. 나를 다시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일에 매달렸죠."

어느 해인가, 맞벌이부부가 밖에서 문을 잠그고 일 나간 사이 세쌍둥이가 타족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아이들의 낯을 위로해 주자"고 설득해 모은 성금으로 <세쌍둥이어린이집>을 건립하는 데 중요한 몫을 해냈다. 지역 여성노동자들이 육아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건립한 <나눔어린이집> 초대원장을 지낸 것도 바로 그녀다.

"남들이 저보고 독하다고들 해요. 항상 빈손으로 출발하지만 결국은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룬다고. 글썽 그제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하긴 내가 봐도 일에 대해서만은 좀 그악스러운 데가 있어요."

현재 그녀는 강화도 <흙집어린이집>에서 살고 있다. 도시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이란 욕심과 경쟁과 이기심밖에 없을 것이란 생각에 그녀는 하늘과 바다와 흙의 건강함이 오롯이 느껴지는 강화도를 택해 어느날 불쑥 걸어들어온 것이다. 이번에도 여느때처럼 스스로 돈을 모아 땅을 사고 설계를 하고 일꾼을 부렸다.

일정기간 동안 아이를 보호해 주는 '24시간 탁아방'을 운영할 예정인데 아직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그녀는 모처럼 한가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마당의 잡풀을 뜯고 청둥오리와 닭을 살피는 게 중요한 일과. 출퇴근에 엄매임 없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아이를 봐주는 곳이 생겼다는 소문에 반가워하며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 개원이 늦어지는 이유와 세상 돌아가는 일 따위의 시시콜콜한 얘기를 나누는 것에도 새록새록 재미가 붙는 걸 느낀다.

그렇다면 남편과는 어떻게 됐을까. "아직도 운동권이죠" 하며 그녀는 그냥 웃는다. 알고보니 남편은 청둥오리를 이용해 무궁해 논농사를 짓는 팜팜이 음식물찌꺼기 사료로 닭을 키워 유정란을 생산하는 '환경농업운동'을 하고 있었다. 여전히 남자는 딱딱한 바위 같고 둘 사이 역시 간이 덜 뻥 국물처럼 밍밍하지만 '농촌에서 살자'는 부분에서 찰떡궁합을 이룬 만큼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며 살고 있단다.

사당동에서는 '날개 없는 천사'로, 난지도에서는 '난지도의 딸'로 불렸던 그녀. 지금은 순결한 천사도 누구의 딸도 아닌 그냥 '엄마'나 '임정숙'으로 불릴 뿐이지만 그게 싫지 않다. 무엇보다도 그 이름에는 목표를 향해 욕심을 부리고 세상을 향해 독기를 내뿜으면서도 모든 관계에 적당히 거리를 둘 줄 알게 된 한 여자의 모습이 투명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모습이야말로 마음 가는 대로 살자던 그녀의 가치관이 빚어낸 최고의 작품인 까닭이다. **사진 엄윤순**

박미숙



소설의 형식을 빌리지 않고는 도저히 입을 떼기가 힘든 '내 얘기'가 있다. 너무 사소한, 혹은 너무 의외여서 나조차도 막스러워지는 그런 얘기들. 그러나 불행히도 나에겐 소설 쓰는 재주가 없어 인터뷰 기사를 쓸 때마다 '내'가 그 사람 인생에 끼어들고 참견하는 걸 느껴졌다. 그래서 다 쓰고 나면 눈물이 많아지나보다.

내게도 스케줄은 있다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어 백수가 된 여자가 어디 한둘이라!
이제는 드러나지 않는 백수들의 목소리를 소개하려고 한다.
때론 슬프고, 때론 웃고, 때론 기가 막힌 백수들의 이야기들...
독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

필자 : 변진석

약력 : 1975년생 대졸 여성

요즘 하는 일 : 취업정보 수집, 영어공부, 컴퓨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과 설계

현재 재정상태 : 파산직전

스트레스 해소방법 : 열심히 자학하기, 잊어버리기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

당면과제 : 취직

내가 취직하지 못한 이유 :

1. 근본적으로 여성을 적게 뽑는 구조적 원인
2. 나의 공손함이 그들에게는 수동적 인간형으로 비춰짐
3. 면접시 잘난 척과 허풍=자신감(?)을 잘 떨지 못함
4.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선택하지 못함

가장 최근에 들어본 칭찬 :

- 백수생활을 7개월 동안이나 해내다니 넌 참 대단해. — 최근에 만난 친구
- 백수하면서 요리실력이 많이 늘었는 걸?! — 신기해하는 오빠
- 히스테리 안 부리고 웃듯이 백수생활을 하다니 대단하다. — 나

백수생활을 꽤 장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

- 최소한의 생계비를 대주신 부모님 덕분 — 이 점에 있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 인생을 장기적으로 보는 나만의 치세술 — 바록 지금 나는 백수지만, 앞으로 큰 일을 하기 위해 잠시 쉬고 있을 뿐이다(근본적으로 백수생활을 가능케 하는 사고방식, 그러나 자기도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
- 순간순간을 즐기자 — 이때 아니면 언제 내가 백수였는가, 백수인 이 순간조차도 열심히 사살하며 생활하자.

단점 : 쓸데없이 생각을 깊이, 많이 한다.

특기

- 2, 3분간의 짧은 설명만 듣고도 모든 요리를 소화할 수 있다. 맛도 꽤 괜찮다.
- 화가 나도 참 잘 참는다.
- 한 번 본 사람은 절대 잊지 않는다. 때때로 필요 없는 얼굴까지 다 기억이 난다.

앞으로의 계획 : 가능한 한 빨리 취직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 자신도 발전시키고 싶다.

오늘은 너무 우울하다. 극도로 우울하다.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쩔 줄을 모르겠다. 아침부터 면접을 망쳤다.

한두 번 겪은 일도 아닌데, 난 아직도 이런 종류의 실패에 익숙하지 않다. 이제는 면접을 보러간다고 보다는 망치려간다고 말하는 편이 맞을 것 같다. 남들은 나를 위로하기 위해 시기가 안 좋아 취

업이 안 된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리 IMF라 해도 능력있는 사람은 다 취직한다. 시대의 타락을 하는 것은 단지 평계일 뿐이다. 시대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으니까 취직을 못하는 것이지. 바로 나처럼.

일렬로 죽 들어간 우리에게 면접관은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요구했다. 어쩌면 너무나 간단하고 당연한 이 요구에 나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전혀 예상치 못했다. 이제까지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한 면접은 없었다. 차라리 호된 질문을 하지... 맨 끝에 앉아있던 나는 속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갈팡질팡 하고 있었다.

그러나 곧 이어진 아이들의 자기소개는 나를 더 절망적으로 만들었다. 모두들 예상이라도 한 듯이 5분여의 자기소개를 청산유수를 넘어 녹음테이프를 틀듯이 한 번의 더듬거림도 없이 해치운다. 게다가 자기소개의 내용을 들어보니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자화자찬 일색이다. 각각의 내용을 들어보면 모두 안 뽑아주면 안될 인재들이다. 출신성분만 밝히면 되리라 생각했던 자기소개와는 정말 차원이 달랐다. 나는 뭘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자기소개를 시작했다. 역시 내가 예상했던 대로 중간중간 말이 엉키는가 하



현관을 경계로

현관 밖의 세상은 너무 두렵다.

외출을 하기 전에

나는 항상 현관문에 귀를 바짝 대고

복도에 누군가 있는지 확인한다

면, 평소 '점선'을 생활철학으로 삼았던지라 나 자신의 포장에도 서툴렀다. 자기소개를 끝낸 뒤 면접관들은 역시 나의 능력이 의심스러운지 나에게만 질문공세를 퍼붓기 시작했다. 자기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알고 왔느냐. 나를 잘보는 질문이다. 물론 나는 알고 있다. 그것도 모르고 지원하는 멍청한 지원자도 있을까.

"이제 됐어요." 다른 아이들에게는 질문도 하지 않고 면접관들은 가도 좋다고 했다. 제대로 질문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너무 빨리 끝난 것에 약간 어리둥절해하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 짧은 시간에 자기소개만 듣고 우리를 파악할 수 있던 말이야?

처음에는 시간이 짧아 면접관들이 진정한 '나'를 못 알아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그들이 옳은 것 같다. 내가 생각했던 내가 진짜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내가 진짜인 것 같다. 나는 이제까지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춘 쓸 만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나는 어디까지나 무능력하고 소심하기 이를 데 없는 시집이나 가면 딱 알맞은 인간이었다. 그 동안 내가 얼마나 주저넌었는가. 주저 과약 좀 해라.

울고 싶은 심정으로 어둡컴컴한 집으로 돌아왔다. 오후 2시와 4시 사이의 시간은 나를 아주 외롭고 무능력하게 만든다. 주위가 너무나도 조용하다. 나에겐

이 때 현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제일 큰 숙제다. 열집 전혁이 어머니나 1105호 아줌마와 눈이라도 마주치면? 그야말로 '나는 백수다'라고 광고하는 셈이다. 현관을 경계로 현관 밖의 세상은 너무 두렵다. 외출을 하기 전에 나는 항상 현관문에 귀를 바짝 대고 복도에 누군가 있는지 확인한다. 일단 없다고 확인되면 손살갑이 나와서 문을 잠그고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기를 기다린다. 1, 2, 3... 내가 사는 11층까지 올라오는 그 몇 초 사이에 나는 혹시 열집아줌마가 뛰어나오지는 않을까 해서 연신 좌우를 살핀다. 마치 첩보영화처럼.

엘리베이터에 무사히 올랐다고 해서 고비를 다 넘긴 건 아니다. 바로 수위아저씨. 남들은 한창 바쁘게 일할 이 시간에 집에 있는 나를 보시면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실까. 혹은 매일같이 이 시간에 장을 한 보따리 바오는 나를 보고 재가 출업과 동시에 시집을 가버렸나 하실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나의 치밀한 계산에 의하면 오후 퇴근시간대에 시장가는 것보다 지금 가는 것이 훨씬 편하다. 장바구니를 들고 마주치더라도 전혁이 어머님이랑 마주치는 게 낫지. 전혁이 아버지 외 다수의 동네아저씨 및 내 노래의 직장여성들과 장보따리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탈 순 없다. 차라리 11층까지 계단을 걷는 게 낫지.

나는 요즘 부업대기로 전락했다. 엄마가 나를 위로해 준다고 하시는 말씀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여자는 어차피 직장 몇 년 다니다 시집가면 그만이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한때 야심가였던 나를 더 맥 빠지게 한다. 요즘들어 엄마는 얼마 전에 취직한 오빠의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나에게 신신당부하신다. 밥해먹기 귀찮으면 샌드위치를 해먹으라고 시의전화로 거의 10여 분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신다. 양파와 오이를 다지고, 마요네즈도 넣고... 나는 열심히 만들었다. 한 조각만 먹고 밤 11시가 넘어야 돌아오는 오빠와 같이 먹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했다. 귀가한 오빠는 말없이 아금아금 샌드위치를 먹는다. 나는 한 조각밖에

안 먹었는데, 내가 방에 있는 동안 다 먹어치우고, 어느새 빈 봉지만 거실바닥에 굴러다닌다. 당연한 것을 먹은 것처럼 느긋하게 늘어져 자세로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는 저 인간.

내가 욕실에 들어가서 세수를 하려하자 드디어 말문을 연다. "다음부터 후추 넣지 마."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그건 너만을 위해 만든 게 아니야, 우리를 위해 만든 거지. 우리 집에서 나를 어떻게 대접하니 회사에서 내가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은 어찌하면 당연하다. 백수도 인간이다.

나는 24시간 대기중인 놀고 있는 기계가 아니다. 직업이 없다는 의미에서 나는 분명 '놀이' 있지만, 나는 동시에 놀고 있지 않다. 흔히 백수에게 스케줄도 없는 줄 알지만, 백수가 된 이후로 나는 내 시간에 대해 더욱 욕심이 많아졌다. 바쁘다는 말이 아니라 단지 멍하니 앉아 있더라도 나만을 위해 그 시간을 쓰고 싶다는 의미다. 나 이외의 타인을 위해 그 시간을 소비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나의 이 항변은 지금 아무런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단지 백수의 변명으로 비쳐질 뿐이지.

아, 이제 이 지독히도 외로운 여행에 마침표를 찍고 싶다. **11**

일러스트 만나



변진석



CROSS

세계의 여성들
스포츠 여성 전성시대 외
사이버원도우
아시아여성들의 정보화 진입
발굴
매매춘으로 내몰린 조선시대 여성들



독일의 걸파워(Girl Power)

김진명숙(이프 편집위원)



김진의 혁명이라는 타이틀로 독일여성의 무상을 기사화한 『슈피겔』.

독일의 젊은 여성들이 두드러진 도약세를 보이면서 독일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6월말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여성이 더 똑똑한가」라는 제목 아래 독일 젊은 여성들의 현주소를 커버스토리로 다뤘다. '여성 해방의 딸들이 도약하고 있다'는 부제와 함께,

도대체 독일의 젊은 여성들이 어떤 활약상을 보이고 있길래 독일 최고의 시사주간지가 커버스토리로 다룰 만큼 큰 관심을 보인 것일까? 『슈피겔』에 소개된 내용을 간단히 훑어보자.

현재 독일에서는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꿈과 목

적과 가치를 지닌 젊은 여성들이 커가고 있다. 앞 세대의 여성해방투쟁의 결과 차별을 받지 않고 자라난 그들은 동기부여가 분명하고 자의식이 강하며 실용적이다. 그리고 원하는 것도 많다.

학교를 보면 1992년 이래 남학생보다 더 많은 여학생이 대학입학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여학생 비율이 54.1%에 이르렀다. 이런 경향은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수준 높은 고등학교인 김나지움에서 여학생들은 수적인 면에서나 성적 면에서 남학생들을 능가하고 있다. 1995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대학에 입학한 여학생 수가 남학생 수를 앞질렀다.

대부분의 젊은 여성들은 자신들의 인생에서 교육과 직업이 가장 중요하며 그것을 통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어머니 세대와 달리 직업이 없는 인생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그리고 사회에서의 더 큰 가능성을 위해 좋은 성적이 필요하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다. 직업의식이 확고한 그녀들 덕에 직업정보를 실은 잡지들은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

이제 그들에게 여자가기 때문에 어찌어찌해야 한다는 사회의 규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의 전공이나 직업, 결혼문제 등 삶의 어느 부문에서도 어떤 선택이든 할 수 있다.

80년대 다수의 젊은 여성들은 직업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삶을 원했다. 그러나 요즘 그런 삶은 그저 하나의 선택일 뿐이다. 요즘의 젊은 여성들은 나름대로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결혼시기는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 학교를 졸업한 여성들이 결혼보다는 여행이나 외국에서의 직장생활 등 삶의 다양한 가능성 탐색에 더 몰두하기 때문이다.

젊은 여성들은 파트너 관계에서도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 싱글로 살든, 동거를 하든, 따로 함께 살든(living apart together), 결혼을 하든, 아이를 갖든 안 갖

든 모든 것이 다 사회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연애나 가족만들기와 관련짓는 것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고등학교에서 행해진 조사에 따르면 '당신에게 가족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여학생은 '나 자신'과 같은 나르시스트적인 답변을 보였다. 그녀들은 또 파트너 때문에 이사를 한다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일에 대해 남학생들보다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젊은 여성과 남성들의 성적 태도도 갈수록 비슷해지고 있다. 여성은 애무와 달콤한 속삭임을 동경하는 반면 남성들은 빠른 삽입을 원한다는 따위의 얘기들은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주장이다.

정치면에서도 젊은 여성들은 이전 세대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성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라는 말이 그들에게겐 통하지 않는다. 젊은 엘리트여성들은 보수당인 기민당을 싫어하며 진보적인 녹색당을 가장 선호한다.

물론 아직까지도 장애물은 많다. 젊은 여성들이 선택하는 전공과 직업은 아직도 여성적이라고 하는 영역에 많이 몰려 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 그녀들은 권력이나 경력보다는 자아실현, 재미, 사회성을 더 중요시한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사회에 아직 남아 있는 차별도 있다. 또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될 경우 감수해야만 하는 직업상의 불이익도 엄존한다.

그러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여성들의 노력도 많다. 그녀들은 '여성이 여성을 돕는다'는 모토 아래 네트워킹을 구축해 서로를 돕고 있으며 경제나 정치 분야에서 성공한 여성들이 후진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기도 한다.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계속되는 한 미래는 여성에게 더 많은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다.

스포츠, "기적 같은" 여성전성시대

류숙형(이프 편집위원)



제3회 여자월드컵축구대회에 출전한 미국선수 브렌디 차스테인.

스포츠의 성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6월 19일부터 미국에서 벌어진 제3회 여성 월드컵을 계기로 새 천년의 스포츠문화 지형도가 바뀌기 시작. 스포츠의 '남성독점시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는 게 미래 학자들의 전망이다.

7월 10일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경기장에서 열린 결승전을

끝으로 종료된 이번 여성월드컵은 총 6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여성스포츠 역사상 최대 관객수를 기록하게 됐다. 이번 대회는 ABC, ESPN, ESPN2 등 3개 TV방송사가 32개 전경기를 중계해 세계 10억 인구가 시청한 것으로 보도됐다.

뉴욕 시카고를 비롯한 미국의 7개 도시, 8개 경기장에서 벌어진 이번 여성월드컵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 북미·중남미국가,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러시아 등 유럽국가, 일본 중국 북한 등 아시아국가, 가나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국가들까지 참가했다.

제프 블레터 세계축구연맹(FIFA) 회장은 몇 년 전 "미래는 여성에 있다"고 선언한 바 있지만 "그 미래에 이토록 빨리 도달할 줄은 몰랐다"고 털어놓았다. 7만 9,000석을 꽉 채운 개막경기에서 미국이 덴마크를 3대 0으로 누르고 승리하면서 불붙기 시작한 여성월드컵의 이상열기는 이후 경기마다 매전사세를 기록했다.

95년 여성월드컵 축구조직위원회 회장으로 취임한 미국의 말라 메시는 "솔직히 말해 기적을 경험했다"며 "세계 최고 인기스포츠인 축구에서 미국남자들은 못 내기 수준이지만 여성들은 선두주자"라고 강조했다.

스포츠에서의 남녀평등을 상징하는 이정표로 여겨졌던 여성축구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포츠산업이 되었다. 지난 10년간 미국 전역의 교외 지역에서는 각종 여성축구단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유치원 소녀부터 중년여성들까지 축구를 즐기게 되었다. 미국축구위원회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 총 1,800만 명의 축구선수 중 750만 명이 여성이라는 것이다.

미국에서 여성축구가 특별한 성공을 거두게 된 데에는 여성스포츠의 전반적 발전에 의한 영향도 있지만 10년 전 학교 스포츠 프로그램에서 남녀평등을 규정한 연방법 제정이 큰 몫을 했다. 또한 축구가 어린 소녀들에게 어필하는 측면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축구는 신장 등 신체조건이 기술만큼 중요하지 않으며 점수도 많이 나지 않을 뿐 아니라 팀플레이 위주의 경기여서 여성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또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 비용도 저렴하고 어디에서나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도시소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자로 성전환한 유명 경제학 교수

앞으로는 남녀를 가르는 성의 경계선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누구나 원하는 대로 어느 시기에는 남성을, 어느 시기에는 여성을 선택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최근 뉴욕타임스지 보도에 의하면 아이오와주 에라스무스대학의 도널드 매콜스키 교수(56·사진)는 현

재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성전환(transsexual) 여성, 매콜스키 교수는 하버드대 출신 경제학자로 결혼해 두 자녀까지 두었으나 지난 95년 성전환수술을 한 후 도널드라는 이름에서 데이드라는 여자 이름으로 개명하고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그가 성전환자의 시범케이스로 주목을 받는 이유는 경제학자로서의 명성을 굳힌 후에 성전환수술을 했기 때문이다. 오는 9월 시카고대 출판부에서 발간될 그의 자서전 『선을 넘어(Crossing: A Memoir)』는 미리부터 화제를 집중시키며 성의 경계선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64년도 하버드대 졸업생인 매콜스키 교수는 올 여름 하버드대 교정에서 열린 제35회 동창회에 독신여성이 되어 나타났다. 매년 아내와 두 자녀를 동반하고 참석하던 매콜스키의 변신(?)에 많은 동창생들이 놀란 것은 자명하다. 특히 매콜스키가 하버드대를 다녔던 시절은 남녀공학으로 바뀌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는 뒤늦게 유일한 여성동창이 된 것이다.

수십 년간 기회만 닿으면 여장을 해왔던 매콜스키 교수는 지난 95년 여성으로 변신할 것을 공개선언하고 수술을 결행했다. 53년 동안의 남성으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여성으로 새 출발을 한 매콜스키 교수의 가장 열



렬한 지지자는 올해 75세의 어머니 헬렌 매콜스키 여사. 헬렌여사는 하버드대의 저명한 헌법학 교수였던 남편 매콜스키 교수가 사망한 1969년 이래 부동산소개업을 하며 자식들을 공부시켰다. 장남이 이제 장녀로 바뀌었지만 헬렌여사는 첫아이의 탁월한 지적 능력은 변하지 않는다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매콜스키 교수는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곧 시카고대 교수로 부임해 1980년까지 재직했다. 도널드 매콜스키라는 이름의 남성경제학자 시절에 쓴 그의 저서 『경제학의 수사법(The Rhetoric of Economics)』은 그에게 학자로서의 명성을 안겨줬다. 그러나 남성중심적인 경제학이론에 실증을 느낀 매콜스키 교수는 시카고대를 그만두고 에라스무스대로 자리를 옮겼다.

미국인, 딸 선호 경향 강하다

아들이나 딸을 원하는 대로 임신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트(Micro Sort)기술의 개발로 인해 미국에서 딸 선호 바람이 불 전망이다. 최근 『뉴욕타임스』에 보도에 의하면 마이크로소트기술을 개발한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소재 <유전학 및 IVF연구소>는 현재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성을 선택해서 임신, 출산할 수 있는 곳.

『딸 갖기(Getting the Girl)』라는 제목의 이 기사에 따르면 이 연구소에서 마이크로소트기술에 의해 태어난 아이는 현재까지 46명. 그러나 이곳을 통해 임신을 시도한 111건 중 83건이 딸을 선택한 사례로 밝혀져 미국인들의 딸 선호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는 아들선호로 인한 여아낙태(한국)나 여아 살해(중국, 인도)로 성비파괴 현상을 겪고 있는 아시아국가들과 달리 미국인들은 딸선호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딸을 원하는 쪽은 대부분 엄마라고 밝

혔다.

미국에서는 성선택 출산이 금지되어 있으며, 부모가 출산자녀에 대해 유전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아직까지 성선택 출산은 원하는 성만 엄마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인공수정법이나 임신 후 양수검사에 의해 원하지 않는 성일 경우 낙태를 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성은 질병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등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성선택 출산법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트법은 착상 이전의 단계에서 정자로부터 아들을 낳게 하는 Y염색체와 딸을 낳게 하는 X염색체를 분리시켜 수정하는 방법으로 약물이나 질병치료와 관련없는 의료처치에 해당되어 미 식품의약국이나 정부의 허가 없이도 연구소 임의로 시술할 수 있는 형편이다.

마이크로소트법을 개발한 에드워드 퍼거 박사는 여성난자(X염색체)가 남성정자(Y염색체)보다 크고 빛을 발하며 더 많은 유전인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별해서 분리해 내기가 수월하다고 설명한다. 또 남성정자 Y염색체와 관련된 유전병이 350가지가 되는 탓도 있다.

첫번째 마이크로소트아기는 지난 95년 Y염색체 관련 유전병으로 인한 뇌수종(남성에게만 나타난다)으로 두 남동생과 두 아들을 잃은 여성으로부터 태어난 여아였다. 그러나 이 마이크로소트아기 이야기가 처음 언론에 보도된 지난 98년 9월 이래 단순히 딸이 좋아서 딸 낳기를 원하는 엄마들의 문의가 연구소로 쇄도하고 있는 것이다.

<유전학 및 IVF연구소>는 이들 지원부모들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현재 40여 명이 불임연구소인 이곳에서 임신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외에 수백 명이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는 상태다.

21C는 여성의 시대'

미래전망 서적 보물

21세기는 여성의 세기가 될 것인가. 여권신장을 위하여 지난한 여정을 겪어온 지난 20세기와 달리 21세기는 여성이 지배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여성우월주의 서적들이 세기말을 맞아 쏟아지고 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세계적인 독자층을 갖고 있는 여성필자들이 집중적으로 미래전망서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30년 전 『거세된 여성』이라는 책으로 60~70년대 여성운동의 세계적 작가로 떠올랐던 저메인 그리어 교수는 최근 『완전한 여성(The Whole Woman)』을 발표. 미국과 유럽의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다. 또 폴리처상을 수상한 『뉴욕타임스』지 과학전문기자 나탈리 덴지어가 최근 출간한 『여성: 내밀한 지도(Woman: An Intimate Geography)』는 생물학, 심리학, 의학을 망라하며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약한 성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성이며 앞으로는 여성이 더 잘 적응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대표주자는 러트거스대학 인류학과 헬렌 피셔 교수의 최신 저서 『제1의 성(The First Sex)』. 1953년 첫 출판되어 20세기 여성운동의 고전이 된 시몬느 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The Second Sex)』을 패러디하여 여성이 첫번째 성이라는 뜻으로 제목을 붙였다.

이 책은 여성의 생태적인 특성이 지구촌화하며 지식 정보에 근거한 경제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는 21세기에 더 잘 적응할 것이라는 전망을 학술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주장하고 있다.

피셔교수에 따르면 여성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실들을 연계시키고 경우의 수를 모두 포함하여 생각하는 '거미줄 사고(web thinking)'에 강하다. 반면 남성들은 사물을 분리, 단절시키며 집중적 사고를 하는

'단계식 사고(step thinking)'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범위의 정보를 융통성있게 통합해야 하는 시장경제 발전 형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뇌구조의 남녀차이를 들어 증명하는 피셔교수의 여성우월주의는 선사시대까지 거슬러올라간다. 수렵 채집시대의 혈거인들도 남성들의 사냥으로 식생활을 해결한 부분은 별로 크지 않으며 여성들이 채집한 식물성 식단으로 사실상 석기시대 인류의 생존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피셔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남성들의 사냥은 한 가지에 집중된 단순임무였던 데 비해 동굴에 남아 아이들을 기르며 음식도 마련하고 가족들을 한데 모으는 등 여성들은 복합적인 여러 가지 임무를 융통성있게 수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여성지배 전망서들을 읽다보면 과연 남자가 좋은 점이 하나도 없을까 하고 의심하게 되지만 이들 서적들의 중요한 공헌은 기존의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게 하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그것이 바로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될 미래사회에 적응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점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즐거움에 동일한 상금을"

임블던 여자선수들, 남녀 동일상금 요구

우혜전(전 경향신문사 기자·현재 영국 거주)

윌블던 테니스대회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연례적인 스포츠 이벤트로 항상 미디어의 관심을 끈다. 세계적인 테니스선수라면 꼭 챔피언이 되고 싶어하는 이 경기는 6월 마지막 주와 7월 첫주 2주일 동안 내내 텔레비전에서 중계되고 각 신문들은 몇 페이지에 걸쳐 관련 기사를 실는다.

올해 윌블던은 특히 남녀평등 문제가 미디어의 관심

을 끌었다. 여자 테니스선수들이 '동일상금'을 요구하자 영국의 간판급 남자선수 팀 헨만이 이런 요구에 불만을 표시했고, 영국 신문사설들은 헨만에 대해 극단 반박에 나선 것이다.

그간 정치적으로 다양한 입장을 보이던 『가디언』, 『인디펜던트』, 『타임스』는 이 남녀선수의 동일상금 문제에 대해 이례적으로 한결같은 목소리를 냈다. 즉 여자선수들도 남자선수와 같은 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남자선수의 남성우월 발언에 언론 발끈

윌블던 테니스가 시작되던 첫날인 6월 21일 월요일 자 『가디언』은 여자테니스협회(The Women's Tennis Association)를 중심으로 여자선수들이 윌블던대회에서 남자선수와 같은 상금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미국 US오픈이 남녀선수에게 같은 상금을 수여하고 있는데 윌블던이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여자선수들의 주장을 기사로 다루었다.

한편 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여성선수들이 얼마나 윌블던에서 사랑받고 중요한 공헌을 하는지를 부각시켰다. 테니스와 쇼비즈니스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는 것은 여성테니스의 인기가 치솟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안나 쿠르니코바 같은 러시아 여성선수는 잘 단련된 육체미로 아디다스로부터 슈퍼모델 같은 수입을 얻어 마돈나 못지않은 상업적 성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여자선수들의 경기를 선호한다는 관중의 80%가 남성이라면서 여자선수들의 경기는 그들이 입고 있는 의상과 더불어 남자선수 못지않은 랠리와 베이스라인 파워를 통해 윌블던을 흥성하게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자 테니스선수들은 색시한 90년대를 스포츠와 패션으로 장악한 유명인사라는 것이다.

1936년 프레드 페리 이후 한 번도 윌블던 우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주최국 영국에게 젊은 남자선수 팀 헨먼과 그레그 루세드스키는 이상적인 존재이다. 이 국

라인헤어컬렉션

Line Hair Collection



주소 : 서울 강남구 신사동 653-20 화랑빌딩 5F
예약 및 문의 : TEL (02)544-1991 FAX (02)545-9366
영업시간 : AM 9시30분~PM 8시 (일요일 정상 영업)

가적인 소망을 등에 짊어진 팀 헨먼이 여자선수들의 동일상급 주장을 '욕심(greedy)'이라고 말하자마자 그는 이 논쟁의 화약고에 뛰어들게 되었다. 그는 여자 선수가 3세트 경기만을 치르는 데 비해 남자선수는 5세트를 뛰어야 하는 사실을 들어 동일상급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바노비치 같은 선수는 여자선수를 '게으른 살찐 고양이(lazy fat cat)'라고 불러 여자선수 경기가 남자 선수의 경기수준에 질적으로 미치지 못함을 암시해 왔다. 이 논리를 워블던 주최측인 전영국클럽은 지지해 왔다. 또 마지막날의 남자단식 결승전이 가장 인기있는 경기라는 것도 동일상급을 거부하는 이유다. 이 날의 입장권이 가장 비싸고 사기 어려워서 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사람은 영국의 특권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여자선수 결승전에서는 남자선수들 같은 강력한 서브 위주의 에이스를 기록하기도 어렵고 전 코트를 남자선수처럼 빠르게 달리며 네트로 돌진하는 박진감있는 장면이 적은 것도 사실이다. 반면 여자경기는 아기자기한 재미를 준다.

이러한 차이는 남성과 다른 여성의 신체적 조건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인지 여성선수들의 신체는 근육질의 남성화 경향도 보이곤 한다. 그러나 이 역시 남성들의 반대에 부딪힌다. 여자 테니스선수가 남성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자선수들은 '여성은 여성다워야 한다'는 사회적 명제로부터 벗어나기 어렵고 이 때문에 같은 대회에서 우승했다 하더라도 상금을 적게 받아야 하는 현실에 처한 것이다.

동일한 매력에 동일한 상금을

헨먼의 발언은 즉각 중요 신문사설을 통해 반박되었다. 『가디언』은 6월 23일자 「실수를 범한 우상(An Idol in Error)」라는 글에서 여자선수들의 경기가 빠르고 기

술적이며 스릴이 있어 남자경기만큼 매력적이라고 지적하고, 다른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여성 테니스선수들도 가능한 젊었을 때 여성차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재능을 한껏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타임스』의 26일자 사설 역시 「워블던의 여성—더 큰 즐거움에 대한 동일한 상급(Equal Pay for Greater Pleasure)」이라는 제목으로 남자선수들의 논리를 반박했다.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마라톤선수가 100미터 뛰는 주자보다 더 많이 벌어야 하고 15회전을 계속하는 권투선수가 빨리 녹아웃을 시키는 선수보다 수입을 더 가져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매력적인 여성선수들이 관중을 워블던으로 몰고오는데도 여성선수들이 남성선수들의 상급 총액의 단지 63%를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인디펜던트』의 26일자 사설 역시 "동일한 매력에 대한 동일한 상급(Equal Attraction Deserves Equal Pay)"이라는 말로 끝맺고 있다.

남녀평등 의식은 지식인의 지표

여자 테니스선수들의 남녀 동일상급 요구는 이번 워블던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남녀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 이유가 다소 남성위주의 시각을 보이기 는 하지만 여자선수가 남자선수와 함께 워블던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식인 독자를 상대로 하는 영국의 고급지들은 남녀평등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한결같이 확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적어도 지면을 통해서 여성을 차별하는 기록을 남기지는 않는 영국 지식인의 전통, 아니 오히려 여성의 권리를 대중보다 앞서 주장하는 태도를 영국 고급지들은 견지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처럼 남녀평등 의식이 지식인의 한 지표로 사용된다. □

미디어오늘 위임/312쪽 / 정가 9,000원

재미있는 언론이야기

언론인24시

언론인을 알면
언론개혁이 보인다

언론개혁, 그토록 거창한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사람에서 시작하니까요!



강준만 외 지음/324쪽 / 정가 9,000원

정의로운 용정이 없는 사회

조선일보 공화국

우리 나라는
조선일보공화국?

조선일보는 정의로운 용정이 없는
한국사회의 풍토가 낳은 산물이다.



미디어오늘 위임/312쪽 / 정가 9,000원

자기 지족보려고 있는 이자비 날름 뽀윰!

어느 안티미스코리아의 반란

차별과 불공정이 없는 사회!

내가 숨쉬고 싶은 세상은 폭력과 비아냥이 없는 사회,
차별과 불공정이 없는 사회이다.



독자와 함께 읽고 공감하는
인문과사상이 펴낸 책들입니다!

강준만 외 지음/302쪽 / 정가 9,000원

대심있는 세계화를 위한 자넵

권력과 리더십 1·2·3

국제화? 세계화?!

시리즈로 즐기며 세계 각국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권력과 리더십 3」이 나왔습니다.



정보화에 진입하는 좁은 문 통과하기, 혹은 다른 문 찾기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영화가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첫번째 작품은 국제 매매춘에 대한 것으로 93년 5월에 상영되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인 95년 5월에 공개된 2탄이 그 유명한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기록영화제작소 보임이 우리에게 제공했던, 결코 잊지 못할 경험의 출발점은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화두에 있었던 것입니다. 두 권의 다큐멘터리는 모두 현재 시점이었지만 현재는 식민지 과거로부터 연장돼 온 현재였습니다. 영화를 보는 일은 그것을 외면해 온 우리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돌아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 여기에도 아시아의 여성이라는 화두를 적용시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시아의 여성이라는 점을 잊고 삽니다. 아니 부정하지요, 우리는 아시아인이자기보다는 세계인이며 정확히 말하면 서구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준거집단은, 이런 광고에서 확인해집니다. "저의 경쟁상대는 독일주부입니다." 그래서 '아

시아'라는 말은 우리에게 미래지향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니, 심지어 과거지향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어떤 백인학자는 미래의 상으로 '아시아적 가치'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말에서 물어버리고 싶은 과거, 그리고 현재의 유교적 가부장제를 감지합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미래는 흔히 '정보화 사회'로 말해지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는 대단한 최첨단의, 뼈가 변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요. 이 미래사회와 '아시아'가 만난다는 것은, 적어도 바람직한 모양으로는 쉽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겁니다. 미래영화에서도 아시아는 디스토피아적 이미지로 주로 등장하는 것 같더군요.

아시아여성이 정보화사회에 진입한다는 것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보화에 대해서 시비를 좀 걸고 싶은 거지요.

아시아의 여성들이 정보화를 논한다면 어떤 이야기

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지난 7월에 그럴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터독—아시아링크'라는, 아시아지역에서 사회운동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와 개인들의 회의틀이 있습니다. 93년부터 지금까지 '여성과 정보화'는 이 회의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로서, 주제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토론에 참가해 왔다고 합니다.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올해 회의에서는 아시아여성의 '정보화 진입' 문제가 논의되었지요.

이 자리에서 인도네시아의 나니 분타리안(Nani Buntarian)과 같은 활동가는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특히 지방에서는 여성활동가들이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는 한데, 접속 환경이 받쳐주질 못하는 상태여서 정보화는 우선순위가 높은 고려사항이 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세계적 추세에 뒤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더욱 활동력이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정보'나 '통신'과 관련된 모든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하에 있는 국가들에서는 컴퓨터 가격이 일단 평균적인 월급 몇 년치에 육박합니다. 자국어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도 거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토착어는 바하사인데, 가장 기본적인 운영프로그램인 윈도우에서도 바하사 윈도우란 건 없습니다. 여기에 국민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매우 낮으니 그나마 영어 윈도우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구가 매우 적습니다. 또 물리적인 기반시설에서도, 인터넷망은커녕 전화선조차 큰 도시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깔려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접속료가 워낙 비싸고 심지

어 어떤 나라에서는 한 달에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시간을 국가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통신을 이용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을 정보화에 진입시키겠다는 기획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 될 수 있을까요?

현국으로 가는 좁은 문

그 날 자리에서는 논의를 주도한 이들이 주로 현업 여성운동가들이었기 때문에 '여성운동'의 입장에서 어떻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것인지가 포인트였습니다. 따라서 여성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여성기술자들을 많이 확보하는 문제와 여성운동에 대한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아시아지역 내 협력문제가 주로 언급되었습니다. 상시적인 논의틀로 AWORC(Asian Women's Resource Exchange)라는 것이 이미 제안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했구요.

그러나 이 날 논의가 체계 미진하게 느껴진 이유는 주제가 '여성단체' 내에서의 활용에 국한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남녀가 같이 여성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들이 오래 그렇듯 이 날도 '왜 여성네트워크가 필요한가'를 남성참가자들에게 설명해 주느라고 정말 제가 토론하고 싶었던 주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묻고 싶었습니다. 여성에게 '기술'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아시아여성’에게 ‘정보화’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이 정보화사회에 진입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인터넷 이용 인구에서 남녀 비율이 각각 50%에 이르렀다는 통계치들이 신문을 장식했지만 그건 미국에서의 일이죠. 새로이 등장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에 여성네트즌들이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지만 여기서 여성은 단지 ‘소비자’일 뿐입니다. 정보화가 여성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생산적 주체도 될 수 있어야 할 텐데 말이에요. 그러나 기술, 공업이 아니라 가정, 가사 과목 선택만을 강요당했던 우리나라 여성에게 기술은 이미 자신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화여대에 공대가 생기는 것을 두고 말들이 많았던 몇 년 전의 해프닝을 생각해 보면 여성에게 허용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는 명백해지죠.

어디 기술에서뿐입니까. 취업과 임금의 불평등은 여성이 장비와 기술에 대한 투자에서 남성보다 더 큰 부담감을 갖게끔 만듭니다. 가정에 있는 컴퓨터는 ‘남편’, ‘오빠’, ‘남동생’의 것입니다. 세보

절 않았으니 그 가능성의 가치를 깨닫기도 쉽지 않죠.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니 다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정보화사회로 들어서면 여성에게도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진다는데 이래서야 진입부터가 쉬운 일이 아니란 거죠. 천국으로 가는 ‘좁은 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거기가 정말 천국인지는 차치하고서라도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나요?

아니, 정말 묻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거기가 정말 천국인가요? 어떤 천국인가요? 까놓고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보화사회의 상은 미국이나 발달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많은 여성단체들이 정보화사

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와 통신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고, ‘여성단체 정보화’라는 주제의 수많은 프로젝트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왔지요. 그러나 “접속하기조차 힘들다면 어떻게 하지요? 우리 단체는 전화선도 겨우 2년 전에 들여올 수 있었는데요.” 어떤 인도네시아 여성노동자가 내게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이런 분주한 노력들 속에 무언가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가 갑자기 궁금해진 것이지요. 출발선부터가 다른 데 결론이 같게 나올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요.

얼마 전에 <여/성 이론> 창간호에서 아시아여성의 정체성 문제를 다룬 글을 읽었습니다. 아시아여성의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런 질문이 아닐 수 없지요. 이 질문이 주는 중요한 반성의 계기가 있다면 이런 것

입니다. 모든 여성문제가 같은 조건하에서 어떤 동일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낙태문제는 미국과 우리 나라에서 서로의 변형이 아니라 출발과 도달점이 서로 다른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낙태 문제는 진보 대 보수의 모양새를 띠고 있다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보수층이 온전히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영남지역에서 제일 낙태율이 높다는 어떤 신문기사가 이런 심증을 더욱 굳히게 하는군요.

요는, 페미니즘이 단수로서의 페미니즘이 아니라 페미니즘 ‘들’로 존재해 왔고 어떤 여성문제도 단수가 아니라 맥락에 따라 여성문제 ‘들’로 존재해 왔다는 것

입니다.

정보화에 대한 문제에서도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현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여성에게는 우리보다 정보화가 훨씬 가깝게 느껴질 겁니다. 피나게 다이어트를 해서 기준치에 맞추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일 거라는 거죠. 그러나 백인여성이 통과하고 싶어하는 그 기준치는 백인남성들의 기준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람들의 기준치를 통과할 가능성은 많지 않을 뿐더러, 왜 그래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저 문을 통과한다고 해서 천국이 도래할지 확실치 않다는 말이지요. 이를테면 정보화에 대한 문제를 푸는 방식이 이래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정보화에 여성을 진입시키기 위하여 여성기술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여성기술자들은 흔치 않다. 그러므로 여성기술자들을 위한 이니셔티브가 있어야겠는데, 여성기술자를 위한 재택근무/파트타임제를 확산시켜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한상문인 재택근무

위에서 말한 회의자리에서 실제로 누군가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안될 말씀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몇 년 전에 이에 대한 논문이 나왔던 바도 있지만,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거의 제로인 상태에서 재택근무는 성역할만 강화시킬 게 뻔합니다. 게다가 현재 진행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모양새가 파트타임/임시직으로 노동형태를 몰아가고 있는데 위와 같은 논리하에 여성노동이 그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요. 노동의 여성화는 ‘고용을 창출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겠군요. 우리 맥락에서 서구와는 다른 정보화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입니다. 착취와 식민의 경험이 그들과는 다른 우리이듯이, 정보화의 의미도 뭔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아시아 여성들간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

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튼 여성운동으로서는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사이버여성문화제’ 같은 이상한 행사를 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보화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 무척 늦은 감이 있지만 —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캐나다에서는 초고속정보고속도로에 대한 어떤 위원회에 노동계가 참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초고속정보고속도로를 추진할 때 노동계의 요구에 의해 정보고속도로가 실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대안 마련도 같이 진행하기로 했대지요. 벌써 몇 년 전의 일이었는데 결과 여하와는 별도로 발상 자체가 지금 생각해 봐도 신선합니다. 정보화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참여하겠단, 혹은 그걸 어떤 것으로 만들겠다,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게 아닐까요? 좁은 문을 들어가고 애를 쓰기보다 다른 문을 찾는 게 더 나은 거라고요. [1]



강한거미(della@www.jinbo.net)

강한거미는, 한국 여성학과 여성운동이 이 사회 모든 분야의 가장 소외된 아들에게 미치는 급진적이고 실천적인 문제의식을 회복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의 다양한 정체성과 조건을 고민하는 ‘보다 많은’ 페미니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한거미는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여성활동가들과 더불어 공부하고, 쓰고 있습니다.



매매춘으로 내몰린

조선시대 여성들

동 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의 '몸파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여겨져왔다. '돈'을 위해 자신의 몸을 파는 여성은 육체적으로 '더러운' 여자임은 말할 것도 없고 한 사회를 성적 타락으로 떨어뜨리는 '암적 존재'로까지 인식되어 왔다.

더욱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도 있는 것이 이른바 시장의 원리일 텐데, 매춘시장만큼은 파는 사람이 더 나쁘다는 인습적인 판단이 적용되었다. 매춘에 대한 이러한 인습적 판단은 성경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예컨대 예수는 창녀 막달라 마리아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가 있느냐고 되물지만, 여성의 몸 파는 일은 한 개인의 최악의 문제이기 앞서 사회 인습적인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권력, 복종, 억압적 충동, 여성의 순결 강조, 결혼제도 등등이 모든 요소들이 매춘행위를 부추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정죄해 온 것이다.

에두아르트 폭스의 말을 빌리자면, "매춘제도는 사유재산제를 기반으로 하는 일부일처제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한다. 일부일처제는 부부간의 성적

책임과 순결을 강조하는 사회 인습적이고도 계약적인 면이 강한 결혼제도이다. 따라서 일대일의 부부관계만을 강조하는 일부일처제는 한편으로 부부간의 성 밸런스가 깨지면 매춘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약점이 있는 것이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여성들이 결혼을 아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일수록 매춘의 발생률은 높아진다고 한다. 더욱이 일부일처제뿐 아니라 일부다처제 또한 매춘 발생률을 억제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일부다처제는 남성을 합법적인 성적 상대 없이 방치해 두기 때문이다.

강요받은 매춘

성을 상품화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잠시 접어둔다면, 전통시대에서 매춘은 홀로된 여성들이 먹고살기 위한 경제적 독립의 한 수단이기도 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힘든 시대일수록 매춘은 여성의 독립생활을 가능하게 해준다.

처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해 결혼할 수 없는

처지이거나, 결혼한 뒤라도 간통이나 이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양해 줄 남자가 없을 경우, 여성들에게 생계란 생존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생계를 위한 직업이 없는 시대이다보니 생존을 위한 직업을 찾게 되고, 비록 경제적 이유가 아니더라도 부정한 여자로 낙인찍히면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없는 전통사회의 구속력 또한 매춘부로 전락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리 나라에서 정조관념이 희박한 여성으로 낙인찍혀 국가 소속의 매춘부가 되거나 평생 그러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여성들이 속속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부터이다. 이들은 기녀와 달리 지켜야 할 정조를 잃어버린 여성들인 셈인데 그에 대한 형벌로서 매춘을 강요받았다. 고려시대에는 이러한 여성들을 가르켜 '자녀(姦女)' 또는 '유녀(遊女)'라고 불렀다.

매춘부란 여성에게 부과된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여러 남자와 섹스하고 그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불받는 여자들을 말한다. 남자들의 성적 배출구 역할을 담당한 여성들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와는 달리 조선시대에는 매춘인구를 엄격히 제한했다. 그래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녀를 제외한 일반여성들의 매춘을 일절 금지했다. 하지만 음성적으로 양산되는 매춘을 막을 수는 없었다. 조선시대 매춘에 종사한 직업 중 대표적인 것이 기녀라고 할 수 있지만, 기녀는 일부 양반지배층만을 상대한 제도권 내의 매춘녀라 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매춘과는 성

격이 다르다.

조선시대 제도권 밖의 매춘녀는 이른바 '유녀'와 '화랑'이라고 불리는 여성들이다. 이들은 기녀처럼 신분상 매춘행위를 하도록 지배층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매춘녀들은 아니다. 단지 간통 등의 이유로 순결이나 정조를 잃어버린 양인여성들이거나, 그 밖의 천민여성들이었다.

여성들의 삶생부, '유녀적(遊女籍)'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여성의 정조를 강조한 조선시대에 양인여성들이 매춘부로 전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양인여성들의 매춘행위를 근절하고자 했다.

그러나 '순결'과 '정조'를 잃어버린 여성들을 죄악시한 성리학적 윤리 앞에서 '타락녀'로 한 번 규정되어 버린 여성은 더 이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이들 앞에 놓여 있는 선택이라는 것은 죽음이었었고, 유녀 신분이 탄로나 관가에 발각이라도 되면 노비신세가 될 뿐이었다. 한 번 매춘녀로 낙인찍힌 여자는 삶든 죽든 그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여성의 성적 분방함을 관대히 보여주는 사회일수록 매춘의 부류에 들어가는 성행위가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조선시대 유녀라는 매춘녀들은 여성의 음행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성윤리



속에서 탄생했다.

조선시대 유녀들은 개인적으로 매춘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관리를 받았다. 지방관청의 경우 대부분 양인 출신의 여자나 계집종들의 이름을 기록한 '유녀적'이라는 장부를 은밀히 만들어 이 여자들을 관리와 같이 부렸다. 이 유녀적은 일생토록 유녀신분에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말하자면 살생부였다. 그러다보니 유녀가 되면 아예 터놓고 매춘행위를 하기도 했다.

게다가 유녀로 끌어들이기 위해 간통했다고 거짓소문을 퍼뜨려 신세를 망치게 하는 일도 종종 일어나게

되었다. 관에서는 유녀들을 노비로 부릴 수 있는 이점이 있었으므로 이들이 양산되는 것을 방조했다. 따라서 간통한 여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도 않고 소문만으로 무작정 유녀적에 이름을 올렸다.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유녀의 양산을 조장하는 유녀적을 없애고자 했지만, 부패한 지방관이 있는 이상 실효성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러면 유녀들이 상대한 남자들은 누구였을까? 조선시대에는 매춘지역이 따로 없었으므로 매춘부들은 전국을 떠돌았는데, 특히 변방의 아내 없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매춘행위를 했다. 또 봄과 여름에는 세금을

거두는 장소에 가서 돈을 벌고 가을과 겨울에는 산간의 승사로 가서 매춘행위를 했다.

유녀들의 배후에는 이들을 관리하는 소위 '색인(色人)'이라 불리는 포주들이 있었다. 이들은 유녀나 화랑을 데리고 다니면서 매춘행위를 조장하고 이들로부터 이익을 챙겼다. 이들 색인들의 성별과 신분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상당한 재력을 갖춘 상인들이 추측되었다. 이들은 일단 재물로써 양가의 처녀를 꾀어내어 실행하게 한 다음 유녀로 만드는 수법을 사용한 악덕상인들이었다.

실패 못 거둔 매춘금지

매춘을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춘녀들이 계속 양산되자, 국가에서는 양인여자를 사들여 창녀로 만들면 곤장 100대의 형벌에 처하도록 하였고, 매춘을 조장하는 색인들의 재산몰수하는 등 매춘업을 근절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매춘행위는 워낙 음성적이어서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다.

한편에서는 색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관가의 서리들이 매춘행위를 방조하는 부정이 저질러지기도 했다. 따라서 서리들의 방조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좌천시키는 등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상금을 걸어 매춘행위의 적발을 유도하기도 했다.

매춘을 금지하고자 하는 의지는 매춘녀가 된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정부에서는 양인여성들이 유녀생활을 하다가 적발되면 관비로 만드는 등, 천민 출신의 유녀들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했다.

반면, 들켜봐야 손해볼 것이 없는 천민 출신의 유녀들은 적발된 뒤에도 계속적으로 매춘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실제 매춘행위는 근절되기가 힘들었다. 더욱이 개인 소유의 여종들은 주인들 몰래 매춘행위를 하기도 하고, 주인이 나서서 매춘행위를 하게 하여 화대를 챙기는 경우도 있었다.

매춘이 성행한 것은 전쟁과도 연관이 있었다. 임진

왜란 때는 명나라 군인들을 상대로 한 매춘이 성행하기도 했는데, 당시 명군들은 조선의 유녀뿐 아니라 양인처자들을 간음하는 일도 종종 있어서 사회문제가 되었다. 게다가 통역을 담당한 역관들이 명군과 유녀 사이를 연결시켜 주기도 했다. 조선정부에서는 중국군사와 매춘하다 발각된 유녀들을 성 10리 밖으로 쫓아내도록 했다.

임란으로 국경을 넘는 일이 쉬워지다보니 중국인을 따라 국경을 넘어 매춘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매춘녀들이 국경을 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었다. 동래나 부산 등지에 거주하는 왜인들을 상대로 일본 매춘부들이 한반도에 유입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에도 매춘은 엄연히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다른 나라들처럼 성행하지 않았을 따름이다. 우리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매춘이 창궐하게 된 것은 한말 이후부터인데, 이 시기의 매춘은 조선시대와 그 성격이 다르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매춘녀들은 특히 강간이나 간통으로 돌아갈 곳 없는 여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조선시대 매춘녀인 유녀들은 여성의 순결과 정조를 유독 강조하는 사회가 만들어낸 산물인 셈이다. 17



못 자!

다음은 미국 검사,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실수한 말들을 모은 황당한 어록입니다.

1. 22세 된 막내아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는 몇 살입니까?
2. 혼자 하셨나요, 아니면 단독법행?
3. 그 사람이 당신을 죽였습니까?
4. 총을 당시에 두 차가 얼마나 떨어져 있었죠?
5. 당신은 그 곳을 떠나기 전까지 그곳에 있었다지요. 사실 인가요?
6. 문: 임신하신 날이 8월 8일인가요?
답: 예.
문: 그 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7. 문: 자녀가 셋이라고 하셨습니까?
답: 예.
문: 이드님이 몇 분이시죠?
답: 하나도 없습니다.
문: 혹시 따님은 있나요?
8. 문: 그 계단이 지하실로 통한다고 하셨습니까?
답: 예.
문: 그렇다면, 그 계단은, 지상으로도 통합니까?
9. 문: 슬레터리씨, 이번에 신혼여행을 다녀오셨다죠?
답: 유럽으로 갔다왔습니다.
문: 부인도 같이요?

10. 문: 첫 결혼은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답: 그만, 죽어서....
문: 누가 죽은 거죠?
11. 문: 박사님, 죽은 사람에 대한 부검을 하신 것을 몇 번 했습니까?
답: 내가 한 모든 부검은 다 죽은 사람한테 한 거요.
12. 문: 답변은 모두 구두로 해주십시오. 학교는 어디를 다니셨습니까?
답: 구두.

한국학생의 자존심?

비행 교관이 고공낙하를 가르치고 있었다. 학생들은 무서워 주저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그래서 교관이 프랑스 학생에게 "아름답지 않은가" 하자 주저하지 않고 뛰어내렸다. 다음엔 영국학생한테 교관이 "젠들맨이라면 뛰어"라고 말했다. 그러자 영국학생도 뛰어내렸다. 다음은 독일학생에게 "명령이다. 뛰어" 했더니 뛰어내렸다. 그 다음 일본학생에게는 "다른 학생들 다 하지 않았는가" 하니 뛰어내렸다. 마지막으로 한국학생도 교관이 무슨 말을 하자 두말없이 뛰어내렸다. 과연 뭐라고 했을까?
→ "내신에 반영한다."



정성희

한국장신문화연구원
정서각 연구
『한국사 101장면』
『조선의 성종숙』 저자

페미니스트의 '인간에 대한 예의'

이 난은 한국에서 페미니스트로서 살아가는 여성들이 자신의 선 자리를 되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페미니즘의 딜레마, 페미니스트의 자기 반성, 혹은 심도있는 경험읽기 등 이제까지 아무도 언급한 적 없는 주제로 채워질 것이다. 이미 게재된 글에 대한 반박이라도 좋다. 많은 여성들의 솔직한 글을 기다린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 남겨진 사람이 겪는 고통의 사회적 원인은 무엇인가. 가깝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저만치 멀어져 있다. 주변사람들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지 못한다. 몸이 많이 아파서 살이 찌중나고 의욕이 안 난다. 잘난 척하는 동료에 대해 열등감을 느껴서 괴롭다. 내가 바라는 만큼 앞날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런 모든 심란스러운 것들에 대해 사회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고민들은 우리가 대체로 개인적인 일로 분류하는 문제들이다. 대체로 이런 유의 괴로움들은 사회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어쩔 수 없는 인간사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된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보다 나은 해결책 찾기를 포기했다는 뜻이다.

여기서 나는 우리가 개인적 차원의 유토피아를 한낱 유토피아일 뿐이라고 치부하면서 이루기를 포기해 버린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절망심이나 배신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사는 것은 성인(聖人)이 아닌 다음

에야 가능하지 않고 우리는 성인이 될 수 없다고 전제되고 있다.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과 느낌들이 인간의 본능일 뿐이므로 해결하기를 포기한다면 갈등이,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이 인간사회의 필연이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유토피아를 열렬히 꿈꾸는 사람들 중에는 개인적 유토피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개인적인 완성을 이루어낸거나 성인(聖人)이 되고자 하는 비밀스러운 꿈조차 꾸지 않는 것 같다. 처음부터 그것은 꿈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열망하기 곤란한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 같다. 아니, 더 나아가, 사회적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해서 개인은 오히려 희생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거름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한 것 같다. 정말 확실하게 썩으면 거름이 되지만 대체로 우리는 확실하게 썩지 못한다. 썩지 않은 덩어리들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피해의식이 되어 돌아오고 그것은 사회를 향해 내던지는 오염물질로 둔갑해 버린다. 게다가 확실하게 썩는 사람은 사실은 개인적 유토피

아를 이루어낸 사람이다(사심을 버리지 못한 채 행하는 자발적 희생은 피해의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러니, 내 안에 없는 것을 내가 밖에서 실현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자기 마음의 평화는 바라지 않으면서 사회의 평화만 바라는 꼴이 아니겠는가. 내면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진지한 의지와 목표가 빠진 채로 사회적 정의를 고민한

다면, 그건 사회적 정의를 이루어내는 데에 필요한 도구를 스스로 녹슬게 만드는 일이다. 불행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여성주의에서 '조화'라는 단어는 종종 위협스럽게 느껴진다. 조화는 지배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명분으로 내세워지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주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여성들이 조화를 가능하게 할 힘과 능력을 갖는 일이고, 여타의 소외집단들을 끌어안으면서 진정한 세계평화에 이르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여유가 없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서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종종 망각하기 때문이다. 누군가와 싸울 때는 궁극적으로 원수가 되자는 목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없으면 내 행동의 일차적인 효용(스트레스 해소)만을 생각하고 장기적인 효용을 계산하지 못하는 것과도 같다. 마찬가지로 남성집단을 향해 내던지는 비판들이 진정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것이 분노를 터뜨리는 자기만족적인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의식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하지 않을까.

제대로 된 싸움은 마음 속에 평화가 있을 때에만 성공할 수 있다. 제대로 이기려면 상대방을 짓밟는 방식이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말이다(모

유토피아를 열렬히 꿈꾸는

사람들 중에는

개인적 유토피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므로).

부모를 원망하고 닮는 유아기적인 심리로서는 '해방'될 수 없는 것처럼, 개인의 불행들이 차별적인 사회구조 탓으로만 돌려진다면 결코 해소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차별적인 구조는 나의 외부에 있는 괴물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날마다 재생산되고 있는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종류의 페미니스트들을 바라보

는 내 눈 속에 있고, 페미니스트와 페미니스트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내 마음 속에 있다.

차별적인 구조와 싸우는 사람들 중에는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도 있다. 행복한지 여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만큼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다. 내 생각에 페미니즘이나 개선된 사회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다만 내가 행복할 때 의미 있는 페미니스트가 되고 좋은 사회를 구호로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만들어낼 능력이 생기는 것 같다. 정말로 사회가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 나 자신부터 행복해지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또한 세상의 고통에 압도당하지 말아야 하고 가부장제의 스트레스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경우에도 상대적인 자율성을 살려내야 한다. 어떻게?

이 '어떻게'의 문제가 진정 페미니즘의 숙제라고 생각된다. 개인의 행복을 가로막는 내면의 원인을 방치해 버린다면 사회적 원인에 대한 끝없는 추궁은 언제나 증상치료에만 치우친 의료행위처럼 총체적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을 때리는 남성의 폭력을 이야기하기는 쉽지만, 여성들 사이에서도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들이 어떤 폭력적인 메커니즘에 따르고 있는지를 스스로 통찰하기는 쉽지 않다. 어린 학생들 세계에서 발생하는 왕따현상을 비판하기는 쉽지만 우리 스

스로 행하고 있는 크고 작은 파동들들에 대해 자각하고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남성들이 여성들에 대해 갖는 우월의식을 비판하기는 쉽지만 페미니스트들 내부에도 존재하는 수많은 우월감과 열등감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을 함께 풀어내지 못한다면, 즉 각각의 페미니스트가 어떻게 진정한 주체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를 서로의 관계 속에서 실현시키지 못한다면 사회적 차원에서 과연 얼마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주체의식은 피해의식과 죄의식이 사라진 곳에서 시작된다. 피해의식은 자신의 현실에 대한 책임감을 감아먹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지 못한다. 죄의식은 더욱더 파괴적이다. 죄의식이 쌓이면 공격성만 늘어간다. 우리는, 여성의 고통에 대해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사람들의 죄의식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의식화'를 해서는 안된다. 사랑이 부족한 곳에서 죄의식이 싹트는 것 같다. 죄의식은 관심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한 의식의 '타락방지 프로그램'이 아닐까. 하지만 억지로 사랑의 옷을 입으려는 노력

은 더욱더 소모적이고 에너지 손실이 크다. 내적인 장애들을 제거하면 그 때의 여유가 바로 사랑이 아닐까. 내적인 장애들을 방치한 채로 사랑의 옷을 입고 자매애를 외치고 세계평화를 꿈꾸는 일은 '슬픈, 힘겨운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뿐이다.

우리가 실천해 볼직한 자기개혁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순 없을까? 여성운동에서 한 해의 목표로 세우는 사업처럼, 페미니스트 개개인들도 자기 내면의 장애를 진정으로 '해결'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할 수는 없을까? 그것을 위해 필요한 '이론'을 함께 만들어볼 수는 없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좀더 명확히 알아야 하고 무엇이 괴로운지를 좀더 솔직하게, 투명하게 바라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연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참여관찰이 요구될 것이다.

나는 우리가 여성학을 통해 사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의

식이 변화해야 한다는 말은 쉽게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의식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자신의 화장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같다.

여성(사람)들의 주체의식은 지배권력/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의 수준에서는 결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현실과 삶을 말 그대로 '창조'해 내겠다는 적극성에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가부장제의 세련된 책략에 대한 비판과 분석만 나열하고 세월을 보낼 것이다. 그것은 많은 여성들을 힘빠지게 하고 지치게 한다. 나는 자신의 삶을 즐겁게 '창조'하는 작업을 기본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만 사회에 대한 개선작업도 가능할 것이라 믿는다.

신념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경험의 원인이 라고 할 수 있다. 경험적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신념을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도, 여성학은 다양한 종류의 왜곡된 신념체계를 바꾸는 작업을 해왔다. 그래서 경제적 수준, 성별, 장애여부, 연령, 인종 등 수많은 범주들을 우리는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여전히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범주들에 대한 논의일 뿐이다.

나의 신념은 혹시 너무 보수적이지는 않았는가? 내 의지와 신념/믿음이 나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한가 의심해 보지는 않았는가? 나의 문제들을 설명할 때 외적인 환경에만 탓을 돌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경험하는 삶이 나의 의식적/무의식적 선택의 결과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사회적 현상의 어떤 것도 하루아침에 우연히 일어나지 않듯이, 개인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사건/사고도 그냥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우연'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종 분석적 논리보다는 직관적 느낌과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많다. 그저 느낌으로 다가오는 어떤 의미들이 있을 때 그것을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무시하지는 않았는가.

사회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작업이 세련화하는 것과 더불어 개인이 자신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작업도 세련될 필요가 있다. 사회의 보수세력이 자신의 기득권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그 순간에도 동시에 나는 특정 인간관계에서 특정 기득권을 열심히 붙잡고 있다는 것을 못 보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왜 나의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른 특정집단이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기 힘들 것이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결코 변화될 수 없다. 우리가 소위 '억압자', '지배자'라고 부르는 이들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는 말자. '지배자'들은 추방의 대상이 아니라 의식화(?)의 대상이 아닐까. 모든 '범죄자'가 그러하듯이, 내 안에 있는 '지배자'가 그러하듯이.

내가 살아가면서 매순간 수많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내가 날마다 스스로를 어떻게 재창조하고 있는지를 의식할 수 있다면 아마도 나는 나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결코 한가한 개인의 정신적 사치는 아닐 것이다. 이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격, 예의(?)일지도 모르겠다. [1]

정고미라

나의 키워드는 페미니즘, 해달음, 예술이다. 최근에 가장 감명깊게 읽은 책은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혁명'과, 닐 도널드 월시의 '신과 나는 이야기'이다. 너무너무 재미있답니다...



정고미라

웃자!

추억

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베란다 의자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할머니가 말했다.
"영감, 기억나요? 우리 공원에서 만나 내 손을 처음 잡았을 때 얼마나 떨렸는지 알아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슬그머니 잡았다.
"그리고 나에게 기대면서 키스를 했잖아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기대면서 키스를 했다. 할머니는 기분이 좋아져서 계속 말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억나요? 당신이 내 귀를 애무하면서 깨물어줬잖아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집안으로 들어갔다.

"갑자기 어디 가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들니 가지려."

아파요!

무지하게 괴로운 얼굴을 한 환자가 찾아왔다. 환자 왈.
"의사 선생님, 온몸이 아파 죽을 거 같아요. 머리를 찢어도 아프고, 다리를 찢어도 아프고, 배를 찢어도 아파요. 온몸이 다 아파요, 죽을 거 같아요."
의사 왈.
"네~~, 잠시만요." 이러저리 살펴보니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새로운걸 만들려면 먼저 덜어낼 줄 알아야

바야흐로 수련의 열풍이 몰아닥치고 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몸의 단련을 넘어서 새로운 인식의 패러다임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여성학에도 이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없지 않다. 현재 수련과 여성주의를 접목, 실천하려는 김정희씨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는 이대 여성학과에서 박사학위논문 『생명여성주의의 존재론적 탐구: 반아불교의 노자의 '마음' 개념에 기초한 신인간형의 모색』을 썼으며, 현재는 공동육아연구원의 부원장이다.

내가 수련과 인연을 맺은 건 1992년 봄이었다. 당시 나는 참 많이 허약해 있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제 명에 못 죽지라는 생각을 할 만큼, 만성 피곤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다. 두 아이는 밥 먹는 것도 잊고 놀 만큼 에너지가 넘쳤으니 참 건강하고 고마운 거였지만, 아이들의 기운을 받아내기에는 엄마가 너무 약해져 있었다. 늘상 입 속에 구강염을 달고 살았고 눈의 통증이 심했고 건망증 또한 내 스스로 지겹다는 생각이 들 만큼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고 있었으며 잠들기 직전의 나는 파김치, 바로 그 상태였다.

나는 이 모든 힘겨움을 여성학적 분석틀에 맞추어 내가 이중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고 따라서 많은 가사노동을 할 수 없는 남편의 객관적인 상황을 이해하기보다는 불만에 차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끝낼 하곤 했다. 당시 남편은 박사과정중이면서 강의를 최고 20시간 안팎으로 하고 있었다.

나는 프로젝트 연구원이었는데, 그 급여라는 게 애 봐주시는 아줌마 월급을 주고 나면 남는 게 얼마 없는 수준이었다. 그러니 남편의 강행군은 우리 생활을 위해 필요했다. 남편은 학생으로 들은 야간강의와 가르치는 야간강의로 일주일의 반은 12시가 돼서야 들어왔다. 이 생활이 가사노동

에 협조하기 힘든 초인적인 생활이었다는 걸 깨달은 건 내가 박사과정에 입학하고 나서다.

그러나 내게 입원이라도 할 만큼 분명한 병이 있는 건 아니니 치료요법을 들이댈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한의에서 말하는 절(疾)의 단계를 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양 의의 처방이란 실재 없기 때문이다. 한의에서 질병의 발현단계는 자기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병이 짚트는 아(痼), 몸으로는 아직 표나지 않지만 성격이 바뀌게 되는 채(癥), 뭔가 안 좋다는 느낌을 갖지만 어쩔 수 없어서 상태가 하루하루 고착돼 가는 고(癰), 아주 구체적으로 심한 피로감, 권태감 등으로 뭔가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절(疾), 구체적인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 병(病)으로 설명된다. 서양의학은 병의 단계에 와서야 약물이나 수술로 대응하는 국소적 치료요법이 주가 되고 있다. 반면에 한의에는 치료와는 별도로 양생(養生)의 전통이 있다.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막힌 곳을 뚫어주고 정기(精氣)를 축적하고 심신을 가지런하게 함으로써 어떤 외적인 원인에도 육체적, 정신적 방어력을 갖춘 심신을 기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수련이고 현대말로 하자면 대체의학으로서의 예방의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편이 먼저 수련을 시작했고 건강에 효과가 있을 거라는 말에 두 말 않고 수련에 응했다. 그만큼 내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나게 된 수련은, 나를 끌어당기기에 충분한 매력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었다. 우선 수련 첫날 실무자가 수련에 대해 뭐라 뭐라 설명하는데 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메시지는 있었다. 이걸 하면 몸이 건강해짐은 물론 인간성도 괜찮아진다. 그런 메시지였던 거 같다.

그런 설명을 듣고 수련하기 위해 반가부좌를 틀고 앉았는데, 그 때 든 생각이 '이것 참 민주적이구나' 라는 거였다. 이렇게 가부좌 틀고 앉아 진언(眞言)만을 암송하는 데는 성별, 빈부, 학력의 차이가 없고 오로지 자기와 의 싸움에 누가 더 건력했는가 하는 것이니 이만큼 투명하며 민주적인 척도와 방편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평소 원칙론자라는 소리를 들어온 나는 원칙론적인 면에서 수련 원칙의 한 단면을 켤 것인데, 차별없는 세상을 바라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내게는 수련이 이렇게 매력적인 것으로 다가왔다.

수련을 시작한 때는 박사과정에 입학한 1992년 봄학기였다. 신참자는 3일을 수련원에 매일 나가 3시간을 수련해야 했다. 낮에는 학교생활을 하고 밤에야 시간이 나는데, 집에서 기다리는 여섯 살짜리 딸을 놔두고 연속해서 시간을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건강해진다는 말에 어렵게 3일의 시간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신기했던 게 그 3일 동안 늘상 무겁기만 했던 가방이 그 무게를 거의 느낄 수 없을 만큼 가볍게 느껴졌다는 것이다. 애가 있고부터는 죽어도 7, 8시간은 자야만 했고 새벽에 일어나 뭘 한다는 게 불가능했던 내가 미혼 때처럼 새벽에 눈을 뜨는 거였다. 그리고 그렇게 잠을 적게 자면 단박에 입안의 몸살인 심한 구강염으로 몸 전체가 휘청했어야 하는데 신기하게도 구강염이 나타나지 않았다. 내 몸에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놓았음

새벽에 일어나면
20~30분 빈가부좌를
틀고 앉는다.
집중수련을 하고 나서는,
무엇을 대단하게 하기보다는
새로운 일을 짓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을 말해 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수련이 몸에 붙지 않아 집에서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게 되질 않았다. '애 재우고 수련해야지'라는 마음만 있고 나는 애와 함께 잠에 꿀아떨어졌고 새벽에는 그 날 수업 준비를 하기에 바빴다. 다행스러운 건 막바지 논문 준비로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던 남편이 새벽에 나를 깨우고는 잠자리에 들었다. 이렇게 해서 그나마 주 1, 2회라도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그 때부터 둘째애를 낳을 때까지 한 번도 구강염을 앓지 않았다.

둘째애를 낳고 나서 일이 몰린다 싶을 때 구강염이 찾아왔다. 그만큼 출산이 정기(精氣)를 소모하는 큰 일이란 소리도 되고 내 수련의 깊이가 얕았다는 소리도 된다. 그러나 이제는 구강염이 찾아오면 내가 맺고 있는 관계, 하고 있는 일이 가지런하지 못하다는 징표로 받아들이고 다시 나를 가다듬는 자세를 갖게 된다. 건강증도 간간히 나타나기는 하나 내 자신에게 절망스러운 정도에서는 벗어났다. 또 일상적인 피곤함은 모르고 산다.

공동육아연구원의 실무자로 정신없이 보낸 작년에 사무실의 분주한 기운을 온몸에 그냥 묻히고 들어왔던 나는 아이들과 놀다보면 그 산만한 기운이 말끔히 빠져나가는 걸 종종 느끼곤 했다. 또 때와 장소에 맞추지 못하고 넘치거나 모자란 행동은 바로 반성하게 되고 몇 년 전의 행동도 찌꺼기가 남아 있는 것은 상기가 되어 다시 정리해 보게 된다.

또한 나는 수련을 통해 획일적인 여성주의에서 벗어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고 대응하는 변화를 느끼고 있다. 우리 남편은 획일적인 잣대로는 전혀 훌륭한 남편감이 아니다. 돈을 잘 벌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가사분담을 칼같이 하지도 않는다. 새벽 대어섯 시라도 자기가 들어오고 싶은 시간에 들어오고 나가고 싶은 시간에 나간다. 그런데 이상적인 부부관계의 상, 남편상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남편을 수용하니 자기다움을 맘껏 발휘하며 사는 남편의 모습이 그리 보기 좋을 수 없다. 남편은 인생의 큰 방향, 굵직한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의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이다.

잘난 맛에 살던 융통성 없는 원칙론자였던 내게 이런, 나만이 감지하게 되는 나 자신의 변화는 더디기는 하지만 참으로 소중하게 느껴진다. 비로소 성찰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체험적 감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나를 위축시키는 쪽으로 작용한 건 아니다. 석사가 되고 나서, 이 학위를 갖고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막막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처한 여건에서 내 역량만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당당함의 기운이 안에서 뿜어나오고 있다는 걸 느낀다. 이건 내 존재의 중심잡힘에서 오는 당당함이다.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떨어낼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알 역시 수련을 통해 얻게 된 것이다. **■**

김정희

내 사랑 투명반창고 (둘) — 니네브의 사랑

이숙인, 장편소설 『학교는 다다』의 작가, 본지 객원기자.



나 역시 큰 바보였소. 내 자신보다도 남을 더 사랑해 버렸으니 말ियो.
나를 그녀에게 묶어두는 방법을 내가 그녀에게 가르쳐주다니,
정신나간 짓이지...
이젠 아무도 나를 자유롭게 할 수는 없소.

*주— 아더왕의 전설에 나오는 마술사 멀린이 니네브라는 요정에 의해 영원히 숲속에 갇히게 된 다음 뇌가웠다는 후회 어린 탄식. (아서 코프필 저, 『세계신화사전』 중에서)

사랑이란 말야. 오색 과일과르케를 꼭대기 하얀 생크림에서부터 밀바닥 까만 초코시럽까지 차례로 맛본 다음, 남은 국물까지 살살이 빨아먹다가 깨진 크리스탈 용기에 햇바다를 스욱 빼어 피맛을 보고, 끝으로 매끈한 금속스푼을 집어 제 눈을 꼭 찌르는 것과 같다고 이번 간 친구 주혜는 어느 새벽 느닷없이 전화를 걸어 내게 말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어. 너 요즘 남자랑 자지? 주혜는 그런 친구였다. 주혜가 이민을 떠나자 한동안 마음이 울적했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다. 내겐 대부분의 느낌이 아주 잠깐씩만 마음 안에 머물다 말았다.

그 무렵 영국영화 몇 편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친구관계였다. 예를 들면 <네 번의 결혼식, 한 번의 장례식>인가 하는 영화에서도 그랬다. 별 매력도 없는 여자한테 꽤 매력적인 남자배우가 구애를 하는 이야기 자체엔 그다지 관심이 가지 않았다. 오히려 남주인공 언저리의 친구관계에 주로 눈이 갔다. 그들은 서로 다정했고 섬세했고 익살스러웠고 유쾌하게 어울렸다. 진심으로 걱정은 하지만 참견은 하지 않았고 부드럽고 파스랬지만 서로 놀아붙진 않았다. 나는 그 때 진심으로 내게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으면 했다. 집안이 망하자 우선 나는 친구들을 피했다. 개중에는 마음이 파스하고 생각이 깊은 이들도 있었으나 나는 그저 내 삶이 창피할 뿐이었다. 그나마 주혜는 그런 나를 끈질기게 찾았다. 그애가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은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애는 언제나 아무 한탄도 비난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잠자코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독한 욕설을 내뱉을 뿐이었다. 드러운 자식! 처사한 새끼들, 망할 놈의 회사, 니 엄마 주책이야. 그애는 언제나 내 대신 욕하고 화내고 썰쩍해주었다. 그러는 친구를 한참 보고 있다보면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자기 연민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너를 알게 되고 안게 된 다음, 아니 안게 되고 알고 싶어진 다음부터 나는 입이 근질거렸다. 온 세상 사람들과 내 기분의 변화를 낚날이 나누고 싶었다. 그러나 그 때 내 주위엔 아무도 없었다.

나는 멀리서 걸려온 친구의 전화가 반가우면서도 불안했다. 그럴까. 정말 그럴까. 주혜야. 나는 이걸 사랑이라 믿는데 정말 사랑은 그렇게 위험한 걸까. 대체 나는 사랑을 하고는 있는 걸까... 그렇지 않아, 다 바보 같은 말이에요... 너는 내 걸로 다가와 귀에 바짝 더운 입술을 대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점차 네 방에 가는 횟수가 잦아졌다. 너는 달마다 방안 장식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었다. 어떤 달은 중세 수도원 풍으로, 어떤 달은 사이버 공간의 네트시티처럼. 나는 내 방이 재미있었고 머물기 좋았다.

늘 깊이 잠들지 못하고 무서운 꿈에 시달리던 습관도 네 방 침대에 누우면 말끔히 사라졌다. 나는 네 옆에서 가장 깊고 달콤한 잠을 이루었다. 간혹 눈을 뜨면 날 물끄러미 바라보며 미소짓는 네 눈길을 느낄 수 있었다. 네 옆에서 한 천 년쯤 자고 싶어... 나는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렸고 너는 마치 답하듯 천천히 부드럽게 내 몸을 만져주었다. 네 손길은 언제나 뜨겁고 깊어 내가 아무리 깊은 잠에 빠져 있어도 깨어날 수 있었다. 나는 다양한 체위를 고안하고 제안하는 데 뛰어난 상상력을 발휘했다. 이게 나라니, 나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나는 적어도 너와 사랑을 나누는 순간만큼은 세상의 정점에서 있었다. 너는 주로 내 아래 깔려 처참하고도 미려한 비명을 질러댔다. 나는 그럴 때 향으로 살아 있었다.

나는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때로 외계인처럼 여겨지는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전처럼 힘들지 않았고 엄마에게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아주 오랜만에 미장원에 앉아 스트레이트파마를 하는 데 거금을 들었다. 머리색을 변하게 한다는 코팅이라는 것도 살짝 해보았다. 언젠가 동네 미장원을 지날 때 유리벽 너머 여자들 모습을 몹시 기괴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 그들은 줄줄이 앉아 머리에 색색가지 판을 얹고 늘어지게 하품을 해대고 있었는데 그 얼굴이 누구냐 비슷비슷했던 것이다. 내가 그 판을 이고 앉아 있어보니 그리 무겁지도 않았다. 어려 보이게 해주세요, 애인이 젊으신가

보죠? 나는 눈치 빠른 미용사가 친근하게 느껴져 허죽 웃고 오천 원이란 텅까지 없어주었다. 미쳤어! 오천 원이나, 유리문을 타고 나오며 화들짝 후회를 했지만 말과 마음은 자주 엇갈리는 법이다. 이제 보니 마음 가는 대로 하면 할 수 있는 재미난 일이 세상엔 널려 있었다.

바흐나 슈베르트 혹은 소꿉잔에 실어 김수희나 심수봉을 즐기던 취향도 변했다. 도심의 큰 레코드상회에 들어가 패션문신을 한 젊은 촉에 끼어 재즈나 댄스 쪽을 기웃거리게 되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내가 춤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언제부터가 은행 한 편에 앉아 여성지를, 그것도 주로 뺨뺨이나 봉합된 부록면을 잘라 읽기 시작했고 저녁을 아주 조금만 먹게 되었다. 동네 한 바퀴로 시작한 운동 덕에 서너 정거장쯤은 씩씩하게 걸어다녔다. 그리고, 태어나서 내 손으로는 처음으로 아주 비싼 화장품을 샀다.

컬러 트리앙 역상시열 이오—더욱 빛나고 아름답게 보이는 효과—

본 제품은 당신의 피부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밝혀줍니다. 하얀 피부는 더욱 하얗게 칙칙한 피부는 다시 태어난 듯 밝고 환하게, 매일 아침저녁 세안 후 본 제품 한두 방울을 얼굴 전체에 두드리듯 골고루 발라줍니다. 그런 다음 크리스티앙 트리앙 로시앙과 트리트먼트를 축축히 발라줍니다. 리포좀에 주입된 타일 파이팅 쿼어 마이크로 프로테인은 피부에 활력과 자극을 주어 생기를 되찾게 해줍니다.

주의: 부작용. 이 제품을 쓰신 후 얼굴에 붉은 반점이나 무드러기가 나타날 수도 있으며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가려운 증세가 며칠간 지속되면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본 제품은 동물 실험을 거쳤으며 전 세계 각국에 256가지의 의약품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소비자 권장 가격: 50ml / 12만원



꼭 새끼손가락만큼의 굵기와 길이, 하얗고 알맞은 화장용병을 손에 쥐고 열심히 안내문을 읽다 '이오'라는 음절에 눈길이 머물었다. 이오, 으이그, 이이오... 정말 바보 같은 발음이 아닌가. 나는 거울 속 나를 한심하게 노려본다. 그리고 차마 아껴줄 비밀 수도 없는 화장용병을 다시 한참 노려보다 도르르 바닥에 굴러버렸다. 병은 때구르 구르다 엄마의 폐개 밑으로 들어갔다. 나는 후다닥 바닥을 기어 그것을 손에 움켜잡았다. 웬지 핑글 눈물이 들었다.

좁고 냄새나는 비탈길을 빠른 걸음으로 내려와 시궁귀가 죽어 널브러진 골목을 벗어나면 내거리가 나온다. 나는 이른 아침부터 서성댔다. 집안의 모든 시계가 허를 뚫고 늘어진 달리 그림 속의 그것처럼 보였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아무 노선이나 집어탄다. 무조건 시내쪽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나는 버스를 갈아타고 또 갈아탄다. 지하철을 타고 계단을 뛰어오른다. 매일 운동을 시작한 이후 몸은 몰라보게 민첩해졌으며 쾌활함도 늘게 되었다. 나는 거리를 가로지르고 계단을 뛰어오르며 너와 나눈 섹스의 기억을 반추한다. 네 입술을 뺨던 기억은 지하철 안의 무료함을 잊게 만든다. 네 머리칼을 잡아들으며 내 등을 활처럼 구부리던 장면은 버스 안 후덥지근한 공기를 달콤하고 파스한 것으로 바꾸어놓는다. 나는 지나가는 젊은 남자들에게 까닭 모를 호의를 품는다. 고등학생 두명이 담배를 피며 카악, 가래침을 뱉는다. 흰한 대낮에 그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상관없다. 그들의 사랑한 땀냄새가 코끝에 스친다. 아무려나 누가 그들을 가로막겠는가. 그리고 나는 이렇게 네게로 달려가고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입술을 조금 달짝여본다. 아랫배가 뿌듯하게 부풀어오르고 있다. 어느덧 익숙한 느낌이다.

나는 네 사는 곳 가까이에서 잠시 숨을 고른다. 불현듯 시공을 이동해 또 하나 생의 필름이 차르르 돌아가는 소리를 듣는다. 카메라의 사각 프레임 안에 한 여자가 들어와 있다. 그 여자는 이미 조금씩 젖기 시작한 가랑이 사이를 온근한 기쁨으로 여기는 뽀뽀스런 여자다. 게다가 웬일로 처음 보는 자주빛 원피스에 진주 장식이 얹힌 하얀 신발을 신고 있다. 또각또각 허리를 펴고 가슴을 젖히며 그 여자는 계단을 오른다. 3층, 복도 끝에서 잠시 머리를 매만진 다음 다시 사뿐 걸음을 땀다. 그 때 아래층 계단으로 누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린다. 카메라는 그곳을 잡는다. 여자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인다. 머리칼이 잔뜩 헝클어져 사방으로 춤추고 있는 중년의 여인이 힘겨운 걸음으로 계단을 올라와 복도를 뒹기 시작한다. 컷! 나는 눈을 뜨고 바빠 걸음을 재촉한다. 내 손 안엔 내가 며칠 전 복사해 준 열쇠가 있다. 딸깍. 구멍에 열쇠가 걸리는 소리가 기분 좋게 들린다. 쉬고 싶으면 언제나 와요, 내가 없으면 하루에 한 번 허브에 물을 줘요. 새 모이는 하루 세 번 아주 조금씩만 주세요. 그러면서 넌 은빛 열쇠를 건네주었지... 뻑작, 안쪽으로 초록색 페인트칠을 한 문이 열린다. 그 즈음 네 작은 방안은 온통 연두와 하양으로 꽃꽂혔다. 활짝 열린 문. 맞은편 창에서 정오의 햇빛이 한가득 들어와 내게 안긴다. 얼굴에, 두 팔에, 온몸에... 나는 빛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내 나의 눈길은 탐조등처럼 너를 찾는다. 너는 분명 있었다. 그러나 나는 동그래진 두 눈을 이내 질끈 감는다. 알몸으로 엉긴 팔과 다리들, 하나도 둘도 아닌 셋인지 넷인지, 마치 흰뱀처럼, 아니 겹겹 벗긴 꽃뱀처럼 독하고 불길하고 음란하게 뒤섞인 저 팔다리들... 나는 돌아서 계단을 향해 뛰어가다 복도를 닫고 있던 여자와 부딪혀 비누거품 칠한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다급하게 외치는 네 목소리가 들린다. 난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간다. 자주색 원피스 아랫자락은 물기와 비눗기로 축축히 젖어들었다.

개자식!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어. 무릎을 꿇고 네 발로 방안을 벌벌 긴대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네 눈을 찌를 거야. 네 살 속에 박테리아를 심을 거야. 네 뼈를 죄다 바수어놓겠어. 다시는 널 보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생긴 거니?”

하루 밤 하루 낮을 골짜기 하지 않고 널 저주하고 있는 나. 눈물 그러한 눈으로 날 바라보는 늙수그레한 저 여자. 나는 그 여자를 본다. 오래된 발걸레같이 해지고 닳아빠진 여자. 발걸레의 원관이 페르샤 양탄자였을 망정 지금은 그저 추레한 발걸레일 뿐. 엄마. 아 그렇군. 나에겐 엄마가 있었군, 당신 차레군. 그럼 이제부터 귀를 막아야지. 엄마 오늘은 제발 조용해 줘. 엄마는 눈길을 피한다. 섬뜩하다는 표정이다. 참 기이한 일이다. 나는 전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쉽게 노하지도 들뜨지도 않던 '침착하고 사려깊어 타의 모범이 되는' 부류였지 않은가.

“새옷을 많이 샀더군요. 나이를 생각해라. 치마가 너무 짧더라. 가슴은 또 왜 그렇게 파였더니. 한 번 사도 제대로 된 걸 사야지. 한 거 많이 사봐야 소용없다. 어디서 산 거니. 저 노랑 치마는 바뀐다. 누가 저런 경박한 디자인을 만들었을까. 내가 살물 옷들까진 바라지 않는다. 아무리 그래도 시장 패션은 피해야지. 너도 품위란 게 뭔지는 알고 있잖니.”

그만 해요, 엄마. 나는 입술을 잘근잘근 씹기 시작한다. 환한 햇살 아래 네 방에서 보았던 그 광경이 다시 생생하게 고갤 돌려 하는데 엄마와 잔소리가 자꾸 끼어드는 것이다. 끼어들어 생각을 톱닥내길 바라는 건지 그대로 놓아두길 바라는 건지 나도 잘 알 수가 없다. 어쨌거나 피할 도리가 없다. 엄마와 나는 아무튼 밤 하나에 붙어 살아야 하니까.

“너 잘 때 전화 왔었다. 웬 남자더라. 너 남자한테 전화 온 것 아주 오랜만이잖아. 사람이 씩씩하더라. 아주 맑았어.

기분이 좋아지는 목소리더라."

그새 잠을 잤는가. 오슬오슬 춥다. 반지하 방은 습기가 많다. 그렇기도 하거니와 날씨가 썩 꾸물거린다. 빨래를 걸어야겠다. 점심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밥을 차리겠다고 하자 엄마는 내가 아까 밥을 주었다고 한다. 그랬었나. 나는 아직 살아 있는 것일까. 손목이 따끔거린다. 웬 상처냐. 나는 길가 돌을 주워 팔목에 한 번 대봤다고 차마 말하지 못하였다. 나도 내가 그런 짓을 한 것에 대해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기분이었기 때문이다.

책임과 계획

나는 얇은 이부자리에 걸게 누워 나를 곱씹기 시작한다. 내겐 몸 전체에 소의 반추위가 주렁주렁 달려 있지 않던가. 그래, 생각해 보자. 내가 말 잘못된 걸까. 그래, 내가 나뻘다. 내가 그럴 만했어.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니? 나는 처음으로 조심스레 그런 말을 입에 올렸다. 넌 아무 대답이 없었다. 회부음한 어둠 속에 나란히 누워 새벽을 맞고 있을 때였지. 너는 말이 없었고 나는 말했다. 사랑은 서로 믿는 거지. 완전히 믿는 거야. 나는 신뢰라는 것이 무엇보다 사랑에 앞서는 것이라고 내게 힘주어 설교했지. 나는 기실 조금도 그 신뢰라는 말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너는 그때 살짝 하품을 했었다. 그런 것 말구요. 뭐? 우리 노래나 할까요? 하긴 말이 무슨 소용 있담. 하지만 난 미련하게 다시 말을 이었다. 있지. 사랑이란 뭐니뭐니해도 회생일 거야.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란 결국 회생으로 완성되는 거지. 난 널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잔뜩 무개를 잡고 아주 그럴 듯하게 말했다. 잘못 보았을까. 난 비웃듯 입술 한 쪽을 찌그러트리더니 길게 하품을 했다. 하지만 난 어랑곳하지 않고 앞으로의 우리 계획에 대해 넌지시 물어봤다. 한순서.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너 나랑 자신있어? 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 돌아보니 그때 난 내내 지루하고도 황당한 표정이었다.

내가 무겁게 입을 다물자 넌 바빠 옷을 벗었다. 이윽고 우린 서로의 몸을 살살이 핏기 시작했고 그건 순전히 너의 재촉에 따른 것이었다. 나는 장엄한 설교 후에 기가 빠진 목사처럼 기진해서 널 안았고 그 날 우리 사랑은 다른 때와 좀 달랐다.

"날 지배해 줘. 날 아프게 해줘. 전처럼 때리거나 물어뜯어줘."

너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난 널 부드럽게 대하고 싶었다. 아니 실은 내가 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싶은 심정이었다. 널 떠나지 마, 나만 사랑해야 돼. 너를 안는 내내 그런 생각만 했다. 네가 어디론가 곧 사라질까봐, 날아갈까봐 나는 전처럼 널 거칠게 다룰 수 없었다. 이런 내게 실망을 했던 걸까. 사랑이 끝난 후 널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별거벗은 몸으로 채조를 시작했다. 너는 곧 땀을 비질비질 흘렸다. 무슨 고행을 치르듯 필적필적 뱉거나 이를 악물고 몸을 마구 뒤돌었다. 널 몸이 말을 하는구나. 네 몸은 말을 했다. 그런 눈으로 나를 보지 말아요. 당신은 갇혀 있어요. 당신은 사랑이란 걸 몰라요. 내가 온몸으로 그렇게 말하는 걸 난 느꼈다. 그런 사랑이 뭐지? 그때 난 널 다시 안고 싶었지만 널 날 거들떠도 보지 않았지. 널 마치 온몸으로 날 밀어내는 것 같았어. 잘 있어, 그리고 다음 날부터 나는 널 미행하기 시작했었다. 그래 내가 아주 미련하고 나빠던 거다.

나는 널 조사했다. 너는 부모를 아주 잘 만난 경우였다. 애써 맘 흘리지 않아도 충분한 학비와 일거리가 있었다. 네 누나는 작지 않은 예술 분야 잡지의 발행인이었고 네 형은 잘 나가는 다국적기업의 지사장이었다. 너는 소위 고동물권, 백수였다. 하지만 너는 결코 무력해 보이지도 무능해 보이지도 않았다. 새벽에 붙어학원, 오전엔 대학원 수업, 오후엔

독문화원, 저녁엔 매일 바뀌는 남녀 친구들... 너는 춤도 잘 추었고 노래도 잘 불렀고 술도 잘 마셨다. 무엇보다 네 친구들이 너를 바라보는 모습은 신뢰와 숭배 그 자체였다. 그리고 언제나 너 그들 모두를 사랑 가득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렇게 널 몰래 훑아다니던 어느날 난 더 진디지 못하고 네 집 앞에 쫓그리고 앉아 새벽 2시까지 널 기다렸다. 나는 다시 전처럼 널 때리고 물어뜯으며 울부짖었다. 너는 당황했다. 하지만 이내 부드럽게 날 안아주었다. 왜 이래요? 내가 뭘 잘못했지요? 널 기다렸어. 널 따라다니다 놓치고 여섯 시간 동안 널 여기서 기다렸어. 다리가 퉁퉁 부었어. 난 나쁜 놈이야. 미안해요. 이제 그런 짓 하지 말아요.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게 싫어요? 다 그냥 친구일 뿐인데. 웃기지 마. 여자는 물론 남자도 안돼. 사람들 앞에서 즐거워하지도 말아야 해. 네가 나 이외의 인간들과 히히덕거리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알아? 모두 둘러앉아 널 한 순찰 한 순찰씩 떠먹는 것 같은 말이야. 네가 없다면 어떻게 하지? 난 죽을 거야. 난 사라질 거야... 물렸어, 물렸어요. 내가 그렇게 당신에게 소중한가요?

우리는 그 날 네 방 안에서 밤새도록 안고 울고 웃으며 평결었다. 널 만난 이후 그토록 평화롭던 순간은 처음이었지. 부엌 새벽, 집으로 돌아가는 내게 너 하얗게 빛나는 온빛 열쇠를 건네주었다. 나는 그것을 손에 꼭 쥐었다. 그건 세상에 유일하게 나만 얻어 켜 '내 마음의 열쇠'인 것만 같았으니까. 그런데, 그런데 이런 날 너 완전히 조용하고 모독했다. 언제든 내가 무시로 드나들 걸 알면서도, 내가 네 마음의 열쇠를 손에 쥔 유일한 여자임을 반복한 것이다. 난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 그날 밤 난 소주 3병을 거러 마시고 밤새 배를 쥐어뜯으며 방바닥을 벌벌 기어다녔다. 그래, 이건 분명 사랑이었다. 이토록 뜨거운 집착과 분노, 갈증과 환희가 교차되는 것... 그렇다면 이 감정을 나는 소중히 지켜야 하고 너 역시 지상에서 오직 내게만 이런 느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 다른 여자를 침대에 끌어들이었다. 그것도 들쭉이나 한꺼번에. 이제 나는 널 어떻게 해야 하지? 버린다. 죽인다. 빈다. 매달린다. 다시 버린다. 죽인다. 빈다...

밤새 술독에 시달리느라 별갈게 부풀어오른 눈두덩을 얼음으로 두들기며 억지로 밥을 먹었다. 아이들을 가르쳐야 했다. 현만하면 쉬고 싶었으나 그렇지 않아도 방학이면 갖가지 학원이며 캠프로 아이들을 뺏길지 모를 상황이었다. 아이들은 날로 큼직해졌다. 나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지들끼리 마구 해대며 킁킁대기 일쑤였다. 야, 발음이 저게 뭐냐? 웬만하면 옮기고 싶어도 우리 큰대 워낙 짝잡아. 아무튼 지겨워. 오늘따라 왜 저리 인상이야. 저 여자 너무 늙지 않았나? 좀 참신한 선생 구하면 안되냐? 나는 화장실을 다녀오다 방으로 들어가려던 발걸음을 그냥 돌렸다. 밖은 뜨거웠다. 햇빛도, 발밑에 찍찍 달라붙는 아스팔트도, 그리고 너를 그리워하는 내 헛바닥의 온도 역시 그러했다.

"보고 싶었어요."

"난 널 이해할 수 없어. 우리 대체 왜 만나는 거지?"

"만나면 서로 좋으니까."

"저리 가서 앉아."

"싫어요. 너무 포근한 걸. 보고 싶어 죽을 뻔했어."

"난 이젠 너무 괴로워. 널 잊을 거야."

"도대체 뭐가 문제죠?"

"몰라서 몰니?"

"그 때 일은 사과하죠. 그렇게 놀랄 줄은 몰랐어요."

"더러워."

네 눈썹이 꿈틀 올라갔다. 내 얼굴은 화끈 달아올랐다. 젊은 연인 한 쌍이 우리를 훑기거리며 지나더니 대각선 방향에 있었다. 이모랑 조카쯤 될 거야. 아니, 요새는 저런 커플도 꽤 있네.

신기하다. 난 저런 거 싫어. 누구는... 나는 속으로 그들의 대사를 지어 읊으며 피학을 즐긴다.

"내가 이런 카페 싫었지."

햇빛이 가득 쏟아지는 창가. 햇살은 기미나 주근깨를 여지없이 드러내기 일쑤다. 화장품을 발랐자 소용없어. 뼈에 가까운 것. 나는 얼마 전 비디오로 보았던 프랑스영화를 떠올린다.

"말해 봐, 뭐가 더럽죠?"

"내가 보라던 영화 봤니?"

"대답해요. 뭐가 더럽죠?"

다른 연인 한 쌍이 우리 곁을 지난다. 그들도 역시 우릴 훑기거리다.

"맞은편으로 가서 앉아, 아니면 내 어깨 두른 네 팔을 매든가."

"뭐가 더, 립, 조?"

"영화 봤나니까."

나는 불쑥 일어서 맞은편 의자에 몸을 던지듯 주저앉는다. 보라색 흔들의자. 보랏빛 해변이 아름답던 쿵푸 마스터, 프랑스영화. 주제는 영화를 좋아했다. 비디오를 사모으는 게 취미였다. 얼마 전 주제가 미국에서 보낸 프랑스영화, 쿵푸 마스터. 너 이거 보고 정신 차리라구. 미국이라면 모를까. 거기선 안돼. 물론 만 나라에서도 흔한 일은 아니야. 이 영화 정도면 아주 과격이지만 내 경우도 거기서 거기야. 너도 결국 이 여자처럼 될 걸. 근데 이 영화 정말 아름다워. 잘 찍었어. 기가 막혀. 꼭 봐. 이왕이면 그 어린애랑 같이 봐. 너 건너편 의자로 이동하는 날 붙잡지 않았다. 몹시 화가 난 듯했다. 내가 이처럼 화가 난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다.

"다시 말해 줄까? 더러워, 너랑 그 여자들."

"우리가 왜 더럽죠?"

"몰라서 몰니? 뻔뻔하게."

"춤추는 것도 더러워?"

"춤이었다구?"

"그래요."

"출랑 다 벗은 여자들하고? 그런 걸 믿으라는 거냐."

"우리 나체로 춤추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기가 막혔다. 쿵푸 마스터의 이혼한 중년여자는 14살짜리 딸의 남자친구와 사랑을 한다. 남자가 먼저 여자를 유혹한다. 여자의 목소리와 눈매는 무척 고풍적이었고 아이의 몸짓 역시 그러했다. 누가 들으면 날 소아기호증이라 하겠지만 그 아이가 섹시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나는 뭐라 할 말이 없어 멍하니 창밖을 보며 다섯 번은 축하 보았을 그 영화를 회상한다.

"그래요. 우리 별거빛은 몸과 춤을 좋아해요. 얼마 후면 갯벌에서 우리 퍼포민스가 있어요. 그 준비를 한 것뿐이에요."

"그런 걸 왜 하는데."

"우선 몸에 쌓인 피로와 때를 말끔히 씻어내고 싶은 거예요. 하루종일 갯벌에 몸을 묻고서, 문명의 때를 정화시키는 거죠. 그래요. 흠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죠. 아시겠어요?"

"몰라. 난 이제부터 무조건 세상의 흠을 다 없애버릴 거야."

너는 갑자기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팔을 길게 뻗어 내 뺨을 톡톡 만지고 내 손을 다시 잡았다. 나는 손을 세게 뺐다. 아직 널 용서할 기분이 아니었다.

"갯벌에 들어가 보셨어요? 진흙의 감촉이 얼마나 부드럽다구요."

"커다란 게나 조개가 있을 거야."

"가만히 있으면 물리진 않아. 그런 게 중요한가요?"

"앞으로 나하고만 사랑해야 돼."

"정말 그런 게 중요한가..."

"말이라고 묻니?"

"여러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게 그렇게 더럽고 나쁜 일인가요?"

"말했지? 사람들이 널 한 손가락씩 퍼먹어버리는 것 같다고. 어느 사이 네가 눈앞에서 사라질까 아슬아슬하다고."

"거짓말쟁이군요. 당신은 내가 사라질까봐 두려운 게 아니야. 손아귀에 들어 있어서 늘 확인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믿는 생각. 당신은 그것부터 인정해야 해요."

"맞아. 난 그런 여자야. 난 어려서부터 늘 완전한 사랑을 꿈꾸었어."

아니야. 지원아. 김지원. 그런 게 사랑은 아냐. 너 그러면 이 사람을 잃어. 누구야. 넌 누구야? 나는 너무 놀라 의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네가 놀라 나를 일으키려 했을 때 나는 맞은편 의자에 새처럼 포르르 날아앉아 널 향해 빙그레 웃는 주혜의 형제를 토렛이 보았다. 너무 놀라지 마. 네가 보고 싶어서 왔어. 어떻게 된 거야. 넌 지금 미국에 있잖아. 선택. 왜 이래요? 대체 누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랑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 눈을 감고 이를 딱딱 부딪혔다. 얼마나 흘렸을까. 너는 내 옆에 앉아 덜덜 떨고 있는 내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사방을 둘러보았다.

"친구가 왔었어. 믿을 수 없어.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니? 넌 여기 분명히 있는 거지?"

"내가 잘못했어요. 마음이 상했다면 용서해요."

"아냐. 그만 나가자."

나는 그곳을 열린 벗어나고 싶었다.

"점심은 먹고 나가야죠. 그동안 너무 아팠어요. 어서 들어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주문한 스파게티가 왔다. 나는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고 국수가락을 후루룩 소리나게 빨아들었다. 분명 주혜였다. 형제와 빛이 눈부시긴 했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느낌의 친구, 주혜가 다녀간 것이다.

"네 마음대로 살아. 난 이제 모르겠어. 내가 자꾸 널 고집하면 널 잃어버린대."



"누가요. 누가 그런 말을 했죠?"

모르겠어. 정말. 어려서 배운 대로 태어나 처음 손을 잡고 키스를 하고 몸을 연 남자와 나는 당연히 약혼을 했고 아무 기쁨 없이 여러 번 섹스를 되풀이했어. 그런데 그 사람은 미났지. 나는 널 안고부터 다시 사랑이란 걸. 일생에 한 번 운명을 건 사랑이란 걸 해본다고 생각했어. 너무 사랑해서 한 치의 숨구멍도 어긋남 없이 일치하는 것. 너무 사랑해서 사랑의 절정에서 함께 죽었으면 하는 바람을 자연스레 갖는 것. 너무 사랑해서 둘을 제외하고는 세상의 모든 존재가 그 의미와 빛을 잃는 것... 난 그것을 사랑이라 여기며 살아왔다. 그런데 주혜는, 그 아이는 왜 나타난 거지? 머리가 정으로 쏘는 것처럼 아팠다. 그래. 잠시 햇것을 본 거야. 외로워서.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내 삶에서 널 어떻게 규정하느냐이다. 난 머리를 털고 앞을 똑바로 바라봤다. 넌 여느때처럼 주위를 흘깃거리며 사람들을 구경했다. 그러지 마. 제발 나만 바라봐. 나는 단호한 태도로 입을 열었다.

"물론 처음에 난 너무 충동적이었어. 그 땐 어디든 마구 날 던져버리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이젠 아니야. 난 한 번쯤 다시 생생하게, 나아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어. 그건 네가 있어야 가능해. 말해 봐. 널 왜 만나는 거지?"

너는 말없이 카페 한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새의 박제가 있어. 이 집 다신 오지 말아요."

검푸른 빛이 도는 새의 박제 하나가 해, 입을 벌리고 시계가 걸린 벽쪽 선반에 암전하 놓여 있었다.

"말해 봐. 이제까지 섹스 가운데 첫 날 우리가 했던 게 내 인생에서 절정이 아니었니? 언젠가 네가 그랬잖아."

"시간은 자꾸 흐르죠. 경험이든 뭐든 최고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지원아. 다그치지 마. 이 바보야. 언제까지 구름만 바라보고 살래? 제는 너보다 어리지만 너보다 훨씬 현명해. 내가 믿는 건 환상이야. 사랑이란 이름의 환영. 겉데기. 거대한 욕망의 변형일 뿐이란다. 이제 형제는 보이지 않고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귓전에 들려왔다. 그 소리의 의미가 전해지자마자 귀 주위가 새차게 땀—하며 울렸다. 현란하고 뜨거운 초록과 노랑의 불꽃 같은 것이 천나비처럼 무겁게 내 주위를 날아다니고 있었다. 무거운 팔랑귀. 내 정제는 뒤흔. 나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적으며 힘겹게 말을 이었다. 방해하지 마. 중요한 말은 다 해야 해.

"어서 말해. 내가 싫어졌니?"

너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당신의 긴 머리가 목덜미까지 흐느끼듯 흘러내리는 게 참 좋았는데. 왜 바꾸었죠? 당신이 주로 입던 청바지랑 검은 옷. 이젠 왜 입지 않아요. 그땐밤 어둠처럼 검던 머리칼도 노랗게 바랜 얼굴빛도. 늘 불안하게 두릿거리던 눈빛도 난 참 그리워요..."

난 얼굴이 찡찡했다.

"그만 두자. 이쯤에서 서로 갈 길을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곧 쓰러져 무너질 것 같은 사람이 나를 보자 굶주린 짐승처럼 덤벼들고 때리고 복수하고 고향처럼 순간이 있었죠. 난 그 때를 잊을 수 없어요. 왜 이제는 자꾸 뒤로 물러나죠. 야성은 숨죽이고 제도는 살아나는 게 당신 방식의 사랑인가요. 점령군이 물러나면 잔혹한 율령이 반포되는 것처럼..."

네가 이렇게 길게 말을 한 적도 처음이었다. 나는 멀거니 네 입술을 바라보았다. 그것을 만지고 핥고 싶다. 하지만 아주 오래. 영원히 그래야 한다.

여성학과 입시 올가이드

기획 페미니스트저널 이프 / 담당 황금희

"당신은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보죠. 남들이 우릴 어떻게 바라볼까 끊임없이 의식을 하죠. 그러면서 당신은 계속 사랑을 말할 건가요."

"다 그만 두자."

나는 결심했다. 이쯤에서 돌아서야 해. 부엌의 목소리의 남자가수가 기타를 튕기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대낮부터 생음악이라니. 변함없는 내 마음. 변한 건 오직 내 마음...

"아니, 잠깐. 난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럼 다른 걸 포기해."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인가? 당신은 확신할 수 있어요?"

나는 짧고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영원히, 절대로 날 버리지 않을 건가요?"

나는 역시 짧고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다리가 잘라지거나 서로 빈털터리가 되거나 몸 전체로 불행을 찾아야 할 때도 날 사랑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게 가능한가요?"

나는 또한 역시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당신은 결코 나 외에 어떤 남자를 보아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행운이 온대도 그것을 좇지 않고 내 곁에 초라하고 소박하게 남을 수 있나. 난 앞으로 영영 회사 따윈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힘든 일도 하지 않을 테고 내 멋대로 살 거예요."

바보 같은 약속하지 마, 서로 불행해져. 찢나비가 다시 꺾전을 어지럽혔다. 아니, 난 확신해. 사랑은 사람을 변화게 만들어. 난 그들 나에게 꼭 맞게 변화시킬 거야. 난 또 한 번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 지킬 수 있어." 그러자 꺾전을 땀뿜던 소리와 기운의 덩어리, 오색 찢나비는 사라졌다. 가슴 한 편이 문득 서늘해졌다. 우리는 서로 한동안 노력하며 끄떡없고 앉아 있었다. 내가 먼저 입을 떼었다. 너는 오늘 말이 많구나. 나는 슬쩍 기분이 좋아졌다.

"그럼 이제부터 내가 달라질지 몰라. 당신도 약속을 지켜야 해."

난 뭔가 목적이 달성된 기분이었으므로 내 말을 그다지 주의깊게 듣지 않았다.

"얼마든지. 앞으로 둘이 때타적 소유관계에 대한 철저한 의무를 수행하는 거야. 참, 그런데 난 지금부터 일자릴 새로 구매야 해."

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는 이제부터 뭔가 구체적으로 삶을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영이 잘 한다고 했죠? 내가 형한테 좀 알아볼까?"

"아무 대든 좋아.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냐. 나이에 걸리지나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외국회사니까 나이 별로 따지지 않을 거야."

음악이 끝나자 카페 안에는 잠시 기분좋은 정적이 흘렀다.

"이제부터 난 내 끼야."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주보고 씩 웃었다. 문득 고개를 돌려 시계를 보려던 순간 아까 그 조악한 때의 박제가 나를 보고 해, 다시 웃고 있었다. **11**

일러스트 난나

각 대학 발전

계명대학교 여성학과 이희현주 / 동덕여대 여성학과 임은주 / 서울대 여성학과 이신영 / 서울여대 여성연구소 신영숙 / 성신여대 여성학과 문채수현 / 숙명여대 여성학과 김영정 / 신라대 여성학과 박영희 / 이화여대 여성학과 김보영 / 한양대 여성학과 노미경 · 최기자 / 효성가톨릭대 여성학과 남은주

한국사회에서 여성학은 이제 더 이상 생소한 학문이 아니다. 1977년 이화여대에 교양과목으로 여성학 강좌가 개설된 이래, 여성학은 대중 속으로 급속히 흡수됐다.

그리고 1982년 이화여대 대학원에 여성학과가 설치된 이후 현재 10여 군데의 대학에 석사과정과 협동과정의 형태로 여성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과 아시아여성학센터, 숙명여대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동덕여대 여성학센터, 부산 신라대 여성문제연구소, 대구 효성가톨릭대 한국여성문제연구소, 숭실대 여성문화연구소, 명지대 여성가족생활연구소, 중앙대 국제여성연구소를 비롯해 부산대, 서울여대, 연세대에서도 여성연구소를 통해 다양한 여성학 담론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여성학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그다지 많지 않다. 몇몇 대학의 여성학과가 홈페이지를 통해 입시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 더군다나 어느 대학에 여성학과가 있고, 각각의 특성은 어떤 것인지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는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지는 이번에 여성학과에 관한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록을 기획했다. 이번 부록에서는 여성학과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대학의 여성학과 연혁과 입시요강, 개설과목, 교수진 등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각 학교에서 배출한 여성학과 논문과 졸업생 현황, 그리고 학과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재학생의 글 등 다양한 꼭지들을 한 곳에 묶었다.

이번 부록에는 이화여대, 숙명여대, 효성가톨릭대, 신라대, 성신여대, 계명대, 동덕여대, 한양대, 서울대, 서울여대 등 총 10개 대학의 여성학과 정보가 수록되었다. 각 대학의 정보와 안내는 그 대학 여성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이 직접 집필함으로써 보다 생생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본지가 각 대학의 여성학과 학생들에게 원고 청탁을 할 때 입시요강을 비롯한 정보와 함께 본인이 속한 학과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사례글을 함께 부탁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글을 구성하도록 했다. 때문에 정보만 소개된 학교가 있는가 하면 재학생 소개 등 학과 분위기를 스케치한 학교도 있다. 어떤 필자는 여성학을 공부하면서 겪게 된 갈등과 고민을 써 보내기도 했다.

본지의 여성학과 입시 가이드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각 학교별로 소개되어 있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다. 한 학교의 자료만 집중적으로 보는 것보다 10개 대학 전체의 자료를 훑어본 후 관심이 가는 학교의 정보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이다. 알라자면 숲을 보고 그 다음 나무를 보라는 말이다.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좀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각 대학 여성학과 홈페이지 주소와 학과 사무실 전화번호를 함께 소개했다. 자, 이제 여성학과 탐험을 시작해 보시라... **황금희**

● 계명대 여성학과

계명대학교 여성대학원은 1990년 개원되어 현재 4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입시요강

1. 지원자격: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및 교육부장관이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제출서류: 입학원서(소정양식),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평점기재), 면학계획서, 사진 3장(4×5cm)
3. 전형방법: 서류전형+면접
4. 원서교부: 11월 중순
5. 시험일시: 12월 초

교수진

김세영, 조주현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김세영 교수는 여성의 노동 및 직업활동, 가족과 취업, 여성정책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정보사회와 여성의 지위, 환경문제와 여성 등에 관심이 있어서 영남여성정보문화센터의 교육·사업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주현 교수는 성, 페미니스트이론, 질적 연구방법을 강의하고 있으며 페미니즘과 기술과학, 에로티시즘 등에 관심 있다. 저서로 「우리 속에 있는 여신들」(공역, 92), 「여성해방의 실천과 후기구조주의 이론」(역, 93), 「섹슈얼리티 강의」(공역, 99) 등이 있다.



개설목적

여성학개론/ 결혼 및 가족제도/ 한국여성사/ 가족, 성, 일/ 산업사회와 여성/ 여성학방법론/ 여성학 현장연구/ 성역할의 인류학/ 성역할의 심리학/ 여성사회경제사연구/ 여성철학연구/ 가부장제 연구/ 여성학이론/ 여성문제연구/ 성연구/ 여성문화비평/ 제3세계여성 연구/ 여성교육학/ 한국여성의 정치문화/ 여성법률사상연구/ 여성신학/ 여성해방운동사/ 여성과 국가/ 여성과 몸/ 여성주의 문화이론/ 성, 정보, 매체 등

졸업논문

박신애 소설의 여성문화적 고찰(김태자, 1992)/ 사무직 여성노동자 의식에 관한 연구—대구지역 하위사무직을 중심으로(김선희, 1993)/ 90년대 한국 로망스코미디 영화에 나타난 여성상에 관한 연구(김복희, 1995)/ 국가와 성동체—80년대 출생성비 불균형 현상을 통해 본 남남호사상(김옥순, 1995)/ 90년대 한국 레즈비언 담론의 분석과 전망(박민선, 1997)/ 나이트클럽을 통해 본 신세대여성 놀이문화의 저항성에 관한 연구(김삼미, 1998)/ 여성 '호명' 과정을 통해 본 권력과 성(sexuality)에 관한 연구—'아름' 호명을 중심으로(정은자, 1999)/ '화장'으로 읽는 여성문화연구(이현주, 1999) 등 50여 편

졸업생 석학전을 현황

여성학과 졸업생 중 가장 많은 분야에 진출해 있는 곳은 역시 여성학 강사. 모두 14명이 여성학 강의를 맡고 있고, 여성의전화를 포함해 여성단체 9명, 인권연합 1명 등 10명이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박사과정에서 2명이 공부하고 있다. 그밖에 언론사, 공무원, 개인학원 운영, 강사, 유학 등으로 각각의 일을 하고 있으며 전업주부도 7명이다.

계명대 여성학과 학생 및 졸업생들이 주축이 돼 2년에 걸친 준비와 세미나 후 95년 3월 30일, 지역의 여성문제를 조사하고 연구 작업을 하기 위해 창립한 것이 바로 (여성학과 현실연구회). 이곳에서는 1년에 두 차례씩

학술발표회를 실시하고, 연간으로 학술지 『여성학과 현실』을 발행한다. 또 여성학 프로그램 개발해 여성단체, 학교 등에 지원하고 여성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에 강의, 강연, 원고집필 등을 해줄 인재들을 모아 인재뱅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여성학과현실연구회: 053)254-0706,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4동 2272-3번지 명서빌딩 2층).

우리 학과 이모저모

우리 학교에 여성학과가 처음 개설되던 시기에 선배들은 "여성학? 페미니스트? 남자같이 목소리 크고, 줄담배 피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80년대 학번이 대다수였던 여성학과는 초창기 선배들의 모습은 사실 그러했다. 당시 선배들 대부분이 운동권 출신이었다.

그러나 이젠 정말 추억처럼 여겨질 정도로 학생들의 분위기도 바뀌었다. 이젠 과거처럼 여성운동의 선봉에 서겠다는 사람들과 여성학의 학문적 부분에 더욱 집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반 섞여 있다. 여성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때문에 함께 공부하는 이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과 공통의 체험을 만들어가는 것도 여성학을 공부하는 즐거움이다. 우리 학과에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여성들이 모여 있다. 우리 학과에는 수업 때마다 제주도, 김해, 포항, 부산, 대전, 광주 등에서 이곳 대구까지 마다않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계명대 여성학과다.

문의: 계명대 여성학과 053)620-2196

홈페이지: <http://www.keimyong.ac.kr>

● 동덕여대 여성학과(협동과정)

동덕여대 여성학과는 1997년 개설된 이후 현재 7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여성학의 다학제적 특성을 살려 동덕여대 여성학과는 협동과정을 학제로 채택했다. 따라서

여성학과와 전공교수 두 분과 더불어 교내 타과의 교수들과 외부강사의 초빙으로 강의가 이루어져 왔다.

개설목적

여성학이론/ 한국여성사/ 성, 가족, 문화/ 여성학방법론/ 성문화와 성윤리연구/ 페미니즘이론연구/ 한국가족연구/ 여성노동연구/ 여성학주제세미나/ 한국여성문제연구/ 여성문화론/ 여성정치·정책연구/ 동서양 사상과 여성 등.

입시요강

1. 지원자격

- 1) 국내외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2) 교육부장관이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3) 성적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음

2. 전형방법

- 1) 특별전형: 서류전형, 구술면접
- 2) 일반전형: 일반영어, 면접, 서류전형

3. 제출서류

- 1) 입학원서(소정양식)
-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 3)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4.5점 만점으로 표기)
- 4) 학사학위등록증(졸업증서) 사본



4. 전형료 및 원서대

- 1) 모집요강 및 원서대: 3,000원
- 2) 전형료: 60,000원

교수진

김경애 교수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간사로 여성단체의 실무자로 활동한 바 있고 어버이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에서 연구

원으로 일하면서 빈민여성들을 조직하고 활동하는 활동과 조사를 연계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현재 한국여성민우회의 이사 및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성운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주요 강의과목은 여성학이론, 한국여성사, 여성노동연구 등이다. 손승영 교수는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전문연구원으로, 연세대학교 여성연구소 전문연구원으로 활동했다. 1997년부터 현재까지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과와 대학원 여성학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강의과목은 여성학방법론, 한국가족론, 여성복지론 등이다.

우리 학과 이모저모

97년 입학한 김연정은 99년 상반기 석사학위논문 『성평등 성교육을 위한 관계형성 프로그램 모델』을 제출하였고, 여성학적 관점에서 성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양원정은 모성과 복지에 관한 관심을 논문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임은주는 『춤에 나타난 젠더 페러다임의 여성학적 이해』라는 제목의 논문을 쓰면서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자원활동가로 삼금하고 있다. 또 조영혜는 실업국복국민운동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불일(클리프 에머리 Cliff Emery)은 한국에서 아내 구타의 원인과 실태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는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이다.

동덕여자대학교 여성학센터 내에는 여성학도서관, 한국여성연구소, 여성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다. 현재 여성학도서관에서는 여성학 관련 논문의 원문을 다문받을 수 있는 학술 데이터베이스와 연접검색 시스템의 구축을 진행중이다. 학부에서는 여성학을 복수전공할 수 있다. (동덕여대 여성학과 임은주)

문의: 동덕여대 한국여성연구소 02)940-4254

● 서울대 여성학과(협동과정)

서울대학교 여성학 협동과정은 99년 1학기

에 개설되어 이제 막 1학기를 보냈다. 정식 명칭은 '여성학 협동과정(Interdisciplinary Program in Gender Studies Major)'으로 전형방법이나 수업은 일반대학원과 다른 점이 없다. 현재 석사 1학기에는 3명이 함께 공부하고 있으며, 2000년도 모집정원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험과목은 전공(여성학)과 영어, 제2외국어이다. 올해부터 영어 시험은 따로 보지 않고 TEPS로 대체하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TEPS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제2외국어와 영어는 따로 성적에 반영되지는 않으며 통과여부를 결정하는 데 이용된다. 이 외에 자기소개서, 교수추천서,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면접구술고사를 따로 본다.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

입시요강

2000년도 대학원 정시모집 입학고사 일정 안내

1. 입학지원서 교부: 1999년 11월 11일(목) ~17일(수)
2. 입학지원서 접수: 1999년 11월 13일(토) ~17일(수)
3. 입학고사일: 1999년 11월 27일(토)
4. 합격자 발표: 1999년 12월 10일(금)

여성학 협동과정은 각 분과학문에서 여성 관련 주제를 다루는 교수들의 협동을 통해 대학원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참여분과는 사회과학, 인문과학 및 생명과학을 포함한다. 또한 여성학 협동과정은 현 학과체제로부터 존속임성, 존자율성을 가지는 교육단위로 하며, 사회과학대학이 주관하고 사회과학 연구원이 실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현재 여성학 협동과정은 사회과학의 권태한 교수가 위원장이고, 각 단과대학 교수들이 모여 구성된 학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학과 정진성 교수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학위수여는 서울대학교의 학위수여 규정에 따르며, 학위수여 예정자가 이수한 학문성

격에 따라 적절하게 학위명을 부여하고 학위기에 '여성학 전공'을 명시한다(예: 문학석사—여성학 전공, 이학석사—여성학 전공, 법학석사—여성학 전공).

개설목적 및 교수진

지난 1학기에는 한국사회와 여성(정진성), 한국사회와 여성(한정숙-team teaching), 페미니즘이론연구(양현아)의 세 과목이 개설되었고, 2학기에는 여성학 방법론(여정성, 이남희, 윤택림), 여성노동 연구(정진성), 여성정책과 국가(홍찬숙) 등 3과목이 개설된다. 앞으로 운영결과에 따라 여성사 연구, 여성과 일상생활, 젠더·이데올로기·문화, 성과 미디어, 문화와 여성, 현대 여성이론의 쟁점, 비교여성연구, 성과 계급, 페미니즘과 민족주의, 성과 가족, 여성노동 연구, 성과 사회통제, 여성복지 연구, 여성과 과학기술, 몸·문화·사회, 여성·생명·건강, 여성연구의 철학적 기초, 성과법, 여성학 특강 등이 개설될 예정이다.

우리 학과 이모저모

이제 1학기를 보낸, 서울대학교 여성학 협동과정은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은 상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롭기만 하다. 심지어는 연구실마저도 새로 마련된 것이어서 얼굴이 비칠 정도! 그러나, 이런 새로움이 그저 사막 위에 홀로 떨어진 씨앗 같은 것은 아니다. 이미 서울대 내에서 형성되어 왔던, 여성학 연구에 대한 요구가 하나의 출발점으로서 결실을 맺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91년 이후 대학원 과정에서 여성관련 연구가 급증하여 각 학과에서 나온 석박사 학위논문만 30여 편에 이르며, 총학생회의 성정치위원회를 비롯하여, 관악여성모임연대, 동아리연합회의 <언니네>, 각 단과대학의 여성생자치위원회, 과별 모임인 여성학회, 동아리 등이 이러한 흐름을 보여준다. 이것은 1학기 수업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처음 시작한 여성학 협동과정의 수업에는 관악의 페미니스트임을 자처하는(?) 여학생들이 총집결(?)하여 다양한 문제안들을 모

은 수업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각 과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여성주의 연구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학기에는 97년부터 관악 내에서 형성되었던 '성폭력학제' 운동과 관련하여, 학부생들과도 함께 콜로키움을 열 예정이다.

지금으로서는 사작의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실패와 무거움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모든 일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이 모든 첫걸음에는, 앞서 고민하고 연구해 온 선생님들, 선후배들, 지금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운동하는 후배들의 발걸음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요사이 여름학기 입시전형과 관련하여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데, 올해는 특차모집은 없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11월에 모집할 예정이다.

문의: 서울대 여성학과 02)880-8889

홈페이지: <http://www.plaza.snu.ac.kr/~gender>

● 서울여대 여성학과(협동과정) 입시요강

1. 지원자격

-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00년 2월 취득예정자
- 2) 국내에서 16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 대학원이 인정하는 자
- 3) 기타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본 대학원이 인정하는 자
- 4) 위의 각 항 모두 대학 전학년 평균평점이 본 대학원에서 정한 자

2. 전형방법

서류전형과 구술시험으로 구분하여 전형하며, 구술시험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시행된다.

- 1) 석사학위과정에서 연구할 연구 계획
- 2) 지원학과 전공지식에 관한 질문

3. 제출서류

소정양식 입학지원서, 대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전학년 성적증명서, 연구계획서 및 학업계획서 4부, 사진 2장(4x5cm)

4. 원서교부 및 접수

1999년 11월 8~12일 예정

5. 전형일: 1999년 11월 19일 예정

6. 합격자 발표: 1999년 11월 말

우편접수는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것까지 접수함.

교육목표

본 학과는 일반적인 여성학이론을 기본으로 하나, 타대학과의 차별성을 높이고 특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한다. 여성학의 기본 교과목 외에 기업, 비정부기관(NGO), 지역 사회 등의 현장에서 여성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구성했다.

개설과목

심리여성학/ 여성철학연구/ 한국여성사/ 가족관계연구/ 여성과 기독교/ 미래사회학/ 여성의 일과 직업/ 여성리더십개발/ 여성관리자론/ 비정부조직과 여성/ 지방자치와 여성/ 여성과 인간개발/ 여성학 세미나/ 여성지도자연구/ 여성학실습/ 소비자학과 환경/ 통일과 여성정책/ 여성언어학/ 동양사상과 여성/ 성역할의 사회학/ 여성과 예술/ 여성과 보건/ 여성과 성폭력

우익 학과 여모계모

서울여대 대학원 여성학과는 학과간 협동과정으로 교육부 인가를 받아 1999년 2학기 첫 입학생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제 시작 단계지만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열매를 맺은 본 학과는 아동학과, 사회사업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교육심리학과 등 인문사회과학을 비롯해 환경학부, 컴퓨터학과, 생물학과, 기타 자연과학을 아우르는 명실공히 여성학 협동과정으로 운영될 것이다.

교수진

주임교수로 아동학과 강문희 교수 외에 사회사업학과 이광자 교수, 생활교육부 송보경 교수, 영문학과 이귀우 교수와 기타 관련학과 교수 또는 강사들이 여성학 협동과정

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99년 1학기 수업으로는 이광자 교수의 미래사회학과 사학과 신영숙 강사의 한국여성사가 개설되었고 학부의 여성학과목을 이수하도록 돼 있다. 앞으로 계속 바뀔만한 학과운영을 다짐하며 많은 지원생을 기대해 본다.

한편 본 대학에서는 아직까지 국내에는 없는 여성저작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지난 8월 초 준비모임(담당 박정숙 교수)을 가졌고 적극 추진중이다. 동시에 대학 부설 여성연구소(소장 의류학과 김문숙 교수)도 있어 여성학 협동과정과 연계해 활동할 수 있는 폭넓은 장이 마련돼 있다. 이는 앞으로 여성학 협동과정이 발전해 나갈 토대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 대학원 교학과 02)970-5252~4

● 성신여대 여성학과(협동과정)

성신여자대학교는 1982년 학부에 여성학 강좌를 개설하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이에 힘입어 1995년에는 대학원에 협동과정 여성학과를 설립하여 1996년 1학기 학생들을 받아들였다. 1998년에 그 결실을 맺게 되어 1회 졸업생 3명을 배출하였고, 1999년에 3명의 학생이 졸업할 예정이다. 성신여대 여성학과는 커리큘럼과 여성학 강사를 여성학운영위원회의 교수들과 함께 결정하고 있으며, 학부과정의 여성학 강좌 이외에도 심화과정을 두려고 준비중에 있다. 또 학부아간에 여성학과의 신설을 건의할 예정이다.

입시요강

1. 전형시기: 6월(후기), 11월(전기)

2. 지원자격

- 1) 대학교(초급대학 제외) 또는 사립대학(4년제) 졸업 및 졸업예정자
- 2) 외국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대학원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3. 기타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학교 졸업자

3. 지원서류: 입학지원서,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전학년 성적증명서, 소정의 입학전형료 첨부

4. 전형방법: 서류전형과 구술시험

교수진

성신여대 여성학과와 설립에 가장 열의를 보인 박용옥(사학과) 교수가 1대 학과장을 지냈고, 현재는 1999년 3월에 개소한 성신여대 부설 한국여성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현재 여성학과 학과장인 부장남(사회교육과, 교수평의회 회장) 교수는 1998년부터 올해까지 여성학과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함께하고 있다. 여성학과 운영위원회의 교수진은 김하자(국민문리교육과), 김태현(가정관리학과), 김주희(가정관리학과, 미국 에머리대학 여성학 박사과정), 이차옥(경영학과), 조준현(법학과), 윤진표(정치외교학과) 교수이다.

성신여대 여성학과에서 수업을 가르쳤고, 현재 가르치고 있는 분들은 정영애(이대 여성학박사 1회, 충북도청 여성정책담당관), 김현미(아시아여성학센터 연구원), 이수자(여성학 강사,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편집위원), 김정희(공공음악연구소 부원장) 외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여성학과에 수업을 지도하고 있다.

개설과목

여성학의 이론적 재문제/ 여성학연구방법/ 비교가족론/ 한국가족론/ 현대가족이론/ 성역할의 사회학/ 성규범연구/ 매스미디어의 성 이미지/ 사회구조와 성문화/ 여성노동론/ 여성운동사/ 가부장제 연구/ 여성문화론/

사회구조와 성문화/ 여성과 복지제도 등

우익 학과 여모계모

여성학과 1회 졸업생인 장실수정씨는 '20대 대졸여성의 피임경험을 통해 본 성적 주체화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썼고, 현재는 성신여대 한국여성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백연순씨는 '텔레비전 드라마의 기호학적 분석을 통해서 본 여성이미지 연구'에 관해 썼으며, 현재 프리랜서로 번역업무를 하고 있다.

2회 졸업생(99년 전기)인 홍성희씨는 '항공사 여승무원의 외모중심 고용에 관한 연구'를 썼고, 현재 성신여대 양자신문사, 간사로 일하고 있으며, 여성주의 영화감독이 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99년도 후기에 졸업할 서말레씨는 말의 성역할 형상을 중심으로 '여성가구조 가구의 모녀관계에 대한 연구'에 대해 썼으며, 현재 한국여성연구소 조교로 일하고 있다.

20대 미혼여성의 '성사회화 과정에서의 자발적 중독에 관한 분석'에 관해 논문을 쓴 이은하씨는 몸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나 열려 있는 모습을 준비, 함께 공부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여성의전화에서 인턴사원으로 일하고 있다. 결혼 준비과정을 중심으로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한국결혼문화에 대한 연구'를 쓴 전필레씨는 이은하씨와 함께 서울여성의 전화에서 인턴사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리고 2명의 학생이 졸업논문을 준비중에 있고, 현재 4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다. 성신여대 여성학과는 비록 학생수는 적지만 일당백의 열정으로 온양동에서 힘차고

당차게 살아가고 있으며, 오기를 바라기도 찾아나서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자신의 일상 자체가 여성주의 운동이며 의식이며 정치학이 되는 학문, 어느 학문보다 이론과 실천이 살아 있는 학문이기엔 여성학의 미래는 밝다고 감히 말할 수 있으며, 그 길을 성신여대 여성학과와 함께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순 없겠지요?

문의: 성신여대 여성학과 02)920-7468

E-mail: kowoin@cc.sungshin.ac.kr

● 숙명여대 여성학과(협동과정)

숙명여대는 96년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여성학 협동과정을 신설했다. 96년 정치외교학과 전경숙 교수가 주임교수로 임명된 이래 97년 첫 학생 5명이 입학했으며 올해까지 모두 15명의 학생이 입학, 여성학을 공부하고 있다. 여성학 협동과정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학부 전공에 관계없이 새로운 영역을 만나게 될 것이며 혹은 자기 영역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입시요강

1. 지원자격

- 1) 국내외의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2) 교육부장관이 위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학력자

2. 전형일시

매해 전·후기 2회로 학생을 모집하며, 2000학년도 원서접수 및 접수 예정일은 1999년 11월에 주요일과자와 숙대학보에 공고

3. 전형 방법

- 1) 특별전형: 구술시험, 학부성적(제한없음)
- 2) 일반전형: 영어시험, 전공논술, 학부성적, 면접

4. 모집인원

매년 5명 선발(확대예정)

개설과목

여성학방법론/ 페미니스트사상/ 여성학이

론/ 여성학이론특강/ 가부장제이론/ 제3세계여성론/ 성과 사회/ 성과 정치/ 성과 권력/ 성과 공동/ 성과 사회정책/ 후기산업사회와 여성/ 페미니스트교육론/ 여성과 법/ 여성과 국제정치/ 여성과 정치/ 여성과 경제/ 여성과 심리/ 여성과 미디어/ 가족사회학/ 성과 예술/ 성과 대중문화/ 여성과 정보기술/ 여성과 일/ 여성과 교육/ 리더십특강/ 아태지역 여성협력/ 세계의 여성지도자/ 지방자치시대의 여성리더십 등

교수진

최은정 주임교수를 중심으로 협동과정의 취지에 맞게 각 분과학문에서 여성관련 주제를 다루는 교수들에 의하여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은정 주임교수는 91년 미국 애리조나대학교(University of Arizona) 사회학과 박사학위 취득 후 숙명여자대학교, 고려대학교, 메릴랜드대학교(The Sociology of Gender), 충남대학교 등에서 여성학과 사회학을 강의해 왔다. 협동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은 학내의 전경숙(정치외교학과, 페미니스트사상), 오재림(교육학과, 여성학방법론), 김영란(정법학부, 여성학이론), 이옥한(법학과, 여성과 법), 이영란(법학과, 여성과 법) 교수와 타 학교 교수들이 있다.

우려 학과 여모경모

숙명여대 대학원에 여성학 협동과정이 생긴 지 이제 겨우 3년. 그러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열정만큼은 엄청나다. 본 의 아니게 개척자의 지위를 얻게 되었지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우리가 '새로' 만든다는 신념으로 모두들 의기충천. 적은 인원이지만 살아온 과정도 여성학을 공부하게 된 배경도 모두들 제각각인 여성학 협동과정에서, 1학기부터 6학기에 이르는 학생들의 그 다양하고 독특한 개성이 충동을 거듭하면서도 '우리 과, 우리가 새로 만든다'는 점에서 하나로 아우러지는 힘이 생긴다.

물 문치는 힘의 원천은 학생회에서 나온다. 각 학기 대표들과 총무로 이루어진 임원모임도 있지만, 사실상 전원회의도 수시로 열린다. 짧은 역사, 소수인원이라는 문제는 이렇듯 모든 것을 '함께' 푸는 학생들의 열정을 막지 못했다. 과방을 꾸미는 일부터 각종 행사를 준비하는 것까지 학생회에서 학생전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방학마다 떠나는 모교지는 한 학기의 생활을 총화하고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이 서로를 알게 되는 가장 소중한 자리이다. 매학기 전 숙명인과 함께 하는 <여성영화제>도 열려왔다. 뿐만 아니라 한 학기에 걸쳐 학보에 연재한 <여성문화읽기>는 숙대 재학생들에게 여성주의 문학 비평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학생들에게 이론연구에 대한 열의는 당연한 것. 그래서 지금까지 꾸려졌던 스터디 모임의 주제도 다양하다. 매 학기 두 개 이상의 스터디 모임이 있어왔고, 지난 여름방학에는 <가부장제이론연구회>가 뜨거운 여름 더위를 무색하게 했다.

다양한 관심사의 결과물은 이제 1999년 2학기엔 석사학위논문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밤을 새워 과제물을 작성하느라 눈코를 새웠으면서도 꿈을 내 나뉘어는 술 한 잔이 숙대 여성학 협동과정 학생들의 끈끈한 정을 만들어내는 자양분이 되어왔다.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쌓아놓은 기억이 너무나도 많은 숙대 여성학 협동과정. 흘러넘치는 열정을 담아놓을 그곳이 또 어디에 있는지 찾고 있는 중이다.

문의: 숙명여대 여성학과 02)710-9790
홈페이지: <http://sookmyung.ac.kr/~femi>
E-mail: femi@sookmyung.ac.kr

● 신라대 여성학과(협동과정)

신라대학교(전 부산여자대학교) 여성학과는 여성학, 사회복지, 여성정치, 여성심리,

여성문학 전공자를 50여 명 선발하기로 하고 지난 96년 10월 30일 당시 신라대학교의 전신인 부산여자대학교에 설치인가 되었다. 97년 1월 제1기 여성대학원 개강 및 신입생 입학식을 치른 이래 지난 99년 8월 제1회 석사학위 수여식을 가졌다. 신라대 여성학과 설립에는 김현우(교육학), 공미혜(여성사회학), 박영자(국어국문학), 최선화(사회사업학), 황성철(사회사업학) 교수가 적극 참여하였다.

신라대학교는 한강 이남의 유일한 여자대학교로서 여성교육과 여성의 권익향상 및 지역사회 여성지도자의 배출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 설립이념에 맞는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서 1992년부터 본교 여러 교수들이 학과의 설립을 제안했다. 게다가 부산지역 각 대학교 여성단체에서 여성 관련 전문가의 양성을 요구하고 있었고, 여성학적 관점에 대한 학문적 요구가 확대되는 시점에 여성학과가 설립됐다.

입시요강

1. 지원자격

- 1)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3. 장학제도 및 특전

- 1) 재학생 중 성적우수자는 장학금의 혜택이 있음
- 2) 공무원 및 현직교사는 매학기 학비의 일부를 면제함
- 3) 본 대학교 조교채용시 대학원 재학생을 우선 채용하여 조교로 봉사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과 함께 매월 일정금액의 급여를 지급함
- 4) 졸업후 본 대학교 시간강사 위촉시 우선 위촉함

경설곡목

여성학이론/ 연구방법론/ 한국여성사/ 페미니즘과 가족/ 한국가족연구/ 가족복지 및 정책/ 여성노동론/ 기술변화와 여성노동/ 성언구/ 사회구조와 성문화/ 여성과 정치/ 여성정치지도자론/ 한국현대여성문학론/ 영미 페미니즘 문학비평이론/ 여성학 세미나 등

교수진

공미혜(사회학박사, 여성사회학)/ 이기숙(문학박사, 가족학)/ 손현숙(문학박사, 역사학)/ 이승희(문학박사, 사회학)

우려 학과 여모경모

현재 신라대학교 여성학과에 등록된 학생수는 1학년 7명, 2학년 4명, 3학년(5학기생) 8명이다.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 일부는 인턴이나 공공근로로 각종 여성단체에서 실무경험을 익히고 있다. 학생들 중에 유일한 남성은 권대근씨는 현재 고등학교 영어교사로서 여성문학을 전공해 이번 8월에 문학석사학위를 받게 된다. 권대근씨는 여성학과에 열렬한 지지자를 자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적극 나서, 여성학자들의 든든한 지원자이기도 하다. 여성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한국의 전형적인 남성과 별다른 게 없었지만 공부를 하면서 아내와 여성을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대학원생들은 방학 때 스터디그룹을 조직해 부족한 지식을 채우고 있다. 현재 1학년은 성과 관련된 논문과 원서를, 2학년은 여성학이론과 관련된 논문과 원서를 공부하고 있다. 그 외에도 대학원생들은 격주로 부산여성사학회교육원 여성학분과에서 이론공부를 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에 『포르노 경험을 통해 본 성인의 섹슈얼리티』(아나영)와 『한국 현대 여성수필문학 연구』(권대근) 등 두 권이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으로 통과되었다.

문의: 신라대학교 여성학과 051)309-5209, 309-5082(T)/ 051)309-5083(F)

홈페이지: <http://www.silla.ac.kr>

E-mail: graoff@lotus.silla.ac.kr

여성문제연구소: 051)309-5397

E-mail: wornoff@lotus.silla.ac.kr

● 이화여대 여성학과

이화여대 여성학과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여성학을 제도교육 내에 정착시켰으며 1982년도에 석사과정이 창설된 이래 120여 명의 석사와 2명의 박사를 배출하였다.

입시요강

● 석사과정

1. 모집인원

약간명(97년 전기: 17명, 후기: 7명, 98년 전기: 12명)

2. 전형일시

1) 특별전형

- (1) 전형일정: 대학원 교학부(02)3277-2103~5)에 문의
- (2) 전형절차: 서류전형, 면접/구술
- (3) 제출서류: 대학원 입시요강에 따른다.

2) 일반전형

- (1) 전형일정: 대학원 교학부에 문의
- (2) 전형절차:

① 석사과정: 서류전형, 전공시험(전공/영어), 면접/구술

② 통합과정: 서류전형, 전공시험(전공/영어), 면접/구술

③ 연구생: 서류전형, 전공시험(전공/영어), 면접/구술

(3) 지원자격: 석사과정, 통합과정 및 연구생: 국내외의 4

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4) 제출서류: 대학원 입시요강에 따른다.

3. 전형방법

학부성적: 20%

필기시험 성적: 60%(전공영어 독해 30%, 전공(여성학) 논술 30%)

면접 및 서류전형: 20%

● 연구생 제도

석사과정 정규생과 동일한 전형방법과 절차에 의해 선발한다. 단 연구생은 별도의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연구생은 1년 기한으로 한 학기에 6학점까지 이수가능하며 석사과정 정규생과 동일하게 수강할 수 있으나 차후에 정규생으로 입학하는 경우에도 연구생으로 수강한 학점은 인정받지 못한다.

● 외국인 입학(정원외)

1. 지원자격: 외국 교육기관에서 16년 전과정(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을 모두 마친 자.

2. 전형방법: 서류전형

3. 지원서류: 입학원서, 지도교수 추천서, 연구계획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호적등본(한국인의 경우 한국 국적이 감소된 것), 졸업장 사실증명서, 시민권 사본, 외국인 등록표, 여권 사본, 유학비자(합격 후 20일 이내)

● 박사과정

1. 모집 인원: 약간명

2. 전형 일시

- 1) 원서교부 및 접수: 석사과정과 동일
- 2) 전형일: 석사과정과 동일
- 3) 전형절차: 필기시험(전공과목/ 관련과목/ 영어), 면접



- 4) 지원자격: 국내외의 정규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5) 제출서류: 대학원 입시요강에 따른다.

교수진 소개

이화여대 여성학과에는 총 5명의 교수가 있다. 이화 여성학과가 설립된 지 2년 후인 1984년 부임해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장필화 교수와 88년 부임한 조순경 교수, 92년 부임한 이재경 교수, 그리고 95년 부임한 김은실, 허라균 교수가 바로 그분들. 장필화 교수는 현재 아시아여성학센터 소장으로서 여성학이론, 성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사회문리와 성 등을 강의하고 있다. 조순경 교수는 여성노동 및 여성주의방법론 분야에서 강의를 해오면서 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동운동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 그리고 파견근로 등 여성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 연구해 왔다. 이재경 교수는 한국가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갖고, 결혼 및 권력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가족, 가부장제 등을 강의한다. 허라균 교수는 여성철학, 여성학이론, 여성주의안식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 '여성의 목소리'의 이론적 토대를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 김은실 교수는 성역할인류학, 여성과 문화이론, 성연구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성과 인권연구회를 조직하여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폭력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역량

여성학이론 | · I / 여성학방법론/ 여성학 연구방법/ 여성해방운동사/ 여성주의사상사/ 가족, 성, 일/ 한국여성사 | · II / 성역할의 사회화/ 여성과 문화이론/ 성역할인류학/ 여성문제연구 | · III / 한국여성운동연구 | · IV / 가족연구기초/ 가부장제연구/ 성연구/ 산업사회와 여성/ 여성, 성별, 성/ 질적방법론/ 양적방법론/ 여성과 사회정의/ 여성철학연구/ 여성정책연구/ 한국가족론/ 가족정치학/ 기술변화와 가족/ 성문화연구/ 사회문리와 성/ 여성주의윤리학/ 여성주의인식론/ 여성학특수과제/ 아시아여

성연구 등

졸업논문

박사학위논문

'생산중심적' 조직내의 성별관계: 공식부문 경력여성성을 중심으로(정영애, 1997)/ 생명여성주의의 존재론적 탐구: 반아불교의 노자의 '마음' 개념에 기초한 신인간형의 모색(김정희, 1998) 등 총 2편

석사학위논문

조선시대 유교적 여성관의 원리론적 고찰(한병숙, 1986)/ 노동자계급 여성의 여성해방의식 획득에 관한 연구(1990, 이숙진)/ 파임광고를 통해서 본 성문화 일고찰—푸코의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정경자, 1990)/ 가사노동을 둘러싼 부부갈등에 대한 연구(박연주, 1996)/ 교육현장에서 여학생의 성별화 과정—정체성 구성을 중심으로(강보길, 1997)/ 포르노 재현물에 대한 여성의 경험에 관한 연구(윤자영, 1998)/ 탈북아성의 정체성변화에 관한 연구(1999, 김정미) 등 140여 편.

졸업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 여성학과를 졸업한 140여 명의 여성학 전공자들은 교수(5), 교사(2), 대학강사(18), 기자 및 언론인(6), 연구원(18), 여성단체(11), 학업(국내, 국외 합계 29)을 비롯 작가, 방송인,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대 여성학과는 국내 여성학 학문의 발전에 공로를 톤 개척자인 만큼 각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운동가, 여성학자, 여성정책입안가 등 유명인사를 많이 배출하기도 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페미니스트로 자타가 공인하는 방승인 겸 여성운동가 오숙희씨, 그리고 '살의 여성학'의 필자이자 그를 패닉의 이적서 어머니로도 유명한 여성학자 박혜란씨,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화영에 소장 등이 모두 이 곳 출신이다.

역사과정 입학요강

* 원시시대 성별분업의 개념을 여성학적 시각에서 정리하고 설명하라.

* 생물학적 성차가 차별로 이어지는 기제를 설명하라.

* 여성고용불평등을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론하라.

* 여성학을 노동, 성, 가족 등으로 분리해 연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설명하라.

* 질라 아이젠슈타인의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반론하라.

내게 있어 여성학이란

내가 아는 이대 여성학과는 각자 자기가 신 자리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원과 관심 속에서, 결국은 홀로 페미니즘과 그리고 내 안의 가부장성과 만나고,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곳(이 말에 이대 여성학과가 무지 막지하게 개인주의적인 곳이라고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여성학과에 들어오기 전에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의 경계가 분명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고 말하기가 힘들어졌다는 한 친구의 이야기가 가슴팍에 내려쬄렸다. 나 역시 이 자리에 서 있다. 지난 2년간의 여성학과 생활은 기대와 좌절과 희망으로 들쭉날쭉했다.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것은 여성해방의 전사처럼 의기투합했던 내가 뱃속 깊이 가부장적인 사람임을 깨닫는 것이었다. 수업과 세미나를 하면서 접한 여성들의 통찰과 100년 전 이 땅의 젊은 여성들의 흔적을 보면서, 그 동안 알지 못했던 이 미지의 세계를 접하면서 느끼는 쾌락은 나의 모순적인 삶 앞에서 너무나 무력했다. 생각해 보면, 지난 2년은 이런 상황에 당황해 하면서 정신없이 보낸 것 같다. 나는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다른 친구들은 모두 자기 자리를 굳건히 잡고, 무언가 성취하는 듯이 보여서 많이 좌절하고, 질투했다.

바닥까지 내려가면 올라가는 것이 보이는 것일까, 내게도 변화가 일어났다. 얼마 전부터 뜻이 맞는 친구들과 사고를 치기(가부장적 시선에서 보면)로 했다.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파임이라는 주제로 인터넷 공간을 확보할 방법을 구상중이다. 즐겁다.

수료를 앞둔 지금에야 입학할 때 꿈꾸어온 무언가가 시작되는 느낌이 든다. 즐거운 마음으로 원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좀 더 강해진(?) 느낌, 이런 마음을 갖기까지 언젠가를 돌아온 것 같다(언제 흔들릴지 모르지만), 여성학과는 이 과정에서 내가 패미니즘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게 해준 곳이다.

문의: 여성학과 사무실 02)3277-2107

홈페이지: <http://ews.ewha.ac.kr>

E-mail: femipia@library.ewha.ac.kr

한양대 여성학과(협동과정)

한양대학교 행정 배움터에도 여성학을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1995년 10월 28일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1996년 3월 1일자로 서울에 있는 남녀공학 중에서는 처음으로 여성학 석사과정(학제간 협동과정)이 설립되었다. 다른 여성학과와 마찬가지로 한양대 여성학과 설립은 우리 사회 여성의 삶에 대한 관심과 성차별에 대한 대안적 방향이 무엇일지라는 고민과 발전적인 모색을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한양대 여성학과는 여성학의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을 담지하여 일반대학원내 협동과정으로 신설되게 되었는데 그 설립에 뜻을 모았던 교수들은 사회학과 심영희 교수, 가족주거학과 신경주·임정빈 교수, 경영학부 신호영 교수, 간호학과 유은광 교수, 행정학과 이기욱 교수, 교육공학과 허운나 교수, 영문학과 홍연수 교수이며 그 주된 학과는 사회학과로서 주임교수도 사회학과 심영희 교수가 담당하고 있다.

입시요강

여성문제와 여성학에 관심을 가지고 학문적으로 보다 심도있게 공부하려는 분이라면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우리 과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99년 봄에는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남학생이 입학해 더욱 활기 넘치게 하였다.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영어와 면접시험을 보아야 하는데 영어는 토목식의 문법문제와 영어로 된 짧은 문단을 독해하는 그리 힘들지 않은 시험이므로 여성학에 대한 의욕만 있다면 부담없이 도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교육목적

여성학이론/ 여성학방법론/ 가부장제연구/ 여성해방운동사/ 여성노동연구/ 성연구/ 여성정책론/ 여성과 문화/ 정보사회와 여성 등

우리 학과 어모게모

우리 과는 설립된 지 3년 반 정도 됐기에 모두가 과에 애착을 가지고, 공부뿐 아니라 서로의 생활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한국 대학 내에서 여성학과 여성운동이 넘쳐모두가 함께 하는 모습으로 되기를 바라면서 멋진 일거리를 함께 그려나가고 있다. 몇 명 안되는 구성원이지만 끈끈한 자매애로 뭉쳐서 우리의 삶과 우리 사회가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그 변화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우리 과는 3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했으며 따라서 3개의 멋진 논문들이 있다. 하나는 '결혼식 준비과정'을 통해 본 가부장적 담론에 대한 여성들의 순응과 저항(이유비)으로, 여성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결혼식 준비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담론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며 둘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의식변화과정에 관한 연구—여성주의 담론의 영향을 중심으로(황은진)으로 군위안부피해자 여성들이 그들의 삶을 지배해 온 가부장적 담론을 극복하고 삶에 대한 성찰성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을 드러내기 위한 연구이다. 마지막으로 '출산 후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관계지향성과 성찰성을 중심으로(이순혜)는 아이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정체성 변화에 주목하여 출산후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보고 있다. 3명의 졸업생들은 여성학에 대한 관심을 계속

연장하여 각각 여성학회 간사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연구자로 일하며 또한 영은 미국에서 공부중이다.

우리 학교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수업이 너무나 흥미롭고 즐겁다는 것. 그 원인은 젊고 유능한 강사선생님들에게 있다.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학식으로 수업을 이끄는 심영희 교수의 수업도 물론 알찼고 최선아론을 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강사선생님들의 수업은 언니처럼 편하게 수업을 이끌어주기 때문에 부담없이 내 의견을 펴면서 다양한 토론을 할 수가 있다. 수업은 '받는 것'이 아니라 '한다는 것'이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문의: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학과 02)2290-2222~7

홈페이지: <http://www.maidas.hanyang.ac.kr/kaws/>

효성가톨릭대 여성학과

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과정은 1990년 3월 신설되었다. 제1기 입학생 7명으로 시작되었던 효성가톨릭대 여성학과는 현재 4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역사과정 입학요강

1. 지원자격

- 1) 국내외 4년제대학 졸업(예정)자로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 2) 학부가 유사전공이 아니어도 자유로이



지원 가능
3) 여성학에 대한 열의가 있는 자
2. 지원서류
• 대학원본부 제출용
1)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통
2) 출신대학교의 졸업(예정)증명서 1통
3) 출신대학교의 성적증명서 1통
4) 추천서(입학원서 후면 이용)
5) 학사학위 등록증 사본 1통
• 여성학과 제출용
6) 필기시험 대체용 과제 '자신의 삶 읽기'
(1) 여성학을 하게 된 동기
(2) 내가 한 여성학관련 공부 및 활동경력
(3) 앞으로의 계획
3. 전형방법
1) 서류전형
2) 과제: 자신의 삶 읽기
3) 면접
각 지원자는 입학준비 기간에 담당교수와
의 면담을 통해 진공에 관한 계획 및 교과
과정에 관한 지도를 받는다.
4. 개설과목
여성학의 이론적인 문제/ 여성학개론/ 여성
학세미나/ 여성학방법론/ 성차별의 기원/
비교여성/ 여성학연구방법/ 포스트모더니
즘과 여성학/ 연구학점 I·II/ 한국여성사회
사/ 남북한의 여성/ 여성해방운동론/ 여성
과 가족제도론/ 여성과 종교/ 여성과 교육/
여성과 심리/ 여성과 문학/ 여성과 근로/ 여
성과 법/ 여성과 정치/ 성문화연구/ 가족상
업과 가족치료/ 여성과 대중문화이론
교수진
효성가톨릭대 여성학과에는 남인숙 교수와
김경화 교수가 있다. 남인숙 교수(053-
850-3341, E-Mail: isnahm@cuth.
cataegu.ac.kr)는 사회주의국가와 여성
전공으로 『남북한 여성 그들은 누구인가』
(1992), 『오늘도 나는 가솔을 꿈꾼다』
(1997) 등 다수의 논문과 저서가 있다. 주
요 관심연구분야는 북한여성, 사회주의국
가 여성, 비교여성, 여성과 정치 등이다.

김경화 교수(053-850-3342, E-Mail:
khkim@cuth.cataegu.ac.kr)는 여성사
회학 전공으로 『나찌즘과 페미니즘』
(1996), 『장애여성과 결혼』(1998) 등 다
수의 논문과 저서가 있다. 주요 관심연구부
야는 산업사회론, 가족제도론, 여성복지 등
이다.
5. 졸업논문
취업주부 가족의 성별 역할분담에 관한 연
구(송영숙, 1992), 한국어성 매매에 관한
연구(고정환, 1993), 페미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인식론적 접근—타자성을 중
심으로(박혜영, 1993), 한국의 노동시장
정책과 여성의 직업의식—대구지역 직업
훈련생을 중심으로(이현지, 1994), 학아
정책 형성과정에 나타난 여성 이데올로기
(유정은, 1995), 성평등적 관점에서 본 예
절교재 분석—부부관계를 중심으로(윤선
진, 1996), 동화를 통한 남녀아동의 성역
할 사회화에 관한 연구(유영란, 1997), 디
즈니 만화영화에 나타난 성과 사랑(이정아,
1998) 등 40여 편.
6. 우리 학과 어모써
효성가톨릭대 여성학과를 설명하는 적당한
말을 찾을 수는 없다. 나의 언어가 부족한
탓이기도 하고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며
혼재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과의 역사는
이 나라 여성학의 발자취를 구성하는 데 한
부분을 담당했다. 변방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 눈에 띄는 그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우
리 과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 과에는 다양한 소모임이 있다. 우리는
이 소모임을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다.
내용을 준비하고 일을 진행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노력하고, 또 참여하
는 이들의 광들 다시 내용에 반영하고 이러
한 과정은 다른 단체의 활동이나 여성운동
의 장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배움을

우리가 마련한 장에서 실천해 보는 것이다.
문의: 효성가톨릭대 여성학과 053)850-
3345
홈페이지: <http://www.cataegu.ac.kr/amare/graduate/womens>

● 입학안내 참고문헌 ●

숙대와 이대, 효성가톨릭대는 다음과
같은 참고문헌을 제시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대학에 문의해야
한다.
『여성의 연속』(존 스튜어트 밀, 이대
출판부)/『제2의 성』(시몬느 보부아
르, 을유문화사)/『여성의 신비』(베티
프리단, 평민사)/『가족, 사유재산, 국
가의 기원』(프리드리히 엥겔스, 아
침)/『여성과 생산양식』(앤서 하트삭,
한겨레)/『성의 변증법』(슬라미스 파
이어스톤, 풀빛)/『더이상 어머니는
없다』(아드리엔느 리치, 평민사)/『성
의 정치학』(케이트 밀레트, 현대사상
사)/『여성의 지위』(줄리엣 미셸, 을
유문화사)/『여성해방이론의 생전』
(H. Hartman, 을유문화사)/『여성학의
이론』(G. 볼스 & 클레인, 을유문화
사)/『가족은 반사회적인가?』(미셸
바렛 & 매리 매킨토시, 여성사)/『페
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소영·
정정호 공역, 한신문화사)/『페미니즘
사상』(로즈메리 톰, 한신문화사)/『여
성해방론과 인간본성』(앨리스 재거,
이론과 실천사)/『페미니즘의 시각에
서 본 가족』(메리 쇼온, 한울)/『여성
노동시장이론』(N. 소콜로프, 이대출
판부)/『제3세계 여성운동』(여성평우
회 편, 창작과비평사) 외 다수. □
※서강대와 연세대 여성학 협동과정 관련
정보는 다음호에 게재합니다.

여행 갑시다~

하늘은 높지 바람은 술술 불지 가만 있을 수 있나요?
그동안 이사하라 <안티미스쿠리아 페스티벌> 하라 잠시 접어두었던
독자여행을 다시 떠나볼까요?
1. 언제? 10월 2일~3일(토·일)
2. 어디로? 경주!
3. 어디에 몇 시까지 가면 되는데?
1) 서울: 아침 8시 40분까지 역삼역 4번출구 직전 150m 한빛은행 앞
2) 경주: 오후 3시까지 경주박물관 내의 성덕대왕신종 앞
4. 그나저나 화비는 얼마?
1) 서울에서 출발하는 어른 5만원, 10살 이하 어린이 4만원—술값은
따로 지참!(창고로 경주까지 기차삐딱한 쳐도 5만원은 족히 들지요.)
2) 경주에서 합류하실 분은 3만5천원.
5. 예상 행선지를 알려줄테? 고럼!
경주박물관, 안압지, 보문관광단지, 감은사지, 문무왕수종릉 등 신
라의 유물과 산, 바다, 보문관광단지까지 경주 관광의 정수를 보여
주지! 오는 길엔 유서 깊은 경주특산물 황남도사막지구~
• 구미가 당기는 어남소노는 추석 전까지 이프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 선착순 40명만 받겠습니다요, 서두르세요. (문의: 553-6715 우안녕)

해외여행도 가자~

10월 15일까지 해외여행 계획을 모집합니다. 선착순 20명.
작년부터 삼삼오오 사람만 모이면 "우리도 바깥세상 구경 좀 하자, 제
모용" 입을 모았지만 머무기만 했던 해외여행계를 이제는 더 머무
지 말고 한 번 저질러볼까요. 제주로는 청명한 여성공무원 최은복
씨에서 수고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참, 지난봄에 '이프는 사랑을 신
고'에서 그녀의 미모가 만천하에 공개되어 꽃남성들의 전화가 쇄도했
다는 풍문을 전해들었습니다(절무인감? 그러!). 계가 조직되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보든구나게 돌아볼지 여행계획하면서 수다 떠는 재미도
뽕뽕할 거 같아요. 1년 정도 한달에 5~6만원 수준으로 불입해서 바다
건너 세상에서 놀고 음식다요 판심 있으면 본 빨리 연락주세요. 여
사 부딪이 우안녕에게 물어주시고 불친절하게 답변해 드림요.

10호 이프모니터링모임에 꼭 오세요.

언제: 1999년 10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어디서: 이대 앞 케미니스트카페교과 02)364-5950

참가비: 10,000원
문의: 이프사무실 (557-7941)

안티미스쿠리아페스티벌 비디오테이프 구입하세요!

행사 준비과정, 합숙훈련, 그리고 행사 당일날의 전과정이 담겨 있습
니다. 대학 축제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구입가격: 10만원(파블렛 포함)
온라인 계좌번호: 한빛은행 148-196417-02-10(예금주: 권혁란)
문의: 557-7942(권혁란)

이프는 사랑을 신고

이필재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
이다라는 자세로 서예, 전각(篆刻)
한글 공부하는 학인(學
人)이요,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회상에 매
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더라는 신
념을 가진 총장(社長)이요,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
니라 같은 곳을 향해 바라보는 것이더라는 사랑
학(?)을 가지고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이성인 균형잡힌 인격으로
'사랑'이 되고 사회적으로 '인간'이 되고자 하는
3학년 6반 이필재는
건강(육체적·정신적), 책, 일,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더해지면 문명
이 주는 모든 괴로움 고통과 아픔도 견딜만 하다고 생각하는 동반자를
만나 2000년을 맞이하고 20년 후 자연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것은 모든 생활방식 가운데 가장 완전하고 자유로운 삶으로 완성해 가
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준급의 테니스 실력과 우리 문화에 대한 깊은 인식, 어느 자리에서건
사랑하지 않고 창(窓)—빈요, 판소리—도 뽕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 0671)626-5450(직장)/0671)631-0140(집)
주소: 전북 남원시 죽향동 233-1(590-060)



if에게



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먹고 자라는 이프!

재미있는 이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편지를 쓰니까 너무 즐겁네요. 이프를 읽었습니다. 예전엔 그냥 서점에서 장난감만 뒤적뒤적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 이프를 사서 봤습니다. 아니!!! 이런 책이... 저는 단숨에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있었고, 마음 아팠고... 특히 특집을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거 재미 있다는 말을 써도 되나 모르겠네? 심각한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저에게 '재밌다'라는 말에는 흥분, 재미, 기쁨, 감동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어서, 이프를 읽다가 불끈불끈 힘이 솟아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다음호도 봐야지... 아유네, 나무누리 김나무

올다가 웃다가...

어렵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축제 (오순애씨 글)를 신명나게 치러낸 것, 정말 대단합니다. 창원에서는 iTV 중계로 일부는 보았지만 후기를 읽으니 새삼 더욱 재미있었습니다. 50페이지에 '바산에서 상경한 한 독자분'의 이프를 밝혀주는 것이 그 분에 대한

답례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바산이 가까운 창원에 있어서인지, 그런 분은 한번 뵈고 싶군요. 바산의 명물 임해속PD 역시 대단히 감동적이어서, 경남여성회에 전화해서 한번 뵙자고 청했어요. 명굴명굴 구르며 웃다가 공선옥씨의 '바람부는 수수밭을 본 적이 있나'에서는 웃기도 하고, 아직 '의리가 비리를 만날 때, 까지만 읽고 한꺼번에 다 보기가 아까워서, 일단 참았습니다.

이명희, 천리안 a3557

앗! 이프에 오타가!

매체비평 과제로 이프 99년 봄호와 여름호를 보고 있습니다. 99년 여름호에 결정적인 오타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20페이지 목차에서 여름호임에도 불구하고 content 99 spring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봄호와 여름호 목차를 비교하면서 보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하찮은 것일지 모르지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대 오타를 발견한 저는 왜 이리 기분이 좋은지, 하하~ 이미 알고 계셨다면 죄송. 그럼 수고하세요.

부산대 신방과 4학년 이종욱

미술도 다뤄주세요

저는 미술을 하는 사람입니다. 미술이 현재 대중과 분리되어 있는 게 현실이긴 하지만, 리뷰란에 다른 매체는 소개되는데... 미술 분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미술 분야에도 페미니스트 그룹이 미약하나마 활동들을 펴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번 저희들의 활동내용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 박현주

더 구체적으로...

왜 월간지가 아니라 개간지로만 존재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남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산시 남구 용호3동 김효숙

들어~

왜 난 이제서야 이프를 알게 되었나? 괜히 억울해한다. 나도 페미니스트인가 보다. 내가 처음 페미니즘에 대한 눈을 뜬 건 김신영숙의 '나쁜 여자가 성공한다'를 보고 난 후였다. 뭔가 막혔던 것이 확 뚫린 것처럼 후련했다. 그리고 이프를 이제서야 보게 된 나는 내 속에서 끓고 있는 무언가가 있음을 느낀다.

김원도 춘천시 화계동 김영희

언젠가 페미니스트가 될 거야

이번호 기사들이 꼭지마다 너무 절실하게 다가온다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장을 생각하기를 기사들이 훌륭한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두리뭉실하게 걸려 있던 여성주의에 대한 생각이 구체적으로 제 의식 안에서 정립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비록 무늬만 페미니스트지만 언젠가는 행동하는 이프처럼 저도 변하는 날이 있을 걸 믿습니다. 지금 3년간의 이프 행보가 30년 뒤에도 여전히 달리는 마라톤의 출발점임을 알고 있거든요. 제 믿음의 거처에 있는 이프가 갈증나지 않기를 바라며... ps 너무 많이 알면 다윈다구요? 무슨 조직입니까? 실망제 시대에 이런 일이... 그래도 좋네

요, 수고하세요. 하지만 이름이 궁금하긴 하네요.

전북 진안군 진안읍 김영호

결혼이란...

결혼,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합니다. 저는 드레스에 신부화장하고 예식장이라는 이상한 이름의 공간에서 '결혼식'이라는 것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동거, 계약결혼 등 결혼의 형태에 관한 많은 역사적 정보와 대안... 그리고 전통혼례(사실은 조선의 결혼이지만... 국적불명의 '결혼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전통혼례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가부장제, 유교 전통으로의 복귀 아닐까요?). 수정결혼 등 결혼식의 형태와 대안 그리고 혼수, 예단 등의 자갈한 문제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생원2동 김민

모든 페미니스트 화이팅!

내가 이렇게도 좋아할 수 있는 잡지가 있다는 게 정말 즐거운 일이다. 남편을 만난 지 10년, 결혼한 지 7년, 결혼이란 걸 통해 이 땅에서 페미니스트가 되지 않는다면 이는 필시 이프를 만나지 못한 바보라. 알고 싶다. 호주제 폐지 등 평범한 페미니즘 마음을 지닌 사람이 페미니즘 운동에 작은 참여라도, 작은 의사표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든 페미니스트 화이팅!

김원도 원주시 단구동 오현경

이프를 좋아하는 이유

특히 이프라는 잡지가 좋은 이유는 글을 풀어가는 방법이 너무나 '도발적'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양면하지가 않더군요. 요즘 말로 '오버한다' 싶은 바로 그 점이 제가 이프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읽다보면 속이 시원해지거든요. 몇 년 묵은 제증이 풀리

는 기분인데... 아무래도 이거는 제가 억눌리면서 사는 게 있는 거 같고요. 아무튼 이프 읽다가 혼자서 깔깔거리고 나면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한바탕 그러고 나서 차분히 머릿속을 정리하죠. 지금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역시 정감은 표현으로 치장하기에는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프의 방식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수고해 주십시오. 독자로서 응원하겠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박준경

표지를 보고

이번호 이프 표지에는 여성누드사진이 나와 있다. 그것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프의 특징 중 하나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도록 하는 건데... 이런 사진은 좀 곤란하다. 전통적으로 남성의 누드는 강인한 힘이나 이성성을 표출할 때만 그려진다. 반대로 여성의 누드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러움, 관능성, 성모마리아, 요부 등을 느끼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여성의 육체를 물화시켜서, 보는 사람(남녀불문)으로 하여금 그림 속 육체를 대상화하도록 한다. 영화 속 누드를 보면 몸은 장면을 향해 있지만 시선은 비스듬히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보는 사람이 그닥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가법지만 섬세한 글, 도발적이고 읽기에 불편하지만 전통적인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글이 이프의 장점이었다. 기존 체제에 자꾸 질문을 던지고, 육체를 대상화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자신의 몸에 대해 호기심 없는 사람들을 깨우는 자리에 이프가 있는 것 아닐까요? 비록 자신의 몸을 보다가 팔이 부러지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현이 있더라도요.

김창석, 하이텔 anachy

조금만 더 쉬웠으면...

얼마 전 지난해 구입 때문에 이프에 전화를 걸었던 적이 있는데 왜 그리 가슴이 떨리는지... 이프는 저에게 왜 그렇게 마음을 흔들리게 했는지... 어린 시절 박사학위던 선생님이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던 어린 소녀 같았다고 해야 하나, 제가 처음 이프를 만났던 때도 이프를 내 손에 잡는 순간 어린 전율이 제 몸에 흘렀지요.

제가 이프에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이프를 만나면 가끔은 조금만 쉽게 좀 더 구체적인 표현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들이 남더라고요.

페미니즘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 권해주고 싶어도 내용을 조금 보면 아! 무슨 책이 그렇게 어렵나, 무슨 전문서적 읽는 기분이라는 등... 조금 더 쉽게 표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전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직장 다니는 여자들에게 도움될 만한 아니 앞으로 사회에 나가 싸워야 하는 저희에게 해줄 수 있는 좀 특별한 코너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리안 자유론자

이프에 독자님들의 더 많은 편지 보내주세요. 더 많은 충고 해주세요. 진지하게 읽고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왕이면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세요. 예를 들면 '맛있고 맛있는 어는 기사, 혹은 어는 구절, 단어가 어려웠다, 어는 사진이 마음에 안 든다, 어는 글의 이런 의견에 반대한다, 아니면 반대로 나는 이래서 찬성한다, 이런 부분이 좋다, 이런 걸 더 다뤄달라'...

이프 여간상 독자 여러분의 요구를 글자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잊지 않고 오래 묵혀 생각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고민할 겁니다. 그리고 모르는 단어, 용어가 있으면 편집부로 문의 주세요. 이프 지상에 답변해 드릴게요.

Behind if

이번에도 단행본과 마음이 겹쳐서 정신이 없었다. 날씨 탓인지 서로에게 짜증도 많이 내고 이래저래 힘들었던 여름이다. 반성!!... 가을엔 이프 식구 모두가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 멋진 사람이랑도 좋고, 빛고운 나뭇잎과 연애해도 좋고, 파란 하늘이나 서늘한 아침 바람과도... 그래서 다들 이른 천사가 돼버렸으면... (요즘 봄 분위기 잡는—통마주) 색마

이불을 끌어당기며 잠에서 깨어날 때 여름이란 놈이 내 이불을 뺏으며 총총히 떠나간다. 여름내 태양을 빨아들이던 머루도 장난기 가득한 검은 눈을 반짝인다. 이제 눅눅하던 여름은 정말로 끝났다. 끝났나? 조금씩 늙어가고 있는 나에게선 달콤한 포도주냄새 대신 시큼한 식초냄새가 나는 것 같다. 바야흐로 눅눅해진 영혼을 꺼내서 말려야 할 계절이 온 것이다. 몹시 예쁘기는 하지만 곰팡이 답답한 너에게 목욕기보다는 바람 부는 들뜬으로 나가야겠다.

(무슨 70년대 문예지 편집후기 쓴—통마주) 사람이나

가을호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건 사람이다. 보길도 민박집 아줌마(예쁘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사무리 못 알아들어서 정말 죄송했어요), 스포츠센터 사람들(멋진 은영언니, 사교성 만점인 은희언니), 저랑 인터뷰했던 좋은 분들(제 정체가 드러날까 봐 이름은 못 밝히 죄송), 멋진 가수 K양과 K군(아픈 몸에도 열심히 하는 당신들은 프로예요), S호텔 커피숍의 한 웨이터아저씨(친절미소가 정말 일품이더군요), S단체의 정부장(전화에 걸었다고 혼낸 거 개과천선하죠), 몇 년만에 소개팅한 남(너, 길가다 마주치면 죽는다!), 우연히 마주친 L 어학원 강사(누군지 모르지만 인연으로 다시 보면 정말 좋겠네요), 그 밖에 날 울고 웃게 했던 많은 사람들... 난 안 잊혀지는데 모두들 날 기억해요?

(남자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통마주) 락마

방안 온도가 꼭 3도 떨어졌다. 그 3도의 고마움이란! 올 여름엔 심으로 마나 조개나 잡으며 한세월 보내려고 했는데, 그 놈의 태풍 때문에 최악의 휴가를 보냈다. 자

백질을 하면서 그 무념의 순간이 좋아 '역시 수영을 시작하길 잘했어' 했는데 피부무드러기로 도중하차까지.

아— 그래도 이제 제법 바람도 불고, 후배 3인방이 자기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다. 일은 꼭 짜여진 회사의 규율 이상으로 요구하고, 월급은 적지만 여성운동의 자존심으로 바티자고!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는데 고맙게 잘 해나가고 있다.

이 지면을 통해 후배들에게 프로포즈한다. 영란아, 보미야, 언영아, 슬거하게 한 번 사귄다(술먹는 보미를 위해 밥도).

곰아기(혹이나 세균을 무시하려는 곰아한테 무뎌 이런 일이—통마주)

휴가 살아 엄마집에 갔다. 개가 새끼를 여덟 마리나 낳았다. 살이라도 하나 없이 바짝 마른 엄마가 옆에 살아 통통한 새끼들이 오글오글 모여 놓고 있었다. 암개 네 마리, 수컷 네 마리. 한 옆에 정수리를 물어뜯긴 다른 개 한 마리. 얻어온 개라 한다. 지 새끼나 예뻐하면 그만이지. 남의 새끼라고 죽을 만큼 물어놓은 새끼 낳은 엄마개의 그 눈먼 모정에 알수 없는 본능이 치밀어 꿈꾸는 새끼를 얻어 온 개 앞에 부여주었다. 옆을 보니 바짝 마르고 허리가 굽어진 엄마가 서 있다. 애를 여섯이나 낳고 아직도 그들 때문에 애면글면하는 늙은 엄마. 그 풍경 속에 놀란 일이 아직도 많고, 화날 일이 아직도 많아서 어이없는 얼굴로 내가 서 있다...

(한 청승, 왕 김성 하는 그라나닐리리가 되고 싶은—통마주) 날마

죽 죽을 맞이했다. 건강이 안 좋아져서(아무도 안 믿는다. 내 몸을 보고...), 어디 나무 많은 곳에 가서 딱딱 2달만 죽은 듯이 잠만 자다(잠자는 숲속의 공주!)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세상은 좁은데 할 일은 허벌나게(갈마가 즐겨 쓰는 말) 많다. 근대 한두 편씩 들어오는 필자들의 원고... 나보다 더 고민하고, 나보다 더 욕심내서 쓴 듯한 좋은 원고들. 게다가 이프보다 훨씬 수준높은(그리고 교양까지 갖춘) 독자들의 예경어린 충고를 만나면서 삶의 에너지를 충전받고 있다. 심지어는 초인적으로 취재에 임하는 사진기자와 객원기자들, 그리고 편히 잡자기 정신차려서 일을 잘하고 있는 '이상한' 이프 20대들까지 나에게 열심히 뽕주사를 맞히고 있다. 속상하다. 씨, 나는 연락하면 좀 안되나...

(너무 예쁜) 통마

페미니스트저널 if를 볼 수 있는 곳

웃고, 놀고, 뒤집으며 신나게 사는 여자들의 이야기 페미니스트저널 이프를 많은 분들이 읽고 토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페, 병원, 미술실 등 많은 분들이 이프를 읽을 수 있는 곳으로 비치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이프를 구하기 어렵다고들 하시니까 더 많이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문의: 02)553-6715 우안녕).

페미니스트저널 if
02)364-5950
신촌기차역에서 아대쪽으로 100m
백조수신공목

홍명현아현
02)577-0601
호주제 파자를 위한 서점도 할 수 있습니다

남강현아현

02)716-0235

문화공간 인문레일

대포점 02)763-9111

신촌점 02)392-6069

김정자 산부인과

02)415-7718

철학아담 스타나루

02)720-1991

안국역 1번출구 참아연대건물 2층

Wedding 가인들

02)333-7090

안양 나무전망대

0343)469-9496

안양1번가아카데미강원 에스비 지하

인천 Deja-vu 카페

032)866-9676

안화대후문 안화인강 옆 지하

강릉 일리점카페

0391)645-6811

오죽헌저수지 옆 통나무집

구미 헤이스트미술실

0546) 456-4506

외환은행 옆 고려빌 3층

익산 어머니카페

0653)831-5847

부송주공1차아파트와 화물타미널

사이 산업도로변

if 경남·마산지사 설립하다

경남여성회는 1987년 지역여성들이 뜻을 모아 지방에서는 최초로 창립한 민간여성운동단체다. 서울에 본부를 두지 않고 자생적으로 발생한 단체이며,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여성단체연합에 가입하여 연대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여성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창립 이후 13년간 등우리공부방(변민지역아동 방과후 생활지도) 설립, 성·가족상담소 설립(1992~현재), 여성신문 마산지사(1992~현재) 운영, 지역의 사회교육센터 및 도서관, 청소년공부방 운영(1997~현재), 무료법률상담(1998~현재) 등의 사업이 그것.

그리고 올해 8월 페미니스트저널 if경남지사가 됨으로써 위와 같은 단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또 하나의 통로를 갖게 된 셈이다. if와 함께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시각을 보급하여 여성의 자주화, 민주화, 주류화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생각이다.

이 일을 시도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임해숙 회장의 독특한 운동방식이 한 몫을 했다. 임회장은 앞으로도 좀더 다양하고 진취적인 방식, 특히 재미를 줄 수 있는 운동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

에서 볼 때 if가 표방하고 있는 '웃자, 놀자, 뒤집자'라는 운동방식은 감각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다.

앞으로도 경남여성회는 자급력을 확보하여 경남지역에서 더욱 활기차고 역동적인 여성운동 계열로서 그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문의: 경남여성회 사무국장 김희경 0551)282-9603)

이프 과월호 대 할인판매~

경소 이프에서는 과월호를 정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익달이라고들 하시지만서두... 우리는 소신있는 여자거든요.

헐리도 꽤 한 방울 안 나온 인간이라구요?

우리도 따뜻한 밥 먹고 사는 인간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번엔 특별히 할인가간을 정했습니다. 소장하거나 선물하시면 아주 좋겠죠.

행사기간: 10월 1일 ~ 30일

발송: 10월 14일, 11월 4일

내용: 장간호~통권 7호(97, 98년 발간본)를 묶어 50일 한정 선착순 판매

판매가: 30,000원

입금방법: 온라인 입금(계좌번호는 뒤의 엽서 참조)

행사기간이 끝난 후에는 종전과 같이 정가로 판매합니다.

(문의: 02)553-6715 우안녕)

만화를 기다립니다

이프가 여성만화작가들의 만화 투고를 기다립니다. 재력권 분의 작품은 이프에 게재하고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의욕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미스코리아 대회를 풍파하라』 독서감상문을 보내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3등으로 입상하신 분들입니다. 이프 1년 정기구독권을 드려드리겠습니다. 진화주세요.

대구시 달서구 송현1동 798-236번지 이호인
서울시 서대문구 미군동 82-3호 김경민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196-6 정아진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1617-31번지 102호 배정운

고맙습니다^^

이프 99년 여름호 「어머니들이 만든 세상」 중에 「37일만의 신비」(p.227)을 써주신 분의 이름이 빠졌으므로 밝힙니다. 박수미씨로 26세이며 현재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대학원에서 'open media'를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신청방법

- 전화나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전화553-6715/6, 팩스565-9059).
- 책 속의 엽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정기구독요금

- 국내정기구독: 1년 34,000원

정기구독 혜택

- 본사에서 발간하는 단행본을 구입하실 때 할인혜택이 있으며, 본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회원특전이 있습니다.
- 구독기간중 책값이 인상되더라도 추가부담이 없으며 우송료는 본사가 부담합니다.

배달사고·주소변경

- 미착, 분실, 반송 등 배달사고로 책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본사로 연락해 주십시오.
- 배달사고 및 주소변경에 관한 문의번호는 553-6715입니다.

구독료 내시는 법

- 지로번호와 온라인번호가 대폭 변경되었으니 유의해 주십시오.
- 구독신청자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고, 입금 후 반드시 본사로 전화해 주십시오.
- 지로영수증에 신청자 성명을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 서점에서 구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로 직접 연락주십시오.
- if 지난호는 페미니스트까페 고마(364-5950)나 본사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 지로번호: 5104723
- 온라인 입금: 예금주 (주)도서출판이프
- 외환 057-13-42924-6 / 조흥 592-01-002980 / 국민 349-01-0056-563
- 신한 295-05-019766 / 제일 438-20-253045 / 한빛 148-203097-13-101
- 농협 096-17-009311

IF를 만든사람들

- 발행 (주)도서출판 이프
- 발행인 김민숙 • 매니징디렉터 박혜숙 • 편집장 박미라 • 아트디렉터 제미란 • 디자이너 김명진 • 포토디렉터 김민숙
- 편집위원 김세중 김숙진 김신명숙 김재희 김혜경 류숙렬 손자희 오한숙희 유채지나 이혜경 • 사진기자 엄윤순 조여권
- 기자 권혁란 김보미 • 객원기자 이숙인 황금희 • 광고기획부 정유미 윤숙경 김영란 • 정기구독·교열 우안녕
- 주문전화 557-7942(김영란) • 디자인 광일문화사 박선미 김미연 권순나 • 인쇄소 고려서적
- 등록번호: 바-02699
-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5-18 동복빌딩 2층 페미니스트저널 이프(135-080)
- 전화: 553-6715~6 • 팩스: 565-9059 • 하이텔 ID: ifopia • 천리안, 나우누리 ID: feminif
- 하이텔에서도 if를 보실 수 있습니다(go feif).

문화상품권 선물이 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 첫째** 도서·음반 구입에서 영화·공연·스포츠까지 즐기는 만능 문화 화폐니까.
- 둘째** 특별한 날 모두를 만족시키는 품격있는 문화선물이니까.
- 셋째** 최고의 선물효과에 구입에서 사용까지 쉽고 편리하니까.



10,000원권도 있습니다



사 용 처

- 전국 3,000개 서점 ■ 영화관, 연극·공연장
- 음반점 ■ 비디오샵 ■ 전시 및 놀이공원
- 프로야구·농구 관람 등 전국 12,000여 가맹점

구 입 처

- 전국 서점 ■ 전국 우체국
- 기업은행 ■ 주요 음반점
- 편의점

사 용 용 도

- 기업체 관측용 ■ 사은품/시상용품
- 복리후생용 ■ 개인의 뜻깊은 선물
- 연말연시 및 명절선물